[세번째 3 설교집]

새 계명의 사랑

임 동 선

쿰란출판사

목회자의 직분은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양떼를 먹이며 인도하여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런 직분을 실천 신학에서는 설교와 교육 그리고 행정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양을 먹이는 일', 즉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양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선하여 목사는 권위 있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약성경의 근본 정신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톨릭교회는 성례전을 절대시하여 미사로서의 예배가 주류를 이루어 심미적 의식에 호소하게 되었고, 개신교회에서는 말씀을 절대시하는 설교로서의 예배가 주류를 이루어 지성에 호소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설교는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예배의 측면에서 볼 때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있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남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측면에서도 설교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교회 중 크게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보면 그 배후에는 영력 있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가 교회 성장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임동선 목사님이 지난날 여러 곳에서 선포하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한곳에 모아 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임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낳은 영력 있는 전도자요, 깊은 체험과 지성을 갖춘 희생적인 목회자이며 설교자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담은 이 설교집이 읽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믿어 기쁨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1999년 11월 1일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정 진 경

임동선 목사님을 처음으로 뵈온 때를 1965년 초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에서였습니다. 사병으로서 신병교육을 담당하던 어느 토요일, 종교 집회에 병력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신자 훈련병들을 인솔하여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이 강사였고 그분의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설교가 보통 박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소 야외 극장이라 웬만한 설교로는 장병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었는데 임 목사님의 설교는 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삼십 년이 더 지난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목사님을 미국에서 뵙게 되었고 그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녹음기가 발명되어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은 사뭇 큰 축복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땀 흘리며 목회하는 동안 목사님의 설교는 늘 살아 있는 교과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하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신학 교육에 헌신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셨던 설교들을 모아 출판

하게 되는 때에 부족한 종이 그 원고를 교정하는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의 설교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 4 : 12 ; 벧전 1 : 23)을 풀어 놓은 '살아 있는 설교' 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전달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희망과 위로와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신학적 기초가 튼튼하며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임동선 목사님은 이성봉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으셨고 그분을 늘 흠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설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는 글이 좋고, 글보다는 생활이 좋고, 생활보다는 인격이 더 좋더라."는 말은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임 목사님도 즐겨 인용하시곤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도 "임 목사님의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참으로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생활로 하시는 설교가 더 좋다. 그러나 생활 설교보다는 인격으로 하는 설교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동선 목사님의 설교는 해외 한인교회에서는 물론 한국 교회 설교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목회 현장에서 외쳐진 설교는 해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룩하게 된 "검증받은 설교"라

는 점에서 그렇고, 성경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적중하는 설교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오래도록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마 13 : 33)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실로 그분의 설교는 폭발하는 힘이 실린 설교이기에 우리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생활 설교이기에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인격 설교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기에 넉넉합니다.

1999년 11월 1일
유니온성결교회 담임목사
이 정 근

이민 목회 22년을 무사히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과 동역자, 당회원, 제직,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집은 본인이 한국 교회도 아니고, 미국 교회도 아닌, 제3의 이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것 중에서 우선 그 일부를 추려서 편집한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40장 1절의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새 나라, 새 땅,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속의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는 이민의 백성들에게 신학적, 교리적 설교보다는 가정, 자녀 교육, 위로, 희망, 격려, 용기, 확신, 적응, 화합, 교육, 선교, 봉사 등의 교훈적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민 교회의 10대 기본 업무인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 상담, 봉사, 친교, 심방, 행정 등을 충실히 수행코자 함과 동시에 각처 부흥 집회로 동분서주하다 보니 설교의 내용이 빈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그대로를 출간하면서 다만 이 설교집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소의 은혜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더할 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 주신 동양선교교회, 정문섭

장로님, 최선호 목사님, 김경숙 사모님과 쿰란출판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11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목사 **임 동 선**

성령충만한 생활

성경을 배우라

심는 대로 거둔다

선택의 중요성

선교하는 교회

전도합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 : 15~16).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는 믿기 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일,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생활, 기쁨으로 봉사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말조심을 하려고 하고, 행동에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 노력하고, 혹은 십일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는 등, 예수님을 믿은 후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활의 변화

가 이루어지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 : 1)는 말씀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백성에게 전파하니"(행 8 : 4~5)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사방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물론 집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보려고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기록된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값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곱 살 때 고향의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바로 제 앞에 앉은 여자아이가 '정글음' 이라는 감리교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에는 우리 넷째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전해 주신 분은 넷째 형수님인 함정희 전도사님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저에게 떨어져 북한 유치장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믿고 천국 시민이 된 줄 압니다. 찬송가 340장에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찬송합니다.

찌는 듯한 더운 사막을 걸어갑니다. 목이 탑니다. 그런데 저 앞

에 보니 우거진 수풀이 있습니다. 달려가서 보니 여러 종려나무가 섰는데 그 밑에 샘이 졸졸 흐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느라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리들 오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해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자기 혼자 실컷 먹고 쳐다보면서 "불쌍한 족속들아. 눈을 뜨고도 이것을 못 보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10월도 다되어 가는데 금년에 얼마나 전도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 : 14)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전도입니다.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지 아니하면 쇠잔합니다. 숯불은 불이 붙을 때만 숯불이라고 말하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만이 교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전도해야 하는 이유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살전 2 : 4).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가 낳아서 먹여 기르고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을 때의 기쁨, 탕자가 돌아올 때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상징적으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2)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유대 땅 사방을 다니시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양 발의 못자국을 보아라." 하시며 40일간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신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거기 있던 모든 신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최후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유언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열두 아들을 모아 놓고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 시체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우리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창 49 : 29)고 유언했습니다.

철의 재상이라는 윈스턴 처칠은 '빅토리' 라는 표시로 손가락 두 개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장군이나 나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지에 관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위대한 인물임에도, 세상

을 떠날 때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내 고향에 묻어달라."고 해서 런던 남쪽에 있는 자기 고향에 묻혀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3) 바울의 강권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 : 5).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최후로 부탁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당시 대학원을 나온 박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 신앙을 가진 바리새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것만이 가장 값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의 교훈만이 영원불변의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4) 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 : 16).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왕하 7 : 9~10).

유대에서는 문둥병자가 되면 성에서 쫓겨납니다. 전염이 될까봐 공민권을 빼앗습니다. 이 문둥병자 네 명도 그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첩첩으로 둘러쌌습니다. 모든 보급로가 끊어졌습니다. 따라서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우물의 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전부 굶어죽어야 할 상황이었기에,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기아에 시달리면 아이들도 짐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성문 바깥에 있던 문둥병자들은 굶어서 죽으나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진영에 갔더니 간밤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군대 소리, 말 소리, 창검의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모든 것을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실컷 먹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가만 있으면 안 되지. 날이 밝아 모든 사람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벌을 받겠느냐? 가서 왕궁에 고하자." 하고 성에 가서 성 문지기에게 그 사실을 말했더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이 구원받았고, 생활이 구원받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신령한 양식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면하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5)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전도한 사람들은 그날에 우리를 알아보시지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외면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 : 26).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 : 33).

폴리갑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앙이 훌륭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볼 때는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작을 쌓고, 십자가를 복판에 묻어서 폴리갑 감독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기 전에 불지르는 형리가 "영감, 예수만 안 믿으면 죽이지도 않고 관직 하나 준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가요?"라고 말했습니다. 폴리갑은 "내가 86년 사는 동안 주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이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에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형리가 "영감, 불을 지르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하고 말하자 "자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나?" 하며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갖게 된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폴리갑은 지금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과 같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C에서 나오는 4영리라든지 또 네비게이토에서 나오는 전도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나는 전도 방법이야말로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을 겨냥하고 구멍을 뚫어 들것을 내려 달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려 주셨습니다. 이 네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랑의 활동의 신앙입니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안되었다'는 그런 마음만 갖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들것에 태우고 구멍을 뚫고 달아내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

제가 1952년 한국전쟁 때 동래온천에 가서 교회 목회를 할 때 연세가 90세 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구 제일장로교회를 설립한 장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딸이 있었고, 아들은 유일하게 장만옥 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일본에 유학 가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동을 잘했습니다. 럭비, 축구를 잘하니 해방 후에 와서 열관리 협회 회장을 하면서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서 럭비 코치 교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주일이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제가 심방을 가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삼복 더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트럭에 관을 싣고 대구 본집으로 가는데 포장이 안 된 길이었습니다. 제가 관 옆에 앉아서 먼 길을 갔습니다. 갔다가 그 이튿날 가족 선산에 가서 장례를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또 자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장만옥 씨가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일하였기에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떠나는 트럭만 쳐다보고 안녕히 가라고 했더라면 그분이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2) 협력의 신앙입니다.

네 사람의 몸은 각각인데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고락을 같이하라." "서로 잘난체 하지 마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짐을 져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좋은 것 하나를 보았는데 젊은 남자들이 그릇을 닦아주고, 쓰레기통도 내놓고, 청소도 도와 주면서 아내를 도와 줍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아들네, 딸네 집에 왔다가 사위가 부엌 일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는 "내 딸 시집 잘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내 새끼 버렸

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도 여럿이 가서 무엇을 사 주면서 좋은 곳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3) 열성적 신앙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기다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연장을 가지고 뚫어서 내린 것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입니까? 열심의 지렛대가 우주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집에서 밥을 해주는 가정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부자이니 거기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서 돌아온다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의 아들은 돈이 없으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친구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 돌아온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그 친구를 마중 나갔습니다. 기다렸다가 배에서 내려오는 그 친구에게 반갑다고 손을 내미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악수를 하는데 자기와는 악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은 섭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병든 사람이나 문둥병자까지도 악수했는데,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잘 대해주지 않을까. 나는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저 친구를 꼭 전도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에 가서 기도한 후 새벽 여섯시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다. 예수 믿어라!"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 믿어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신경질이 나서 피해야겠다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아침에 같은 시간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다." "왜 왔니?" "예수님 믿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루만 가주마." 해서 가던 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학자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시아의 성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4) 희생적인 신앙입니다.

이들은 육체적 희생을 했고, 정신적 희생과 물질적 희생과 시간적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가는 것도 휘발유가 타 없어지니 차가 가는 것입니다. 촛불도 그것이 닳아 없어지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깊은 바다로 낚시를 하러 한번 가 보았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중국 식당에 가면 마지막 식후에 나오는 생선이 있지요? 그것 잡으러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잡지요?" "따라 오십시오."

12시에 옥스나드에 가서 배를 타는데 뱃삯이 한 사람에 50달러씩이라고 했습니다. 4시간을 배 타고 바다로 나가니 선장이 밑을

보고 "여기 고기가 많으니 여기서 낚시를 하십시오." 하며 엔진을 껐습니다. 낚시바늘이 어떤 것은 5개, 7개도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멸치를 달았는데 찌가 움직여서 300미터를 올리려니 힘이 들었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막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이 부르트고 팔다리가 쑤셔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면 안 갔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 잡는 데도 시간, 물질, 육체, 정신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하나 건지는 데에 희생 없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전도를 '해산하는 수고'로 비유했습니다. 아이 하나 낳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아기 하나 낳는 데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하나 건지는 일을 노력과 희생 없이는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5) 전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지붕 꼭대기에서 네 사람이 줄을 놓아 버립니다. 그러니 들것과 사람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상을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 반신불수인 사람을 보고 병을 고쳐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왕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 : 6~8).

제가 처음 나간 교회는 인천 송현교회입니다. 지금 계시는 장자천 목사님은 외아들입니다. 이분이 서울 시청 뒤에 중앙성결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담임목사님은 황성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딸만 넷을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모든 부모들이 그 목사에게 주례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목사가 되어서 주례도 못합니다.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성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날 저녁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들을 못 낳아서 주례를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복이라고 이름도 지어 놓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비가 안 와서 굶게 되었습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내외가 울릉도 높은 산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비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하기에, "왜?" 하고 물으니, "우산을 가져올게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 이 맑은 날에 무엇하러 우산을 가지러 가?"라고 하니, "아버지!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비 올 거예요."라며 우산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어

머니는 아들만 못 합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을 할 것을 믿습니다.

셋째, 전도의 결과입니다

(1)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나를 좇으라"(마 9 : 9)고 하시니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천국의 헌장인 산상수훈을 기록했습니다(5, 6, 7장). 마태복음은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주의를 여기서 찾아낸 것입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의 로마인들의 관리이기 때문에 민족반역자, 매국노, 개로 간주해 재판정에 가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원에 있는 극동방송 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을 아십니까? 김장환 목사님은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분은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서울의 극동방송 본사를 비롯하여 제주도, 창원, 대전,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열아홉 살 때 사우스캐롤라이나 밥존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때 김동명 목사님의 "너 예수 믿어. 그래야 네가 앞으로 성공해." 라는 말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뒤 대학 나오고,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믿으면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2)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행 16 : 33~34).

함정희 전도사님의 남편인 제 형님은 신학교를 나온 후 전도사로 강릉에 갔다가 나이 30세로 한국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이 두 분으로 인해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군에서는 이름난 한학자입니다. 글씨도 써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후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일 큰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안양에서 장로입니다. 그 부인이 권사고, 포틀랜드에 가 있는 임성진 목사가 아들입니다. 둘째 형님의 딸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셋째 형님네 가족도 다 청주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큰누님의 경우는 김진광 목사가 다섯째 아들이고 사위 둘이 목사입니다. 중국에 있는 누이 동생네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집이 모두 예수 믿습니다. 목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니 예수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3)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죄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완전히 파멸된다."라고 전했더니 임금과 백성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면서 짐승들까지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

리지 아니하시니라"(욘 3 : 10)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40일 후면 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전하니 백성들과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다 거둬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간에 회개하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면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금식도 안 합니다.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전도하느라고 세계를 몇 바퀴 돌아다녔습니다. 독일은 야만족이고, 노르웨이는 해적이고, 스웨덴은 산적이고, 영국은 해적이고, 호주는 영국의 사형수들을 풀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전부 일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넷째,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1) 구원의 완성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 : 10).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면 구원의 완성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쪽 강도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네가 죄를 짓고 이런 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은 까닭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

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3 : 39~43).

이 말씀을 보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여러 사람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세도 믿었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갔는데, 그 강도는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든지 물 위로 걸어갈 때가 아니고 똑같이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2) 천국 잔치에 참예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1).

주인은 멀리 가면서 돈을 다섯 냥, 두 냥, 한 냥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냥 받은 종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녹슨 돈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땅에 파묻어 본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그런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 이자라도 가져오지."

주인은 그 돈을 빼앗아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문 밖에 던져져 슬피 이를 갈고 울었습니다. 배를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들어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라."고 했습니다. 배로 전도한 사람을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첫 마디로 묻는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직분을 받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세상에 살면서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하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늘나라 잔치에 참예하는 일입니다. 천국은 돈, 명함, 학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전도 잔치에 참예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매일의 잔치입니다.

(3) 천국 잔치 때에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 : 3).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 장군, 영웅호걸, 위인, 미인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바울, 루터, 웨슬레, 무디, 이성봉, 빌리 그레이엄 등 이분들의 이름은 오래오래 지금도 빛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민생활에 열심히 벌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놓지만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멀지않아 그것은 이슬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 잔치 때에 영원히 빛나는 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 : 1~3).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유대 땅 밖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인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금식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로 선교사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 내보낸, 선교의 첫 장을 연 교회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10대 기본 업무가 있습니다.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 상담, 친교, 봉사, 행정, 심방입니다. 이 열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귀한 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속세에 들어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준비하신 후 공생애의 첫번째 작업은 열두 사람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시켜 선교하러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사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로 부탁하신 것은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선교를 위해서 보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선교를 위해서 세웠으며, 우리들을 먼저 부른 것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첫번째 의무는 선교입니다.

첫째, 선교의 뜻입니다

'선교' 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여섯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쁜 소식' '보냄을 받은 자' '선포' '가르침' '증인' '제자' 입니다. 즉 선교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살전 2 : 4).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합

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하는데,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 목자가 기뻐하는 것, 잃은 은전 하나를 다시 찾았을 때 여인이 기뻐하는 것,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 사랑하는 자식이 어떤 나쁜 사람에게 납치당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탕자를 다시 찾는 것, 즉 전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젊은 전도사 한 분이 호텔에서 교회로 오고 가는 길을 차로 태워다 주면서 나를 보고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제가 김희택 목사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희택 목사님은 제 신학교의 대선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너무 가난하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수에서 개척을 할 때 양식이 없어서 며칠 굶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러나 우리 어머니는 현명한 까닭에 가마솥에 냉수를 붓고 불을 때서 굴뚝에서 연기를 냄으로써 목사의 집이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전도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은 아버지의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여 공부했지만, 목사가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제 차였고, 시간이 있고, 돈벌이도 괜찮았습니다. 그 일을 7년 반이나 했습니다. 돈이 모아졌습니다.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 잘 먹이고, 교회를 돕고, 가난한 사람과 목사를 돕겠다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60세가 되셔서 미국으로 초청해서 관광을 시켜드렸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가 별로 말씀이 없으시더니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시다가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맞아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져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목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 그가 안수받고 롱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는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을 실행했습니다.

(3) 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전 9 : 16).

로마서 6, 7장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분쟁

의 인간이 평화의 인간이 되고, 노예의 인간이 자유의 인간이 되고, 고통의 인간이 기쁨의 인간이 되고, 멸망의 인간이 영생의 인간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또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만 다녔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귀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고, 이것이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4) 장차 주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 : 33).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장차 죽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들어온 지가 100년 조금 넘었고, 천주교는 200년 역사를 가졌습니다. 구한말 대원군 시절, 천주교인들을 핍박할 때 모래사장에 믿는 사람들을 꿇어 앉혀놓고 형리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큰 칼을 가진 사람이 목을 잘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형리가 다시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안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했

습니다. 그런데 옆에 칼을 가진 사람이 칼을 내던지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여 형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 칼을 가진 망나니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몇 사람 목을 잘랐더니 자를 때마다 천사가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있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않으면 주 앞에 갔을 때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5)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적, 상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 4 : 1).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이웃집에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가난해서 중학교, 대학교를 못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학비를 대주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대학을 나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와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도왔더니 저렇게 훌륭한 인물 되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무척 기쁩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사관학교에 장영출이라는 생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아주 잘 따라다녔는데, 사실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든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장교가 되었는데 시간이 있어 부흥회에 가면 같이 자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습니다. 그후 그가 신학을 하게 되어 진학할 신학교를 결정할 때 저에게 의논하기에 어느 신학교에 가라고 권했고, 그는 그곳을 지원해 들어갔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제 이름과 똑같이 '장동선' 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한국에서 많은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있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을 때 기쁩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선교의 결과입니다

(1)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관리로서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무역 도시로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며, 부요하여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되었으나 마음속에는 늘 불안, 초조,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개, 도둑놈이라고 해서 그들의 일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 사람들도 많았고, 키도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가서 보다가는 뒷발로 차여 맞아 죽을까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님 내가 남에게 도둑질한 것을 다 갚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며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눅 19 : 1~10). 회개라는 것은 깨달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갚아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 하나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눅 23 : 41)라고 전도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처럼 복음은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49년 충청북도 수산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가자마자 여러 성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큰 공책이나 종이를 준비해서 저녁 시간, 새벽 시간, 낮 시

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거든 하나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 후 불태워 버리자고 했습니다. 토요일 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여 모두 구르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40에 가까운 중년 한 분이 나오더니 두루마리로 감긴 것을 펴면서 울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에 제천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기간 중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기도를 참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마치자 기도하신 그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산교회에서 회개한 김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되어 모범적인 믿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지교회도 세웠다고 합니다. 복음은 개인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2)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 : 34).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있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자살을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

습니다(행 16 : 26~34).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돈으로 여자를 삽니다. 부자는 많은 아내를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회교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가 거기서 나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는 부인을 60명 두어 아기를 낳았는데 20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교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갔더니 그 사람 못지않은 부자인데 이 집에는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딸 하나, 사위 하나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 그 아버지는 장로이고, 어머니는 권사이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집사들이랍니다. 이것을 볼 때 아프리카의 같은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현저히 다른 것을 보니, 복음이 가정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케냐는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그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들, 딸들 가운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튀빙겐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 소르본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도 건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성공시킵니다.

(3) 민족과 국가가 삽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 즉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짐승들도 먹이지 않으며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욘 3 : 5~10). 이렇듯 복음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제가 제3국,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다녀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를 보면 대개 공통점이 미신, 무지, 문맹, 빈곤, 독재, 좌경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 해소됩니다. 그 민족이 삽니다. 독일은 야만족인 게르만족이었고, 스웨덴은 산적이었으며, 노르웨이와 영국은 해적이었고, 호주는 영국이 무서운 사형수를 풀어놓은 나라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일등 국가가 된 것을 보니 이 복음이 민족과 국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넷째, '오라' '가라' '전하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 16 : 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 : 19),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1) 오라

지금 제3세계에서는 백인 선교사는 거부하고, 한국 사람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인종적, 국가적 우월감, 의식주의 격차, 타의든 자의든 식민지 정책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백인에게 고문받은 사람들도 있고, 백인들은 많이 착취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비슷해서 좋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예의범절이 바

르고, 의식주가 비슷하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이해하며, 또 역경을 통해 육체와 정신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고난도 잘 극복하고,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시카고 휘트니 대학의 선교대회에 해마다 참석합니다. 그때 제3국의 나라들인 러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온 목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40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16억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오라는 곳을 열심히 찾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가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 : 19)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건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갔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살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했습니다.

지금도 이 러시아에 백인들이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수, 영어 선생, 기술자 등의 이름으로 3,000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 주변의 독립 국가에 약 400명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30개 나라에 6,000명 남녀들이 실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어제 에바다 선교회에 가서 우간다로 가는 선교사님의 환송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 지구촌에는 지금 백인 선교사, 한국 선교사,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 10만 명이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편안히 있지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3)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너는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일 못했으니 너는 거기 가는 것이 마땅하고,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부자는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나는 안 믿다가 여기 왔지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여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 전할지라도 안 듣는다."라고 했습니다(눅 16 : 19~31).

이처럼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다섯째, 선교 방법입니다

(1) 몸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 : 14).

전도는 누군가 직접 가서 전해야 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전도하려고 많은 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베드로는 로마로, 도마는 인도로, 바울은 소아시아로, 허드슨은 중국으로, 저드슨은 미얀마로, 토머스는 한국으로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1997년 11월 9일 샌디에이고 제일동양선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인교육부 목사였던 정수일 목사의 취임식 설교를 위해 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미국 교회는 400명 정도의 성인들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선교사 가족 사진을 20장 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0명의 신자가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한 달에 1,000달러에서 2,000달러씩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 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선교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교회 연혁, 신자수,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는지 알아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70년 된 독립 교회인데 신자는 1,600명 모이고, 선교사는 450명 보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복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처음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남미, 중미, 태평양, 독일, 러시아, 중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 선

교지로 보내야 합니다.

(2) 물질로 지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도들이 예수님의 전도비를 재정적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 : 3).

교회는 여성도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습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클레멘트 임마누엘 미국 교회는 매달 많은 선교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어느 교회는 금년에 선교 헌금을 140만 달러 책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46만 달러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부가 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로 도와야 하겠습니다.

본 교회 성도 중 어떤 분은 남편 없이 사시는데 허름한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 달러를 가지고 오셔서 한국 농어촌, 도서,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하는 데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월드미션신학교도 일 년에 만 달러를 헌금하는 어떤 성도의 도움으로 인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엡 6 : 19).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골 4 : 3).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롬 15 : 30).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바울로 하여금 선교를 승리하게 한 것처럼 선교사를 내보냈으면 마땅히 중보 기도를 열심히, 정성껏 해야 합니다.

본 교회는 1970년 7월 29일 저희 집에서 어른 15명, 아이들 15명 모두 30명이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헌금이 400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꽤 큰 돈이었는데 한국의 농어촌 두 교회에 선교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어나 제가 이 교회를 정년 퇴직할 때는 미국 안에 지교회 10개를 세웠고, 해외 교회도 많이 세웠으며, 초교파적으로 한국의 어려운 농어촌 · 도서 교회를 178교회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헌금을 받은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나 철야기도회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절대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자꾸 옵니다. 왜 오느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면 가치있게 쓴다고 해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연말에 가면 모자라고 빠듯하지만 선교헌금은 항상 넘쳤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려면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멸종을 면하기 위해서였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 땅에서 배우지 아니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국제 3대 도시에서 이방 문화를 공부한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내고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그래도 잘 살게 하신 것은 우리만 넉넉히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라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 : 20)라고 했습니다.

교육가 퀸튼은 말하기를 "일생의 최대 기쁜 날은 그가 그의 사명 의식을 깨달은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일본의 내촌감삼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서 있다.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있다.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에 보낸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이 자라는 데까지 몸으로 못 가면 물질로, 물질로 못 하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1달러 선교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꼭 1달러씩만 선교헌금에 예금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30달러가 됩니다. 30달러면 아프리카 다섯 식구의 생활비가 됩니다. 이는 간접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불경기로 인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줄이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선교 대열에 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복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화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 50 : 15~2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 : 28).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은 천성적으로 선량한 사람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가끔 꿈을 꾸면서 형들과 부모님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형들과 함께 곡식 단이 있는 들판에 갔는데 내 단을 향해 형들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하자 형들이 "우리가 동생에게 절하다니." 하

고 아니꼽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자 형들은 더욱 미워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더욱 사랑하니까 형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심이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하던 참인데, 한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더니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창 37 : 19~20)고 하며 옷을 벗기고 요셉을 깊은 우물에다 던졌는데 마침 우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이 오니까 유다라는 형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돈을 받고 팔자고 하여 은 20냥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후 요셉은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갔습니다. 나이 어린 요셉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산도 설고 물도 설은 이역 만리에서 종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는 착한 사람이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 집에서 종 노릇을 하니 그 주인이 요셉을 좋게 보고 집안 모든 재산과 남녀 노비들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선량하니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흔히 젊은이들에게 올 수 있는 이성의 유혹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연모하여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으나 요셉은 저고리를 빼앗기면서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순종해야 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싸워야 하고, 이성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도망가야 합니다. 이 여자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여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더러 동침하자고 해서 소리 질렀더니 저고리를 벗어 놓고 도망갔다고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같이 지내던 바로 왕의 장관 둘의 꿈을 해몽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대로 살아난 한 장관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여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즉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즉,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대신이 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통스러웠겠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화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특출한 사람은 시기를 받게 마련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 37 : 11). 형제들이지만 자기들보다 인물이 좋고 똑똑한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나쁩니다. 태양 빛과 같이 골고루 비추어야 하는데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더욱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같이 위대한 인물도 때로는 편애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가끔 이상한 꿈 얘기를 함으로써 시기를 받았습니다. 못난 사람은 시기 질투를 받지 않지만 출중한 사람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시기 질투를 사게 마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들레헴 이새의 여덟째 아들인데, 제일 똑똑하고 구변이 있고 지혜가 있어 어려서부터 특출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새의 세 아들이 군대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감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니 사울 왕이 약속대로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 사위를 삼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하니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사울 왕은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시기하거든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못났으면 누가 시기하겠습니까? 누가 시기 질투하거든 속으로 '나도 사람됨이 이 정도면 되었나 보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옛날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4 · 29 폭동 때 한국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것 사고, 차도 좋은 것 타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니까 몇몇 흑인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불을 놓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기 질투에서 나온 비극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체를 보고 전체를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흑인들이 목

화밭에서 일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 전쟁 때는 한국에 와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며 우리 국가와 강토를 지켜 주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창 39 : 2~3).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 : 7).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신 28 : 1). 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신 28 : 13)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22절을 보면 이삭은 가축을 치기 때문에 물과 풀이 넉넉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물이 귀했음에도 이삭이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 물이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지방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파도 계속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저도 43세에 미국에 와서 이곳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하고 손이 굳어서 타자 치는 것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강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졸업할 때는 '이 사람 이 정도면 목회를 하겠다.' 싶었는지 졸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므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창 39 : 19~20).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느냐 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창 39 : 6)고 했습니다. 여자도 너무 예쁘면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도 키가 크고 너무 잘 생기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저와 같이 수수해야 좋습니다. 인물 잘 생기지 않은 것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은 죄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들어

갑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바울, 소크라테스,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 운동하던 많은 애국자들인 김구,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주기철 목사님도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남쪽에서는 두 번씩이나 공산당으로 몰려서 유치장에 들어갔고, 북쪽에서는 이남의 스파이로 몰려서 한 번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재판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는 재판만이 완전하고, 공의로우며, 영원하고, 확실한 재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옥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중에 있는데 얼마 후에 바로의 장관 둘도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장관 두 사람이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하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장관은 사흘 후 풀려나고, 떡 맡은 장관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바로가 살진 암소 일곱 마리와 마른 암소 일곱 마리의 꿈과 파리한 일곱 이삭과 실한 일곱 이삭의 꿈을 꾸자,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다 데리고 왔으나 아무도 꿈 해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소개하여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꿈을 잘 해석해서 어두

운 감옥 생활에서 애굽의 총리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시 34 : 19),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 24 : 16)는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 참으로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것을 참고 있으면, 멀지않아 사실대로 밝혀져 밑바닥에서부터 좋은 곳으로 옮겨 놓을 줄 믿습니다.

다섯째,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판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용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까지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 : 5).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 나라에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는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의 흉년을 내다보시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20~21절)고 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반란군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죽였습니다. 국군이 군법 회의를 열어 그 반란군을 총살시키려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 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원수를 갚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 아들을 삼아 신학교에 보내 주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 : 17~21).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히려 원수 갚는 대신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얼음같이 차디찬 마음에 숯불 같은 뜨거운 사랑을 올려놓으면 녹아 눈물이 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일제 시대 때 마포삼열 선교사가 평양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풍이라는 불량 청년은 예배당에 불을 놓았고 목사님이 지나갈 때는 돌을 던져 턱에서 피가 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해 주고 쌀을 보내어 먹이고 해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 한국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에 선교하러 갔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흑인인 두 청년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키고 있었습

니다.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흑인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검둥이라고 수군거리고 또 좋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조카들을 먹여 살린 요셉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화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 : 28).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한국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고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 서울에 가면 뉴욕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어떤 면으로 볼 때 화가 복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2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의 주옥 같은 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영국의 존 버니언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제2의 성경이라는 「천로역정」이 나왔겠습니까? 이들은 다 화가 복이 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전쟁 때 청주에서 공산당이 우익 사람들을 잡아다 큰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게 한 후에 따발총을 쏘아서 다 죽이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초등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시체 더미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 서호교회 이용신 목사님으로 한국의 지도급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부산 동래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국제시장에서 불이 나서 시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탄 후에 제가 동광성결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라고 하며 회개한 한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값으로 38선이 생긴 것, 한국전쟁이 난 것,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진에서 예수 믿던 장로님이셨는데 38선이 쳐져 내려오기 전에는 남쪽에만 가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남쪽에 와서는 국제 시장에서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에서 밀수한 물건과 양키 물건들을 팔다가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마땅하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탄 것이 마땅하다고 기도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상도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총회장까지 하였습니다. 이 분도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사천 비행장에서 공군 군목 생활할 때 고참 조종사 한 명이 나를 비행기에 자주 태워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곧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하더니 이 사람이 대한항공 운항부장이 되었습니다. 지위가 상당해지더니 교회도 안 나오고 홍콩, 프랑스, 미국 등 가는 곳마다 현지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처남이 목사님이고 장모님이 권사입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 후에 모든 첩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요셉과 같이 변해서 축복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시안을 가지고 내일과 모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50년 후에는 '1992년 4월 29일의 폭동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구나.' 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의 어려움에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했으니,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이 변해서 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적 부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뵈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눅 24 : 1~6).

오늘이 바로 2천 년 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우리의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도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교회도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 부활, 미래적 부활, 현재적 부활입니다.

첫째, 과거적 부활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본문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5~6절)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보고자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때 그 여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불안과 공포와 초조 가운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안으로 빗장을 잠그고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 : 19~2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각오를 가졌습니다. 마침 나갔다가 돌아온 도마는 다른 형제들의 얼굴에 있는 기쁨과 변화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 나셔서 조금 전에 여기에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 : 25)고 했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은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 : 27)고 하십니다. 도마는 이 광경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28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복음을 인도에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예배당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와 같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 : 4~8).

기독교 핍박의 선봉자이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공회의 인준을 받아 쫓겨가던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극적인 변화를 받아 기독교의 핍박자에서 예수님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교주들의 무덤은 지금도 크고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열린 무덤입니다. 시체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요 과거적인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부활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적 부활입니다

미래적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며 예언적 부활이라고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살전 4 : 16~17)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일단 공중에 오셔서 7년 동안 공중잔치를 베풀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세상 떠난 자들, 즉 자연사로 죽었거나 객사로 죽었거나 땅 위에서 죽었거나 바닷속에서 죽었거나 죽은 이들이 먼저 살아나고 산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되는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곧 미래적 부활이요 예언적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부활 전파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전 15 : 12~19)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망할 것이요, 그런 세상 그리스도인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승을 닮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주중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옵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절제하며,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가 없다면 불쌍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 : 20). 인류 역사상 부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열매 하나가 맺히면 그 후에는 더 많이 맺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 21~22).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 테니슨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를 짓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다시 사는 하늘 나라를 예비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봄동산에 올라가 보라. 겨울에 다 죽었던 산천 초목이 다시 새싹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일까 보냐"라고 말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100년, 500년이 가도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없는 가운데서 지어진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변화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누에 속에서 나비가 나오며 굼벵이가 매미가 됩니다. 논바닥의 땅쥐 벌레가 잠자리가 되는 것도 봅니다. 올챙이는 꼬리가 없어지며 개구리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 현재적 부활입니다

현재적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 방탕하게 살며 돈을 다 탕진한 후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시켜 새 옷을 입힙니다.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이 때에 큰형이 들어와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눅 15 : 29~30). 아버지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눅 15 : 32)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이 아들의 영혼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즐거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레몬은 신앙심도 좋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그 집의 재물을 도둑질해서 큰 도시로 도망을 갔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글을 썼습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몬 1 : 11~12).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현재적 부활, 영적인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부인은 공무원이고 남편은 흑인이 많이 사는 곳에서 비교적 큰 마켓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폭동으로 근처의 모든 마켓들이 불에 탔지만 그 마켓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흑인 종업원을 여러 명 썼습니다. 농아인에게도 일을 주었는데 물건값 도장을 찍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믿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임금도 남보다 조금 더 주고 전부 맡기고 내 볼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흑인교회에 가서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조금 봉사도 했습니다. 폭동이 나자 그들은 저보고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폭동이 끝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것은 당신들 것입니다. 다 가

져 가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건을 사들여서 지금은 전보다 네 배나 더 팔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고 한 것처럼, 권총으로 대항한다는 말도 이해는 합니다만, 흑인들도 물론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 : 5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요 간디,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주의입니다. 비폭력과 사랑만이 최후까지 승리를 가져 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 전에는 무익했지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영적인 부활을 받아야 합니다. 신령한 부활을 받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듯, 탕자 어거스틴이 변하여 성 어거스틴이 되듯, 난봉꾼 프랜시스가 성 프랜시스가 되듯, 노예 장사 뉴턴이 변하여 찬송가 405장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목사가 되듯, 영국의 불량 소년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듯, 일본에서 기생의 아들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던 사생아가 일본의 성자요 동양의 성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되듯, 불량자 김익두 씨가 한국 초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듯, 평양의 깡패 두목 이기풍 씨가 변하여 선교사로 제주도에 처음 파송되듯, 만주에서 기생이요 첩으로 지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교를 나와 신학교 교수가 되듯, 유타주에서 술 고래요 사회적 망나니였던 사람이 변하여 장로님이 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것들이 현재적 부활, 영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아 단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과거 부활, 미래 부활만 아는 것에 그치지 맙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재적 부활, 영적 부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인격이 되살아나고 가치관이 되살아나는 영적 부활, 현재적 부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 : 7~8).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간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군사, 교통수단, 음악, 심지어 강산도 변하고 인심도 변해 간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무상한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자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격이 변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의 사람들은 많이 변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때 영웅이라고 칭하고 위인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명사라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들의 이름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저 태양과 같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 존재가 뚜렷할 것입니다.

한때 명성을 가졌으나 그 명성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히틀러를 따르던 사람들, 후세인을 다르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잠깐 있다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행 5 : 36)고 말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황국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하면서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긴 흰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아들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인산인해로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유부녀, 처녀 등 60명이 따르다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1930년에는 이용도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높은 종각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했고, 어려서부터 귀신과 환상을 본다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원고도 없이 장장 7시간씩 설교했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은혜를 받았다며 야단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말

을 많이 해서 말이 나오지 않으면 강단에서 수건만 흔들어도 모두 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집회를 할 때는 20~30리를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그 사람의 신학이 건전하지 않다 하여 그 집회에 신학교 학생들을 못 가도록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런데도 신학생들이 기숙사 창문으로 빠져나가 참석을 할 만큼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휘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지막에 무질서하고 비신학적이고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다가 33살에 쓸쓸하게 죽었고 그 따르던 무리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1950년대에 박태선 씨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나는 감람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도 나만 못하고 예수님도 나만 못하다."라고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며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다녔습니다. 그가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무식한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며 떠다가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냄새 나는 물을 성수라고 마셨지만, 박태선 씨가 죽은 후 전도관이 다 해체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만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군이 서울에 들어왔는데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연세도 꽤 드시고 이름 있는 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그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목사는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한국전쟁이 나자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수복되고 일본에 피난 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되돌아와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성경을 보고 믿었습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셨고,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고 말씀했는데 장로님은 오늘까지 누구를 믿었기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변화하셨습니다. 얼굴이 햇빛과 같고 옷이 흰눈같이 변했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장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며 땅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잠시 후에 예수님이 흔들어 일으켰습니다. 눈을 떠 보니 모세도 간 곳이 없고 엘리야도 간 곳이 없었습니다(마 17 : 1~8).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인 고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 부흥회의 강사만 눈과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부흥회를 잘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간 곳 없고 대속하신 구주 예수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 남는 부흥회만이 참으로 성공적인 부흥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담 후세인을 아랍의 영웅이요, 느부갓네살의 재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 병자,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인기나 명성

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소나무와 대나무의 빛이 변한다 할지라도, 일월 성신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가 변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훈이 변함이 없습니다

로메인스는 "자연 과학, 윤리학, 정치, 경제 등에 발달과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감축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솔직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현이고 위인이라 칭송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에 보면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7세만 되면 이성에 눈을 뜨게 되어 전기가 통하니까 7세 된 남자, 여자가 함께 앉으면 안 된다고 한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여자는 남자보다 업장이 더 많다. 여자는 죄도 많고 번민도 많고 남자만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시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앞으로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50년 후에는 기독교가 말살되고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가 죽은 지 50년 만에 프랑스 성서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거기서 성경을 많이 찍어 냈습니다.

19세기의 예언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 칼 마르크스는 미래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할 때 온다. 노동자는 점점 무산화된다. 자본의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무국가 사회가 될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가 되

면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화친과 행복이 올 것이다. 공산주의가 되면 지상 낙원이 올 것이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지금 개혁을 합니까? 북한 땅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입니다. 거기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갇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북한의 당 간부들의 생활과 노동자의 생활은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마르크스의 책에 먼지가 끼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은 시간이 가면 다 흐려지고 잘못된 것이 가려집니다.

항간에 예수님이 1992년 10월 10일에 온다고 야단들인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2세기에 콜로라는 1260년에 예수님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신비주의자 스웨덴버그는 1700년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푸스 전집을 쓴 사람은 1736년 10월 12일에,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은 1736년 11월 12일에, 어린 양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콜이라는 여자는 1814년에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 어빙이라는 사람은 1825년 7월 17일에, 뱅겔이라는 사람은 1837년에, 침례교 신자 멀리는 1843년 10월 22일에, 또 백스터라는 사람은 1917년 9월 17일에, 한국의 동방교회 교주 노광공이는 1965년 8월 15일에, 장막 성전 유재열은 1969년 11월 1일에, 일월산 기도원장 김성복은 1971년 8월 15일에, 팔영산 기도원장 전병도는 1972년 8월 25일에,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는 1973년 11월 11일 오전 9시에, 여호와의 증인은 1975년에 재림한다고 예언했답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1992년 10월 10일에 오신다고 했다가 조금 연기해서 10월 27일 밤 12시에 온다

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장림이 서울에 7억짜리 호화 주택을 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집은 왜 삽니까?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 갈 때는 가더라도 큰 집에서 한 번 살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특별계시 종말부흥성회, 1992년 그 날을 준비하라."는 전도지에는 하방익이라는 15세짜리 아이가 전도사로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학교 다닐 아이지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이미 그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정도 버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오는 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모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 알게 되면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필요 없고 교단에서 가르칠 선생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둘째,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안다면 지진 나는데 왜 안 떠나겠습니까? 몰라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20세 된 사람이 20세 되는 초하룻날 죽을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대학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 그것도 극비에 속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992년 10월에 오신다면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서 회개했는데, 아직 일 년 몇 달이나 남았으니 술도 좀 먹어 보고 노름도 해보고 누드쇼도 가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별 짓 다하다가 사흘 전에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간다."라고 보고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992년에 오시든 그 후에 오시든 그 전에 오시든 상관하지 말고 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 : 3)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철학자 스피노자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미래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맞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설이나 철학이나 주의나 사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애독하고 정독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희랍어 원문에 이 세상의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그리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 스톨게 사랑은 부자지간의 윤리적 사랑, 필리아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조건

이 있고 장단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자지간에 싸움이 많습니다. 친구지간에 나누는 사랑은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재상집의 개가 죽으면 조문을 많이 오지만 재상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삼상 30 : 6)라고 말씀합니다. 군급이라는 말은 비통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출타한 후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다윗 부하들의 처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이요, 구국 공신이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의 자녀들도 다윗 때문에 블레셋에게서 생명이 보존된 것인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을 보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표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눅 23 : 21)고 두 번씩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유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라는 강도는 놓아 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떡을 준 것이 잘못입니까? 병을 고쳐 준 것이 잘못입니까? 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잘못입니까? 엊그제까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 나갈 때 덤덤하게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시오.

그뿐입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갈 4 : 15~16)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들의 두 눈까지도 빼어 줄 것처럼 하더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니까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다 이런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 나가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다 그럴 수 있지. 그럴거야.' 라고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자기의 이복 형제 70인을 반석에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임금이 되려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4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다가 자신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침이나 뱉어줄 생각밖에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요 21 : 13)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고, 부활의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나고도 물고기를 잡겠다고 갈릴리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까지 가셔서 물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물어 보십니다. 잡지 못하였다고 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 : 1)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 가운데 혹 섭섭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합니까? 저주합니까? 억울하게 합니까? 분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 : 18).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넷째, 그리스도의 구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친교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봉사하러 나오기도 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 장차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우리가 꼭 알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 : 17).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 : 21).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 : 45).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 10).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 : 10).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들추려 함도 아니요, 죄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 민족 반역자로 취급되던 세리는 성전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부족하며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목욕탕은 때 있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람, 믿고 행함으로 받는다는 사람, 현재 받는다는 사람, 미래에 받는다는 사람, 여러 번 받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갈 2 : 2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위라는 것은 하루에 세 번 죄를 지으면 일 년에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30세 된 사람은 30,000번, 50세 된 사람은 50,000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 : 8~9)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담배, 마약, 다이아몬드, 양주와 같이 없어도 되는 것은 비쌉니다. 그러나 태양, 물, 공기, 땅에서 나는 곡식, 산과 바다에 있는 동물 등과 같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 구원도 누구든지 다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해야 구원받

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에 받느냐 혹은 미래에 받느냐 하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강도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 : 42~43). 즉각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 : 24). 감옥에서 사형받을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도덕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받느냐 여러번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낳을 때 해산날이 되면 아이의 몸 전체가 나오지 머리가 먼저 나오고 며칠 지나서 다리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 : 28)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6)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 : 1)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롬 8 : 35~39)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 : 6)고 했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헤치거나 빼앗거나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많이 변해 갑니다. 한국 TV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것을 옛날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나쁜 면으로 많이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 무상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의 신성이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교훈이 변치 않고, 그의 사랑이 변치 않고, 그의 구원의 계획이 변치 않아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이 변함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천국의 문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변함 없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신앙, 절개, 충성을 가지고 보답합시다. 그리고 또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과 봉사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의 사랑

변화산상의 교훈(마 17 : 1~8)

새 계명의 사랑(마 5 : 17, 요 13 : 34)

욥의 인생관(욥 1 : 13~22)

성숙한 신앙(고전 13 : 11)

변화산상의 교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 17 : 1~8).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마 16 : 21) 말씀하신 후, 한 엿새 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 유대 땅에서는 제일 높아서 일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예수께서 갑자기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옷이 희게 빛날 때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

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구름이 덮인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마 17 : 5)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엎드러졌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 눈을 떠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에서 삽시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오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화산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베드로에게는 잘못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신관입니다.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마 17 : 4)라고 한 베드로의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인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율법을 받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한 것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동등한 인격, 동등한 인물로 여겼다는 것이며, 그의 신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미주 한인 교회의 신자들 중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신관이 분명치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

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잘 배우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박고 굳게 서지 아니하고, 그저 누가 환상을 보았다, 입신을 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능력을 받았다, 기적을 행한다, 은혜가 많다 하면 그냥 따라다닙니다. 새떼처럼 이리저리 몰려가고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뒷방으로 모이곤 합니다.

한때 황국주, 이용도, 박태선, 노광국, 이유성, 유재열, 양도천 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문선명, 이장림, 하방익, 안병호 이런 사람들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사람들 말고도 사이비 교단을 만든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당한 이들은 집을 떠나고, 살림도 집어치우고, 사업도 그만두고, 직장도 내던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방황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방익이라는 아이를 신문에서 보았을 줄 압니다. 13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린 종이라면서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가서 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들이대고 밤을 새워가며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답니다. 1992년 10월 10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아이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아직 공부할 아이고, 학교 갈 나이지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될 아이입니다. 사실 아주 맹랑한 아이입니다. 예수님 안오시니까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연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장림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7일 밤 12시에 오신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큰 집을 사고 수억 대를 은행

에 집어 넣고 미국 돈도 수십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뒷조사를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문란시키고, 사기친 죄로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더 힘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온 것은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고생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억조 창생이 살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괴롭지만 하십시오."라는 동의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베드로 눈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사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완전히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은혜를 받았다, 누가 권능의 사자다, 누가 불의 사자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잘못된 천국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마 17 : 4)라고 한 것은 베드로의 천국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산이 높고 흰 눈이 깔려 깨끗하고 유대 땅 동서 사방을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고 사람 소리 들리지 않고 공기가 맑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거기서 살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국에 온 이민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가구도 차도 좋고,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훌륭한 남편을 가지고, 아들딸 공부 잘하고, 여행 다니고, 아무런 생의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복받았구나, 나에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게 천국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 : 1).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 12 : 20).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 : 26).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 : 24~25).

저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은혜받았다는 집단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어떤 기도원도 아니고, 미국도 캐나다도 호주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한 것처럼 마음이 천국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두 물건을 나누어 쓰고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 교회가 천국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지상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악과 마귀를 다 청소하고 천 년 동안 지상 천국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 보석성, 진주문, 황금길, 생명강, 생명나무가 있는, 의원이 쓸데없고, 불의가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모임, 은혜의 집단이라는 곳을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어느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을 천국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돈푼이나 있고 잘 사는 것을 천국으로 아시지 마시고, 마음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장차 지상 천국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잘못된 사명감입니다.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동안 떡도 많이 떼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오래간만에 시야 좋고 공기 맑고 조용한 높은 산에 올라오니 편안하고 좋아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

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 6 : 38~39)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편안히 앉아 쉬면서 너 하나만 편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 : 45)고 말씀하셨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안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르치기 위해(마 1 : 22~23), 병자를 고치기 위해(막 2 : 17),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마 14 : 19),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요 6 : 35), 귀신을 쫓아내려고(막 7 : 30), 평화를 주기 위해(요 14 : 27), 죄인을 구원하러(마 9 : 13)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꼭대기가 좋다고 머물러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막 3 : 20)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은혜받겠다고 교회에 가서 엎드리거나 어떤 특수한 집단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고 산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만 휴거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하천풍언은 "아침에 네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시간은 기도하고 두 시간은 나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군병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나가지는 않고, 안일과 자기의 이기심에만 매여 산다면 그리스도의 사명 의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첫째로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가시기를 좋아했습니다. 천상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인의 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러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에게 경배를 받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 : 14).

무엇이 마귀가 되었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의 자리를 감사치 아니하고, 자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을 밀어내려다가 거꾸로 떨어진 것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보좌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려가려는 사람은 적고 다들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총무가 되고, 회장이 되려고 합니

다. 모두가 '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 어디의 면장, 과거에 감투 썼던 장, 동창회장 등등 쓸 것이 많아서 명함을 두 장 만들었습니다. 그 명함에 성지도 갔다 왔다, 미국도 몇 번 왔다갔다고 쓰고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까지 새겨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만 세상에서 그렇게 장을 못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누구나 다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송장'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하겠지만 잘 내려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내려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디는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잠 29 : 23)고 했으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 2 : 3)라고 했고,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시 147 : 6)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호령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는,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그 겸손한 신앙을 가지신 것처럼, 오히려 남을 높이고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서 도와주자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할 때 "저기는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

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가서 저들을 도와주어야겠다. 내려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었습니다(막 9 : 25). 또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막 10 : 52). 저 영국의 칼라일이 다리 밑에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지 아니하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주어라. 네가 도와주어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촌을 볼 때에 우상과 빈곤과 독재와 좌경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행 9 : 36)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볼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집에 남겨 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된 사람, 고아들, 나그네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초대 교회가 불일듯 부흥이 된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 : 24~25).

소말리아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TV에서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 건의를 하나 하려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과 식당에 큰 박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기근으로 죽어 가는 소말리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 가는 그들에게 5센트

도 좋고 10센트도 좋고 25센트도 좋습니다. 25센트면 하루 한 사람을 살리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에 안건을 내어서 이 다음에 박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아마 당회원들께서는 다 찬성할 줄 압니다. 이 미국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마구 버립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먼저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 4 : 20~21).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 : 13)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니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이 산에서 내려갑시다. 산이 어딥니까? 우리 가족이 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산이라고 봅니다. 저 밖에, 저 아래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오다가 병을 고쳐 주신 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정말 용감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멀리 멀리 타국으로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뻔히 자기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십자가를 져야 모든 중생들이 살테니까 너는 가서 십자

가를 지라."고 하시므로 "가자. 십자가를 지러 가자." 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 박힘과 가시관과 창에 찔린 상처가 쓰라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업이라는 십자가, 가난이라는 십자가, 병이라는 십자가, 고독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 아내가 십자가, 자녀가 십자가, 친구가 십자가, 불경기가 십자가, 친척이 십자가, 시어머니가 십자가, 며느리가 십자가, 시동생이 십자가, 시누이가 십자가, 앞집 사람이 십자가가 됩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모두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는 사람에게는 승리와 복이 오지만, 쓰라리다고 해서 비겁하게 피한 사람에게는 패배와 사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과 저주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가시관을 쓰시지 않았다면 면류관을 타셨겠습니까? 무덤 속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하늘 보좌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쓰라리고 고통스런 십자가를 잘 지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날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거든 그것을 무섭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 잘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통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격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안다."라고 했고,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고통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조건이다."라고 했고, 서양 격언에 "행복이 인간 목적의 극치라고 한다면 고통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헤즐릿은 "번영은 위대한 스승이다. 역경은 더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했고, 영국의 시인 조지 크랩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많은 시련과 환난과 번민을 겪어 다져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사회가 혼탁한 것처럼 우리 영계도, 교계도 혼탁합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신관, 천국관, 사명감을 가졌다면 시정하시고 올바른 신관,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짊으로써,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계명의 사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 : 17).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 34).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신 산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말씀들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틴(Hattin) 산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열혈당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예수님을 비평하고 책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 34) 하셨습니다. 어

떤 이는 십계명에 하나를 더하여 이 계명을 열한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신학이나, 헌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 9 : 13)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 교인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전통이나 의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는 모태 신자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직분을 가졌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는 갓 믿었어도 말씀대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사람,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국회 의장이든, 장관이든, 대학 교수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총각, 처녀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남자에게 "어떤 여자를 구하느냐? 100% 여자 없다. 90%도 드물다. 50% 그러면 만점이다. 50%!" 또 여자에게

도 "어떤 총각을 원하느냐? 100%짜리는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 50%, 여자 50% 그래서 100%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람의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그때 "여보, 당신 하나로 내가 만족해요. 뭘 어린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살라고 그래. 나 안 가!" 이랬으면 될 걸,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뛰어 들어가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본처에게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소실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러자 본처가 남편에게 "저 작은 마누라를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을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고 도덕 법칙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은 임금이 되려고 자기 형제 70인을 반석에다 돌로 쳐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여자가 던진 멧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그 이복누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의 소실 열 여인을 지붕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겁탈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일정한 주소 없이 그저 양과 소를 몰고 다니면서 사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남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 임금님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 예쁜 것을 보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저 임금에게 가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소.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고 하오." 하고 임금에게 보냈습니다. 이 임금이 좋아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범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 사라에게도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예물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까지 팔아 먹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조상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흠이 있던 사람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그는 120년 간 지은 방주를 타고 여덟 식구와 모든 짐승들을 건진 사람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아주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실컷 먹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냥 홀딱 벗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아들이 들어가 보고는 껄껄껄 웃고 나와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벗고 누웠어."라고 말했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막내는 복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것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도 절제를 끝까지 못한 사람입니다. 먹어도 감당할 만큼 먹지, 또 먹고 나서 좀 더워도 입고 있지, 무슨

누드 쇼에 간 남자처럼 다 벗고 드러누웠으니 이 분도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또 롯이라는 사람은 간음과 괴한 색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괴한 색이 무엇인가 하면 동성 연애입니다. 이 동성 연애자는 구약시대부터 있던 것으로 신약의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니까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질 터이니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천사가 말할 때 그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나가고, 사위 두 사람에게도 나가자고 말했는데 두 사위는 농담으로 알고 안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롯은 두 딸과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황불에 타서 저렇게 다 멸망하는데 우리를 불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장롱에 넣어 두었던 비단 치마, 은수저, 화장품이 타는 것이 아까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아내와 첫아이를 데리고 예천 처가에 갔더니 공산당이 벌써 들어와 있어 다시 증평이라는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주일 새벽에 인민군과 미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과 공산군이 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김 장로 부인은 집에 재봉틀을 가지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말렸는데 "그래도 재봉틀을 가져와야 피난 가서 삯바느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 하며 재봉틀을 머리에 이고 나오다가 대포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가 죽은 후에 큰딸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창 19 : 31~32).

이렇게 큰딸 작은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근친 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곯아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은 롯이라는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별하여 불 속에서 건져냈건만 자기 딸들과 더불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약소 민족 해방의 선구자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요, 성막 계시를 받은 자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늘까지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쓰신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왁자지껄합니다. 모세가 야단을 하니 아론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 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출 32 : 23~24)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십계명을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혈기입니다.

또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우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 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민 20 : 2~13).

제가 전도사 시절 6 · 25한국전쟁 중 피난생활을 하며 모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6 · 25를 만

났는데 우리 신자들은 각자 흩어져 공산당에게 쫓겨서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후 다시 1 · 4 후퇴하게 되어 모든 신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피난 때 경험으로는 각자 행동하니 외롭고 걱정되고 또 무엇을 하나 사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 이번에는 모두 같이 갑시다." 신자들에게 단체 행동하자고 단단히 약속하고 내일 아침 몇 시에 모여 가자고 했는데 절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갔느냐고 물으니까 "임 전도사 따라가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을 끝까지 데리고 갈테니까 우리는 포로가 된다, 잡힌다,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라고 의견이 분분하여 절반이 먼저 간 것이었습니다.

남은 이들을 데리고 가며 제가 그랬습니다. "눈썹도 무겁다는게 피난이니까 제발 웬만한 것은 다 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세요." 그런데 어떤 처녀는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던 이불감, 저고리, 치마로 한 짐을 졌습니다. 땅에다 파묻고 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가지고 가더니, 가면서 이것 하나 내버리고 저것 하나 내버리고 나중에는 눈썹도 무겁다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귀부인 같던 홍 전도부인은 나이도 많아 며칠 못가 다리가 붓고 걷지를 못해 절룩절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전도부인을 지게에 지고 가는데 조금 가다가 쉬었다 가자고 하기를 몇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하룻밤 자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어느 동네에서 자고 오늘 아침 떠났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으니 5리라고 합니다. 걷는데 모두 절룩절룩하니 5리밖에 못 온 것입니다. 한 번 쉬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주 벌판에서 다닐 때 만리장성 넘어 다니며 얼마나 빨리 걸었냐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150리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50

리를 걷던 사람이 5리밖에 못가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반석을 한 번만 치지 않고 몇 번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세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돌비를 깨뜨린 사람이요, 반석을 두 번 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성군 다윗'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따질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 : 1)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남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목동 때는 그렇게도 신앙이 좋고 밤에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군인생활을 할 때도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혁명가 시절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되고 나니 교만해져서 전날 밤에 파티를 했는지 늦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찬양도 하지 아니하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서 "야, 저 북쪽의 레바논 산 저게 내 땅이구나. 자, 지중해 바다 저것도 내 땅이야. 가사 광야 끝없는 천 리, 저것도 내 땅이야. 저 유브라데 강도 내 땅이야."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건넛집 뜰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멀리서 봐도 살결이 옥같이 하얗고 날씬해 보였습니다. 그저 세 번 보고 '그림의 떡이지' 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부하를 불러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뒷방에 깊이 들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임금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남의 여자 건드려서 간음죄를 지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본을 못 보이고 그것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

는데,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해놓았으니 겁이 나서 꾀를 부립니다. 그 군인을 특별히 불러 진수 성찬을 차려 놓고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상감마마, 황공하옵니다." 할 텐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궁 문지기들하고 같이 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선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대장이 있고 동료가 있고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임금에게 와서 대접 받는 것도 황공한데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리요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가라고 해도 안 가니까 다윗 왕이 요압에게 그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데도 이 충신은 이것을 가지고 대장에게 주고 자기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되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임금님, 어떤 동네에 아주 늙은 부부가 양 하나를 그저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양이 많은데도 늙은 부부의 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 죽일 것이라."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일개 비천한 목동에서 군인, 혁명가에다 임금이 된 왕에게 아내가 없소, 뭐가 없소. 어찌 충신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또한 그 충신을 죽였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그 죄인이라." 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가 뜨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지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

이 자고 집중적으로 사랑 받고 기적을 보고 훈련 받고 그래서 신앙 고백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6). 그러면서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 : 35)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는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도 두 번은 모른다고 하고 세 번째에는 욕까지 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뭔 줄 아십니까?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병을 앓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배신당한 것이 제일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시베리아 북풍 찬바람아
네가 볼을 찌르고 손끝을 찌른다 하더라도
배신당한 것만큼은 아프지 않을거다.

미국 시카고에서 어느 간호사와 젊은 의사가 결혼식도 안하고 얼마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 이 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처녀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 간호사는 권총을 사 가지고 연습을 여러 번 하고 캘리포니아의 그 집에 찾아가 아침에 그 남자가 가방 들고 병원 가려고 나오는 것을 쏘았습니다. 물론 여자가 좀 과했습니다. 나쁜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든지 "뭐 사내가 그것밖에 없는가" 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배신이 얼마나 아프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언젠가 인천엘 갔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물도 고운 여자인데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북에서 나

온 청년 하나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대학 공부시키고 저하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삽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라고 말합니다. 배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용서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며 방자히 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 32 : 31~32)라고 했습니다. 그런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 여덟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간구보다는 감사하는 생활이다.
둘째로 보호보다는 용기 있는 생활이다.
셋째로 의무보다는 의무 이상을 하는 생활이다.
넷째로 정죄보다는 이해하는 생활이다.
다섯째로 축복보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로 감정보다는 이성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야 한다.
여덟째로 용서만 하지 말고 한 계단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해야 한다.

다윗도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음악도

잘하고, 악기도 잘타고, 시도 잘 읊고, 얼굴도 잘생기고, 웅변도 잘하고 무술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가서 다윗이 던지던 물매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머니에다가 귤 만한 돌을 허리띠 같은 것에 넣어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양, 가축을 지키면서 곰, 사자 같은 짐승들을 잡은 것입니다. 양을 잡아가는 사자에게서 양을 빼앗고 사자까지 찢어 죽인 아주 용감한 소년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너희 형 셋이 일선에 나갔다.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어라. 가서 문안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앞을 쳐다보니 키가 구척 같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온 몸에는 쇠비늘로 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며 하루 종일 소리지르며 호령을 합니다.

옛날에는 전장에서 장수끼리 먼저 싸웠습니다.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절해라. 겨루자. 이기는 쪽이 주인이고 지는 쪽이 노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갑니다. 형들이 야단입니다. 물매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내려다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삼상 17 : 43~44)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 : 45)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 빙빙 돌렸다가 탁 던지니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쫓아가서 칼

을 가지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병사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대승리를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 "누구든지 블레셋 대장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 : 7).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위가 된 사람, 이 구국 공신에게 창을 던지고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저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쫓겨가게 되었느냐 하면 사해 쪽에 있는 산에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굴이 한참 들어갑니다. 자기 부하들과 다윗이 그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쫓아오다 거기까지 와서 다윗이 있는 것도 모르고 볼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 사람 죽이라고 당신 손에 붙인 것 같습니다. 찔러 죽이세요."라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것도 후회했습니다.

사울이 나간 다음에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삼상 24 : 11)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삼상 24 : 16~17, 19)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부자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고 말았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의 아람 군대가 자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합니다. 아람 왕이 우리 군대 가운데 간첩이 있나보다 했습니다. 아람나라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미리 내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군대를 다 눈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다 집어 넣고 문을 잠가 놓고서는 전부 눈을 뜨게 했습니다. 보니까 군인들이 성 안에 다 잡혀 들어왔는데 삥 돌아가면서 화살을 쥐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하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왕하 6 : 8~23)라고 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저기 몸 팔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하시니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전에 하던 버릇대로 한 남자로 만족지 못하고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너라."고 하셔서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너라."고 하셔서 또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만 두렵니다. 뭐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하고 다시 장가들지요." "데려 오너라." 세 번 데려왔습니다.

용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

지 사랑한다는 표식입니다.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오더니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닮지 않았고 또 둘째를 낳았는데 아주 안 닮았고 셋째를 낳았는데 보니 얼토당토 않았는데도 데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가서 숨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두 번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고기를 잡았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몇 사람의 영혼을 건졌습니까? 신령한 고기! 그 다음 "먹을 것이 있느냐"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가? 내가 세 번 모른다고 그랬지.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고, 다락방에서 만나고, 그런데도 또 여기까지 도망왔으니 나를 신용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21 : 17)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바울도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서울의 목사님 한 분이 일본으로 3년 동안 공부하러 갔는데 2년 지나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공부도 좋지만 공부 그만두고 빨리

나오세요. 모두들 사모님과 자제분 가정교사인 대학생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목사님이 곧 귀국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사모님에게 욕을 퍼붓거나 머리채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여보,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내 잘못이오. 당신과 어린 것을 두고 일본 나간 내 잘못이오. 당신이 이렇게 시험든 것은 모두 내 잘못이오. 용서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그 교회는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지금 그 사모님과 목회를 잘합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는 용서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셋째, 부족한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주 세련되고 빈틈 없으면 정이 붙질 않습니다. 철저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말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조심합니다. 어수룩해야 좀 친근감이 들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상점의 점원이 좀 어수룩해야 가서 흥정하지, 똑똑하면 가서 당할 줄 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내가 뭘 알아요. 당신이 더 잘 알지. 여보, 당신 말이 옳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아내에게 남편이 정이 붙지, "난 그렇게 생각 안해요. 당신 잘못 생각하셨어요."라고 말하면 남편이 속으로 "내가 장가 잘못 갔구나. 앞으로 살려니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어수룩해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것은 베드로는 울었다가 또 회개하고, 울었다

가 또 회개하고 그래서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전부 두 팀으로 갈라서, 눈을 가리고 나가서 사람 얼굴 그리라고 하면 먼저 나간 사람이 가서 둥그렇게 그리고 오고, 두 번째는 나가서 눈을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뒤통수에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코를 그리라고 했더니 밑바닥에 그리고, 그러면 모두 다 깔깔거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거 눈뜨고 잘 그리면 웃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못난 척하고 조금 어수룩해야 동정을 사고 친근감을 사고 사랑을 받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집사들하고 장로들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어수룩해야 교회에 오래 있습니다. 그게 덕입니다.

넷째, 부족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인생을 비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죄를 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독한 사람, 실패한 사람, 과부, 고아, 못 배운 사람을 채워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많은 남자에게 끌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모두 손에 돌을 쥐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 : 4~5).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계명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살 사람이 없다. 너는 들키지 않았지만 너도……너도 그런 짓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교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 : 7)고 말했습니다. 각 사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들을 놓고 터덜터덜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 여자가 고개를 비스듬히 들어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돌무더기에 들어갈 자기 운명을, 인생으로서 가장 더러운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널리 양해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롯, 노아, 모세, 다윗 등 모든 사람은 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 남편도 부족하고, 여러분 아내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부족한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 5 : 17),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 :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는 하나님 사랑, 여섯 가지는 사람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고 다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 사랑을 기억하시며, 모든 인간은 부족하며, 완전한 사람은 없으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채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널리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 때때로 엄격히 가르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인생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 : 13~22).

작년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4 · 29 폭동을 만났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아직까지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욥의 인생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구약성경에 여러 인생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사 40 : 6)라고 했습니다. 꽃이 아름답지만 열흘 후면 추하기 짝이 없어져 내버리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과연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 : 14)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찾아가서 보면 죽은 자들이 왔다간 자취는 긴 역사와 비교할 때 정말 '째깍' 하는 초침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른 과객의 인생(시 90 : 10)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간은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50대가 되면 같은 시간이지만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 : 2)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첫째, 세상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인생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칠천이요 약대가 삼천이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욥 1 : 1~3)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신앙도 훌륭하고 재산도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1, 2장을 보면 갑자기 큰 재난

이 닥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스바 사람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이 다 타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아 가고, 태풍이 불어 큰아들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던 아들과 딸들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부스럼이 생기고 진물이 흐르게 될 때 개가 핥아먹고,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아내라 하면 몸도 마음도 하나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재난을 당하고 파산을 겪더라도 이보다 더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을 너무 믿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사장이 오늘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욥이 역경을 당할 때 아내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백인이나 한국사람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가정들이 흔들리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할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믿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아들딸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자라더니만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해 10남매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설마 했던 자녀들이 마약을 먹고 갱단에 가입하고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

이들을 예수님처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는 친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았더니 아픈 말만 하고 상처난 마음에 재를 뿌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참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건강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욥이 갑자기 악창이 나서 문둥병과 같이 온몸이 헐었는데 이것을 보면 건강하다고 뽐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하고 자기 몸을 알아서 돌보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만 믿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건강 진단을 한번씩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일 년에 몇 번씩 고치지 않습니까? 더 소중한 몸을 미리 알고 고치면 고칠 수 있지만 방심하다가 늦게 발견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는 죽음에는 선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먼저 가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병이 들었지만 살았습니다. 아들딸 10남매는 어쩌면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 남편, 아내, 자식, 친구, 건강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가도가도 모래뿐입니다. 아무리 목말라서 사막을 파고 파도 피곤만 쌓이고 땀만 흐를 뿐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 세상은 사막과 같아서 행복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은 신기루 같다고 합니다. 신기루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목이 타는데 저 멀

리 파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 물이 아니고 또 다시 파란 물로 보여 또 달려가 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저기 행복이 있는 것같아 달려가면 행복이 없고 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달려가서 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사막이요 신기루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속아 산다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인류 역사 가운데 극치에 달했습니다. 아방궁을 짓고 천 명의 궁녀를 두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그에게 있어서 하루도 참 기쁜 날이 없고 편한 삶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 : 2)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엄밀한 의미로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아서 마지막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욥은 알았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번째 인생관이었습니다.

둘째, 고난은 인생에게 기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 양약이 된다는 인생관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의인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그때에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 : 12~13)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하여 하나님께 탄식할 때 동생을 죽인 죄 때문에 밭을 갈아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부자유스럽다고 나가서 살겠다고 하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이 너그러운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서 그의 원대로 재산 절반을 떼어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자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춤도 추고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하고 별 짓 다 하다가 돈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마침내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얻어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이릅니다. 이때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 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자기 잘못 때문입니다.

둘째로 영광을 드러내는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소경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요 9 : 2~3).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도둑을 만나고, 차 사고가 나면 "회개하라. 죄값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민 생활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이 "죄값으로 쓰러졌다.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가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향상과 더 큰 축복을 위한 고통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 : 2)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하나 얻어 이 아들이 13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큰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언약상으로도, 윤리상으로도, 종교상으로도 못할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과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이 나고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세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그가 정직하고 총명하므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주인은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다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자꾸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남편이 궁에 간 후 보디발의 아내는 계획적으로 모든 사람을 밖으로 보내고 요셉의 옷을 잡으며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하며 그냥 웃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창피하고 분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고자질을 했고 요셉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고생했지만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때 임금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옥에 갇히고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한 장관에게는 "나가면 사형을 받을 것이오." 다른 장관에게는 "복직할 것이오." 했는데 해몽대로 되었습니다.

그 후 임금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자 복직한 장관이 자기가 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의 꿈 해몽으로 살았음을 생각하고 임금에게 요셉을 소개시켰고, 요셉은 꿈 해몽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 : 28).

폭동도 잘 참고 지내면 먼 장래에는 '그것도 유익했구나.' 할 날이 있을 것이고, '불경기가 계속되는 것 이것도 유익했구나' 하고

옛말할 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시관을 안 썼다면 면류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휴가도 못 가고 땀을 많이 흘렸기에 그만큼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25세부터 국회의원이 되어 야당생활하면서 고생하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 : 9)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으며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믿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움에 처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저도 해방 직후, 북한 유치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날 아버지, 형님 찾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서 지금 강단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 유치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에고치 속에서 나방이 나올 때 7일이면 나오는데 유명한 곤충 학자 시튼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입김을 불어 주며 좀더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었더니 5일 만에 나와서는 몇 시간 후에 그냥 죽더랍니다. 누에고치 속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불쌍해서 구멍을 뚫어 주었는데 나비가 나오긴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통해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어 잘 살려고 마약을 팔고 주류상회를 하다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되더라도 순리를 밟아서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는 고참과 신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참은 군인으로서, 10년, 20년, 30년 충성을 다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신병이라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신병입니다. 고참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병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비행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자꾸 죽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장교들은 잘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을 자주 때리는 교관을 미워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전쟁이 나면 그 교관부터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더 맞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소대장, 분대장이 때릴 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막상 일선에서는 '그 소대장 때문에, 분대장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유익합니다.

제가 다른 주에 가면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묻습니다. "작년 4 · 29폭동 이후에 LA에 있는 신자들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달라졌지요. 새벽 기도도 전보다 더 나옵니다. 감사 헌금도 더 많이 합니다. 십일조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재물관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자랐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 고난은 인생의 양약이 됩니다. 유명한 「실낙원」을 쓴 밀턴은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영화를 받을 것이며 가장 위험한 곳을 지난 사람이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선구자인 페스탈로치는 "고통과 눈물이 나를 높여 예지로 이끌었다. 평안과 즐거움만 있었다면 오늘 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많은 고통을 이겨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 : 67).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 : 10).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욥 42 : 5~6)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곤경에 처했을 때 겸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했으나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죽고 난 후 하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하늘 나라가 가

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욥의 신앙은 역경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고통이 때로는 양약이 됩니다. 마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이 나무 뿌리를 보호하듯이, 역경을 잘 이해하고 이용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향상과 발전과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순종의 신앙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인생관입니다

첫째로 조건 없는 신앙입니다.

욥은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믿었습니다. 욥은 많은 양, 약대, 소, 나귀를 가진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아들이 일곱, 딸이 셋 있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욥 1 : 5)고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건강하고 평안하며 부유할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가산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잘 믿는 것을 더욱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당 시절에 제가 밀양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집사가 예배당 바로 앞에 남의 집 조그마한 사랑방 하나를 얻어서 매일 보리밥하고 된장국만 먹고 살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양조장집 부자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온 성도들이 같은 값이면 집사를 밀어 주

자고 전체가 합심하여 선거 운동을 하여 이 집사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바쁘다, 회의다, 교제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모범 집사였는데 첩까지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제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이 가난할 때는 저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더니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첩을 얻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의 남편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떨어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신자는 역경 때보다 편안할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포 중에 1960년대에 온 사람들은 돈을 가지지 않고 이민 왔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니고 좋은 곳에 돈을 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낚시 다니고 사냥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신 8 : 17~18)고 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행복한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둘째로 실패와 고통 중에서도 믿었습니다.

대개 사람이 갑자기 망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어 신앙에서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재산 있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와 아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만 다치지 말고 다 빼앗아 보라고 허락합니다. 다 빼앗았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 1 : 21~22)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통 중에도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어린양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계 7 : 9)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흰 옷은 예수의 피로 목욕한 사람들이고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나라 상록수인데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푸른 불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그 나라의 지식을 배웠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변의 신앙을 가진 다니엘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이유가 없는데도 믿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상대적이고 조건이 있어야 믿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봉사해도 봉사할 이유가 있고, 대접해도 대접할 이유가 있고, 믿어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돌아가신 최 장로님이 항상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신자였는데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왔고 결혼하면 안 다닐 결심으로 다녔는데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결혼 때문에, 취직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병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 없이 그냥 믿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만 두고 다 빼앗으라고 허락했으며 욥은 변치 않는 신앙으로 믿음을 지킵니다.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 : 9)고 말할 때도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 2 : 10)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욥의 신앙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잘 돼도 믿고 못 돼도 믿고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믿어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 어째서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그의 기초, 그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야고보도 욥의 신앙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약 5 : 10~11). 욥은 불변의 신앙, 희망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배나 축복해 주십니다. 양, 소, 약대, 모든 재산이 배로 축복받고 자녀들 중 딸들은 더욱 미인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4 · 29 폭동을 만났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기 어렵다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 것은 믿지 못한다. 고통도 때로는 유익하다. 끝까지 믿으면 갑절의 축복이 온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으시고, 욥의 신앙으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전 13 : 11).

모든 생명체는 부단히 자라납니다. 신자는 지식도, 인격도, 신앙도, 생활도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 : 15)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이나마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항간에서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적고,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고, 자모는 많으나 현모는 적고, 아비는 많으나 아비다운 아비는 적고, 교인은 많으나 성숙한 신자는 적다."

유럽에는 교회 안에는 신자가 적으나 교회 밖에는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인교회는 불행하게도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 밖에 흐르는 물 일천 척을 재니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 척을 재니 무릎에, 또 재니 허리에 차고, 또 재니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라(겔 47 : 3~5) 하는 것은 신앙 성장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들은 구도, 기도, 봉사, 성결의 계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간구보다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 : 18). 어린아이 때는 부모에게 젖 달라, 밥 달라, 새 옷 달라, 책 사 달라, 용돈 달라는 등 간구만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달라고만 하지 않고 도리어 드리려고 하며 감사를 많이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 : 17~18)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 대군의 침입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무화과는 과일이요, 포도나무는 음료수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밭의 식물은 빵이요, 우리의 양은 의복이요, 외양간의 소는 재산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이 없어졌을지라도 내가 아직 살아 남아 있다는 것과 큰 구원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어느 날 밤에 강도가 침입하여 물건을 탈취하여 도망간 후에 즉석에서 네 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은 강도를 여러 번 만났다는데

나는 한 번만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둘째는 강도를 만나면 생명도 잃는다는데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강도가 가져 간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이 더 많으니 감사합니다. 넷째는 내가 만일 예수를 몰랐다면 저런 강도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강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 순천 반란 때에 두 아들을 잃고도 원망이나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 했으나 더 좋은 천국간 것을,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삼고자 하는 마음을, 이러한 역경 중에도 낙심치 않고 감사하는 신앙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둘째, 보호보다는 용기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둠도 무서워하고, 짐승도 무서워하여 홀로 다니기보다는 부모의 보호만을 바라는 소심한 생활을 하지만, 장성하여서는 용기와 자립의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 : 45)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이 적장 골리앗에 대항하여 한 말입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여섯 규빗 한 뼘이며,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고, 갑옷의 중수는 놋 5천 세겔이며,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장의 위엄에 압도되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감히 나가서 싸우려

는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가지고 적장 앞에 나가서 그 중 한 개를 취하여 적장을 쓰러뜨린 후 달려가서 그의 칼로 목을 베어 적군을 대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민수기 13~14장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의 진영, 토질, 수목 등을 탐지하기 위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6조를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모두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토질은 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은 장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빨리 쳐들어가자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을 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나온 1세로는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950년 6·25한국전쟁을 경기도 여주읍 성결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만났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일주일만에 공산군이 여주읍에 들어왔으므로 우리 부부는 백일 된 어린 아들을 안고 쫓기고 쫓겨 처가인 경북 예천읍을 찾아갔으나 그곳도 이미 공산군이 쳐들어와 다시 증평 산골로 피신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산군이 그 동네에도 들어오자 모두의 권유로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낙동강가에 도달했습니다. 나룻배는 철수되고 장마철이라서 물은 범람하여 지방 우익 청년들도 남으로 가려다가 속수 무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수심이 깊으면 성경을 물에 던지고 헤

엄쳐서 건너리라고 각오하고, 겉옷을 벗어 머리에 매고 성경을 두 손 높이 들고 강에 들어섰습니다. 얼마쯤 들어가니 물이 목에 차고 강은 끝이 안 보이는 망망 바다 같았습니다. 강바닥은 모래가 깔려 있어서 두 발을 자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점점 수심이 깊어 머리까지 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모세의 하나님, 물 위로 거닐게 하신 베드로의 하나님, 나도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가장 깊은 곳을 지나 얼굴이 물 위로 올라오게 되어 낙동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된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무보다는 의무 이상의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아니 어른들이 시키는 일도 귀찮아서 억지로 합니다. 때로는 속으로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감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가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창 24 : 19) 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자 할 때에 가나안 처녀보다는 자기 고향의 처녀를 며느리로 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려서부터 백발이 되도록 일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약대 열 필을 비롯해 많은 선물과 함께 메소보다미아로 보냈습니다.

엘리에셀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보다미아 나홀성 우물곁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창 24 : 13~14)고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리브가라는 처녀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고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약대는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사막 길을 걸어가는 동물입니다.

리브가는 한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열 필의 약대에게 땀을 흘려가며 그 깊은 우물에서 열심히 물을 길어 마시우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 이상의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삭의 아내, 야곱과 다윗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과 복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자 룻도 의무 이상으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함으로써 큰 복을 받아 예수님의 조모의 반열에(마 1 : 5)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자기 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습니다.

넷째,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고 봅니다. 형제지간의 잘못도 이해하거나 감싸 주려 하지 않고 비난하고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장성해서는 이해하고 감싸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 : 7)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한 남자와 더불어 죄를 짓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을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아니고, 살리라고 하면 모세 율법의 파괴자라고 싸잡아 고소할 목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볼 때에 십계명에 비춰 보아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들키지만 않았지 몇 번씩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간사함, 위선을 통분히 여기시면서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쓰신 후 허리를 펴시고 일어서서 그들을 예리한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엄숙한 말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할 때에 사람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실수에 대하여 여러 모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 : 11)고 하시며 정죄하기보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장 발장과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 발장은 배고파 하는 조카를 위하여 빵 하나 훔친 죄로 투옥되고, 4번 탈옥을 하다가 실패하여 죄과가 추가되어 15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선하게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왔으나 전과자라 취직도 할 수 없고 음식도 살 수 없고 여관에서 받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생각할 때에 미리엘 신부의 저녁 초대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은그릇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도망가다가 야근하는 경관에게 잡혀 신부에게 끌려 왔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오죽하면 또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경관에게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장 발장에게 "자네 저 은촛대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안가지고 갔나?"라고 했습니다.

경관은 무색해서 돌아가고 장 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긍휼과 자비와 이해와 사랑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되었고, 사업으로 돈을 벌어 선한 일에 많이 썼고, 마침내 조그마한 시의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 학생들의 탈선, 거리의 여인, 동성연애자, 에이즈 환자, 죄수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먼저 낳은 열 아들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뜻하지 않게 결혼한 여자인 레아와 계집종들에게서 난 자식들이고, 요셉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의 소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됨이 준수하고 매사가 형들과 달리 장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꿈을 자주 꾸는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으나 야곱은 심상치 않은 꿈으로 알아 이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내며 먼 곳에 나가 양치는 열 형제에게 먹을 것을 전해 주고 평안한가 동정을 살피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요셉의 형들은 이것을 기회로 요셉을 죽이려고 그를 깊은 우물에 던졌다가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은 애굽 노예시장에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나이 17세였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성실히 일해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정살림과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인물은 잘 생기고, 지혜와 총명이 풍부하고 통솔력도 있어 모든 사람에게 추앙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짝사랑하여 동침하자는 간청을 했으나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을 생각하고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부인은 계획적으로 많은 남녀 노비를 내보낸 후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여인은 창피하기도 하고 욕구 불만으로 인해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의 옷을 잡고 울면서 "내가 요셉을 동정하여 이모저모로 사랑을 베풀었더니, 오늘 내 방에 들어와 옷을 벗고 나를 강간하려 하기에 소리쳤더니 옷을 둔 채 도망갔습니다."라고 허위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를 둘 주신 것은 언제나 한쪽 말만 듣고 속단하지 말고 양쪽 말을 잘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몹시 때린 후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투옥시켰습니다.

투옥되어 있던 한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것이 기회가 되어,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어 번민 중에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와 바로 왕에게 앞으로 7년 대풍년과 그후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라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날 즉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때에는 곳곳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흉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열 아들에게 돈을 주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동생 요셉임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과 보복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창 45 : 5)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 그들을 융숭히 대접하고 양식과 선물을 후히 줄 뿐만 아니라 흉년이 앞으로도 여러 해 계속 될 것이므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처자, 노비를 다 데리고 오라 하여, 왕에게 말하고 옥토인 고센 땅에 와서 행복하게 편안히 살도록 큰 사랑

까지 베풀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까지 한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 : 32)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와 이단과 마귀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섯째, 축복보다는 노력입니다

야곱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 31 : 40)라고 장인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부자가 되었을 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고 비난할 때에 대답한 말입니다.

즉 야곱은 "내가 이와 같이 거부가 된 것은 당신의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것이 결코 아니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밤에는 눈을 붙이지도 않고 일했기에 오늘의 재산을 모은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오래 전에 서울에 사는 한 총각은 평생 소원이 제주도 처녀하고 결혼하는 것이고, 제주도에 사는 한 처녀는 평생 소원이 서울 총각하고 결혼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는 아내가 바다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남편을 먹여 살리고, 서울에서는 남자가 나가 벌어서 아내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원대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일은 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40일을 굶다가 둘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 : 17) 하시며 공생애에 나오시기까지 목수 일을 했고 공생애 기간에는 교육, 선교, 봉사를 하시느라고 때로는 제때에 식사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사 중에 권세열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는 "내가 이와 같이 한국 말을 잘하는 것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은 1847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했고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는 못 다녔습니다. 선생이 에디슨을 저능아라고 해서 퇴학시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어머니라 아들에게 "너는 결코 저능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84세를 사는 동안 전화, 축음기, 타자기, 영사기, 발동기, 전차 등 1,300가지를 발명하여 인류 생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가 한번은 한 가지 연구를 위해서 만 번을 시험했으나 성공을 못했을 때에 한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이미 위대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네."

그는 그 후 기어코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에디슨은 천재와 범인과의 차이는 노력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감이란 오직 1%요 99%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이나, 기적이나, 행운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불철주야 땀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일곱째, 감정보다는 이성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마 11 : 7~8)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갈대라함은 의지가 약한 사람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감정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이성, 감정, 의지, 믿음의 네 가지가 조화 되어야만 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만이 건전하고 바른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와 통일을 가져올 때에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무엇을 보겠다는 것은 감정적 신앙입니다. 광야에 나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나는 샘물 등을 보았으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어 까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기사와 이적을 보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신유의 치료, 각종 귀신이 쫓겨남,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 아들의 소생, 나사로의 부활 등을 보았으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 20 : 29)고 했습니다. 그

러나 우리가 만일 무엇을 보았다 해도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고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기독교 2000년 전통에 비춰 보아야 하고 셋째는 이성의 판단과 넷째는 오랜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다가 망신당한 것은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한 까닭입니다. 영생교니 기타 여러 이단자들이 있고 또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으로 감정적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덟째, 환경보다는 신앙입니다

요셉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 : 9)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조를 때 한 말입니다.

많은 영웅들이 마지막에 이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영웅 삼손도 이성 때문에 실패했으나 요셉은 이 무서운 이성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나 신앙의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물오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것은 온몸에 기름이 흐르기 때문이며, 연어가 폭포도 뛰어오르며 거슬러 오르는 것은 귀향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앙의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나 노아만은 의롭게 살아 방주를 통하여 여덟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마 24 : 38), 롯은 간음과 호모 섹스가 범람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유황불에서 살아 남게 되고(유 1 : 7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환경의 지배를 초월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와 불꽃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초대 기독교 300년 동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대대로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울도, 루터도 시대의 환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 승리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군의 핍박 속에서 신앙으로 환경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대양에 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부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 뒤에 있는 키를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듯이, 참 신앙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음란하고, 패역할지라도 세상에 물들거나 지배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 40,000교회와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사회가 날로 어두워가는 이유는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적은 까닭입니다. 또 미국에는 한인 이민 교회가 3,000개에 달하고 성도수도 상당하지만 미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신앙 성장의 단계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애굽생활은 세상에서의 죄악 생활이요, 홍해를 건넌 광야의 생활은 중생의 단계

요, 가나안의 입국은 성결의 단계로 보겠습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간구보다는 감사, 보호보다는 용기, 의무보다는 의무 이상, 정죄보다는 이해, 용서를 넘어 사랑, 축복보다는 노력, 감정보다는 이성, 환경보다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령충만한 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엡 4 : 13~16)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갈 5 : 22~26)

자녀 교육의 문제(신 6 : 4~9)

기독교 신앙과 자녀 교육(잠 22 : 1~6)

행복한 부부생활(엡 5 : 22~33)

성전 건축(학 1 : 8)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 : 13~16).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은 지도 여러 해가 됐으니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즉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이나마 완전한 경

지까지 나가라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여러 행사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며 사회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도 성도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를 하라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한 것은 사회 구원을 이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생명이 있으므로 계속 자라납니다. 육체의 성장은 어느 한도에 가면 멈추지만 정신과 인격과 사상은 끝없이 자라납니다. 거리에 세운 전봇대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지만 살아 있는 나무는 해마다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자라나야 합니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까? 대학원이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홍익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성실하고도 능력 있는 훌륭한 인물을 길러 내기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도 훈련소, 하사관 학교, 각종 장교 학교, 정규 사관 학교, 육군 대학, 해군 대학, 공군 대학 등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그 방면의 전문 기술을 연마할 뿐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도야해서 유능한 지휘관이 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과 인격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앞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앞만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남보다 힘차게 달려야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고 말씀했습니다. 즉 앞만 바라보고 달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 : 7)라고 했습니다.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 12~14)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로마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경 지식, 기도생활,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 설교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옥중에 갇힌 바울을 생각할 때 그만하면 완숙한 사람이라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음박질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에서 크게 배울 바가 있습니다.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바울보다 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 온 사람이고 원숙한 사람이고 완전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한 것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24시간 달렸을 것입니다. 밤에 자면서도 마음으로는 달렸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 사업, 직장,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주중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웃 사람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사 33 : 17).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근시안을 가지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향락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발등 앞만 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봅니다. 벌레는 가까이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독수리는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

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 : 15)는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멀리 내다보고 장차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500년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의 특징을 근시안적이라 말합니다.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없이 여론과 물질, 향락에 좌우되는 지극히 근시안적이요 심미적이요 찰나적인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좀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크게 뜨고 멀리 갈보리언덕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늘 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간 것처럼, 이 땅만 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뒤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뒤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만 보고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에 있는 거울로 뒤따라오는 자동차를 보아야 하듯,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자동차를 잘 보지 못하다가 사고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다보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고개를 돌려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뒤에서 들려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사 30 : 21). 이 말은 역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사실이고 예언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 취사 선택을 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히 13 : 7)고 했습니다. 즉 먼저 우리 앞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베드로, 요한, 바울의 종말을 주의하여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오늘 이 시대를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서에 "생각나게 하고자"(유 1 : 5). "기억하라"(유 1 : 17)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글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유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구약에 나온 역사적 사건을 들면서 "생각나게 하고자" 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단체가 이런 잘못으로 다 망하지 않았느냐? 세 종류의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느냐? 신약의 사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리라 했으니 너희는 조심하여 잘 믿으라."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교만하여 제자리를 떠나 올라가다 망하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간음과 괴이한 색을 따라가다 죄를 짓고 유황불을 만나 망하지 않았느냐? 가인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느냐? 발람 선지자는 돈을 탐하다가 멸망받지 않았느냐? 고라는 하나님 성전에서 40년 봉사한 사람인데 명예심이 강해서 당을 짓다가 멸망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길에 섰다면 돌이키라는, 역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유 1 : 17)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나타나며 당을 짓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니 이런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어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돈보다도 믿음이 더 앞서야 합니다. 내려가려고 해야지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고, 당을 짓고, 혼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루시퍼가 제자리를 떠나 올라가려다가 망했지만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제자리를 지켜 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을 본받지 말고 아벨을 본받으십시오. 발람을 본받지 말고 사무엘을 본받으십시오. 고라를 본받지 말고 갈렙을 본받으십시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이웃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경건한 생활과 선행을 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가 찰스 웨이비어드가 하루는 대학생 한

명이 와서 "일생 동안 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성급한 사람이 생각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같이 보이지만 보드랍게 하시더라.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따 가지만 실상은 꽃씨를 널리 흩어 주고 있더라.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려면 권세욕에 날뛰더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이긴 경우를 보지 못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지만 하늘 동서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짝이는 별 한두 개는 찾을 수 있더라."

이 다섯 가지를 일생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아무리 소란스럽고 공산당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해도 궁극적인 역사의 심판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하지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에 대해 귀를 기울여 갈길을 선택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앞만 봐도 안 되고 뒤만 봐도 안 되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 : 1~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밑의 것은 생각지 말라는 말씀은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가변적

인 것만 생각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 불변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하늘 것도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 : 24~26).

이 말씀은 모세가 앞을 볼 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가서 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기에, 잠깐 영화를 누리다가 영벌을 받을 애굽생활보다도, 잠시 동안 고난을 받다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궁전을 떠나 광야 길을 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유일신 종교를 주창하고 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을 썼던 위대한 모세를 여기서 찾아봅니다.

만약 모세가 저 위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영광의 집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마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방자도, 유일신 종교의 주창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요, 십계명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모세 오경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를 바라보고 위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위대한 것을 남겨 놓았습니다.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사 6 : 1~3).

이사야가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고개를 들고 눈을 떠서 보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영광으로 가리어서 직접은 볼 수 없었지만 여섯 날개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근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며 자기를 비춰볼 때 자신은 부족한 죄인이고 입술이 더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숯불로 입술을 지짐받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산 이사야는 하늘을 보았기에 자기를 찾았습니다. 사명 의식을 깨닫고 아름다운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치고 자기를 찾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선한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 : 55~56).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초인적인 죽음을 보여 준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바라기는 항상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은 하

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개나 돼지, 소나 코끼리, 말이나 호랑이는 열등 동물이기에 네 발을 가지고 땅만 보고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두 발로 서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마음이 착잡할 때면 성경 시편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가끔씩 밖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그렇게도 맑고 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맑고 푸르고 넓은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잡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위로 향하여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파트에 총과 칼을 든 강도가 문을 뜯고 들어와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다 가져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숨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얼마 전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한 분이 "제가 오늘 백인에게 2,000달러를 사기당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000달러 더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6,000달러를 떼일 뻔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가고 대낮에 백인에게 돈을 사기 당했지만 목숨 다치지 않고 더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진이 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직장에 다녀도 불안하고 강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개를 뒤로 돌려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의 교훈을 듣

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24시간, 일년 열두 달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여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 : 22~26).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살았다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바늘에는 실이 따라가야 하고 새는 두 날개가 필요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그에 부응하는 실천이 따라야만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강단과 강단 바깥의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강단에 서거나 미사를 집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도 살리는 신앙과 행위가 병행할 때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한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첫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식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양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나, 내 집, 내 처자, 물질 부요, 행복만 추구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 과부, 병든 사람, 나그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제가 몽고 가는 길에 어떤 선교사님과 사흘을 지내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 저녁에는 그 집에 가서 묵었는데 집에 침대도 없었습니다. 이 분은 미국에서 살 때 기업을 경영해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좁고 중국으로 보낼 성경 찬송가를 쌓아 두어야 하고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수고가 많다고 하니까 "오히려 초대 교회 선교사들에 비하면 이것은 호강이지요. 각오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감동한 것은 그분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몽고로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행들처럼 약품을 넣은 보따리이겠거니 했는데 숙소에서 어느 곳에 전화를 하자 젊은 현지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풀어서 쌀, 오이, 고춧가루, 참기름 등 일용 식품을 전부 현지 선교사에게 주면서 "모두들 나누어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안면이 있는 선교사도 아니지만 몽고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여러 곳에 갈 때마다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분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 무거운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생활도 넉넉지 않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했고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들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화평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셋째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을 분석하면 저마다 다 개성이 다릅니다. 삐죽삐죽 가시가 돋치고 모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성령의 용광로에서 다 녹여질 때 그들은 새로운 화평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120명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각각 개성이 뚜렷합니다. 베드로는 과격하고, 요한은 온순한 사람이고, 시몬은 국수주의자이고, 마태는 사대주의자, 안드레는 단순하고, 도마는 회의주의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인종, 계급, 성별, 지식, 빈부 격차가 달랐지만 성령을 받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왕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색깔이 같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천국 백성의 일곱 가지 자격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곧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믿는 권사님을 아는데 이 분은 기도도 잘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산기도하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는데 며느리하고는 아주 원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생신 날 무엇을 사 주는 것보다도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의좋게 지내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빚진 사람이 간절히 간청합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종이 주인에게 이르자 주인이 일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일 아침에 하와이를 기습해서 많은 군함과 비행기, 선량한 민간인과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 용서하고 폐허가 된 일본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우면서 손을 잡고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서 누구와 담을 쌓고 있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화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합니다.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살짝 뛰어넘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벽을 쌓고 등을 돌리고 불목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 찾아가서 화

해하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불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큰 은혜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당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제직들이 모범을 보이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들, 온 성도들이 먹보다도 더 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화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잘 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잘 참았기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잘 참아 여덟 식구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가시관, 십자가 여섯 군데의 상처를 입으시고 그 무덤 속에서 잘 참으심으로 부활, 승천, 보좌 우편, 면류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도 잘 참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7절은 바울 사도가 전도 다니면서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죽는 자리에까지 나가면서도 잘 참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평화의 유지자요, 신앙의 보호자요, 사랑의 육성자요, 겸손의 스승이요, 부흥의 요소가 됩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희생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잘 참는 종교입니다.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를 괴로울 때마다 부르면 힘이 됩니다.

파괴는 쉽고 건설은 어렵습니다. 유리 컵 하나를 다섯 살 난 아이더러 깨뜨리라면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나 다시 만들라고 한다면 십 년이 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쏟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떤 안 믿는 청년이 집사님 한 분을 속상하게 하고 약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았어야 하는데 그만 이 집사가 팔을 걷어붙이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한바탕 싸웠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오른 빰 때리면 왼 빰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용서하는 참는 종교입니다. 혈기, 감정, 정욕, 실패, 가난, 오해, 멸시, 푸대접, 음주, 도박, 춤바람, 불경기도 잘 참으면 기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회오리바람은 하루 종일 부는 것이 아닙니다. 장마도 일년 내내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태양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신 것처럼 잘 참아야 합니다.

찬송가 347장 1절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했고 3절에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달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충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바쳐 가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몽고에는 타는 말이 많습니다. 몽고는 월맹과 미국이 전쟁할 때 월맹에 말을 제공했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한 말이 그 정글을 지나서 높은 산을 넘고 넓은 평야를 지나서 양자강을 건너 내몽고에서부터 외몽고 수도를 지나 몇 달 며칠 만에 주인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주인을 태우고 짐도 싣고 했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 말 없이 충성, 시간 생각지 않고 충성, 보수도 생각지 않고 충성,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상징적 동물은 소입니다. 소는 젖을 줍니다. 송아지를 낳습니다. 죽으면 살과 가죽 오장 육부를 국거리로 주고 심지어는 배설물까지도 말려서 불을 지피고 밥하는 데 활용합니다. 다 줍니다.

이것이 충성의 본보기입니다.

교회에서 충성치 못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불만 불평합니다. 목사가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 성도들은 주 앞에 가는 날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귀하건 천하건 가리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듣고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섯째,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물욕과 정욕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에도 때로는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고 신호등도 분별할 줄 알아야 신앙 생활을 건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가인은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했고, 아비멜렉은 명예심을 절제하지 못했고, 아간은 물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삼손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아합은 소유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모두 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6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격언에는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절제는 사람을 정당하게 만든다."라고 했고 영국의 존슨은 "건강의 방법은 절제"라고 했습니다. 건강의 가장 묘약, 양약, 보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먹는 것에 절제, 운동에 절제, 부부 생활에 절제, 물욕의 절제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90세가 되신 분인데 반찬이 많으면 밥을 안 드십니다. 반찬이 없으면 밥을 다 드십니다. 제가 물어 보니까 "반찬이 많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그렇고, 반찬이 없을 때는 밥이라도 다 먹어야 칼로리가 섭취되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찬이 많으면 밥을 더 먹습니다. "반찬이 밥도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주교 제레미 테일러는 "절제는 이성의 허리띠요, 격정의 신부요, 영혼의 힘이요, 도덕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과속하면 사고 납니다. 과식하면 병듭니다. 운동도 절제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부부생활도 절제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말도 절제하지 않으면 실수를 합니다. 무력도 절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것도 잘 먹고 소화해서 실천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 가서도 받고 산에 가서도 받고 무절제하게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 예언, 입신, 진동한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만이라도 잘 먹고 새김질하면 그것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불일 듯 일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았다면 사랑, 화평, 인내, 충성, 절제가 있는 건전한 신앙생활로써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 6 : 4~9)

큰 꿈을 가지고 이민 온 이 미국 땅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흑백 문제를 비롯해서 마약 문제, 에이즈 문제, 갱 문제, 이혼 문제, 특히 십대 문제가 오늘날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은 매 10분마다 10명의 십대들이 자살을 기도하고, 105명이 학교에서 자퇴하고, 618명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마약을 피우고, 15살부터 19살까지의 여학생들 20명이 임신하고 있고, 그 중에 5명은 사생아를 낳고, 8명은 유산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중범으로 구속된 죄수 중 57%가 12~20살 된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목적 중 하나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는 것인데, 자녀를 교육시키기가 날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전통적 교육 방법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와 효도와 예의 범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자녀 교육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 교육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자녀 교육에 어머니들이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혹은 가정 교사를 둔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학교 사친회에 가서 교사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데 이민 사회에서는 치마 바람의 풍조가 드뭅니다. 그것은 부모가 생계를 위해 분망하고 피곤하기 때문이며 언어의 장애와 학교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부에서도, 서부에서도 백인들은 학부모회에 많이 갑니다. 다른 소수 민족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학부형들은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온다면 4,000명, 5,000명, 6,000명이 모이는데 학부형 회의할 때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셋째로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종적인 관계만 맺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교육은 횡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서 권위주의나 방임주의도 아닌 관심을 가지고 상호 평등의 민주적인 교육 방법을 취해야 바람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권위주의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십 대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생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뉴욕에 세미나 갔을 때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어른들은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현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타협을 한답니다. 갈 때에는 부모를 위해 고전 음악을 틀고 올 때에는 아이들을 위해 현대 음악을 트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는 말을 듣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넷째로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의식은 친구와의 협력보다는 상대방의 패배를 더 기뻐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교포들은 자녀들에게 일류 학교에 들어가라고 강조합니다만 인생의 성공은 반드시 일류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적을 A만 받는다고 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나친 경쟁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섯째로 교육보다도 돈을 더 중시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돈은 지금 못 벌면 다음에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한번 기회를 놓

치면 다시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천재는 30세 미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은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자녀에게 책과 돈을 동시에 땅에 떨어뜨렸다면 책을 먼저 주우라고 철저히 가르칩니다.

미국의 억만 장자 록펠러는 "나는 천만 달러를 모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돈과 행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절은 과거 자동차 정비공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미국의 거부 카네기는 "백만 장자의 얼굴에서 웃는 것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랍비 두 사람이 노예로 잡혀갈 때 만약 한 사람만 자유케 할 수 있는 돈을 가졌거든 아버지를 자유케 하지 말고 랍비를 자유케 하라."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성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성을 누가 지켜 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군인이 지켜 줍니다." 하고 대답하니 "빨리 이 성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교육이 이 성을 지켜 주지 않으면 군인이 지킨 성이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공자가 "나라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경제력, 국방력,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필요 없다면 국방력이 필요 없다. 또 필요 없다면 경제력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라고 말한 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둘째, 문제아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첫째로 근본 문제는 부모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문제아는 그 아이의 친구나 사회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 부모 가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의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본래 착하고 순진했는데 미국 와서 버렸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 의학자 메리킨 박사는 교육은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튼튼하고 명랑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충격을 받거나 비판을 하거나 잘 먹지 못하면 그 아이는 허약하고 신경질적이라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나타난 사실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공자의 어머니가 앉을 때도 똑바로 앉고 누울 때도 똑바로 눕고 음식도 상한 것은 먹지 않고 태중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처럼, 교육은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교육자 콜만 매카시 박사는 "16세 된 아이의 성격과 행동은 12세 때 이미 결정됐다. 12세 아이가 취한 행동은 8세 때 이미 원인을 갖고 있다. 8세에 나타난 행동은 3~4세 때 그 뿌리가 이미 박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썽꾸러기 아이의 문제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형제들이 싸울 때면 부모는 "싸우지 말라.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말하면서 아이가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왜 나가서 맞고 들어오느냐?"고 야단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모의 위신과 권위와 존경심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침 뱉고 껌을 버리면 그냥 두다가도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야단을 친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요 자가 당착입니다.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맹자가 다른 집에 갔다가 오더니 "어머니, 옆집에서 돼지 잡아요" 하니 무심코 "너 주려고 잡는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아차 싶어서 돈은 없었지만 돈을 구해 돼지고기를 사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자녀에게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를 과잉 보호합니다.

한국 부모는 자녀를 너무 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말에 "불면 날아갈쏘냐 누르면 터질쏘냐 금자동아 은자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쓰러지면 부모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가 넘어져서 울기라도 하면 그냥 달려가서 "어이구 코피나 나지 않느냐?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놔두느냐"라며 그저 온실의 꽃과 같이 키우려고 하지만 이런 아이는 장차 사회에 나가면 모진 바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부터 강한 정신력으로 훈련시켜야 험악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군에 있을 때 3년 공군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병 하

나가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이제 제대하고 집에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자네 군대에 와서 3년 동안 복무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군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회에 나가서 살 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 영국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대학까지 교육시킨 다음에는 식민지 국가로 보내어 고생을 많이 시킨 다음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간의 어려움을 통해 외적, 내적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점은 자녀들을 과잉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도 돈으로 대치합니다. 이민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모상입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보살펴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속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사 주고 달라는 대로 줍니다. 공부한다고 하면 돈을 마구 줍니다. 먹을 것을 아끼지 않고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돈보다도 관심입니다. 애정입니다. 시간입니다. 대화입니다. 이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넷째로 과도한 폭언과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합니다. 부모가 신경질적이고 과도한 폭언을 하고 구타도 합니다. 미국은 아이를 구타하면 고소를 당하든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교육시키라는 말입니다. 때릴 때는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때렸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끌어안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고 말하고 그 맺힌

마음을 풀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어떤 부모는 너무 시달리고 힘든 것 때문에 그만 아이들에게 폭언도 하고 폭력도 가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이들이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다시 빠져 나오기 어렵습니다.

내가 1965년 미국에 와서 케이픈 씨 집에 있을 때, 그 집의 한국 고아 마이크는 매일 나가서 싸우고 코피가 터져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을 찢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양어머니가 매일 붙잡고 울면서 옷을 벗기고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듣자 하니 그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이해도 필요하고 사랑과 눈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릇된 부모들의 교육 태도입니다

첫째로 이질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많은 이민 부모들이 미국에 와서 아직도 미국의 문화, 습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965년 5월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켄터키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도 자동차로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자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값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미국 문화입니다.

한 식당에서 어머니와 딸이 식사하고 나서 각자 자기 음식값을

계산합니다. 한국의 장교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국 친구들이 극장에 가자고 해서 극장에 갔답니다.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5분 가량 늦었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친구들이 2시간을 기다려도 보이지 않더니 극장 안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오더랍니다.

둘째로 자립 정신이 부족합니다.

미국 부모들은 고등학교까지만 학비를 대주고 그 다음은 스스로 나가서 벌어 살도록 자립 정신을 키워 줍니다.

셋째로 자녀의 적성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치중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소질을 가졌는지,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서 학교도 선택하고 진학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모들은 과거에 자기가 하지 못한 것들을 자식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대학에 가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넷째로 인간성 함양보다도 지식 편중입니다.

"공부해라. 일류 학교 가야 한다."라고 너무 지식만 강조하면 안됩니다. 인간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보다도 인간성 함양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인격, 그 후에 지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백 년 동안 외국 유학생이 우등한 일이 없었는데 어느 해 일본 학생이 우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영국의 전통과 명예를 훼손하는가 싶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일본 유학생이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졸업 시험 직전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 시험에서도 일본 유학생이 다시 일등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물었습

니다. 그때 그 일본 유학생은 "브라운이 학교만 끝나면 곧 병원에 와서 그날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브라운의 행동, 바로 이런 것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과도한 사치성입니다.

한국의 부모들 가운데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할 때 주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허영심을 갖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죽음의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바른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로 십대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기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이고 무조건 반항적인 것이 십대의 특색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살려고 하고 자유롭고, 이상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일편 단심입니다. 장단점을 알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화할 때 부모들이 심리학적형으로, 위로자형으로, 지휘관형으로, 도덕가형으로, 만물 박사형으로, 재판관형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심리학적형이라 함은 아이들이 말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동기부터 분석해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위로자형은 "얘야,

알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잊어버리고 자라." 하면서 그저 덮어놓고 문제 해결도 안 해주고 위로만 해주는 것이고, 지휘관형이라는 것은 "네 아버지 말만 들으면 돼." 하는 것이고, 도덕가는 설교하는 것처럼 하고, 만물 박사는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서 다 겪고 다 안다. 그만 말하고 그냥 가서 자라." 하고, 재판관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인격을 존중하고, 끝까지 눈을 주목하면서 들어주는 인내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그 시간에 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문제는 몇 십 년 걸려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구한 시간을 가지고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지식 교육보다는 지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지혜는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혜는 삶에 유익을 주고(잠 4 : 5~9),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잠 5 : 1~6), 삶에 능력을 주고(전 7 : 19), 생명을 보존한다(전 7 : 12)고 했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금은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구약성경에서 오경을 가르칩니다. 또 잠언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잠언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탈무드는 유대학자들과 랍비들이 몇 천 년 동안 인생 경험에서 나온 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탈무드를 읽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부모의 모범적 생활입니다.

교육의 장소는 네 곳으로 가정, 학교, 사회,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 교육 장소 중에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장소는 가정입니다. 또 제일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은 자기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모범적 생활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 : 6~7)라고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요한 웨슬레가 출생한 집을 보고, 그가 다니면서 전도한 곳, 마지막 목회하고 죽었던 자리까지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1703년 런던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사방에 강이 있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이므로 학교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웨슬레의 부친은 목사였고 모친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목사인 가정에서 24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그 사는 동네에 학교도 없어 어머니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19명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한 번 가르쳐 준 것은 20번씩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매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고, 신학을 하고, 조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선

교사가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 올더스케잇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설교자요, 대부흥가요, 학자요, 사상가요, 영국을 복음으로 건진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어거스틴, 루터, 그 다음이 요한 웨슬레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번째 아들인 찰스 웨슬레는 성가 9,000곡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한 아내요, 어머니요, 교육가요, 목사요, 신학자라고 했습니다. 19명을 기르는 동안에 애석하게도 9명이 죽었습니다. 10명을 길렀는데 그 중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위대한 두 아들을 길러 인류와 하나님을 위해 바친 위대한 여성 수산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의 집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교육을 바로 받아야 우리 이민에 보람이 있고 인류 역사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 실패하면 미국에 와서 한 고생들이 헛될 뿐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교육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야 하고, 둘째는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고, 셋째는 지혜의 교육을 시키고, 넷째는 이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리고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어야만 아이들이 장래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자녀 교육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1~6)

오늘은 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길렀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분류해 볼 때 네 종류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는 낳기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낳아서 거리에 던지는 사람, 남의 집 대문에 버리는 사람, 파출소 앞에 버리는 사람, 고아원

에 맡기는 사람, 심지어는 아이를 팔아 넘기는 부모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기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방임하고 교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낳아서 사람 되게 가르치지 못할 바에야 하나를 낳아서 잘 가르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셋째는 낳고 길러서 가르쳐 좋은 학교를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배운 교육은 지성 교육, 기술 교육, 출세 교육, 치부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인간을 길러 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낳고 길러서 가르쳐서 신앙을 넣어 주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인간 가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전인 교육을 시키는 부모라야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를 보면 아주 대견합니다. 어린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을 신앙에서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믿음의 후견자가 있을 때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후견자가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신자여야 그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

지 후견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 때에는 다섯 가지 약속을 합니다. 교회 교육과 친교에 참여할 것, 악의 세력에 항거할 것,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것, 그리스도를 섬길 것,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기를 것 등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모들은 매우 바쁩니다. 옛날 부모들은 낳아서 그저 학교에 보내면 되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어려서부터 유아원, 유치원에 보내야 합니다. 학부모회에 가야 하고 학예회 때 참석해야 하고, 기능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바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집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차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도력을 가지고 절대로 필요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5, 6세 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또 아버지에게 음식도 대접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야곱을 왜 하나님은 더 사랑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빈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어른들 주머니에도 떡이 좀 있었을 텐데 자기들 먹으려고 예수께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기에도 적은 분량인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치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내놓았으니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또한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은 부모의 기본 의무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를 피게 하고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데도 정성이 들어갑니다. 축산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비결을 물어 보았더니 "동물을 대할 때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사람같이 사랑하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녀 양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집도 자동차도 있다가 없어지지만 머릿속에 이루어진 교육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불경기를 당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일에 자녀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것은 자동차를 사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고 유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걷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길로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부모들의 여정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함께 저 천성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역사를 볼 때 수세기 동안 어린아이의 지위와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 오면서 비로소 어린아이가 이해되기 시작

했고 지위와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단순히 종족 보존이나 식구의 하나나 생산 수단의 하나로서 불완전한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아이들의 인식 정도, 사고 수준, 감각 정도, 성취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을 볼 때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창 4 : 1).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은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 : 3)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한 아이에게 인도됨(사 11 : 6)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린아이로 권능을 세우시고 부정자를 심판하심(시 8 : 2)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부른 것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마 21 : 15)고 말했습니다. 또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 : 25)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를 예수님은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동기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집에서만도 아니고 학교에서만도 아니고 사회에서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청소년에게 탐구적 신앙은 고등학교 때에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많은 질문, 위험한 판단, 실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신앙은 귀속적으로 성숙해 나갑니다. 즉 그전에는 바깥을 알려고 하다가 차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귀납법적인 신앙이 발전해 나갑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22년 동안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벌써 성가대에 앉았고 집사도 되었고 신학생, 목사, 선교사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명심할 것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들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가정은 항상 변화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버지만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제력 강한 어머니도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남자가 부엌에서 일하고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더군요. 물어보았더니 여자는 초등학교 교장이고 남자는 군대 있을 때 식당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대한 후에도 부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가 있는 집이 있고 계모만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이복 동생하고 같이 사는 집도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는 아이 셋이 있으면 하나는 아버지의 딸, 하나는 어머니의 아들,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딸입니다.

현대의 가정은 이렇게 다양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일깨워지고 강화되고 증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신앙 여하에 따라 어린이도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섯 가지 지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예배와 찬양을 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넷째는 함께 듣고 말하는 일입니다. 다섯째는 신앙과 봉사생활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린이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구주를 보내셨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며, 예배하는 동물이므로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고, 예배에는 감사와 찬송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와 교회 예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중심입니다. 신령한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며 친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친구와 함께 꿈과 감정과 실패와 상처와 슬펐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와 의논하자"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 함께 듣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종교적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과학이 정당한가요? 성경이 정당한가요? 하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나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할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나요?” 등등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아이가 “엄마! 내가 어디에서 나왔지? 하고 물을 때 “배꼽으로 나왔단다.” 한다면 잘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섯 살 난 아이에게 어린아이 낳는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 보여주었더니 “이제야 알았다!”고 말하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질문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조물주이시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육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영으로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든지 계신다.” “과학이 정당한가요, 성경이 정당한가요?” “둘 다 정당하다.” “할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나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다 죽는단다.” “하늘 나라는 어디 있나요?” “하늘 나라는 저 위에 있다. 그리고 마음에도 하늘 나라가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하나요?” “사람은 세 번 죽는다. 그 세 가지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다.”

신앙과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나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집에서 TV나 보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무라면 봉사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천풍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아, 새벽에 나가서 네 시간씩 매일 기도하지 말고 두 시간만 기도하고 두 시간은 봉사

하라"고 말했습니다. 봉사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제 교회 벽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아이들에게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기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904년까지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1904년에 심리학자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12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기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확립, 자율성 확보, 자기 통제와 자제력 배양, 목적과 성실성 개발, 건전한 상호 인격 관계를 성취하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성취는 청소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세부터 24세까지의 기간은 중요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12세 된 흑인 아이가 자전거점을 하는 한인 주인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인은 누구인가?" 하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미안하지만 미국 정부, 백인 사회, 부모들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신체적, 성적, 지적 성숙에 도달하는 나이입니다. 공동체적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기 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부모와 다른 권위자들과 갈등을 느낍니다. 또 교회, 학교, 우정 관계, 교육 기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신념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문을 제기하며 어릴 때의 종교적 경건을 버리고 미숙한 행위와 성숙한 행동 사이에서 방황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 폭풍의 시대, 반항의 시대, 회의의 시대, 불안정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성경 교육, 도덕적 본보기, 사랑의 실천, 진실한 삶 등을 그들에게 중요한 선물로 주어야만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신앙 여정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 : 15)고 하였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 : 16)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보기 교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보기 교육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마약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담배 피우면서 아이들에게는 암에 걸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아이들에게 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신앙 여정을 걸어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 : 1)고 하셨고,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창 12 : 5)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났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여호와를 위

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창 12 : 7),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창 12 : 8),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13 : 4),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창 13 : 18)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보따리를 풀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써 조카 롯에게 신앙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 땅에서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아들 이삭에게도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 : 5)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가 젊지만 믿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도 이 땅에 와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데 후손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엄격한 신앙, 십일조 신앙, 협동적 신앙, 감사의 신앙 등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6 · 25 한국전쟁 때 피난을 떠났었습니다. 되돌아온 후에 1 · 4 후퇴를 만나 또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접경의 어느 촌에 갔습니다. 큰 방앗간 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수십 명이 같이 가서 방에서도 자고 헛간에서도 자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주인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길어 오고, 어떤 사람은 장작을 패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

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수복해도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 동네에 예배당 짓고 같이 삽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부모들의 영향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학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사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일생 동안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은 부모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니카의 위대한 신앙이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산나의 위대한 신앙이 영국의 위대한 웨슬레를 만든 것처럼 자녀가 성공하는 배후는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과 눈물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내일의 교회와 사회의 주인들입니다. 21세기 새 역사를 창조할 사람들입니다. 부디 이 청소년들을 위해 부모의 기본적 역할을 감당하고,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신앙 여정에 본을 보여 그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생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 : 22~33).

행복해야 할 부부들이 다투고, 때리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총으로 쏴서 죽이는 참상이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한 젊은 여성도가 방 두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남편하고 사는데 한국에서 자기의 여동생이 왔답니다. 한 아파트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자기 여동생과 남편이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 전세계에서 가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가정의 가치(family value)를 정치적인 쟁점의 하나로 들고 피차에 공박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점점 불행을 향하여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행복한 부부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한 몸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네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 : 24).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마 19 : 5).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막 10 : 7~8).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엡 5 : 31).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혼에서 신비스러운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촌수가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숫자이며, 성공, 실패, 희로 애락을 공감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떠나라는 교훈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여자도 그의 부모를 떠나고 남자도 그의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옛날 생각들은 딸은 떠나 보내지만 아들은 누구를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성경은 여자도, 남자도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몇 해 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오니 어떤 권사님이 "가뜩이나 아들들이 어머니를 싫어해서 아파트로 내쫓았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제쳐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뜻은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즉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성인으로서의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견해보다 배우자의 생각이나 견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동의, 충고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부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태도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배우자의 생활 양식을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배우자를 뜯어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결혼한 부부는 내가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보다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자기들에게 잘해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더욱 원합니니

다. 그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부모를 원합니다.

만일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자녀들을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생애가 그들에 의해서 휩싸이거나 그들을 감정적으로 속박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들의 생애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간섭할 수 있겠지만 깊이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사를 더욱 존중하며 매사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출가한 딸이 친정 부모의 도움을 원한다면 "네 남편과 의논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친정 부모의 바른 태도입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기도하며 그들이 서로 좋은 가정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자세입니다.

셋째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 : 28).

요즘 어떤 사람들은 아기 안 낳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한걸음 더 나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성경적 교훈입니다.

둘째, 이상적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 : 22).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골 3 : 18).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벧전 3 : 6).

성경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지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말고 조언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전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성경은 아내의 복종은 연속적이어야 하고 선택적이 아니고 의무적인 것이며 영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벧전 3 : 1). 이 복종은 부정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이 복종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까지 옮기는 복종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남편을 돕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 : 18).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

편을 돕기 위한 피조물이란 것을 생각할 때 여자를 가리켜 남편의 내조자라고 한 말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 : 11).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잠언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여성들은 잠언 31장 10~31절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본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도울 때 어떤 방법으로 돕느냐 하면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신문에 어떤 경관이 자기 집에 갔다가 아내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내는 믿을 만하고 선량한 아내라야 합니다. 부드럽고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남편과 의논을 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해야 합니다. 관용과 인내로써 남편을 대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합니다. 근면, 검소, 창조적, 의욕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남편의 부족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남편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남편을 돕는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셋째, 이상적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아내를 지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전 3 : 4~5).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전 11 : 3).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하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남을 쓰려면 그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 : 28)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마지막에 몸까지 버려 대속해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지도하라는 것은 명령으로나 어떤 권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봉사하는 의미로써 지도하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명령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왜 그렇게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백성들의 인생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그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상적 남편은 아내의 욕구가 무엇인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충족시켜 주어야 아내를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왕좌에 앉으셔서 지휘봉만 가지고 지휘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열두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

럼 남편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겸허와 봉사로써 아내를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는 여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여자를 지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잘 선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에게 복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 : 25).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복종의 대가로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몇 해 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별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더러 "아내 병을 고쳐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돈이 있어야지요." "당신 인쇄소도 있지 않소." "죽을 사람은 죽겠지만 인쇄소 없고 집 없어지면 살아 있는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더니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몸을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려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남편들이여, 아내의 사랑과 복종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심같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엡 5 : 28),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엡 5 : 33)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내 몸이고, 배우자이고, 약한 그릇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여보, 사랑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못 합니다. 밑천도 안 드는 일인데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에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나도……"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는 "말로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십시오.

셋째로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회적으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동창회도 참석하고, 교회활동도 하도록 해야지 남편의 전유물인 양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도 언행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남자를 보니 자기 아내더러 "야! 빨리 물 가져 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여보! 물좀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당신 음식 솜씨가 더 좋아졌구려. 맛있어요."라고 칭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내 아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행복하지 자꾸 코도 비교하고 눈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각오를 가지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상적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관계와 육체적 상호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첫째로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 : 3~5)고 말했습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남자는 '아내는 내 몸이니 내 맘대로 해야겠다.' 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몸을 주장한다고 했고 아내도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하기 싫어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가까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몸에 큰 지장이 없는 이상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중 이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부부생활 때문에 불화하고 불만족하여 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 육체의 즐거움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 : 4).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신성이 있습니다. 종교 신성, 노동 신성, 가정 신성이 그것입니다.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침대를 더럽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창 4 : 1).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 : 7).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롬 15 : 1~2).

여러분, 부부지만 병이 들었을 때나 아이 낳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김계용 목사님이 북한에 아내를 두고 40년 간 혼자 깨끗이 사신 것은 절제하신 것입니다.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 장기려 박사같이 40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북한에 있는 아내를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며칠 몇 주를 못 견디고 나가서 외도하여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D.H. 스몰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설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동침은 영적 관계의 상징이며 온전히 하나되는 표현이다. 이것은 부부의 연합을 확신케 하며 촉진시키는 수단이다. 진정한 의미의 동침은 상대편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 둘 사이의 인격적인 연합을 더욱 북돋워 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이민들이 자녀 공부시키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부부생활

을 위해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부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책 빌리는 분들은 물론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들, 딸,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른들도 배워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들이 다 가르쳐 주는데 한국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책을 사서 보아야 합니다. 배운 다음에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다섯째, 이상적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엡 6 : 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 3 : 21). 자녀를 교육시킬 때 아버지들은 때때로 자기 감정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권위로써 자녀들을 과하게 나무라고 과하게 꾸짖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관습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면 오히려 교육적인 해를 가져 오게 됩니다. 이해와 용서와 격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동생하고 놀 때 어머니가 잠깐 나가시면서 동생을 잘 보라고 해서 물 깡통을 가져다가 방바닥에 동생 얼굴을 그렸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동생 세리를 그렸구나' 하시면서 이마에 뽀뽀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격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 야단났을 것입니다. "네 아비 닮았구나." 하

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와 기를 꺾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첫째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 : 4).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주의 교양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넣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배운 것은 끌로 돌에다 새기는 것이고 늙어서 배우는 것은 모래 위에 쓰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 같아서 그리는 대로 나타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 : 6).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을 바른 인간으로 교육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타락자를 회생시키는, 생활의 올바른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다니엘 웹스는 "한 나라의 흥망은 그 나라 국민이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늘 이렇게 발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첫째이고,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썼고, 대통령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그때부터 미국의 도덕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영국의 웨슬레 형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그들의 어머니 수산나가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히 가르친 결과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이 훌륭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려서

부터 성경을 철저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 가정 자녀들 중에 가출하고, 혼전 관계를 맺고, 마약하고, 술 먹고, 갱에 가입하고, 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잘못 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고, 모범도 보이지 않고, 성경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성경을 배워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탈선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계속되는 불경기와 4 · 29 폭동으로 말미암아 불황 속에서 어떤 가정은 월부금을 내지 못해 걱정하고, 자동차도, 집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경질적이 되어 싸우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손해는 받아도 신앙의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결혼은 한 몸, 부모를 떠나, 생육 번성,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를 잘 지도하고 사랑하고, 부부관계는 자기 주장하지 말고 육체의 즐거움을 갖고, 자식에게는 노엽게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서 이상적 가정, 모범적 가정이 되어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 1 : 8).

주전 967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가운데 만여 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전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바사 나라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유대에서 잡혀 온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려 유대 사람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서 터를 닦고 주춧돌을 놓는 가운데 여러 이웃 나라 원수들이 시기하고 공사를 방해하므로 부득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다시 곧 공사에 착수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집은 좋은 재료로 지으면서도 15년 동안 성

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 1 : 4, 8). 이 말씀에 온 백성들이 자각하여 공사에 착수해서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학개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8절).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합 2 : 20)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삼상 3 : 3~4)고 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던 중 성전 안에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엡 1 : 23)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 : 24)고 하며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 희생, 충성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더욱 충실히 시키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계 선교를 확장하고, 또한 지역 사회에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신앙 유산의 전당을 물려 주기 위해서 짓지만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함이 마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8절). 하나님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나 이사야서를 보나 유다서를 볼 때,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러 올라가다가 벌을 받아 거꾸러뜨려져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출 40 : 34~35)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다 지은 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름과 같은 영광이 성막에 가득해서 감히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 29 : 2)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사로 나설 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영광이나 거룩, 완전,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 1 : 11)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덕이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생 삶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남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일류 학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전을 지어서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 : 9).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저들이 짓는 성전은 그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령한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토론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 육체적 구원까지 완성하셔서 더욱 영광을 드러낼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도 로마 군인들에게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성전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는 영원 무궁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결코 개인의 이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허영심도 아니고 다른 교회가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겠다 하는 경쟁심에서 나온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더 많은 식구들을 교육시키고 더 많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함입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

고 40일 연대 금식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불안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폭발, 식량 부족, 자연 생태계의 파괴, 오염, 사회적인 불안,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 가서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스베이거스, 산, 바다, 극장, 술집, 도박, 마약 등을 찾아 전전하기도 하고, 정부에 기대기도 하고, UN에 의존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보따리 싸서 한국으로 다시 가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일단 꿈을 가지고 이 넓은 땅에 왔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 기름진 땅에서 끝까지 희생을 해서 고생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이 땅에서 국제적인 사람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야 합니다.

어떤 곳에 간다고 평안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 1).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 : 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 : 33).

여러분, 다른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셨는데,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

화를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샘솟는 평강이 그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학 2 : 19).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열망하여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착수했지만, 원수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15년을 끌고 갈 때 하나님께서 섭섭히 여기시고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성전 짓기를 시작했더니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첫번째로 산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학 1 : 6)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세상 일과 자신들의 일만 하면 결과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

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학 1 : 10~11). 하나님이 외면했으며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기를 착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중국 탕왕 때에 7년 동안 가뭄이 들어 산천 초목이 다 말라 죽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탕왕이 목욕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지 조각을 깔아 놓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자르고 하늘을 향해 여섯 가지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절제를 잃었습니까? 백성이 실직을 했습니까? 궁실이 너무 높았습니까? 여인들이 정치를 농락했습니까? 뇌물이 오고 갔습니까? 모략이 성행했습니까?" 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쏟아져 풍년이 왔다고 합니다.

저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이 왜 이렇게 불경기를 만났는가? 왜 일본 경제에 뒤떨어졌는가.'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조상인 청교도들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엄격한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저 운동이라면 몇 십만 명이 모이면서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혼하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다시 사는 길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교회, 하나님만 알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이 나라가 다시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국가 안전 보장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에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

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학 2 : 21 ~22)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더라도 여호와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이시므로 나라를 지켜 줄 것이요 그들이 서로 쳐서 엎드러지리라는 국가 안전 보장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6~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5,000년 동안 무수히 수난을 받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어머니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전을 잘 받들고 좋은 정치를 할 때 35년 동안 태평 시대가 왔습니다.

성을 높이 쌓고 군인들을 많이 양성하고 무기를 많이 증강시키면 나라의 안정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시황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가 망한 것은 흉노족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장제스 군대가 수적으로 많았지만 숫자가 적은 마오쩌둥 군대에게 진 것은 장제스 군대가 정신적으로 썩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숯불로 지져 새 사람이 될 때만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정신 새 마음이 될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공의가 강같이 흘러 나갈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시대는 하나님이 지켜 주셨지만 하나님을 외

면하고 떠나서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두었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셋째로 신령한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학 2 : 23).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날에 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은 신령한 의미로 상징적 글자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아 8 : 6),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 인을 쳐준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보증의 표시이며(고후 1 : 22), 구원받은 자의 표이며(엡 4 : 30), 천국에 들어갈 자의 표(계 7 : 4)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표인데, 이런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어떤 환난도 두렵지 않고 심판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 : 17).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긴 사람들은 메달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전 짓는 데 동참한 사람은 다 준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인을 찍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삼하 7 : 12~13) 하시고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섯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너

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고, 네 이름을 견고케 만들겠고, 네 백성을 안주하게 하겠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겠고, 네 자식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예배의 순결, 신앙의 자유, 조국의 명예, 세계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며 아무리 불경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요, 강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조상들이 먼저 성전을 지어 좋은 씨를 뿌려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며, 아직도 그 뿌리가 살아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고생을 덜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배우라

평신도여 일어나라(엡 5 : 14)

모범적 안디옥 교회(행 13 : 1~5)

성경을 배우라(딤후 3 : 14~17)

사람의 몸과 같은 교회(고전 12 : 12~27)

주는 사람의 복(행 20 : 33~35)

평신도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엡 5 : 14).

오늘 교회는 평신도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원이며 가능성인 평신도를 잘 훈련시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도록 해야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근래에 와서 평신도 신학, 평신도 세미나, 평신도 대회를 자주 열고 평신도들의 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무슨 공연이나 시합을 할때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우승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도 평신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분명히 부흥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업을 받든다면 더 많은 부흥, 교육, 선

교, 봉사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회에 크게 유익을 끼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평신도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평신도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대 교회입니다. 주후 30년부터 313년 간의 교회를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이때에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선생으로서 봉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 교회입니다. 주후 313년부터 600년까지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때는 평신도들이 감독의 신복으로서 감독과 함께 교회 성장에 적극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주후 563년에 교황이 어거스틴을 영국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영국 이곳 저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신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나 어떤 사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켈트족이 예수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 평신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에 갔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들고 건너왔고, 일본에 갔던 이수정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여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도 선교사가 복음을 먼저 가져 온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뿌렸다는 것이 교회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최초의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반은 1890년 서울,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었습니

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회 선교 구역에만 80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었으며 여기서 50,000여 명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비춰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초대 교회의 근본 정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중심이 아니고 목사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100만 구령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00만 구령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신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주일에 하루, 한 달이면 네 번을 모든 일손을 놓고 장사를 하지 않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한국 교회가 불과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된 요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평신도들도 다시 한번 시대적인 사명을 절감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어디에서 일어날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신구약에 여러 번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찜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욘 1 : 6).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찜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땅히 먼저 기도했어야 할 터인데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롯은 잠자다가 딸과 더불어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장군은 잠자다가 창과 물병을 빼앗겼습니다. 시스라는 피곤하여 잠자다가 귀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자다가 황급히 일어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잘 때에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뒤떨어지며 원수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사망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마 25 : 5)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다 잤다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불신자도 자지만, 우리 신자들 중에도 향락의 술에 취하고 오락의 술에 취하고 세속의 술에 취하고 죄악의 술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급할 때만 깹니다.

얼마 전 지진이 난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육신의 잠만 자지 마시고 영혼의 잠도 많이 자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귀가 좋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잠잘 때는 보청기를 빼놓고 자니까 전화벨 소리도 시계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깨워 주셔서 새벽기도 가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3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에 일어

나기도 합니다. 잠은 자지만 마음으로는 늘 깨어 있습니다.

둘째로 게으른 자여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 : 9~11).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도 가보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도 작지만 상대적으로 부지런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고,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이 빨리 자리를 잡는 것도 부지런한 데 있습니다. 뉴욕에 가니 청과물 야채 파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도박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자는 많지만 장사하려고 3시에 일어나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잠 19 : 15), 게으른 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잠 20 : 4),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고(잠 22 : 13), 식사하는 것도 일로 생각하여 안 먹는다(잠 19 : 24)고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결과로 가난하게 되고(잠 10 : 4), 남에게 해를 끼치고(잠 10 : 26),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잠 12 : 4),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실컷 자고 늦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거지가 다 얻어 가는 것입니다. 구걸해도 얻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돈을 나눠주고 다시 와서 계산할 때 이익을 배로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칭찬했고, 땅에다 파묻고 그냥 가져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무쪼록 육신의 잠, 육신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합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봅니까? 전도하십니까? 그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보고 전도도 안 하고, 돈만 벌고 밥만 먹고 간식만 먹는 사람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도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막 2 : 11)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 친구 가운데 하나가 반신 불수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그 친구를 데리고 가면 고쳐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것에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까이 갈 수 없어 천장을 뚫고 들것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는 네 사람의 정성과 희생과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병든 자야,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들것을 던지고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육신의 병

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간질병, 개창병, 고창병, 괴혈병, 문둥병, 피부병, 상사병, 상한 병, 뱀에게 물린 병, 폐병, 학질, 독창, 열병, 중풍, 이질, 종기, 혈루증 등 많습니다. 이런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죄 때문이고, 자범죄 때문이며,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실수, 욕구불만, 짝사랑, 과음, 사탄, 불경건한 생활, 무절제한 생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 : 26).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시 103 : 3)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예수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 : 23)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고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행 28 : 8).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대하 16 : 12). 의사란 직업도 하나님이 천직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누가도 의사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며 바울의 병을 많이 돌봐 준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 주신 것도 있고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육신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엡 5 : 14)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눅 15 : 32), 이 말은 동생이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억지로 받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 방탕하여 다 쓰고 고생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껴안고 입맞추고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이 들어와서 불평하자 아버지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 : 1). 이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 계란 하나가 있지만 계란 자체로만 있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이 들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껍데기를 까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영혼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엡 2 : 1)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면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약 2 : 26)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살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년이 되어도, 7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아름다

운 열매, 귀한 열매, 성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는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평신도여, 일어나라" 했습니다.

셋째,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는 가변성이 없는 사람들이고 무리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영적 신자이고 무리는 육적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 : 19)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의 인격을 본받는 것입니다. 선생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면서도 가난한 자, 영웅이면서도 어린이, 예언자이면서도 개혁자, 통치자이면서도 종, 혁명가이면서도 성자, 사색의 사람, 말씀의 사람, 행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너희들도 나아가서 뭇사람을 씻겨 주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써, 모범으로써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을 건지러 오셨는데 우리도 영혼 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 : 21). 잃은 양을 찾으러 영혼을 건지러 보낸

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일어나서 예수의 사업을 계승해야 참으로 일어난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사울에게 회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광야에서 구스 내시에게 전도하여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만이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 9). 모든 평신도들은 제사장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신부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의 법궤를 그냥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고 폐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와 조국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까 두려워한다(삼상 12 : 23)고 했습니다.

셋째로 말씀 충만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골 3 : 16). 초대 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성경을 배우고 사도들에게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평신도의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나바는 평신도인데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바울보다도 성경을 더 잘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천국 가는 안내 지도입니다. 무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 : 16~17).

여러분, 왜 자녀들이 탈선합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 내 자녀를 위해서도 성경을 많이 보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자나깨나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건강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영력을 얻습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고, 평신도가 열심히 전도했기에 부흥되었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교육사업, 선교사업, 봉사를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평신도 전체가 오늘 이 말씀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인격을 본받고, 사역에 동참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석상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리라고 생각지 말고 당신들이 정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만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일감을 찾아서 하나님 사업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 빛을 침상 아래 놓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은 경제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돈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상에 놓지 말라는 것은 침상은 자는 곳입니다. 안일과 방탕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엎지 말라는 말씀은 살림살이, 세속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을 등경 위에 켜 놓고 산 위에 세운 등대와 같이 비추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평신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적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행 13 : 1~5).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닥쳐 스데반이 죽고 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동서 사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에 안디옥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민 교회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옛날 시리아의 수도로 지중해에서 24km 떨어진 오론테스 강 하구에 세워진 국제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며 동과 서의 교차점입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포츠나 도박, 경마, 나이트 클럽 등으로 유명한 도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받았으며, 또한 초대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세계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모교회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국에 세워진 이민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특색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1절).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구성 인물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이방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흑인이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귀족이고, 바울은 유대 시민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를지라도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협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도 계급도 남녀도 유무식도 귀천도 없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나아가서는 지방색을 따라

모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서 온 누구이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미국 동부에 있는 13개의 주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 국가를 형성하고 성조기를 만들 때 연합된 13개의 주 사람들이 그 깃발의 바탕은 푸른색에다 13개의 주를 의미하는 줄을 13개 긋고 거기 흰 별 13개를 박았습니다. 그것은 13개 주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양털을 고르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털을 곱게 다듬고, 스위스 사람들은 실을 뽑고 터키 사람들은 푸른색과 붉은색 물을 들이고, 벨기에 사람들은 짜고, 독일 사람들은 잘 다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재단을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규격과 치수를 재고, 영국 사람들은 바느질하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끈을 달고, 알바니아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폴란드 사람들은 다림질을 하여, 인디언이 국기 게양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여러 종족이 어울려 살지만 성조기 깃발 아래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250여 인종이 모여서 삽니다. LA에는 150여 인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조기 깃발 아래 많은 인종이 하나 되어서 미합중국의 시민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후 인종, 문화, 언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이란 용광로에 집어 넣고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미국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어 샐러드 문화화하였습니다. 즉 모든 소수 민족들의 고유 문화는 그대로 살리고 성조기 깃발 아래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미국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인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하고 삽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합니다. 중국하고도 담을 무너뜨리고 협력하고 삽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고립주의를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는 화해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행 11 : 25~26). 그 당시에 바나바는 유능한 성경학자였으며 사울은 인정 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일 년간 머물며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교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교육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공자는 국가 최고의 우선 조건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보다도 교육이 첫째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전한 독일이 다시 일어나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들이 유럽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초등학교에 아이가 들어가면 한 선생님이 6학년까지 가르친 다음 6학년 때 교사와 아이 그리고 부모가 모여서 그 아이의 진로를 의논한 뒤에 진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육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교육을 잘 시

켜서 보내야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성공합니다. 예수님도 교육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려 할 때 제일 먼저 양적 부흥보다도 질적 부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중 언어로 완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체성을 길러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합당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은 '2000년이 되면 사회 구조가 변한다, 직업이 다양해진다, 가정의 가치가 점점 저하된다, 청소년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작성하고 교육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도 그 교회가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교육에 많이 투자하느냐, 프로그램이 다양하냐, 그것이 오늘날 적합하냐,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으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계속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2~3절).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흔히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하는 내용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모두 자기, 식구, 물질, 현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세

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도 없이 부흥된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교회 부흥, 나라의 부흥은 먼저 배후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생명을 걸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것, 바울 사도가 선교하기 앞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5세기 이탈리아의 베네딕투스가 산골 굴 속에서 3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에 나섰고, 12세기에 프랜시스도 굴 속에서 기도 후에 나와서 청빈 전도 훈련을 한 것을 압니다. 아일랜드의 복음화도 패트릭의 기도 후에 있었고, 15세기의 종교 개혁에도 루터와 칼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의 암흑 영국 사회를 건진 것도 웨슬레의 기도였고, 보헤미아 형제 전도단의 활동도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진젠돌프의 전도 활동도 기도로 시작했고, 스코틀랜드를 건진 것도 로버트 밀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750년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 후에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헌신하여 선교사로 나갔고, 영국은 윌리엄 캐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1886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기도 운동이 많은 청년들을 헌신케 한 것처럼, 모든 교회와 나라 그 시대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학자들이 한국은 불과 100년 만에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며 한국 교회에 대해 연구합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되었고, 지금도 부흥되고, 앞으로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면 조금만 잠을 덜자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심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잠자는 미국 교회가 깨어나고, 썩어져 가는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져 가는 사회에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넷째,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했고 또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일 년간 성경학자로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말씀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도 1948년 강원도 오대산 북쪽 암자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성령을 받아서 42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고 못하며(고전 12 : 3),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없으며(갈 5 : 22~23),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고(마 25 : 3),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 : 9)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이지만 이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에 물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

장 2절에 바람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4장 27절에 기름과 같은 성령,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印) 같은 성령, 욥기 33장 4절에 기운과 같은 성령,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과 같은 성령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은 밝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동물같은 마음이 남아 있다면 불 같은 성령으로 다 사를 때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아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빛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변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말세에 남종 여종,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 충만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죽어 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행 11 : 29~30).

유대 나라에 큰 흉년이 왔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해

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이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큰 복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했으며,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했고, 24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소말리아 사람들을 보면 밥이 넘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구제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보냅시다. 15달러면 한 아이를 한 달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41달러면 아이의 병을 한 달 동안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100달러면 여섯 아이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250달러면 다섯 식구 한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100달러나 50달러, 25달러를 넣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5센트, 10센트, 25센트, 1달러를 넣으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모으면 몇 달 후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아이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이웃을 돕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먹어서 걱정일 정도니 다음주에 오실 때에 꼭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나누어 주며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인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짧습니다. 신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은 1년 간만 바나바와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인물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키워서 서까래로 만들려면 3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의 철인 하나가 백주에 등불을 켜고 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을 때, 젊은 청년이 그에게 "대낮에 등불을 켜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철인은 "북쪽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나라를 구할 인물이 보이지 않아 찾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류는 더 많은 과학적 지식,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인물이 나오려면 앞에서 끌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천영 원로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이 분은 제

가 젊었을 때에 저를 끌어 주신 분입니다. 저를 밀어 주신 분입니다.

저는 신학을 할 때 부모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자립 정신을 갖고, 인간 사회의 이면을 알아보고자 또한 노동의 신성을 맛보기 위해 서울역에서 지게를 지고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아현성결교회의 이성구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방을 내주고 쌀을 내주고 모든 것을 대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어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 교회들은 인물을 많이 길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훌륭한 인물들만 보아도 한경직, 박윤선, 김재준, 홍현설, 변홍규, 김활란, 김옥길, 임영신, 김장환 모두를 미국 교회에서 불러다가 학비 주고 기숙사비 주고 생활비 주면서 교육시켜 한국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인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에는 60여 명 정도의 신학생이 있고 모스크바에도 40여 명이 있습니다.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은 끌어 주려고 하지 않고, 밀어 주려고 하지 않고 장래성이 보이고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떨어뜨리고 중상 모략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물을 많이 길러서 이 사회에, 지구촌에 내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3절). 안디옥 교회는 교육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받고 기뻐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인물만 키워서 붙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교회 같았으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보내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인 구원, 교회 부흥, 지교회 설립, 세계 선교 이 네 가지를 다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과학 지식, 더 많은 인공위성, 더 많은 원자탄이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의 혁명, 내적 혁명, 인간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흑백간에, 동서간에 화목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돕는 방법, 물질로 돕는 방법, 직접 가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우리는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인물을 양성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21세기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이민 교회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배우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 : 14 ~17).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 "부흥의 해"로 정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하여 "성경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옛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것은 오늘날에도 철학의 명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일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주제도 병든 문명 속에서, 대중과 기계 속에서, 분망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적인 문화 속에서 본래의 자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기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우리 자신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빛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 : 12~13)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것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 : 23)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으로써 되었

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원죄를 통해 죄인의 피가 흐르고 또한 자범죄를 범해서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로 타락을 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럼 이 육의 사람, 범죄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탕자 중의 탕자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14절을 읽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앗시시의 부잣집 아들 프랜시스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읽고 주색을 좇던 생활에서 떠나서 청빈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법학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은 이사야 40장 31절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산상 수훈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 : 5)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강건해집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 : 10).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육신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강건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시 92 : 12~15)라고 말씀했습니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을 가지고 잘못 쓰면 매직 존슨 같은 사람이 되고 앨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는 종말이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보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뱀, 개, 지렁이, 송충이를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면 건강하다, 약수를 먹으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모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랍니다. 그들은 머리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집니다.

넷째로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에 나오시기 전에 세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40일 굶은 분이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 : 3)고 하셨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영웅심에 대한 시험에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 91 : 12) 하시면서 뿌리쳤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시험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 : 13)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웅심, 신비, 재주 부리는 것 그리고 명예, 지위, 권력의 유혹 앞에 넘어 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과 밖을 무장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 : 7). 우리가 러시아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러시아 말을 하고 중국 사람과 얘기하려면 중국 말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방언으로써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옥중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다가 조금 후면 별로 기도

할 것이 없으니까 휘발유 값이 올라간다, 지진이 난다, 또 폭동이 난다고 잠꼬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는 헌신적인 기도요, 단독적인 기도요, 자복하는 기도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여섯째로 굳센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 : 17)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공로로, 조건으로,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일곱째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 : 13). 성경을 읽어야 영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어떤 산에 가면 4,000년이 된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 보니 아주 오래 산 큰 거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인생 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파스칼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인생의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갈 데

가 없는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로 눈을 가린 사람은 영생을 모릅니다.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6)고 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말했으니, 성경을 읽으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옵니까

첫째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 : 8).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목축을 할 때 물이 귀한 중동 땅일지라도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웃 족속이 우물을 빼앗으면 다른 데로 가서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형통해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 : 2~3)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아무리 불경기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큰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 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 : 165).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잠 3 : 1~2).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평안을 누립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평안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다 검사해서 먹습니다.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평안이 있습니까? 요새 LA에는 고급 자동차를 타면 위험하다는 말을 합니다. 강도가 따라와서 차를 빼앗고 돈을 털어 갑니다. 좋은 차 타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저는 좋은 차 타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차 타고 위험한 지역에 다니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것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찰나적 평안, 순간적 평안입니다. 가변성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는 평안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

다. 막을 수 없는 기쁨, 이 평강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시 1 : 1~3)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맺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 : 8)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살아 있는 성도인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에 우리가 파송한 아르헨티나의 김용식 선교사에게 중고차 하나 사 드리기 위해 얼마를 내고 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광고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 부부가 적지만 보태라고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 보니 3,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또 돈이 다 되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아직 안 되었다고 하니 얼마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졌으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

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 7 : 24~2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창수라는 것은 지상 환난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지상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맨해튼 자연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102층을 세워도 끄떡없다는 것처럼, 동경 역이 프랑스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지하에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어서 세웠기 때문에 지진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이 와도, 지상의 환난이 와도, 마귀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 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지식을 쌓고, 그리스도 위에 인격을 세우고, 그리스도 위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에서도 견뎌낼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20). 19세기 아프리카의 유명한 탐험가요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10세 때부터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학을 하여 20세에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1840년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의료 사업, 교육 사업, 선교 사업을 하고 노예 무역을 막았습니다. 지리를 연구했습니다. 독

사와 모기와 맹수와 식인종이 있는 흑암 대륙을 세 번이나 왕복을 하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그를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대가 이런 업적을 남겼느냐?"고 물으니, 오른팔을 들었는데 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어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계 22 : 7).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 10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 : 6)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텍사스,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지도를 가지고 여행하니 떠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 빨간 불 켜진 곳은 가지 말고 파란 불 켜진 곳만 밟아 가면 그 말씀은 내 앞의 등불입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천국 문에 틀림없이 도착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일곱째로 큰 상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시 19 : 7~11).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 이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한 사람이 하늘 나라에 가서도 더 좋은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 이 말을 지키는 자는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성경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 : 10). 그러나 입만 열면 안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똑바르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시 119 : 131).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TV에서 어미 새가 둥지를 치고 새끼를 놓고 나가서 먹을 것을 물고 오면 날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을 줄 압니다. 한 너덧 마리가 나! 나! 나! 하는 것 같습니다. 입을 꼭 다문 새끼는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헐떡이면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로 자주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눅 11 : 28).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 : 17).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1980년에 중국 길림성 왕천이라는 곳으로 35년만에 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사관인 조카가 미국에서 외삼촌이 왔다니까 휴가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가 휴가 나온 틈에 결혼식을 했는데, 온 마을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중년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전부 대한민국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노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라디오로 배웠지요.” 이북 방송은 항상 “위대한 아바이”만 찾으니까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중국에서 나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노래를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신 11 : 19). 자꾸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 : 3)라고 했습니다. 자꾸 읽어야 합니다.

제가 1947년 신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신학생들이 신학을 3년 공부하고 전도사생활을 3년하고 목사 되어서 축도하기 전에 신구약 100번 읽지 않으면 전부 다 도

둑놈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을 10번도 못 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결심하고 구약 10장, 신약 1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이 1년이면 10번이고 구약이 1년이면 3번입니다. 이렇게 읽으니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해도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집회하러 가서 원고가 있으니까 하루 전에 준비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다음날 찾아보니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이 쑥쑥 알려 주셔서 그 전보다 더 좋은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원고를 잃어버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더라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읍시다.

넷째로 자주 배워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 : 14).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행 2 : 42)서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이방 교회로, 국제적인 교회로, 협동하는 교회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의 장을 연 교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은 교회로 칭찬을 받은 것은 다른 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 년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화요일, 수요일 성경 공부, 베델 성서, 크로스웨이 성서, 가정 통신 성서, 전도 폭발, 제자 훈련, 비디오 성경, 연령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텍사스에서 공부를

할 때 소령 군목과 대령 군목들이 주일이면 시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매일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이단에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어떤 성경공부반이든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이단 사상에 유혹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자주 상고해야 합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행 17 : 11~12). 상고한다는 말은 찾는다, 뒤진다, 탐색한다, 수색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뒤져 가며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주석 책을 한 권 사서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버클레이, 매튜 헨리, 풀핏 등의 주석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은 찾아서 상고하십시오.

여섯째로 암송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잠 7 : 3).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골 3 : 16). 암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암송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어려서 암송한 것은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 말을 배운 것이 50년 전인데 지금도 합니다. 10대에 중국 가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말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지금도 유창하게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배우는 것과 암송은 어려서 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시 1 : 1~2).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시 119 : 15~16). 묵상한다는 말은 가만히 생각하고 명상하고 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그 생각이 다 없어집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자꾸 외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 더러운 생각이 올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딸이 셋 있는데 맏사위가 정승일 목사, 둘째가 박일철 목사, 셋째는 김동수 장로입니다. 이 둘째 사위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 영어책하고 독일어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목이 되었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진보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아이들이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야! 내가 벌어서 먹여 주는데 왜 예수님한테 감사하냐, 나한테 감사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철학 교수로 오래 있으면서 의사들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을 가르치다가, 하루는 말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늘은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완전히 변하여 기도도, 설교도 복음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정승일 목사가 은퇴하는 관계로 그의 후임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흔들어 고쳐 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서 이민생활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입을 넓게 열고, 자주 듣고, 읽고, 배우고, 상고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이 형통하고, 큰 평안이 있고,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과 같은 교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로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 : 12~27).

고린도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하던

상업 도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죄악도 많았습니다. 그 죄악이 교회 문턱을 넘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성적 부도덕, 상호 소송, 우상 제물, 성만찬 남용, 거짓 사도, 결혼 문제, 집회의 무질서, 여자의 위치 문제, 부활에 관한 이단, 당파 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매우 어지러워졌습니다.

특히 교회는 네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13절을 보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하였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구속해 주었느냐?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회에는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어떤 파당을 위해서 썼으며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상대방이 가졌을 때 시기하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당파와 은사 문제가 얽혀 가지고 교회가 매우 어지럽게 되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시며,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그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양성, 중요성, 연결성, 조화와 통일성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체의 다양성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2, 14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목구비 사지백체(耳目口鼻 四肢百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와 입과 눈과 코 이 네 가지 외에도 사람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손, 손톱, 발, 발톱, 갈빗대, 오장 육부(五臟六腑), 세포, 혈관, 신경 등. 인류 역사 이래 오늘까지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인체의 신비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관 기관들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

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으며,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존재 의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철인 소크라테스가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벌서 2천 년 전의 말이지만 아직도 철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존재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걸음 나아가 참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다름 아닌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 전체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 개인 개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재인식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눈의 역할, 손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서로 상합될 때 신비로

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개인은 개체로 존재하지만 이 개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져 한 가지 목적으로 나갈 때 교회는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마음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생명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주역들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자기들의 존재성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성을 상실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모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기의 올바른 모습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도록 각자가 맡은 그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체의 중요성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21절).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이 지체들은 어떤 것이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눈이 손을 보고 "너는 보지 못하니 쓸데없다." 머리가 발을 보고 "너는 생각을 못하니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기들을 돌봅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까? 손이 필요합니다.

또 눈도 필요합니다. 눈이 있어야 보고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실족하지 아니합니다. 또 머리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합니다. 발

이 없다면 어떻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나지 않게 했다면 뜨거운 여름철에는 두피가 다 타고 추운 겨울에는 얼어붙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을 모자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눈썹이라는 것이 없다면 땀에 있는 염분이 눈에 들어가 눈이 쓰려서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눈이라는 것이 양어깨에 붙었더라면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그랬을 것입니다. 만일 코의 구멍이 위로 뚫어졌더라면 비가 올 때는 뚜껑을 닫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 입 이라는 것이 등에 붙었다면 밥은 어쩌다가 들어가겠지만 국은 자꾸 엎지를 것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신비롭다고 합니다. 필요해서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를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눈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오래 믿은 사람도 금방 믿은 사람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연보 잘하는 사람도 연보 잘 못하는 사람도 ,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일찍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항상 늦게 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설교를 들을 때 눈뜨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작부터 코 골고 자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아름답지 단색으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무지개도 7가지 색이 있으므로 영롱하다는 말을 하지 단색이라면 무미 건조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22절).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머리는 잘못 부딪치면 뇌진탕에 걸립니다. 약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쳐서 세상 떠나셨습니다. 내장도 약합니다. 이 내장이 약하기 때문에 나와 돌아다니면 터지고 찢길까봐 하나님이 갈비뼈 안에 넣고 살과 피부로 덮은 것입니다. 눈도 약합니다. 뭐가 가까이 오면 눈꺼풀이 얼마나 신속하게 눈을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혀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한 것들이 참 소중합니다. 약한 것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때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더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23절).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십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기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예쁩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몇 겹을 더 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노련한 목수는 나무 뿌리 하나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빨리 몰고 갑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옛날에 훌륭한 지휘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피해 안전 지대까지 가야겠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덩치만 큰, 울기를 잘하는 군인 하나를 뽑아다가 "적군을 쳐다보며 엉엉 울어라."고 했습니다. 그 덩치 큰 군인이 엉엉 울고 있으니 적장이 놀라서 "우리가 쳐들어가는데도 혼자 앉아서 우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조심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군인들은 안전 지대에 가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을 적재 적소에 배치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에서 점원 하나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졸기를 잘하는지 물건 흥정하면서도 졸고 돈을 거슬러 주면서도 졸았습니다. 사장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야 할까?' 하다가 겨울철이라 따뜻한 오버코트를 입혀 놓고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네 평생 소원이 먹고 조는 것이면 내가 돈은 줄테니까 여기 앉아서 실컷 졸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원이 오버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 오버를 선전하기를 "이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복잡한데도 이 오버를 입으니 따뜻해서 잘 주무십니다. 이 오버는 알래스카 수달피로 만든 것입니다." 해서 오버가 불티 나게 팔려서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약한 사람이 있으므로 도와주게 되고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는 이해와 사랑의 실천 도장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 지체의 연결성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25~27절). 모든 지체는 다양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지체가 아프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연대성을, 상호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가르쳐 줍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지끈지끈 아픕니

다. 어느 날 밤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니 조그만 가시가 살에 박혀 있었습니다. 바늘로 제거하니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형님이 과자 공장을 했었는데 저는 과자를 만들 때마다 집어먹어서 이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 하나가 썩으면 온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지체는 중요할 뿐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동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교회도 기구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의 유기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서로 돌아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로 협력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가 다양하고 각각 중요하고 연결성을 가

졌다는 것은 서로 서로가 분리하지 말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서로 돌보도록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도록 힘쓰라는 것이 연결성이 있는 증거입니다.

넷째, 지체의 조화와 통일성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20, 27절).

즉, 몸은 하나고 지체는 많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하나의 완전한 인격 개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이 따로 떨어지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머리가 따로 떨어지면 사람이라고 불리겠습니까? 이것이 다 연합할 뿐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통일이 될 때만 하나의 완전한 개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한 유기체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동고 동락해야 합니다. 서로 보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얼마나 잘 조화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참된 조화와 통일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는 기름이요, 수많은 사지백체를 조화 통일케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분쟁보다는 평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일그러진 것보다는 온전함을,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움을, 분열보다는 단합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하는 역사입니다.

참된 조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요, 각각의 받은 은사와 위치에 따라 선한 봉사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각각 역할이 다르나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각각 출신 지방이 다 다릅니다. 연령이 다릅니다. 학력과 취미가 다릅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서 조화를 이루어 갑니다. 통일을 이루어 갑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느 지방 사람만, 어느 가족만 모인 것이 아니라 13개 주의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가지 사실인 다양성, 중요성, 연결성, 통일성을 다시 기억합시다. 이 원리는 개인, 가정, 업체, 직장,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알면 우리가 크게 싸울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서나 간직하여서 성경적인 신앙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더욱 열심을 내서 선교, 교육, 봉사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사람의 복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 : 33~35).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하며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이곳에 안 썼더라면 영영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말한다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받습니다. 받는 것이 죄나 화는 아닙니다. 사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오늘까지 사는

동안에 남에게 주기보다 받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받았고,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께 받기만 했습니다. 이민 와서는 자리 잡기까지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늙어지면 자녀들로부터 받게 되고, 또 나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받을 때에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면 자립 정신이 없어집니다. 웬만한 나이가 되면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 가운데 여러 명이 미국에 공부하러 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부잣집 아이들이 유학을 와서는 학교 공부는 안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밤마다 유흥가에 가서 남녀간에 나쁜 짓을 하고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나라 망신을 시킵니다. 자꾸 받기만 하면 자립 정신이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루해지기 쉽습니다. 자꾸 받으니 자존심이 깎이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공연히 웃음도 지어야 하고, 아첨도 해야 하므로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받을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번에 제가 한인 회장에 출마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선교하러 다닐 때 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고 내쫓았습니다.

거저 주는 것은 선물이지만,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으면 공직에서 쫓겨나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인격과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를 볼 때에 받는다는 것은 엄밀히 분석하면 그리 기쁜 것만은 아니라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첫째는 남에게 주려는 사람은 항상 노력을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남도 주게 되고, 내 주머니가 불룩해야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불룩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자기 노력, 향상,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는 사람은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나만 잘 먹고, 입고, 편안히 살겠다는 사람들은 정신이나 인격이나 사상이나 신앙이 결코 향상되거나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타적 봉사 정신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이는 사상과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셋째는 물욕(物慾)에서 해방받습니다. 창조 이래 오늘까지 타락한 인간들은 네 가지 본능에 사로잡혀 삽니다. 식욕, 색욕, 명예욕, 물욕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며, 이성을 그리워하며, 이성에게서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듯이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욕입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자기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남에게 준다는 것은 물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물질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구약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색한 사람, 남에게 주기는 싫어하면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갈멜에서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큰 부자로 양이 삼천 마리, 염소는 일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근처에 거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삼상 25 : 8)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 25 : 11)라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부하가 돌아와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분하여 "아니, 우리가 그 많은 양을 강도와 도적과 맹수로부터 지켜 주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는데 그렇게 박절하게 거절하다니!" 그러면서 나발을 치러 갔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나발의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은 곧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 왕에게 가져가서 백배 사죄했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삼상 25 : 25)라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나발은 그날 밤 취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에 그가 술에서 깨자 전날 있었던 말을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절한 다윗, 그는 장차 임금 될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영웅이다. 그가 당신의 목을 베러 오는 것을 내가 음식 갖다가 주어서 살았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발은 낙심하여 몸이 돌같이 굳어져 열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물건에 애착심을 가지고 아끼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돈이라는 것이 결단코 우리 사람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밤잠을 잘 자지 못하고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욕심이 생기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은인을 배신하게 하고, 의인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기록된 부자 관원은 돈만을 생각한 수전노로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로 주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세 사람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앞에 앉아 있는 중에 먼 곳에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쉬었다가 가십시오."라고 강권하므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양을 잡고 빵을 구어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행인들이 음식을 먹고 나더니 "얼마 후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장막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아브라함의 아내가 "남편이 늙었고 내가 늙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라고 속으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

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 6장,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북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리고 밑에는 사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탐정 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다가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어 도망하다가 들른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은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얼른 2층 지붕 꼭대기로 그들을 피신시키고는 삼베 같은 것으로 덮어 놓고 가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들어 왔는데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왔으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이제 산에 가서 조용히 며칠 있다가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잡힐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여자보고 "이제 이 성을 우리가 쳐들어올 텐데 이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려놓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만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 : 25)라고 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히 11 : 31)라고 말씀합니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마 1 : 5)고 했습니다. 즉 기생 라합은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눅 10 : 30~37).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으므로 순수성이 없어졌다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와 같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관방에 재우지도 않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고, 또 돌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몸에 피가 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곳으로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살려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도망갔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개같이 여김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으로 상처를 닦아 주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밤새 치료해 주고, 그 이튿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또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세 가지 초월적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해를 초월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또

마음과 시간과 몸과 물질로 사랑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요일 3 : 14)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은 세 가지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고는 실망할 수가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난 폭동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 : 24),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9 : 8)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큼 복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통하여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해는 물이 너무나 짜서 드러누우면 몸이 둥둥 뜹니다. 이렇게 짠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 사해는 물이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물은 태양의 열로 증발되고 소금만 남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주변에는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다시 요단 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신진 대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맑고,

물맛이 좋고, 물고기가 수백 종 뛰놀며, 주변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만발하고 새가 노래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놀고 즐깁니다.

여러 성도들이 폭동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불경기를 만나 "우리가 줄 것이 없다"하더라도 잘 살펴보면 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주고, 친절을 주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질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미소, 부드러운 말, 친절, 사랑, 봉사 그 다음에 물질을 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줌으로써, 기생 라합이 줌으로써, 사마리아 사람이 줌으로써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없는 가운데 주는 것이 진정 주는 것이요, 값있게 주는 것이니, 미소를 주시고, 부드러운 말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봉사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 : 6~10).

제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이 전쟁 중에 전세계를 향하여 연설을 하러 영국 방송국에 가려고 나가서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방송국까지 가자고 하니 운전사는 "미안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겠는데 거리가 멀어 갈 수 없습니다." 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한 시간 후에 처칠 경의 유명한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 주머니에서 1파운드를 꺼내 주었더니 이 사람은 돈을 받자마다 "아저씨, 타세요. 처칠이고 뭐고 돈을 먼저 벌고 보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 L.A.에 4 · 29폭동 후에 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심지어는 교포 이재민을 위한 성금을 가지고도 신문과 라디

오에 많은 시시비비가 실려지는 것을 보며 도대체 '돈이 무엇이기에'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돈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첫째로 돈은 욕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자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낫기를 청할 때 엘리사가 "요단 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하여 그리한즉 그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례로 가지고 왔던 은과 옷과 선물들을 주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기를 거부하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선물 때문에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 뒤따라가서 "주인이 은과 옷과 선물을 달라 하나이다"하여 받아 왔습니다.

그 후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물질은 사람에게 욕심을 생기게 합니다. 이 욕심은 끝이 없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많으면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둘째로 돈은 육체를 혹사하게 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데릴사위 노릇하면서 두 아내와 열한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육체를 혹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동 시간이 8시간입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몇 날 며칠을 달리면 고장납니다. 엔진이 터집니다. 쉬어야 하고 물을 넣어야 하고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육체를 혹사하면 육체는 쓰러집니다.

셋째로 돈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오순절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며 자기 가산을 팔아 절반은 집에 두고 절반을 가져다가 재산을 팔은 것 전부라며 사도 베드로 앞에 내어놓으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거짓말하는 것을 내다보고 지탄하자 즉사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 아내 삽비라도 재산을 다 바쳤다고 했다가 그녀도 즉사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길러 보십시오. 아이들이 조금 커지니까 사탕 사 먹고, 장난감 사고, 만화책 사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훔쳐갑니다. 어른들이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거짓으로 냅니다. 세금은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이번 폭동 때에도 세금을 정확하게 낸 사람들은 영수증이 있고 컴퓨터에 기록이 있으니

배상을 다 받았지만 세금을 안 내거나 조금 낸 사람들은 지금 돈도 잘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넷째로 돈은 약자를 착취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노동자들에게 밭에서 일하게 하고 삯을 조금만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지도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안 주니까 그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했습니다. 돈은 약자를 착취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가 이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와 경제만 알았지 신학을, 인간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모순이 있지만 자본주의도 모순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도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들은 집도 못 사고 아이들 대학도 못 보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입니다.

돈은 약자를 착취합니다. LA에서도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 최저 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돈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했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

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더니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원은 이에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섯째로 돈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했습니다. 나귀는 앞에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아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도, 장모도, 조카도, 과부 된 형수도 안 보입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 지성의 눈, 신앙의 눈입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정신 세계를 못 봅니다. 생명 세계를 못 봅니다. 시간의 세계를 못 봅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돈이 사람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로 돈은 배은 망덕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16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믿었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선생님을 파는 배은 망덕한 행동을 합니다. 돈이란 것이

배신을 하게 합니다. 오늘 LA사회에서도 한국에서 빈털터리로 온 사람을 도와줘서 자리잡게 해주었더니 돈 벌고 나니까 배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여덟째로 돈은 의인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떡을 얻어먹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강도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돈은 의인을 죽입니다. 해방 후에 김구 선생님, 장덕수 선생님, 송진우 선생님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정객들이 깡패에게 돈을 주고 죽이게 했습니다. 미국에도 살인 청부업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의인을 죽입니다.

이와 같이 돈은 욕심을 자아내고, 육체를 혹사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염려를 가져 오고, 눈을 어둡게 하고 배은 망덕하게 하고, 의인을 죽입니다.

둘째, 돈의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돈을 많이 가지면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오만불손하게 됩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식당 드나들면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일본 속담에 "돈이 있으면 바보도 큰소리 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면 교만하게 됩니다. 스승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교만해집니다. 허영심이 생깁니다. 돈을 좀 벌면 장(長)을 하려고 출마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한국 가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허영심입니다.

사치합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평범하고 순박하다가도 돈이 많으면 프랑스 화장품에다 독일 향수에다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까지 합니다.

나태합니다.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宴樂)을 합니다. 술집에 드나들고 여자들과 못된 짓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한국에서 금방 왔을 때는 도박은 생각지도 못하더니 10년 20년 지나 돈을 버니까 라스베이거스로, 카타리나 섬으로 도박을 하러 다닙니다.

파탄이 납니다.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했습니다. 돈이 항상 제 집에 있습니까? 나뭇가지에 앉은 나의 새입니다. 그러나 날아간 다음에는 내 새가 아닙니다. 돈은 날아갑니다. 돈이란 것은 있을 때 써야지 날아간 후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파탄을 가져옵니다. 요즘 돈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는 양심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끓는 물에 들어가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돈이란 것은 교만, 허영심, 사치, 나태, 연락, 도박, 파탄, 자살까

지 끌고 가는 마력이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했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영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셋째로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것입니다.

넷째로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영혼이 하나님 것이요, 육체가 하나님 것이요, 금과 은도 하나님 것입니

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첫째로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제 스승되시는 이명직 목사님이 지은 "허사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지 일장지 넉넉하구나. 의복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이 세상 떠나 갈 때 수의 한 벌 관 한 개 족지 않은가." 마지막 갈 때에는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 집에 가서는 누구든지 밥 한 끼 얻어 먹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나그네가 와도 잠도 재우지 않고 거지가 와도 돈 한 푼 주지 않는 철저한 수전노였습니다. 그래서 저 너머 동네에서 학생과 선생과 동네 사람들이 의논을 했답니다. 이 가운데 누구든지 그 집에 가서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오면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생이 자진해서 가기로 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저녁때 집 대문을 두드리며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루 저녁 재워 주십시오." 했더니 그 주인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옛날에는 여관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 사랑채에서 나그네들이 자곤 했습니다. 자꾸 간청을 해도 야단을 치고 쫓아내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글 하나 써서 주겠으니 종이와 먹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허락해서 들어가 붓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세상 만사가 뜬구름 같구나. 죽은 인생 땅 속에 파묻고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면 적적한 산과 희미한 달빛 아래 무덤밖에 남을 것이 무엇인가!"

영감은 이 글을 보더니 소매를 잡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며 밥도 한 그릇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후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깨끗이 벌어 값있게 써야 합니다.

더럽게 벌어서 더럽게 살지 말고, 부끄럽게 벌어서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생 시몽은 "인간 계급의 차이는 두 가지뿐인데 놀고 먹는 사람과 일하고 먹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즈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강도들이 집안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이런 강도들은 더럽게 벌고 더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값있게 살고 깨끗이 벌어야 합니다. 4 · 29 폭동 후에 어떤 어린 초등학생들이 좋은 양복들을 입고 다니는데 누가 사주었느냐 물으면 "우

리 아빠가 4월 29일에 쇼핑해 왔다."라고 한답니다. 더럽게 벌어 자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깨끗이 벌어 값있게 살아야 합니다. 돈은 버는 것도 어렵지만 값지게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셋째로 돈보다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못 사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못 사고,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못 사고,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수면은 못 사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못 사고, 자동차는 살 수 있으나 안전은 못 사고,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으나 예수는 못 사고, 한국 가는 비행기표는 살 수 있으나 천국 가는 표는 살 수 없고, 관은 사지만 부활은 못 사고, 묘지는 사지만 천국은 못 사니 돈보다 믿음이 더 귀합니다.

왜 믿음이 더 귀합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고,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돈보다 믿음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넷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께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옷이 남루하고 배가 고파 배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26~33)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생명적인 것을 구하라,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하라, 생의 우선 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래 온천에서 피난 목회할 때 기독교협의회에서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민족의 애국자요 진실한 기독교인인 조만식 선생의 가족들이 부산에 와서 사는데, 물이 새는 셋방에서 어렵게 사니 돈을 거두어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 윤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을 주십니다.

세계 곳곳을 많이 다녀 보았지만 그 중에 스위스가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국민 소득도 제일 높습니다. 그 나라는 땅도 작고 거칠어 농사 짓기 어렵고,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신앙으로 삽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다음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다가, 바로 죽었기 때문에 여인이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다가 의롭게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했고,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살림이 궁핍합니까? 4 · 29폭동 때 재산의 손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자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맨주먹으로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은 0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속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주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와 자녀 교육과 이웃의 불우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에 쓰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세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신 7 : 11).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폰 라드 박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형의 역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그 민족은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구약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세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자세를 찾아보려면 우선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무엇이며, 그 관계성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 17 : 7). 이것이 계약 관계를 규명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결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민족 의식의 기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스스로를 운명의 공동체, 언어와 역사와 풍속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의 민족이라는 것을 규정 짓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섭리가 그들의 선민 사상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넓고 숫자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계약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고유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기업의 백성, 성별된 백성, 특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전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 주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올바로 책임을 이행할 때에는 그들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관계성, 계약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각을 잊어버리고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에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수난을 당하고 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 : 16~1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는 그들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어서 친히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역사의 의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진 역사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과 같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유성을 가졌다는 전제 아래서 그들의 역사를 특수한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의 역사를 단순히 사건들의 기록으로 보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자기들의 민족 의식,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의식함으로써 모든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찾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이해입니다. 이 점이 다른 민족의 역사관과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의미 해석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아래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의식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지시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요, 광야를 지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한 것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거기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당당하게 독립 국가로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일환으로 본 것이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루어진다는 것이 그들 역사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 어느 순간도 자기들이 역사를 이끌고 나간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왕이 정치나 외교, 군사, 경제로 나라를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왕의 정치를 예리하게 비판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가들이나 예언가들의 태도입니다.

왕들과 예언자들의 충돌은 항상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왕들은 자기들이 나라의 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늘 정치가와 예언자가 충돌한 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것도,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경고한 것도 이런 역사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항상 계약 관계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역사에 반영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방 유다는 주전 580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계약 관계에서 본 대표적인 역사가는 구약 중에서도 신명기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네 가지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 시켜 역사를 보았고 실제로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역대상 등에는 네 가지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를 촉구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주신다는 신학적인 네 가지 사실입니다. 범죄하면 수난당하고, 수난당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을 받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도 범죄하면 수난당합니다. 법을 지켜 보십시오.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법정에 서게 합니까? 누가 감옥에 보냅니까? 그러나 범죄하면 반드시 법망에 걸립니다. 수난당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용서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해석이요 신학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못했느냐를 기록한 것이 구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의 자세가 이러한 역사 의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도 신앙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반응의 생활이며 응답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들의 책임적인 응답이 자기들의 삶을 규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종교와 도덕, 신앙과 윤리를 결코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교와 도덕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윤리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장로 9명 중 8명이 술 파는 가게를 한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목사가 가서 바른 말하고 "장로들이 그런 직업을 가져 종교와 도덕,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

게 지탄을 받으니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똘똘 뭉쳐서 목사를 내쫓았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와 도덕, 신앙과 윤리, 성전생활과 사회생활, 성전생활과 가정생활이 일치되도록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짜나 지키고 재물이나 바치면 그것으로 종교생활을 다했다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생활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친 것이 예언자들이고 당시 그 나라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애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선에 합당한가를 문제시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규격에 맞는 제물의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불의와 악을 저질렀다면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비추어 봐서 민족적 견지에서 부당한 생업을 가졌다면 금년에는 빨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사업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암 5 : 21~23). 이중생활, 위선적인 생활, 자기 중

심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혹하실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 배금주의, 향락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히 책망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저울로 속이며"(암 8 : 5)라고 상도덕을 꾸짖었습니다. 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암 2 : 7)라고 성적 문란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끼니 굶고 약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 탈취하여 타락한 생활을 하는 정치가들을 책망했습니다. 혹 우리 약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가지만 부자들에게는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것도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옥에 가두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타락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는 공식적인 제사 행위나 경건은 훌륭했지만 내면적인 생활은 타락하고 부패하며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와 신앙은 생명 없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사야 시대도 같았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사 1 : 11~12, 15).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종교와 도덕과 신앙적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박정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무용론, 기도 무용론, 제사 무용론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식적 제물과 신앙을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관계성을 스스로 단절한 것입니다.

그 당시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예레미야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 5 : 1)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렘 5 : 9)라고 했습니다.

6 · 25한국전쟁으로 공산당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잡혀서 보안소로 끌려갔습니다. 보안소 소장이 "우리 공산군이 남한에 내려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오?"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신 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모든 반항아들을 채찍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나 그들이 자유방종해서 이북의 붉은 방망이로 때리는 것이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장은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다."라고 하며 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모든 반항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죄와 회개를 위해서 눈물을 강같이 흘리고 피가 쏟아져 나오도록 외쳤건만 완악한 백성들은 하

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율법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렘 7 : 23)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종교와 도덕,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생활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을 형편대로 운영해 나간 것이 아니고 매사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움직여 나간 것이 그들 삶의 철학입니다.

그 실례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 : 1)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자기 고향, 정든 땅, 조상들이 묻힌 땅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와서 자리가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남으로 향하여 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땅이고 살림살이가 안정되었지만 그는 또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곳,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나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너희 백성을 구출시키라." 할 때, 애굽은 하나의 왕국이요, 많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어가 그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 도중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병정이요, 앞에는 넓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으나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맹수와 독사가 있고 악한 일곱 부족이 있었고 양식과 물이 없었음에도 40년을 전진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물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돈 것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요단 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요단 강을 만나거든 그냥 발을 디디시오." 했더니, 그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에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력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에게 돌팔매를 던져 이긴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역대에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신앙을 노래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랑 삼아 역사에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이사야도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과 백성들에게 "무서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신앙이 시편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시 22 : 3~5)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 118 : 6~9).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사실적인 말입니까? 사람을 의뢰함보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나으며 정치가와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뢰함이 낫다는 이 말씀은 생활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신앙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의지한다' 라는 말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고유성이며 독특한 철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그리 큰 수난을 당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가나안 부족들과 바벨론, 메대, 바사, 애굽, 그리스, 로마에게 침략을 당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대한 문화를 창조했고 그 후손들에게 이 위대한 문화를 전승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들 신앙의 위대한 전승을 알려 주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역경과 고난, 어떤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앞길을 씩씩하게 개척해 나갔던 용감한 삶의 자세의 기

록입니다.

한이 맺혔던 1992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1993년이 희망의 새해라고들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미지의 새해도 됩니다. 지진이 또 있을지, 사업이 잘 될지, 더 어려울지, 내 차가 사고가 나서 부서질지, 잃어버릴지, 폭동이 더 크게 날지 안 날지 미지의 내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랑하는 선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택함 받은 아시아의, 지구촌의 선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영적으로 제일 많이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새벽 기도회 하나를 봐도 한국에서는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입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관계성의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처럼, 우리 앞에 불경기가 더 심해지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모세가 당했던 것처럼 어려운 홍해는 없을 것입니다. 40년 광야생활도 없을 것입니다.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열조들같이 작은 일 큰 일을 머리나 수단을 가지고 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 나간다면, 금년 일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전진뿐이요 승리하는 일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역사를 창조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해서 후손들에게 신앙

의 유산, 올바른 삶의 자세를 물려 주어 복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창 41 : 37~49).

오늘날 미국은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28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경기가 매우 좋아서 모든 대학교 앞에 여러 회사들이 책상을 갖다 두고 졸업 전의 학생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가려고 사원 모집 쟁

탈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흔히 말하기를, 세 번 이사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거나 잘하면 3년이나 5년 내에 집 장만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큰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심지어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업체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일보〉에서는 이 불황에 대한 극복의 길이라고 해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 나온 것을 읽어보고 분석하니 그들이 말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스페인 시장을 잡자, 고급 물건을 만들어 팔자,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자"입니다. 이것도 불황을 극복하는 비결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불황을 극복하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불황을 만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불황, 경제적인 불황, 정신적이 불황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에게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 마침내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그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주인의 아내의 흉계에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옥중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적인 문명 국가며 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라 불황을 극복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불황

을 극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희망과 인내와 용기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육체가 피곤할 때, 음식에 자극을 받았을 때 흔히 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몽(靈夢)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에게 되어질 일을 꿈에 계시로 알려 주시는 것이 영몽입니다. 이 요셉은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 열한 단이 내게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에 자기 열한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 있는 곳에서 내 꿈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착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심부름 보냈는데, 형제들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자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하고 그를 잡아서 깊은 우물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대상에게 팔도록 했고 노예시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시위 대장 부인은 상당히 색에 밝은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요셉이 젊고 인물이 준수하고 똑똑하니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요셉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분해서 그를 무고하여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애굽에 팔려 가고 옥중에 들어가서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마침내 많은 사람에게 절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일에는 정열이 붙습니다.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난관도 돌파하게 됩니다. 절망도 극복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영국의 시인 하버드는 "희망은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말했고 미국의 헬렌 켈러는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풀러는 "희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고 말했고 미국의 어느 학자는 "희망은 모든 재앙과 병을 고치는 약 중의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북부 대서양 연변에 조그마한 나라, 덴마크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가장 무섭고 강한 독일과 국경을 접해 있습니다. 독일이 이 나라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귀한 영토를 빼앗아 갔습니다. 남은 것은 사막과 습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룬트비와 달가스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밖으로 빼앗긴 것 안에서 찾자, 무기로 빼앗긴 것 괭이로 찾자, 피 흘리고 빼앗긴 것 땀으로 찾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심어도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지만 몇 해를 노력해서 나무를 심는 데 성공하여 결국 북풍 찬바람을 막아냈습니다. 사막에 물을 대고 습지를 개간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농업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 백성은 지도자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희망, 용기, 인내를 가지고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분과 함께 하와이 옆에 있는 '고나' 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은 몇 해 전부터 여러 번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서 화산재가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다. 새까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설교 후에 우리 교회 박영 집사님의 형인 박훈 장로님이 화산 자리에 가보자고 권하여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더니 아주 넓은 곳에 화산이 흘러나온 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섬의 반은 화산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길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불도저로 화산재를 치우고 별장과 호텔, 골프장을 만들고 꽃을 만발하게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피서객들이 북적대는 것을 볼 때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불황 속에 있다고 하지만 요셉의 고통과 잠자리, 입는 것,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독일에게 옥토를 빼앗기고 그 습지 사막을 개간할 때 검은 된장 하나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덴마크를 방문하면 그들의 식탁 위에 아직도 검은 된장이 올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사막을 개간할 때 그 된장 하나만 먹고 일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식탁에는 된장 하나만 놓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나 섬의 화산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용암과 잿더미 속에서도 자연의 재앙을 이겨내고 지금은 지상낙원을 이룩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빛나는 희망, 끝까지 견디는 인내, 또한 용기를 가지고 불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5장을 보십시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친애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가 불황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을 생각하고, 덴마크 사람들이 사막을 옥토로 만든 것을 생각하고, 고나 섬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금의 지상 천국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의 빛나는 희망과 욥의 인내와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의 불황이 내일의 풍요로 바꾸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 생활이 있었습니다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그러했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신앙을 요셉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 : 5)고 한 것처럼 신앙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한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 : 9).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밧세바에게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자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신앙 있고 겸손한 사람이라 용상에서 내려와 눈물로 침상을 뜨게 하는 회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죽고, 자기 아들과 이복 딸이 죄를 범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열 첩을 지붕 꼭대기에서 겁탈하는 죄의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삼손은 천하 영웅, 천하 장사였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사자를 찢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부순 천하장사인데도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은 두 눈이 빠진 채 소와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집을 무너뜨리며 죽은 것을 보면 간음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회개하기 쉽지만 간음죄는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객지에서 고독하고 혈기가 넘치고 인간 본능의 욕구가 불붓듯 일어날 때에 이 시험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만 요셉이 하나님을 다섯 번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41 : 16).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

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41 : 25).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41 : 32).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41 : 51).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41 : 52)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하란 땅에 가서 "우리 주인이"라고 계속 부르고 높인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바로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다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의 양식 저장했던 창고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서 총리 대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풍요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큰 풍요의 생활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바닷가에 사는 젊은 부부가 꼭 심방을 와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언덕 위 좋은 집에 살고 있었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8년 전에 저희들 결혼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유학생이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야외에서 결혼식장을 꾸미고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졸업하고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다시 와서 아내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 집을 샀습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집사 직분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 제가 몽고로 간다고 하니까 선교비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목사로서 아주

기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이 불경기 속에서도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건강의 복, 부부의 복, 자손의 복, 사회적 복, 물질의 복, 영적 복을 받습니다. 기복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경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그 사람은 굶어 죽지도 망하지도 아니하고 당대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셋째,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함께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증조부와 조부와 아버지에게서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3, 14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40년 만에 고생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적군과 싸워야 할 접경에 왔을 때에 12지파에서 족장 하나씩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너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땅의 지리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백성이 강한가 약한가 보고 땅이 좋은가 나쁜가 보고 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열 사람은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토질은 나빠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사람들은 커서 장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밤새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모

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칼에 죽을 겁니까? 처자들을 저들에게 농락당하게 할 겁니까?" 하고 다른 지도자를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과 다른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손으로 들 수 없어 작대기에 끼워 온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상반됩니까? 열 사람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을 믿었고 지난날 이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개인 사업이나 무엇이든지 신앙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나쁜 것만 봅니다. 안 될 것만 봅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좋은 것을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봅니다. 될 것을 봅니다. 못한다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까마귀의 밥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브라질에 갔을 때 이기간 장로님이라고 한국에서부터 가까이 지냈던 분의 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를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땅을 넓게 잡아서 성전도 크고

숙소도 여럿 있고 식당도 넓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특별히 보여 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했더니 우물이었습니다. 모터가 돌아가면서 맑고 깨끗한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이 산은 돌산입니다. 우리가 물이 필요해서 기계를 가져다가 100미터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다른 곳을 150미터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00미터를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연보 돈을 낭비한다고 웅성웅성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10만원씩 거두어서 50만원을 만들어 우물을 계속 파는 값을 냈습니다. 반드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46미터를 팔 때 물이 흘러나오는데 계속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양회 때 쓰고 동네 사람들도 길어다 먹습니다.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3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안 팝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나 봅니다.

불경기를 만났다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텍사스로 가고, 시카고로 가는데 여기가 좀 흔들려서 문제지만 그냥 여기서 끝까지 사십시오. 다른 곳에 가도 홍수 때문에, 토네이도 때문에 고생합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셉은 노예로 팔려 가고 옥중에 들어가는 불황 속에서 살았지만 빛나는 희망, 끈질긴 인내, 다윗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 때에 큰 복과 풍요를 누린 것처럼, 희망과 인내와 하나님 중심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불황을 변화시켜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 : 6~10).

오늘은 처음으로 신학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4년 전 신학교가 창설된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교회 당회원과 온 제직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신학교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대학원 인가도 받았고 대학 인가도 받았습니다.

또 미국 신학교에서 2단계에 속한 연합체에 가입되었고 외국에서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I-20 Form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남미, 독일, 중국 등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일꾼들을 제3세계에서 불러다가 교육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1기생은 작년에 졸업해서 미국과 남미, 독일, 러시아, 중국에 가

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신학교 이사님들, 당회와 제직원과 온 성도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은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 그리고 영적 법칙에 있어서 똑같은 불변의 원리가 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호박이 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기회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들들에게 속았습니다. 거짓의 씨를 심었더니 거짓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아버지의 첩에게서 난 아들 70명을 반석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몇 해 가지 않아 그 또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죽이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훌륭한 다윗 임금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칠계를 범했습니다. 음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라는 딸을 이복 아들이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소실 10명을 지붕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했습니다. 음란의 씨를 뿌렸더니 자기 아들들 시대에 와서 그 열매를 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에 성경을 말하는 신령한 법칙으로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철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갈 8절)

창세기 34장을 읽으면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재물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 히위 족속이 거하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하루는 야곱의 딸 디나가 거리에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분해서 지혜를 써서 히위 족속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 표로 육체의 한 부분을 할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히위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흘째가 되면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할례 후 사흘이 되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 안에 들어가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세겜이라는 사람 하나가 정욕을 참지 못하고 부당하게 약한 여자를 강간함으로써 그도 죽고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나가 실패했을 때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아간 하나가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하러 아이 성에 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의인은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에스더 한 여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소아시아와 구라파가 광명을 찾았습니다. 선악간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철칙입니다.

사사기 13장 3~5절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 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운이 센 사람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는 사람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우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 보리밭에 불을 놓는 기가 막힌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 기생 들릴라의 집에 자꾸 드나듭니다.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을 붙이고 빠지면 눈이 뒤집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생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달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몇 번의 거짓말을 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게도 비밀을 알려 주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삿 16 : 17)고 말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무릎에서 자는 동안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이 와서 삼손을 포박했습니다. 정말 삼손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삼손을 버렸습니다. 원수에게 잡혔습니다. 두 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씨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센 삼손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정욕의 씨를 뿌림으로써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육체의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

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 : 19~21).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씨입니다.

제가 어떤 의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경화증, 췌장염, 심장근육부전증, 빈혈증, 위장염, 뇌기능 상실증이 걸립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폐암, 식도암, 구강암, 방광암, 위궤양,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마약을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가 생기고 심장부장맥, 정신 질환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볼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한국 사람도, 멕시코인도, 흑인도 불행스럽게 이혼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성격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단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남자가 나가서 외도를 하면 여자는 "당신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면서 나가서 외도를 합니다. 가정이 파탄납니다.

부정의 씨를 육체에 심는 자는 썩어질 씨를 거둡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결국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양명은 "산 속의 도적은 쫓아내기 쉽지만 내 마음속의 도적은 쫓아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 : 32)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분수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망신들을 당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라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 : 23).

둘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8절)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사랑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리고의 임금이 군대를 풀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에 라합이 꾀를 써서 두 정탐꾼을 지붕 꼭대기에 삼대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한밤중에 두 정탐꾼을 위해 줄을 만들어 성밖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마워서 창문에 붉은 띠를 매달면 그 집은 침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붉은 띠를 늘어놓았습니다. 약속대로 성을 점령할 때 붉은 띠를 늘인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려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 11 : 31).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마 1 : 5)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 주는 자비의 씨, 사랑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다윗 왕의 선조,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에서 강도 만나 돈과 옷을 다 빼앗기고 몸을 다쳐 거의 죽게 되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지나쳤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역시 그 모습을 보았으나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간병해 주었고 여관 주인에게 은 두 냥을 주면서 계속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주겠다고 말했다."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 : 36)라고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강도가 가까이에 있을 것 같아 자기도 그 사람처럼 될까봐 도망간 것입니다. 제사장도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핑계하면서 얼른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과 아무런 이해 관계

도 없고, 대대로 원수지간인 사이이며, 자기도 죽을지 알 수 없는 형편이지만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민족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그 사람을 살려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밀양에 피난 가 있을 때였습니다. 피난간 성도들과 지리산 가까운 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익은 군대를 가고 좌익들은 산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좌익 청년들이 산에서 나와서 우익 청년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한번은 저희가 박 구장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 식구는 한 사람도 좌익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집의 인심이 후해서 나그네를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을 퍼 주고, 앓는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해서 동네에서 의로운 집이라고 이름이 나서 좌익 청년들이 그 집 사람은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주에 살 때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 사람의 힘을 등에 업고 중국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다가 해방이 되자 죽음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세상에서도 만주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은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울의 이성국 장로님은 소아과 의사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서 오면 주사를 놓아주고 쌀을 살 수 있는 돈도 주며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국전쟁 때 피난을 못하고 공산당에게 끌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인민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공산당원들이 사형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때문에 우리 식구가 살았다고 말하며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주

장해서 풀려 나셨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한국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씨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9절)

창세기 37~45장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총명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동생을 깊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노예로 팝니다. 그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이 도망갔으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잘 참고 지냅니다. 옥에서 사무장이 되었고 바로의 신하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그 집 사람들의 영혼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다 거두게 됩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밀 경찰대를 조직하고 유대인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쫓겨 다니다가 어떤 독일 민가 조종사에게 가서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독일인은 그 유대인을 폴란드에 내려 주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인은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여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거기서 자원하여 독일군과 싸우다가 뇌를 다쳐 엄청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뇌 전문가를 만나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 의사가 어디서 본 사람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몇 해 전에 구출해 준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을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한번 좋은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군 종군 목사를 할 때에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부대에 나가지 않고 업무를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읍사무소 사무원 하나가 주일 밤에 찾아와서 "목사님,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부대에 나가지 않으시죠?" "네." "운전사하고 차를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어머니의 산소가 저 삼천포에 있어서 벌초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무덤은 중국 땅에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풀이 얼마나 자랐는지, 짐승이 무덤을 헤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군목들은 대민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병에게

부탁을 해서 삼천포에 갔다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병이 갔다 와서 화가 나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삼천포라고 하더니 산을 넘고 여러 동네를 지나서 좁은 길을 들어가고 차가 논두렁에 빠져서 혼났습니다."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게, 자네 오늘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다 바닥에 쏟는가? 세수하고 들어가서 자게." 했습니다.

가을에 삼천포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주일 오후에 고 목사님이 "목사님, 재 너머 동네에 지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갑시다."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없으니까 연락을 하지 못하고 가는 바람에 종을 쳐서 사람을 모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삼천포로 되돌아 나오는 길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운전병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터집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천포를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에 갔다 오던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큰 방앗간에 가면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노인 목사님은 차에서 기다리고 우리 두 사람이 뛰어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병이 "여보세요, 여보세요"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저씨, 혹시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 아빠하고 산에 갔다 오신 공군 아저씨 아닙니까?"하고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얻어서 넣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사고나 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서 다 삼천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수를 합니다. 나의 언행심을 성품으로 거둡니다. 가정에서 거둡니다. 교회에서 거둡니다. 사회에서 거둡니다. 오늘 뿌린 것을 노년에 거둡니다. 현재 뿌린 것을 미래에 거둡니다. 청년 때 뿌린 것을 노년에 거둡니다. 부모가 뿌린 것을 자식이 거둡니다. 이 세대에 뿌린 것을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금생에 뿌린 것을 내세에 거둡니다. 씨는 종자대로 자라나고 거둬집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 : 5~6)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은 외상으로 할 수 있고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씨는 반드시 자라서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거두고 나의 후손들이 거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씨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정직의 씨, 정의의 씨, 자비의 씨, 사랑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서 잘 가꿔 멀지않아 기쁨으로 많이 추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눅 22 : 39~46).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피와 땀과 눈물 이 세 가지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바르게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와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의 찬란한 업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민 생활에, 학업에 성공을 원합니까?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시기를 원합니까? 또한 교회가 더욱 부흥되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운 역사 창조의 한 장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쏟을 때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와 땀과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째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고 우셨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셨고(요 11 : 35), 장차 멸망할 것을 모르면서 현실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고(눅 19 : 41), 최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다(히 5 : 7)고 하였습니다. 뜻 없는 심정에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눈물이고 북받치는 심정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눈물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눈물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 5 : 4)라고 하시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다는 사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둘째로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 : 17)고 하시면서 식사하실 시간도 없이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습니다. 공생애 나오기 전에 30년 동안 일찍이 장자로서 홀로 되

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목수로서 집 짓고 가구와 농기구를 만들면서 뜨거운 유대 땅에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공생애에 나오셔서 아무런 가진 것 없이 땀을 흘리시고 유대 땅 동서 사방에 교육과 전도와 병 고쳐 주려고, 떡을 떼어 주려고, 봉사하려고 도보로 걸어다니시면서 많은 땀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니, 피 전부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 : 22). 피가 없으면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인의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을 때만 용서와 의가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홍띠를 두르자 그 집만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고 그렇다고 전부 멸망시킬 수도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사랑과 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음을 입었도다" (사 53 : 5)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나와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죄를 인하여, 창에 가슴을 찔린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 양손에 못 박힌 것은 이 손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양발에 못박힌 것은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벧전 1 : 18~19).

예수님의 피는 금수의 피와 어족들의 피와 인간의 피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분이 다른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요, 흠 없는 피요, 생명의 피요, 영원한 피요, 사죄의 피요, 정결한 피요, 화해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넉넉히 사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UN군과 국군 장병들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눈물을 쏟으시고 땀을 쏟으시고 여섯 군데 상처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 : 14).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 : 13). 즉 배우고 노력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 1 : 5~7)고 했습니다. 또한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경지까지 성장하라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적이나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온전한 자리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세 가지 성장에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고 쏟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는 희생이 따라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명한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땀과 1%의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시인 에머슨은 "내가 아는 천재들은 다른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잠자지 아니하고 무던히 애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는다면 구약에서는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모세가 지적인 사람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은 그 당시 문명 국가인 애굽의 좋은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군사, 천문학, 광물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중에 데릴사위가 되었습니다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밤잠 못 자고 40년 동안 고생 끝에 인격과 신앙을 배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8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약소 민족 해방의 선구자가 되고 유일신 종교의 창설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가져 오고 이런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땅에 태어났는데 이 다소 땅은 대학의 소재지입니다. 종교의 집합지이며 무역 중심지입니다. 철학과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런 국제 도시에서 태어나, 국제 문화에 목욕을 하고, 대학까지 나왔으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랍어와 철학, 문학과 예술을 넉넉히 알고 로마의 법률과 정치, 경제와 군사학을 알고, 유대 종교와 동양 종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뜨거운 태양 빛 아래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고요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명상 가운데 신비로운 삼층천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 10년 동안을 더 준비하여 45세까지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영혼을 건지고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4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고 합니다. 구슬은 닦아야 빛이 납니다. 인간의 머리는 배우지 않으면 녹이 습니다. 생명은 쓸수록 발전합니다. 수돗물은 저수지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 정신 이상의 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 온 교포들은 얼마나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신문은 매일 보십니까? 잡지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구경도 다니고 오락도 하십니까? 하지만 정말 성경을 보고 옛날 고전이나 새로 나온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바치고 정력을 바쳐 가며 밤잠을 자지 않고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려 가면서 자신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얼마나 육과 더불어 싸우고 얼마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뿌린다면 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탈선했다 하더라도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아들을 따라다니며 울고 눈물을 흘리면 그 아들이 돌이키고 성자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과 정력을 쏟았습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피, 땀, 눈물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소중한 세 액체를 뿌려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우연하게 선한 결과가 내게 굴러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 : 24)고 했습니다. 희생이 있음으로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영웅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13일 영국 하원에서 한 유명한 연설 가운데 "내가 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는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감명을 받았고 신문과 라디오로 전국에 그의 말이 퍼져 나갔습니다. 막강한 독일 공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영국이 쑥밭이 되어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일 때, 처칠의 한마디 말에 온 국민이 감명을 받고 조국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나라를 복구하고 승리로 이끌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어디에서든지 지난날 개척자들이 인디언과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뿌려 놓은 그 숭고한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만이 미국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만세 운동 당시 우리 2,000만 선조들이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목적인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민족적인 자각을 갖게 되었고 세계 사람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뜻 있는 일본 사람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었고 약소 민족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도 있었지만 많은 생명이 일제의 총칼에 무참히 죽어 피 흘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것이 아닙니까?

나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후버 대통령에게도

감사합니다. 5,000명이라는 노동자들이 21개월 동안 3억 8천만 달러를 들여서 60층 되는 후버댐을 건설할 때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후버댐에서 약 500킬로미터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500킬로미터란 거리는 백두산에서부터 서울간의 거리입니다. 지하에다가 수도관을 묻어서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마시고 목욕하고 뜰에다 물을 주는데 30여 명의 노동자들의 붉은 피와 5,000명의 노동자들이 21개월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결과인 것입니다. 희생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도의 간디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일생 동안 초지일관(初志一貫) 인도 독립을 위해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려 인도를 독립시켰기 때문입니다. 흑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가족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인권을 위해서,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25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장로님, 권사님, 교역자들, 어린 유년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저 먼 맥바랜드까지 가서 배추를 뽑아 김치를 만들고 바자회를 하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때는 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비열한 자가 되기 쉽고 노예로 굴러 떨어지지 쉽습니다. 만일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할 때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무사 안일주의자가 되고 빈곤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목석 같은 인간이 되고 동물적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 역사나 일반 역사는 말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귀하지만 옳게 흘릴 때만이 귀한 것입니다. 만일 그릇되게 흘리면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귀한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을 헛되이 흘리지 말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 발전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값있게 흘려 선한 일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중요성

가을이 주는 교훈(요 4 : 34~38)

선택의 중요성(창 13 : 1~13)

전도의 방법(요 4 : 10~19)

지상 명령인 선교(마 28 : 16~20)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자(합 3 : 1~5)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를 만난 사람들(사 7 : 14)

가을이 주는 교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예하였느니라(요 4 : 34~38).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반 계시는 우주 삼라 만상 대자연을 통해 특별한 때에 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주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가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밤이 깊어집니다. 하늘은 더 높은 것만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집니다. 가을이 되어 모든 나무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 어떤 나무는 노란색, 어떤 나무는 빨간색, 어떤 나무는 자주색이 되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며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대자연이 아름답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가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씨도 서늘해지고 밤도 깊어져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될 때 좀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나의 정신이, 나의 인격이, 나의 신앙이, 나의 생활이 얼마나 변하였는가? 달라졌는가? 아름다워졌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옛날 성현은 "일일삼성(一日三省)", 즉 하루에 세 번씩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레위를 마태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가신

집이 가나 혼인 잔칫집이었습니다. 잔칫집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유는 잔칫집에 꼭 있어야 할 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손님도 모두 기분이 언짢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니 모든 손님들이 처음에는 맛이 없는 술을 주더니 나중에는 더 좋은 술을 준다고 하면서 그 주인을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부으라고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섯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색깔의 변화, 둘째는 위치의 변화, 셋째는 소용의 변화, 넷째는 맛의 변화, 다섯째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만일 10년 동안 같은 학년 같은 반에 그대로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더 많은 변화를 받아야 하고, 처음 믿은 사람도 몇 달 지나면 아주 달라져 있고, 색깔이 변화되고, 위치가 변화되고, 맛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죄악의 사람, 전쟁의 사람, 노예의 사람, 고통의 사람, 죽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지었던 사람이고 죄 지을 생각만 하던 사람입니다 .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

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쁜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노예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의 인생입니다. 죄 값으로 죽을 사망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죄악의 인생이 변하여 의의 인생이 되었고, 노예의 인생이 변하여 자유의 인생이 되었고,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었고, 죽음의 인생이 변하여 영생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선가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몬 1 : 11)라고 빌레몬에게 글을 썼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잘못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로마로 도망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회개하고 거듭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람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그를 맞아들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충성된 종으로 그를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지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속이고 불효하고 불복하고 시기하고 죄를 짓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정말 무익한 존재였으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으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한 사람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을 하여 무식한

사람과 세력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의 돈을 많이 긁어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말할 뿐 아니라 반역자, 로마의 개라고 말합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군중 틈에 끼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가 오면 모두가 돌로 때리려 합니다.

둘째로 그 자신이 돈을 많이 벌어 보고, 공부도 해보았지만, 좋은 집, 아름다운 가구도 있지만,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옷 입고 처자도 있었지만 맘속에 평안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준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한번 만나 보았으면 하는 영적인 부흥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각성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한 번 만나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예수를 에워쌌기에 볼 수가 없어 체면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한번도 만나 본 일도 없고 한번도 편지한 일도 없는데 이 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실 때 그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과 식사를 하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인격에 그만 녹아져서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토색을 했으면 1/5만 바치면 되는데도 이 사람은 4배나 갚겠

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1/5만 더하여 갚으라고 했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세력 없는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준 예수님의 정신, 인격을 삭개오 자신이 본받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 9~10)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정신과 사상과 인격과 가치관과 생활과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또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의 한 사람이 되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5,6,7장은 산상수훈으로 만고에 빛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성경 66권이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산상수훈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많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의 교훈이 동(銅)과 같다면 산상수훈은 보석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의 앞잡이요, 민족의 개라고 일컬음을 받던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아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쓰고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는 놀라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때 원문의 뜻은 "자기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고 마음을 돌이켜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는 각성, 둘째는 애통, 셋째는 고백, 넷째는 보상입니다.

첫째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 : 20)라고 한 것처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 : 6)라고 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칠계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요를 적시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고백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막 1 : 5)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복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에스겔서에서 "약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했듯이 갚을 것은 갚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제 의롭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다니면서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도둑입니다. 도둑은 양을 훔치고 죽이러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법대로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은 회개치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네 단계를 밟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는 세리와 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고백하고 갚을 것은 갚고, 다 못 갚으면 1/10이나 1/100이라도 갚아야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

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가을에 조금 변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만 교회에 나오는데 밥도 세 끼 먹듯이 예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예배는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도 규칙적으로 보고, 기도도 좀더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십일조도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 있는 제직과 성도들이 있다면,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많은 과일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가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운영하는 기도원 주변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땄습니다." 하면서 복숭아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마 3 : 10)고 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눅 13 : 7)했고, 유다서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유 1 : 12)라고 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 가지 열매의 종류가 나옵니다.

회개의 열매(눅 3 : 8), 의의 열매(약 3 : 18; 고후 9 : 10), 빛의 열매(엡 5 : 9), 아름다운 열매(아 4 : 16), 귀한 열매(아 7 : 13), 입술의 열매(히 13 : 15), 성령의 열매(갈 5 : 22~23)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35년 전 충청도 수산, 아주 산골짜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첫날부터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부딪혀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나이 사십 세가 가까운 어떤 집사 한 분이 죄를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 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 사람은 그 분야에 죄를 짓는 것은 명수로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울고 또 울고 회개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도해 주고 떠나왔습니다.

15년 후에 제가 제천교회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곳의 장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물심 양면으로 얼마나 돕는지 지교회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고, 바로 죽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의의 열매입니다.

착한 열매입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버니와 자기 남편도 죽어서 한 집에 과

부가 셋이 되었을 때 큰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었고 어머니는 늙었는데 누가 어머니를 봉양합니까? 제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권해도 가지 않고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 : 16~17).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옵니다. 이 젊은 여자 룻은 남의 추수하는 곳에 나가 이삭을 주워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가 소문이 나서 베들레헴의 유지이며 유명한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아 그들 사이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열매입니다.

며칠 전 어느 가정에 심방을 갔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많은 할머니들을 모시고 구역예배를 왔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할머니들을 모시고 교회도 오고 구역예배에도 온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착한 열매입니다.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10년, 20년 동안 보수도 없이 말도 없이 봉사하시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착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가면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지리아에서 옥수수를 개량하여 많은 옥수수를 생산해

서 그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 가서 옥수수를 재배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빛의 열매입니다. 한국을 드러낸 빛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명예 추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내밀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었는데, 그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저축한 것 1만 달러를 건축 헌금으로 바친다고 해서 제가 따라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껴 썼는데도 몸도 더 좋아 보이고 날씬하고 아름답기도 했습니다. 잘 먹은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집사님은 더욱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귀한 열매입니다. 큰 사업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두 젊은 집사가 10만 달러를 건축 헌금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멀지않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입술의 열매는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찬양, 휘파람으로도 찬양, 화장실에 앉아서도 찬양,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 5 : 22~23).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

리라"(요 15 : 8)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천국 시민이냐? 그 사람이 정말 성령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하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압니다.

셋째,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 4 : 35)라고 하였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혔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그 수고는 헛것입니다. 열매가 맺혔으면 추수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을철 추수에 대해 잘 압니다. 콩을 심어 제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콩이 입을 벌려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들깨, 참깨 등은 거의 다 익었을 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땅에 다 떨어집니다. 콩도 제때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땅에 다 떨어집니다. 벼도 가을철에 베지 않으면 쥐가 와서 다 먹고 새가 와서 먹게 됩니다. 과일도 제때 따지 않으면 얼어서 먹지도 못하고 맙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제때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지구촌에 많은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미국 안에만도 사우스베이, 윌셔, 할리우드, 밸리, 다우니, 오렌지 카운티, 올바인, 풀러턴, 샌디애고, 알래스카,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뉴저지, 덴버, 필라델피아, 로건, 유타,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 등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호주, 이탈리아, 로마, 독일, 중국, 러시아 등지에 15개의 교회가 있습니

다. 신학교는 우리 교회 내 60명, 러시아 41명, 파라과이에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주민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25년 동안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 보낸 선교 헌금을 계산해 보니 3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십일조, 일반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을 다 이렇게 나눠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느질로, 공장에서, 슈퍼마켓에서 애써 일하고 주일마다 바친 것을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거둬들여야 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에 무르익은 것들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거둬들일 방법은 첫째는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 선교사로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부탁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선 선교지에 가면 "목사님! 돈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둘째는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몸으로 간 사람은 홍성호 선교사, 조원하 목사, 김용식 목사, 이법웅 목사, 조갑수 목사, 강성구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갈 때마다 도와준 것은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을 바침으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일조,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선교비로 많이 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제3세계의 원주민 교회 목사님은 다섯 식구지만 50달러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답니다. 우리가 한 달 생활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또 러시아 신학교에 30명만 뽑기로 했는데 41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앞에 50달러만 주면 먹는 것과 학비가 충당된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이 못하면 두 가정, 세 가정이 합

해서라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에스더가 유대 나라 여자로서 바사 나라 왕후가 된 것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 사도가 유대 사람인데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나고 이방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은 세계 선교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이 미국 땅에 보낸 것은 마지막 때에 한국 민족, 한인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한 모퉁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보내 주신 줄 알고 계속 주의 선교 사업에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변화의 계절,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 :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 126 : 5~6)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주의 사명에 적극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1)라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중요성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창 13 : 1~13).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를 선택합니다.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취업을 할 때도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사업을 할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 이민을 갈 때도 캐나다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남미로 갈까?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 하더라도 동부로 갈까? 서부로 갈까? 남부로 갈까? 북부로 갈까? 서부로 온다 하더라도 시애틀로 갈까? 포틀랜드로 갈까? 샌프란시스코로 갈까? 샌디애고로 갈까? 로스앤젤레스로 갈까? 모두가 선택입니다.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에는 하나의 깊은 사려와 고민이 따라옵니다. 선택의 결과는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였기에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는 감수해야 합니다.

고 김계용 목사님은 이북에서 사범학교를 나오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6 · 25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인민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일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후덕이 이민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인민군에서 탈출하려는 결단이 없었다면 이 땅에 김계용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동양 선교교회 문명철 목사님도 이북에서 인민군에 끌려 나갔다고 포로가 되어 거제도에 수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포로들을 석방했을 때 문명철 목사님은 브라질로 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브라질에 가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지금은 동양 선교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에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머물지도 않고 제3국을 택해서 일찍이 해외에 나와 남미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롯은 선택을 잘못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풀과 우물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넓은 평야 소알 땅 소돔 고모라 근처 풀과 물이 많은 곳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 상수리나무 바위가 많고 풀이 적은 곳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간음과 괴이한 색으로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여 성 안이 다 탔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자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더 공경 잘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 건강의 축복, 부부 해로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롯은 망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것을 본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모름지기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자자 손손을 위해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중요성"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친구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소꿉 동무를 사귀고, 학교에 가서는 학교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골라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친구가 있고 '질병'과 같이 피해야 할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데오그네스는 "먹고 마시는 일에는 많은 친구가 있으나 위급한 일에는 친구가 몹시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친구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여 영향력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 모든 것이 사라져 실패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신음하고 좌절하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재상집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재상이 죽으면 사람이 안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 박 대위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울면서 "목사님, 아이 아빠가 살아 있을 때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우리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친구, 술 친구, 테니스 친구, 골프 친구, 노름 친구, 댄스 친구, 라스베이거스 친구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참된 친구는 서로 비밀 없이 마음을 털

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중심을 받아 주고 이해하고,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참 친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며,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비밀을 보장해 주시고, 내 고통을 같이 당해 주시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친구요 영원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언 선생은 동양의 성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번은 그가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의 간디를 만났더니 간디가 묻습니다. "당신은 일본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소?" "참의원 친구 한 명, 실업가 친구 한 명, 대학 교수 친구 한 명 모두 세 사람"이라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내 방에서 나가 주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가 주시오."라고 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변치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임이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친구 하나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이 예수님을 내 친구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다면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직업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게 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복을 거두시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끌, 망치, 대패를 가지고 집을 지으러 다니시고 걸상을 짜고 쟁기를 맞추면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천막을 짓고 일하면서 땀을 흘리며 전도했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바울 사도는 천막 짓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운동 선수 아슈마흐 휴스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

지 않는 자는 분명히 빵을 속여 얻거나 훔치거나 구걸하는 방법으로 얻겠다는 것이요 이밖에는 다른 방법으로 빵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에드워드 카펠 목사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직업이 꼭 필요하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바쁘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어떤 보람 있는 직업에 이바지하지 않는 자는 무엇인가 악한 것을 잡게 되어, '게으름은 재앙의 어머니' 라는 옛 금언이 그에게 참말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또 "만약에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그 부를 상속하도록 한다면 조만간에 모든 악에 쏘여 그 독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그 형벌로 정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악마는 만족하게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유혹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경선 씨는 "직업을 청지기로 알고 만족하는 자 가운데 성공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갖되 정당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 생산적인 건설적인 창조적인 보탬이 되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폐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직업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몸 파는 사람들이 돈 번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 신자가 복권에 당첨되어 100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당회에서 장시간 의논한 뒤 다시 그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주류 상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기도하십시오. 그라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떳떳한 직업이냐, 대대로 물려 줄 수 있는 직업이냐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일형 박사님이 국회의원을 하더니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조병옥 씨가 국회의원 하더니 그 아들이 국회의원을 합니다. 물려줄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포 앞에서, 나의 조국이 참으로 손상되지 않을 만큼 떳떳한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게 벌어도, 힘들게 벌어도 건전한 직업, 떳떳한 직업을 택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을 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총각 처녀에게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 손자들은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믿기는 선택 중에서 이 배우자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을 많이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마음 아파하고 잠못 자고 울면서 먹지도 못하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보았고 지금도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우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바이런은 “결혼은 만인에게 꽃이다. 그러나 해충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고, 프랑스의 장 퐁테뉴는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요, 정신적 벗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베이컨은 “아내는 젊었을 때는 남자의 친구요, 중년에는 남편의 의논의 대상자요, 노년에는 노모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미국에서 일 년에 5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도 백인과 같이 이혼을 많이 합니다.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진정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혼하려고 해도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벌보다도, 외모보다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건강한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피를 검사합니다. 건강치 않은 사람들이 비극을 가져옵니다. 도중에 하차합니다.

셋째는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릇이 동그라면 물이 동그란 원형으로 생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격 따라 다릅니다.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은 교회의 중직일지라도 급할 때는 저고리 벗고 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욕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매 결혼보다 서로 몇 달 몇 해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신경을 건드려 보고 잘 참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은 힘듭니다.

넷째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학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UCLA를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좋은 집안의 따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처녀 집은 미국에 있지만 청년의 집안은 여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청년에게는 돈이 없었지만 장래성을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꼭 보아야 합니다. 딸하고 남자하고는 그런 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장모가 못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엇 때문에 싸워서 여자가 친정으로 가면 훌륭한 부모 같으면 "야! 너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뭐 맞아서 행복하게 산 줄 아느냐! 그저 의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살고, 법 때문에 살고, 체면 때문에 산다. 맞춰 사는 것이지,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나가도 남자가 나가는 것이지, 여자가 나가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데, 못된 어머니는 "잘 왔다. 처음부터 별로 맘에 들지 않았다. 야! 일찍이 그만둬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딴 사람 찾아봐야 별 것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계란이 크고 작고 색깔만 다르지 계란은 다 맛이 같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를 꼭 보면 크게 실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이 다섯 가지를 비춰 보아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남편이 이 우주에서 꼭 하나

뿐인 배필인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교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뒤르갱은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 보니까 군함과 대포 없는 나라는 보았지만 종교 없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5세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신을 갖는다. 참신 아니면 거짓신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조지 버나드쇼는 "참신은 하나지만 거짓 신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공산주의가 나가고 나니 모두가 빈 마음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할 텐데 거기다가 술 마약 등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러시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 장성 10여 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군목제도를 보고 러시아 군대에 도입한다는 것을 보면, 이념이라는 것은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인간 본성의 종교심은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 하워드 토이는 "오늘의 종교는 인간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다. 종교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네 번 당선되었던 루스벨트는 "현대 문명은 종교, 민주주의, 국제적인 신뢰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를 공격하는 원천은 민주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전복된 곳에는 자유로운 예배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 종교와 민주주의가 사라져 버린 곳에는 이성마저 거스르는 야만적 폭력만이 남아 있다."라고 말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종교는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일곱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신도, 유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중동 아랍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 사람들이, 불교는 태국 사람들이, 신도는 일본 사람들이, 유교는 대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서유럽 사람들과 북미 사람들이 주로 믿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것을 알려면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 태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월등히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애국자 패트릭 헨리는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처분하였다. 내가 가족들에게 하나 더 남겨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살 것이며, 만일 신앙이 없다면 내가 그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 양식을 자식에게 주려거든 고기 한 마리를 주라. 일생을 살게 하려거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유산은 당대밖에 못 가고, 정신적인 유산은 삼 대까지 가고, 신앙적 유산은 천 대까지 간다고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했고, 시편 144편 15절에 "여

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으며, 시편 12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건강의 복, 가정 평화의 복, 자녀 성공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선택을 바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선택한 바도 있지만 아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친구 선택,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 종교 선택을 바로 하여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이 당대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손들이 복된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방법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요 4 : 10~19).

교회에 큰 잔치를 앞두었기에 방금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22년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큰 잔치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웅심이나 개인의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주님의 지상 명

령이시고, 성령께서 영혼이 돌아오기를 탄식하시는 것이기에 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도의 접근 방법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에게 전도하면서 접근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이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용돈 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학적으로 전도의 접근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존 전도, 선포 전도, 설득 전도입니다.

첫째로 현존 전도입니다.

현존 전도라는 것은 성경의 증언이나 증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소금이 부패 방지를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존 전도는 기독교를 용납지 않는 제3세계에 들어갈 때 목사로는 가지 못하니까 안수 받지 않은 평신도들, 의사, 기술자, 교사들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을 현존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한국에서 온 의사가 병을 고치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김순권 옥수수 박사님이 옥수수 재배를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는 김상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과일을

재배하면서 그것을 통해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는 수도공사 기술자인 박 장로님이 봉사하면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교회 대학부를 나오고 청년부에서 일하다가 다른 주에 가서 공부를 한 성도가 말합니다. "금년 말쯤 제가 공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아내는 심리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번에 중국 연변에서 저희를 불러서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현존 전도 방법입니다.

둘째로 선포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1981년 영국의 성공회 신학자 패키 주교가 영국의 대주교들이 이미 써 놓은 전도 방법을 다소 고쳤습니다. 원문에는 "복음화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교회 교제 가운데서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게 해야 한다."라고 했으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을 패키 주교는 "할 수도 있다"로 고쳤습니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덜어 준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야 한다.", "교회로 꼭 데리고 와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준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 복음화대회에서 존 스토트 박사는 "복음 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전파함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부와

는 상관없이 전파하는 것이 선포다."라고 했습니다. 선포 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냉랭하고 거부해도 선포한다는 것이 이 전도의 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전하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1946년에 중국에서 서울로 내려와서는 애국 운동하다가 공산당으로 몰려서 유치장 가서 조사받고 풀려났고,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 스파이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에서 사형선고 받았을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 주셨습니다.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웬 흰옷 입은 젊은 청년이 나에게 전도하는데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되살아납니다.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선포한다는 것은 믿든 안 믿든 하는 것입니다. 유달영 교수님이 "콘크리트 관을 묻었거든 표를 해두어라. 씨를 심었으면 표를 할 필요가 없다. 씨는 생명이라 지각을 뚫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마음 바탕에서 자라납니다.

셋째로 설득 전도입니다.

설득 전도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제자까지 만드는 것이 설득 전도입니다. 로마에 관광 가이드를 하는 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비행장으로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몇 달 전에 대사관에서 저에게 모 고관이 며칠 동안 기독교의 유적지를 관광하고 싶어하니까 잘 안내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순이 다 된 점잖은 분이 수행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운전사, 당신 예수쟁이냐' 며 예수님을 그 친구 저 친구 하기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리십시오. 제가 비록 운전을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 돈 받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그 친구 저 친구 하면 좋겠소? 내가 예수 믿은 후 술도 담배도 끊고 혈기도 죽이고, 가정도 평안하고 복을 받아 감사하고 있소. 또 여기에 와서 기독교의 유적을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임을 확신하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실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하나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서 "어제는 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참 대단한 집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로마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드나드는데 그 조종사들 중에는 관광 안내를 잘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분들인데 성경도 많이 알고 고고학과 역사학도 많이 안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설득 전도 방법입니다.

둘째, 전도에 사용되는 8가지 단어입니다

"증거하다"(행 1 : 8, 22), "말하다"(행 4 : 1), "복음 전하다"(행 8 : 4), "가르치다"(마 28 : 20), "강론하다"(행 17 : 2), "알

리다"(행 17 : 3), "전파하다"(행 8 : 5), "제자 삼는다"(마 28 : 19).

증거라는 말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견딜 수 없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가르친다는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한 일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땅 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만민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잡고, 그물을 쳐 놓고 잡기도 합니다. 그물을 크게 치고 잡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개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상대해서 전도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한 것이 개인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개인 전도를 했고 빌립 집사는 구스 내시에게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개인 전도 방법이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다"(롬 3 : 23). "죄의 삯은 사망이다"(롬 5 : 12).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롬 5 : 8). "믿으면 구원받는다"(롬 10 : 9)의 네 가지는 개인 전도의 열쇠가 됩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목사는 사영리(四靈理)라고 해서 접근하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이 사영리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을 창설한 제임스 케네디는 5가지를 말합니다. "천국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용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로 인해 오늘 한인교회 성도도, 한국 교회 성도도 내가 죄를 범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덮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도 준비해 놓으시고 지옥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기를 때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 잘못하면 매를 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대신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자연계를 정복하고,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

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신성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인성은 여인의 몸에서 나시고, 젖을 먹고 자라시고, 춥고, 목말랐고, 울었고, 피곤하셨고, 죽으셨던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신으로만 오면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만 오면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전도 폭발의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로 대중 전도입니다.

교회가 일 년에 한두 차례씩 부흥 강사를 모셔다 사경회를 하는 것은 대중 전도입니다.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다. 바울도 큰 극장에서 전도했고, 영국의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시장에서도, 광산에서도 전도했고, 무디나 빌리 그레이엄도, 한국의 이성봉 목사님도 대중 전도자들입니다.

셋째로 대중 매체 전도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를 통해서 전도합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은 중국, 러시아까지 전파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도 복음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차 타고 가는 사람, 방안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결연 전도입니다.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을 분석 조사해 보았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광고 듣고 2%, 목사님을 통해 6%, 조직 전도를 통해 6%, 그런데 친구에 이끌려는 86%나 되었습니다. 거의 친구나 가족의 소개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웃, 친척,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로 생활 전도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 : 45~47).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백성에게 칭찬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꾸 쌓아 두지 마시고 혼자 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글이 더 좋아야 하고, 글보다 생활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일본의 이궁 존독이라는 소년이 글방에 공부하러 다니는데 선생님이 술만 마시면 부인을 때립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하러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하루는 길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왜 글을 배우러 오지 않느냐고 묻는 선생에게 그는 "배울

게 없어 안 나갑니다. 선생님이 약주만 드시면 우리 보는 데서 사모님을 때리고 욕하는데 제가 무엇을 배우러 가겠습니까?" "네 이놈 누가 그걸 배우라고 했냐. 내가 가르쳐 주는 글이나 배우라고 그랬지." "선생님, 아무리 쌀밥이 좋지만 그 쌀밥을 똥통에다 담아주면 누가 그 밥을 먹겠습니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쌀밥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진주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귀합니다. 잘 간직하여 우리 생활이 성도다워야 전도가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북한 유치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이지만 간접적인 동기는 우리 넷째형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활이 어찌나 인자한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부가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먹었다고 갈매기를 잡아죽이려고 할 때, 그 갈매기를 돈을 주고 사서 날려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생활이 아름다웠습니다. 군인들, 정치가들, 혁명가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과 우리 형님의 생활을 비교해 볼 때 열 배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형님의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성도 몇 명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바퀴 뼁 돌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전도하러 가셔서 전도는 안 하시고 오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하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의 얼굴, 눈동자, 걸음걸이를 보고 내가 마음이 끌려서 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어른입니까?

매일 성경 보십니까? 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기쁨으로 어느 부서든지 주일에 봉사하십니까? 공예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만약 주일만 예배 참석하고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예

배 빠진다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공예배 빠지고 봉사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직분 안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남에게 본을 보이고 생활로써 보여 주어야 전도도 되고 처음 나온 분들도 따라서 합니다.

LA 교민들의 불안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4·29가 난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웨슬레가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성화 운동을 일으킬 때 영국 사람들이 회개하여 살아난 것처럼, 오늘 마약, 섹스, 도둑질, 살인에서 미국을 건질 사람들은 정치가, 국회의원, 자본가들이 아니라 미국 교회, 한인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새 창조함을 받을 때 아름다운 미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서 전도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앙의 성장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상 명령인 선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6~20).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요약한다면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쳤다는 교육과 선교와 봉사입니다. 이 세 가지 업무중에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제자를 부른 것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킨 것도 선교를 위함이요, 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것이 선교요, 또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선교를 위함이요, 교회를 창립한 것도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상 명령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

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한 민족을 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훼 종교, 유일신 종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이방인들, 잡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서 유일신의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째로 요나서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죄 많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나 선지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국수주의자요, 이기주의자이며,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복을 받을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

여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선장이 "누군가 여기에 죄인이 있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혀 바닷속에 던져져 큰 물고기가 삼켰고,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할 때에는 죄를 짓지만 아주 어려울 때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한번만 살려 주시면 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흘만에 그 고기 입에서 해변가로 요나를 던져 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임금과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것을 돌이키시고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육축까지도 살려 주셨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다는 이 사실이 곧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셋째로 마태복음 28장 19~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그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준 다음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의 말씀을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세 번째 선교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넷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선교의 네 번째 성경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더 많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선교관입니다

선교의 첫째 단계는 '너희는 가라' 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저스틴은 미얀마로 갔습니다. 또한 토머스 목사님은 일찍이 한국 대동강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가야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질 문화 속에 가서 그 영혼을 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15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1979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에 누

이동생이 있는 중국 길림성 왕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딸, 사위들, 며느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느냐?" 하니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머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73년 동안 공산주의 유물론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혼도, 부활도, 내세도 모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989년도의 통계를 보면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는 아시아에 17,299명, 아프리카에 14,189명, 남미에 3,026명, 남태평양에 610명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아무것도 불편할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통에 있어서나 기후에 있어서나 의식주에 있어서 형편없는 나라에 가서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미국, 한국, 캐나다에서 들어간 약 550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유럽 출신의 백인 선교사 3,000명이 조용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으로, 수학 선생으로, 기술자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조갑수 선교사의 집에 들어갔더니 현관은 어수선하고, 밤에는 전깃불도 없고, 화장실에도 전깃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방은 조그마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아파트는 방 3칸이 있으면 방 3칸의 주인이 다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면 다른 부부의 방을 지나서 가야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라서 아침이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밥 짓는 곳도 하나고, 전화도 하나입니다. 그래도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1층, 2층 방 14개를 얻어서 신학교 기숙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 목사님 부부가 고생을 감수하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합니다만, 러시아는 빵을 사려면 줄을 늘어서야 하는 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러시아에는 세 가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데, 첫째는 남북한의 백 배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식량이 모자라 가장 배고픈 나라인 것이요, 둘째는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데 그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는 것이요, 셋째는 기독교 천 년 역사에 천당 간 사람이 적다는,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분이 소아시아에 가서 제일 먼저 선교한 곳은 에베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시장 터에 가면 굴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 굴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유럽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번 유럽에 가서 보니까 독일에는 한국 교포가 5만 명이 사는데 교회는 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교포가 3만 명 정도

사는데 교회가 9개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3만 명 조금 못 사는데 교회는 8개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약 2천 명이 사는데 교회는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 대부분이 250명 이하인데 다행히도 우리 지교회인 로마 교회는 300명, 밀라노 교회는 350명이 모입니다. 이 두 교회 모두 매우 큰 교회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호텔에, 러시아의 복음교회에, 공산당 문화회관에, 병원에, 공산당 본부에, 심지어는 러시아 왕궁에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재광 목사님은 방이 800개 있는 왕궁에 임금이 음악 감상하던 곳에 한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통역의 얘기로는 공산당이 교회를 수영장으로 쓰던 것을 다시 교회로 복구했고, 스케이트장으로 쓰던 교회도 다시 교회로, 무신론 박물관으로 쓰던 교회도 다시 교회로, 공산당 본부로 쓰던 교회도 다시 교회로 복구하였다고 합니다.

공산당 본부로 쓰던 어떤 교회 건물에서는 지금 한국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감격하여 마음속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7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나라에서 교회를 스케이트장으로 바꾸고, 수영장으로 개조하고, 공산당 본부로 만들어 쓰던 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열고,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속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식민지,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지만 장차 세계를 정복할 것이며 예수님은 노동자이지만 학박사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끊을 것이며 예수님의 무기는 사랑이지만 창칼을 꺾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썩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같이, 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누구라도 한때는 핍박해서 문을 닫게 할 수 있어도,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가 교회 문을 닫게 했지만 다시 연 것과 같이,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에 영원무궁할 줄 믿습니다.

셋째 단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고, 사도행전 11장 25~26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18장 11절에도 "일 년 육 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라고 했으며 사도행전 28장 30~31절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번 영국 런던 한인교회를 갔을 때 이승장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주해 설교, 강해 설교에 익숙하고, 구역회에서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상사 직원들과 유학생들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성도 모두가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 생동하는 교회생활을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얼마 있다가 다 흩어지고 맙니다. 밀라노 교

회도 가보면 정봉은 목사님이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서 거기서 음악 하는 사람들, 디자인 공부하러 온 사람들, 상사 주재원들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착실히 부흥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 같이 간 임마누엘 선교 단원들도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은 깊은 밤에 식당에 불이 켜 있기에 가 보니까 남자 대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찬양을 부르고, 러시아 말로 민요도 하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할아버지도, 젊은 여자들도 계속 눈물을 닦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할 때는 주로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교리 설교, 절기 설교, 윤리 설교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도 많이 오고, 유학생들도 많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 이민생활과 정착에 필요한 위로, 격려, 소망, 용기, 가정, 자녀, 교육, 적응 등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제일 훌륭한 것은 주해 설교입니다.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것이 제일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이리저리 가고, 예수님이 1993년 10월에 온다는 말에 빠지는가 하면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마지막 천국에 떳떳이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단계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성도들을 모아 놓고, 교회를 형성하고,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살게 해야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선교의 목적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제자가 되어, 사귐과 영적 성장으로 세계 선교에 공헌하여, 사도들을 본받아 교회 설립과 성장에 힘쓰는 데 있다."라고 했으며, 미국 교회 성장학의 시조라고 하는 맥가브란 교수는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됨을 선포하고,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그의 몸된 교회의 책임 있는 회원이 되는 데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두 학자가 똑같이 선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회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스승을 늘 사모하고 스승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전에 한국 신학 대학에는 김재준 박사님이 교장이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을 보면 말하는 것, 글쓰는 것, 걸음 걷는 것이 김재준 박사를 거의 닮았습니다. 합동 학생들은 박형룡 박사님을 거의 닮아갑니다. 통합은 한경직 목사님을 닮아갑니다. 저도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다녔더니 사람들이 이성봉 목사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제자이기에 닮는 것입니다.

어느 가을에 시골에서 목사님 한 분이 심방을 갔더니 마당에서 다섯 살 된 아이가 놀다가 뛰어 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예수님 와!"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같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목사님이 그 집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뛰어 들어

가면서 "엄마, 엄마, 전기세 받으러 와!" 그러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다워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다워야 합니다.

셋째, 성경적 선교 방법입니다

첫째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의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 김용식 선교사는 남미로 갔습니다. 홍성호 선교사 부부는 파푸아뉴기니로 갔습니다, 윤치원 선교사와 조갑수 선교사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조바나바 선교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번에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십 년간 같이 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공군에서 군종차감으로 제대하고,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고, 나이가 칠십이 되어 3년 전에 정년 퇴직한 후 러시아에 온 것입니다. 그분은 러시아 여러 곳을 다녔는데 한국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는데, 페테르부르크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곳의 어느 은행 부총재로 있는 한국인 3세를 만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3년도 안 되었는데 지교회를 9개나 세웠습니다. 신학교 학생이 120명이랍니다. 그런데도 사는 집을 가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그분을 이전에도 존경했지만 지금도 존경합니다.

둘째로 물질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전도단을 물질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교회의 발전에 많이 공헌했지만 여자들의 힘도 큽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오는 데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도 수고 많이 하였지만, 여선교회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도와 주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도와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위해 물질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일선에 가면 거의 자기가 입고 돌아올 것만 남기고 다 주고 옵니다. 이번에 우리 일행도 이불, 슬리핑 백, 옷 스웨터 등 좋은 것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갑수 목사님은 많이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금을 많이 주고, 성도들도 많이 주어서 절약하고 남는 것 모두 조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셋째로 기도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재광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기술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선교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니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도 얻게 하시고, 피아노도 얻게 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당회, 제직회 그리고 모든 부서, 국내 지교회, 해외 재교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 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 가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다섯 나라에 다녀와서 다섯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을 학살한 수용소에 가서 보니까 빼빼 마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 앞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 사생관, 우주관, 내세관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군인들의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약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 미국에서 산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

릅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 감사합니까? 감사한 생각이 없거든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좀 다녀오십시오.

넷째로 우리 자체 교회를 가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교회 건물을 영국, 필리핀, 헝가리, 한국, 네 나라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전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7시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6시 50분쯤 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창밖에 새까맣게 붙어서 쳐다봅니다. 밀라노 교회도 예배당은 없어서 나흘 부흥 집회 기간에 네 번 다 시작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첫째 날은 12시에 하고, 둘째 날은 3시에 하고, 셋째 날은 5시에 하고, 마지막 날은 7시에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부족하지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페테르부르크에 한국인 신자가 30명인데 그들이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주신 선교 헌금 가운데 100달러를 손에 꼭 쥐어 주었더니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이라고 받으라고 그랬더니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100달러면 다섯 식구가 적어도 두 달 이상 산다고 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여유 있게 살기 때문에 절약해서 우리가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라도 선교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자기 동족을 흉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이며, 에스더를 바사에 보낸 것은 하만의 손에서 유대민족을 건지기 위해서이고, 바울을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 땅에서 자라게 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라고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게 한 것과 같이,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복받고 잘 사는 미국에 보낸 것은 물질로 선교하라고 하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 물질로 못하면 기도로 선교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복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우선 순위를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몸으로 못 가면 물질로, 내가 물질을 많이 못해도 하루에 1달러라도, 하니 한 달에 1달러라도 선교에 동참하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동참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신학생은 50달러만 있으면 한 달 먹을 것과 학비가 해결됩니다. 선교 하는 가정은, 선교 하는 교회는, 선교 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자

시기오놋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합 3 : 1 ~5).

하박국서에는 북쪽 강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셔서 국난을 면하게 해 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절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경제적 부흥이 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부흥되어야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근본 문제인 영적 부흥, 도덕적 부흥, 정신적 부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받아 독일의 교량이 부서지고 학교가 파괴되고 공장이 부서질 때

에 독일의 철인 피히테는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으로 다리가 부서지고 학교가 파괴된 것도 마음 아프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의 물질 문명은 토끼와 같이 달려가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 걸음과 같이 뒤따라간다며 그 불균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사생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에이즈와 강도 등으로 미국 사람이나 우리 교포들이 위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가 부패하였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사회가 어두워 갔습니다. 교회가 보다 새로워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될 때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한인 교포도, 미국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자"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기사와 이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앙 고백도 바로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왜 그가 실패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변하여 하루에도 삼천 명을 전도하고 승리의 생활로 마지막을 마친 것을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각 사람의 우선 과제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행 2 : 18).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약속입

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철저한 회개와 영성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붙고 휘발유가 있어야 불이 붙듯이, 말씀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성경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영성 훈련에 참석해서 각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배가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돼지도 새끼를 많이 낳아야 주인이 기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그대로 주께 바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겨 주님께 바쳐 칭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예수님도 원하시고, 성령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도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진정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만 치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네 가지의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서 심령의 변화(내적 변화)를 받고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물질 중심, 향락 중심, 명예 중심, 세상 중심에서 떠나서 정의, 진리, 사랑을 중요시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치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 변화도 없고 가치관의 변화도 없습니다. 믿을 때 인격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을 받고나서 내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 날마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 설교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나가서 말씀대로 생활해야 하고 그 생활이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가 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흥 운동을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 : 1~3).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의식주의 근심이 아니고 명예, 지위, 권세, 죽음에 대한 근심도 아니고,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 불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저들을 살려 달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 : 9).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 이성봉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지만 아버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다가 병이 들었답니다.

병이 중하여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오라고 한 후 코를 힘있게 비틀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장사 지내고 나서 '왜 나의 코를 비틀었나?' 생각하다가 '나의 콧대가 높아 고집이 세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 고집을 꺾으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비록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짐승이라 했습니다.

셋째, 전도 폭발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 폭발은 플로리다 주에서 케네디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연구 끝에 크게 부흥시키고 전세계에 보급시킨 운동입니다. 이 전도

폭발을 통해 많은 교역자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자발적인 신앙생활,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이웃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전화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발에 물을 묻혀야 합니다. 이를 뺄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를 빼면 잘 안 됩니다. 많이 흔들릴 때까지 움직이면서 기다렸다가 빼면 쏙 빠지는 것처럼,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음악회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할 때에 전도하면 쉽게 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희생, 봉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그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갑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살이나 총을 가지고 새를 잡을 때 한꺼번에 열 마리를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처마 끝의 물방울이 10년 동안 돌 위에 떨어지면 홈이 파진다고 하는데 1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금년 한 해에 한 사람은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섯째, 성전 건축과 주차장 건축입니다

다윗 왕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으므로 국내 국외에서 많은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대상 28 : 6)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까? 성경에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대상 28 : 3)고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대상 28 : 10)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대상 28 : 20).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흘린 군인이요 혁명가요 정치가이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동안 "힘써 행하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7년 만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대하 5 : 14)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락지 아니하였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이 세상에 왔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을 하나 지어 드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일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육하며 사회에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예수님의 몸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영국의 더글라스 헤이크 장군은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요 평화의 약속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마치 주유소 같아서 연료가 떨어지면 계속 보급 받고 가듯 주일마다, 수요일 또는 금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령한 보급을 받아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10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 친교, 상담, 봉사, 행정 그리고 심방입니다." 참으로 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너무 화려하게 지어서도 안 되며 그 사회에 맞도록 실용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곱째, 선교 확장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또 선교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 : 9)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선교사가 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면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 신학교를 세우고 한국 목사를 키웠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라난 것입니다.

여덟째, 교육 강화입니다

미국은 자유 평등 인권이 있는 나라고, 청교도의 나라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이 땅으로 이민 왔는데 어느새 이처럼 범죄가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용주의, 경험주의, 공리주의, 이기주의 철학이 모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교육은 지식 교육, 기술 교육만 치중하고 인격 교육을 안해서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솔직히 고백한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고, 술, 마약, 남녀 혼숙, 혼전 성교, 갱, 강도, 살인 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올바른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지성 교육, 정서 교육, 의지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과학 교육, 기술 교육, 지식 교육, 치부 교육, 출세

교육입니다. 인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도덕 교육, 인격 교육, 전인적 교육을 종합해서 시켜야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루소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스펜서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을 형성시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는 "한 나라의 문명은 그 나라 국민의 교육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이민이 앞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교회가 교육을 잘 시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희망이 있습니다. 1.5세, 2세들이 공부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돈도 버는데 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잘 시켜야 앞으로의 이민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를 확보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영어 예배를 강화해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며칠 전 어떤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이 몇 해 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고 마약을 하더니 중독되어 밤 12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고 말도 듣지 않는데 어디 가서 고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LA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마약 같은 것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집 자녀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까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홉째, 적극 봉사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선교, 교육, 봉사하셨습니다. 봉사하시느라 어떤 때는 식사하실 시간도 없었습니다(막 3 : 20). 제자들에

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봉사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 봉사 단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열째, 흑인과의 친선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동안 백인이나 흑인이나 멕시코 사람과 서로 섞여 살아야 합니다. 따로 담을 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 : 28).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 : 48, 50).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기에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눅 10 : 25~37). 한흑 관계는 서로 사랑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흑인 장학생을 계속 더 추가해야 합니다. 강단, 성가도 교류하고 체육도 교류하고, 합동 음악회도 하여 어찌하든지 인종끼리 화합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은사,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값진 유산을 물려 주는 현명한 제2의 청교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를 만난 사람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 : 14).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널리 일어난 일이나 위급한 사건을 취급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전체는 장차 세계를 통치할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한 것으로 일관됩니다. 그 인물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에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속은 황금 끈과 같이 구약의 각종 책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종합되어 구약성경 한 권에 놀랄만한 통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막연한 암시를 가지고 시작된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좀더 자세하고 명확히 풍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상세한 예언으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예언에 따라 상징으로, 예표로, 형태로, 간접적 예언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끝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

기는 완전히 정리되고, 그 표현에 나타난 언어와 묘사를 볼 때 역사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명백히 정리하고 있는 성경과 장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연쇄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12장 21절 "어린 양"
레위기 16장 10절 "염소"
민수기 21장 9절 "놋뱀"
신명기 18장 15절 "선지자"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수아"–여호수아라는 뜻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는 인류를 이끌고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왕위에 오를 사람"
욥기 19장 25절 "구속자"
시편 16편 10절 "거룩한 자"
시편 41편 9절 "친구가 배신할 것"
아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사야 53장 5절 "고난의 주"
다니엘 9장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바댜 1장 21절 "구원자"
요나 1장 17절 "사흘 만의 부활"
미가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박국 2장 14절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분으로 나타난다"
학개 2장 7절 "만국의 보배"
스가랴 9장 9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은 삼십에 팔린다"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유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고 나사렛에서 일하시며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백성에게 소개될 것이다. 갈릴리는 선교의 현장이 되며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지도자들에게 배척 받고 얻어맞는 목자가 된다. 수난자가 된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비애의 사람이 된다. 한 제자에 의해서 은 삼십에 팔리고 그 대가는 공장의 밭을 사기 위해 소비된다. 도살장에 팔려 가는 양과 같다. 악한 자와 같이 죽는다. 신 초를 마신다. 손발이 찔려 뚫어진다. 그 옷은 제비 뽑혀 나누어진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땅 위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

며 다시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시대도, 교양도, 입장도, 경험도, 직업도,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대리석 조각 조각을 가지고 한 날 한 시에 다 붙여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의 형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사상, 사업, 죽음, 부활, 승천 등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언으로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때가 차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건만 자기 나라에 오신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자기 동네에 오신 메시아, 문 밖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성격이 잔인하며 음란하여 첩을 열 명이나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라고 물었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권이 흔들릴까 우려하여 군인들을 시켜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 베들레헴을 아이들의 피로 얼룩지게 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친히 청와대 문 앞에 나와서 영접한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봅니다. 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모시며 환영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마땅히 환영해서 맞아들여야 할 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 백성의 문제를 청취하여 처리하는 일, 전쟁 때는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나가는 일, 나병환자들의 병이 나면 진단해서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직업에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해서 등한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경중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영혼, 생명, 영생, 천국보다도 직업이 중요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날, 구별된 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에 첫째 가는 의무이건만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낚시, 골프장, 라스베이거스 가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예수님은 한 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몰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자부하며, 신앙에 열심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십일조를 바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음란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일조를 바치고, 금식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하고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성도들이 문제를 야기하지만 영적인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도둑질한 세리의 집에 가셔서 잡수시며 그 영혼을 구했고, 음탕한 여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고, 사람 죽인 강도의 영혼도 건져 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배타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천사는 교만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담은 교만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웃시야는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만한 이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는 비교적 지식인들로 모인 종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과 부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은 부활도, 천사도, 영생도, 영혼도 믿지 않던 자들입니다.

신앙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자 가운데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학식이 많고 왕궁에서 서기 노릇을 한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성경학자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세칙을 만들어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 있는 책이 아니라 믿으라는 책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멀고 실생활이 성경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여관집 주인입니다.

로마의 최초 황제 아구스도는 왕위에 오르자 자기 식민지의 인구를 계산하여 인두세를 받기 위해 온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을 다시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늦은 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리는 깜깜했습니다. 여관마다 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여관도 마리아의 해산을 위해서 문을 열

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떠보느라고 성탄절 전날 누더기 옷을 입고 깡통을 차고 얼굴에 숯칠을 하고 장로님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며 잠을 재워 달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거절하더랍니다. 안수 집사님 집에 가도 거절당하고 기도를 열렬히 하는 성도들의 집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튿날 성탄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누구누구 집에 갔었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너희들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관방 주인은 만약에 귀인이 와서 방을 빌려 달라고 했으면 방을 주었을 것입니다.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방을 빌려 달라고 했다면 빌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관집 주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아주 냉정하게 곧 해산할 여인을 보고도 내쫓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방을 내주었더라면 그 여관은 역사적인 건물로 남아 있고 주인의 이름도 남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고 성장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청년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눅 1 : 28,31)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 : 35)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 : 38) 하였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대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때가 차매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순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순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순결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마 1 : 18~19)라고 했습니다. 그때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 : 20)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한번도 같이 잔 적이 없는 약혼녀의 배가 자꾸 불러오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과격한 사

람 같으면 약혼녀를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약혼녀에 대해서 떠벌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 전통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동네 바깥에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너그러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떠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좋은 것은 전하고 나쁜 것은 자기만 듣고 전하지 않으면 될 텐데 들은 말을 근거도 없이 "그랬대요. 저랬대요"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여 내 입에 자갈을 물려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 사랑과 관용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셋째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 2 : 1~2)고 말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 2 : 9~10).

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 2 : 11)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로서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별을 따라 낙타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지나 몇 날 며칠 만에 별이 멈춘 곳에 도착해 아기 예수를 보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타계심(他界心)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쳐다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공간의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의 세계만 보지 말고 직관의 세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생명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과학의 세계만 보지 말고 형이상학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골 3 : 2)고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주 교활합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를 잡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과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때리며 몰아서 리어카에 지거나 등에 업고 가는 반면, 영국 사람들은 설탕 묻힌 콩을 돼지 코 앞에 조금씩 뿌리면서 졸졸 따라오게 만듭니다. 오늘날 마귀도 우리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향락, 댄스, 도박 등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가끔 하늘을 쳐다보셨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늘을 자주 보세요?" 하니까 "저 구름 타고 주님 오실지 누가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위를 보는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타계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스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만 리 길을 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샌버나디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리웨이로 한 시간씩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계심을 가집시다.

넷째로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눅 2 : 8~12).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눅 2 : 15~1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해가 저물면 양과 함께 추운 밤을 들판에서 머물며 깨어 있어 양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도적과 늑대와 사자의 위험에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섯째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눅 2 : 34),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

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눅 2 : 25~26),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눅 2 : 28)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메시아를 대망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로 안나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팔십사 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눅 2 : 36~38).

결혼한 지 칠 년만에 과부가 되고 과부 된 지 팔십사 년 된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9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역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LA에 계신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질투와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헤롯, 자기 일에 치중하다가 예수님을 배척한 제사장들,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들, 세속주의의 사두개인들, 성경을 머리로만 알던 서기관들, 무정한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이 되렵니까? 이런 분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같이 순결하고 순종하고, 요셉과 같이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타계심에 불타고 불원 천리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러 오는 마음과, 목자들과 같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안나와 같이 금식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900년 전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깨끗하고 넓은 구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셔들여 같이 살고 예수님과 고와 낙을 같이하는 뜻 깊은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동선 목사

약력

• 서울신학대학 졸업/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미국 북침례교 신학 석사/미 공군군목학교 졸업/공군 군목(초대 군종감, 대령)/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LA동양선교교회 창립(1970. 7. 11)/아시아선교센터 이사장(1979)/남가주 한인교회협의회 이사장/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세계선교대회 부회장/한인 세계선교대회 대회장(1980)/동양선교교회(초교파독립교회)담임목사 23년/현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현 월드미션신학대학교 총장

저서

•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 심는 대로 거두리라
• 스스로 개척하라
• 절망의 극복
• 새 계명의 사랑(세 번째 설교집)
• 환난 날의 신앙(네 번째 설교집)

—세 번째 설교집—

새 계명의 사랑

•

1999년 12월 1일 인쇄
1999년 12월 10일 발행
지은이 / 임동선
발행인 / 이형규
발행처 / 쿰란출판사
서울 ·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745-1301~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
E-mail : qumran@shinbiro.com
qumran@hitel.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2,000원

책임교열 : 임영주 · 이경숙

ISBN : 89-7434-484-X 93230

절기 설교 모음집

회고와 전망

임 동 선

쿰란출판사

추천의 글

임동선 목사님의 또 하나의 설교집이 출간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인지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자의 설교집이기 때문입니다.

임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미 한국에서 공군 군목과 군종감으로 복무하시면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군선교에 크게 공헌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복음 선포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자신도 젊은 전도사 시절에 임 목사님의 집회에서 뜨거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임 목사님은 군목에서 제대하자마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9년간 세 군데의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최고의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학문을 향한 그분의 집념은 대단합니다. 43세에 유학을 오셨으며, 고학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 목사님은 1970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시어 이민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민 목회뿐만 아니라 동양,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비전과 열의를 가지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시어 오늘의 동양선교교회라는 대교회를 이룩하셨습니다.

이런 교회 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임 목사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는 그분의 훌륭한 설교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성

추천의 글

도들이 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므로 방방곡곡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온 지구촌에 그가 뿌려 놓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이미 출간된 그의 네 권의 설교집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그의 설교에는 복음적 말씀 증거와 함께 전도자의 삶의 깊이와 체험이 담긴 예화,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는 그의 설교에서 저자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체험적 확신에서 나오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절기 설교집이 출간됨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설교집은 그 내용에서 보시는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한 감사와 희망과 화목과 애국애족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집은 교역자와 신학생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주저함 없이 추천하여 마지않습니다.

2000년 5월 10일

조 종 남
전 서울신학대학교 학장
현 한국복지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 겸 선교실장

추천의 글

임동선 목사님은 20세기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이민 목회자 중의 한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의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시켰고, 지구촌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11년 전에는 세계 선교를 위한 충성스러운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 미국 L.A.에 월드미션 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모스크바 신학교와 레잔 신학교를 세우셔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비행기의 3등석을 타면서 아무리 오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들을 통해 볼 때, 임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임 목사님의 삶의 자세를 좋아하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방향을 좋아합니다. 그분의 열정과 겸손, 그리고 그분의 인간미와 소탈함을 좋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둘러앉아 대화를 하면 그분의 재미있고 소박한 유머에 모두가 폭소를 자아내며 한바탕 웃음꽃이 핌으로 모두가 금방 하나가 되곤 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사랑이 담긴 카드를 보내 주시고, 추수감사절 땐 모든 교수들과 학교와 교회 직원들에게 칠면조를 선물로 주시면서 늘 자상하고 세밀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임 목사님을 좋아하며 존경합니다.

임동선 목사님은 그의 열정과 꿈에 비하여 그의 삶은 대단히 소

박하신 분입니다. 청중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는 열정적인 설교에 비하여 그의 생은 참으로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설교가 문자화되는 것조차 마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유와 주선으로 이제까지 네 권의 설교집과 한 권의 신앙간증집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사람들마다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볼 때 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반가운 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고, 설교자의 서재에 귀중한 보고가 될 절기 설교집을 발간하게 된 일입니다.

독자들은 이 설교집을 읽으면서 임동선 목사님의 삶과 그의 목회 현장,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증언들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전도자의 깨끗하고 정제된 삶과 박력있고 리듬있는 생생한 언어들과 만날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부정, 절대순종, 완전한 사랑 그러면서도 다정다감한 저자의 진면목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화들은 자신의 삶과 수많은 독서를 통해 영글었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한글 잡지는 물론 영문 잡지까지 두루두루 참고하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설교나 연구와는 별도로 하루에 구약 10장, 신약 10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읽으시며, 기도를 쉬지 않으시며, 입으로만이 아닌 삶의 모범을 통해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이 절기 설교집 안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

에 대한 풍성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간곡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설교집을 통하여 20세기를 밝히 비추었고, 21세기 한국교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이 시대의 한국인 사도 바울과 만나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5월 10일

남 종 성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처장

절기 설교집을 내면서

기대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던 2000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일 년, 십 년, 백 년의 단위로 해가 바뀐 것이 아니고 천 년의 단위로 해가 바뀌었기에 온 인류는 떠들썩하게 새천년을 맞이했습니다. 각오와 결심들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인생들에게 새천년은 특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마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자연과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 · 고등부 전도사로 시작하여 2000년이 된 오늘까지 52년 동안 민간목회, 공군 특수목회, 이민목회 생활을 하면서 강단을 지켜 왔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해마다 빠짐없이 돌아오는 교회 절기와 국가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기에 고심이 많았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절기에 적절한 설교를 해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여러 동역자들이 절기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족한 설교집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절기 설교를 위한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책을 내는 기쁨과 보람이 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평신도들도 이 글들을 통하여 삶에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한다면, 제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절기 설교집을 내면서

이 설교집이 나오기까지 저의 목회 현장에 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저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동양선교교회 성도들의 끝없는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정리해 주신 남진주 사모님과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정문섭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추천의 글을 써주신 조종남 박사님과 남종성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신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사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신 여러 직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5월 10일

원로목사 **임 동 선**

미국 나성동양선교교회

차례

차례

제1부

신년 주일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새해 (요 10 : 7~ 10)

승리하는 새해가 되자 (민 14 : 1~ 10)

새해, 새사람, 새 생활 (엡 4 : 17~24)

새해의 발전적 신앙생활 (벧후 1 : 1~ 11)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새해

요한복음 10장 7~1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 날,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셔서 찬송과 예배와 기도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인해 금년이 더욱 복된 생애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좀더 윤택해지는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

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 13~14)라고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 사업이 잘못된 것 등 모든 실패를 영원한 과거로 실어보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를 떠올리며 그것에 집착하면 용기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했던 과거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 역시 발전이 없습니다.

배고픈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죽어 떠내려가는 양 한 마리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움켜잡고 뜯어먹습니다. 물은 점점 낭떠러지를 향해 흘러가는데 독수리는 '아직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내 날개에 힘이 있으니까 조금 더 먹다가 날아가리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뜯어먹는 동안에 물살은 점점 빨라져 이제는 폭포 가까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날개짓을 치지만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의 발톱이 양가죽을 깊이 움켜잡았기 때문에 얼른 빼지 못해 결국 독수리는 폭포수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과 욕심, 좋지 못한 세상 것을 움켜잡고 지금까지 오셨다면 이제는 묵은 해와 함께 완전히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새출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 : 9),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히 10 : 17),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고전 13 : 5),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 : 17)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한 것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빌 3 : 14). 또한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앞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히 12 : 1~2). 목표를 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동물적인 삶입니다. 거기에는 의욕도 기쁨도 발전도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서 장기를 두던 두 사람이 그 모습을 구경하던 차에 그 청년이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장기들 두고 있던 두 사람은 넘어진 청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때 이 청년은 일어나면서 "당신들은 앉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뛰고 있소." 하면서 다시 달려갔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때로 쓰러지고 다쳐 피가 날지라도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칠전팔기(七顚八起) 하십시오. 고난을 참으면서 끝까지 힘차게 금년 한 해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자만이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브홀러 박사가 세계 위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재능을 많이 타고난 사람도 아니고 영감이 남보다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음박질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을 보면,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남편은 선지자 생도인데 그만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겐 아들이 둘 있는데 채주들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엘리사는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동네에서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과 집의 빈 그릇을 다 늘어 놓고 문을 닫고 각각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과부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나자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금년에도 좀더 깨끗하고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면 그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아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준비한 사람은 조금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왕이면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 : 10)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을 좀더 깊고, 넓고, 높고, 풍요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생은 빈궁한 삶이요, 저속한 삶이요, 강팍한 삶에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과 평안, 감사와 찬송, 여유와 소망, 의미와 가치가 있는 풍성한 삶이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파스칼, 헨델, 베토벤, 라파엘, 미켈란젤로 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정신적 · 육체적 · 인격적 · 영적으로 전문 분야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지금까지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끼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금년에 좀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나가야겠습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우리 식구가 되어 산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집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살 때 여러분에게 그 어느 해보다 더 풍성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수재를 당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물질을 모금해 이재민에게 보냈습니다. 또, 알미니아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성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좋은 집과 차, 가구 등을 구입하며 잘 먹고 잘살면서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영광 돌리기 위해 18년 동안 모국에 수십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스물다섯 나라에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고 인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혹

인 지도자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있으며, 교회도 세웠습니다. 교육관도 세우고, 수양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풍성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풍성한 생활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넷째, 나의 풍성을 남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그 풍성한 것을 남에게 나눠 줄 때 삶은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 4 : 16~19).

빌립보 교회는 유달리 바울 사도에게 많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길 기도하고 축복해 준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빌 1 : 1~11).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은 이 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풍요를 남에게 나눠 주는 풍성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가졌던 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10년 전의 축복, 20년 전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빈 자리로 만

들어 놓을 때에 다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값있는 것으로 채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처럼 받은 것을 적으나마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약속받는 과정에 있어 행한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뜨거운 날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맞은 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며, 정성으로 떡과 송아지 요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먹은 후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창 18 : 1~15).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있는 풍요를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남에게 나눠 줄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축복, 즉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 : 24~2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 : 38)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에게는 사랑을,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실패한 자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흘러 의미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새해가 되자

민수기 14장 1~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 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해에 출발을 잘 해야만 그 해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장사하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것으로, 농사짓는 것으로, 고기잡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약육강식(弱肉强食), 사느냐 죽느냐의 치열한 생존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라는 두 글자가 전쟁 철학의 원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일찍이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요, 영예요, 자유요, 행복이지만, 패배하면 수치요, 노예요, 고통이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손자가 말한 바와 같이 먼저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 "자세를 보면 싸우지 않아도 전쟁의 승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이들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자세가 아직 옛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 43 : 18),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 13~14)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난날의 성공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실패한 것만 거듭 생각해도 의욕이 상실되고, 용기가 쇠잔해지고 맙니다. 작년에 우리가 혹 실패했던 것, 죄책감, 불안한 마음, 섭섭했던 것, 불쾌했던 것, 억울한 것, 속상한 것, 고통스러운 것, 한숨짓던 것, 울던 일들을 이제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말끔히 잊어버려야 발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열두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곳의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탐지하였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온 열두 명 중에 열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고 실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민 13 : 1~14 : 4).

이 사람들은 옛것을 기억한 사람들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옛것, 즉 낡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미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큰 항아리 여섯 개를 두고 그 안에 숯불을 활활 피워 놓고, 모든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지내면서 불쾌한 일, 실패한 일, 열등의식, 죄책감 등을 써서 항아리에 다 넣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아리의 숯불이 필요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

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 : 18).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히 10 : 17).

지난 한 해 동안 실수하고 범죄해서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고, 많은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내어 놓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고, 담대함과 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좋은 희망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광야보다 비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베어 둘이서 메고 와서 실물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설득이 어렵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빛나는 희망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했지만,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희망은 생활의 활력소이며 용기의 어머니요, 기쁨의 원천입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에서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것보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강력범 문제, 모든 천재지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슬프고 비관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낙관적인 것보다 비관적인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 기쁨보다 슬픔, 평안보다 불안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 : 3~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 미국 텍사스의 한 도시에 조그만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힐튼(Hilton)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아스트리아라는 큰 빌딩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그 빌딩 사진을 오려서 자기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고 매일같이 '나도 이러한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돈을 모아 그 건물을 사서 호텔로 개조했습니다. 그 후 호텔 사업이 잘 되어서 다른 곳에도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의 수가 점점 증가해서 오늘날 미국과 전세계, 한국까지도 힐튼 호텔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기대한 분량만큼 성취하게 됩니다.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결과도 없습니다.

괴테는 "오늘을 헛되이 사는 사람은 내일도 헛되이 살 것이고,

오늘을 성실히 사는 사람은 내일도 성실히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단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최고의 공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혹 지난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가정에서 쓴잔을 마셨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충이 있었습니까? 건강에 지장을 가져 왔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말을 들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면 실패조차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수는 나무뿌리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뱃사공은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더 빨리 몰고 가고, 독수리는 폭풍을 향해서 드높이 올라갑니다. 대낮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밤중에는 구만리 장천의 무수한 별을 볼 수 있고, 낮에는 앞 동네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엄동설한 추운 한밤중에는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위기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가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병이 깊어 더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 거기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신앙의 위력을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로마 옥중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옥과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홍해와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 성이 있고,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들이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본 것입니다. 신앙의 눈은 배후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어떠한 난관도 돌파됩니다.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 일에는 정열이 붙고, 생활은 개선되어 갑니다.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어떠한 절망도 희망이 있으면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후퇴보다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 앞에 더 좋은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민 14 : 9).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진리이시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 : 5~6).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성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 : 29~31).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또 앞이 캄캄해질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부터 체력과 지력과 동력과 영력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아우성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기에 힘을 얻어 홍해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믿음의 힘, 신념의 힘은 기적을 낳습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의심스러운 사업을 눈앞에 놓고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인이요 문필가인 G. 러셀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군목제도를 실시하여 신부나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자동차, 옷, 비품 등을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사, 신부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겪어 보니까 비교적 양심적이고 도둑질 안 하고, 사고를 안 내고, 책임감이 있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유물론과 싸우는 것은 기독교 복음, 기독교 정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내세관, 즉 부활 신앙이 투철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국 전쟁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나 신부를 많이 보내 불신자까지 전군(全軍)신자화운동을 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과의 신념이나 용기, 힘에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동부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청년이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세게 쏟아지는데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얼른 나가서 할머니에게 가구점으로 들어오셔서 비를 피하라고 말한 뒤, 그 할머니께 의자도 내 드리고, 비를 닦아드리고, 커피도 드렸습니다. 얼마 후 비가 멈추자 이 할머니는 가구점을 나가시면서 명함 하나를 주시면서 청년에게도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 편지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친필로 보낸 것으로 모일 몇 시까지 사무실로 와 달라는, 부탁할 것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약속 장소로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반가이 맞으면서 "청년,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별장 하나를 지어 가구를 많이 넣어야 하겠는데 보답의 뜻으로 당신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만 달러 어치의 가구를 주문받은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의 가구가 얼마나 좋았기에 강철왕 카네기의 별장에 쓸 가구를 그에게 주문했을까 했고 그 후 그 사람에게 주문이 계속 늘어나 대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금년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더 발전하기 원하십니까? 보다 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보다도 더 큰 꿈과 희망, 기대를 가집시다. 그리고 내 지식이나 육체의 힘, 근력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금도 살아 계신 정의와 지혜,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보다 더 성실하게, 보다 더 열심히 삶을 사셔서 꼭 승리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새사람, 새 생활

에베소서 4장 17~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좀더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도 새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보다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새로운 심령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정월 초하루에 된 일들

첫째로 홍수가 그친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육백일 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걷힌지라"(창 8 : 13).

이 말씀은 노아가 육백한 살 되었을 때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세상이 전개된 새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한된 좁고 냄새나는 방주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광활한 곳으로 나와서 새로운 날을 맞이한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도 방주와 같은 지난날의 좁은 세계에서 뛰쳐나와 넓은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주일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장막을 세운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제 이 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출 40 : 17).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후 2년이 되던 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고전 6 : 19).

금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또한 좋은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성전입니다. 새해 첫 주에 마치 정월 초하루에 모세가 성전을 지은 것같이 우리도 먼저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첫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전을 성결케 한 것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

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십 육일에 이르러 마치고"(대하 29 : 17).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신정시대(神政時代), 즉 사사시대(士師時代)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여러 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착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 12대 히스기야 왕은 정월 초하루에 더럽혀진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묵은 해와 함께 버려야 할 죄, 끊어야 할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오늘까지 왔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 나쁜 습관을 과감히 끊어 버리고 성결한 심령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포로에서 해방된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스 7 : 9).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값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 사람 가운데 귀족과 기술자 만여 명이 북녘 바벨론으로 잡혀 가서 칠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돈의 노예, 오락의 노예, 노름의 노예,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향락의 노예로 살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어서 빨리 해방받아 자유로운 성도가 되시

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던 날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제 이십칠 년 정월 초 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겔 29 : 17).

에스겔은 선지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의 몸으로 함께 끌려갔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좀더 새롭고 값있게 보내고자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값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 에스겔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값있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옛 사람의 마음 상태

옛 사람의 마음 상태는 자연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 : 22~24).

이 말씀에서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세 군데에서 옛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

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 : 21~23).

다시 말해서 사람 마음속에는 열두 가지 지저분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롬 1 : 29~31).

이 말씀에서는 21가지 지저분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갈 5 : 19~21).

15가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더러운 죄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옛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 뜨물떡, 뒤집어 놓은 버선짝, 동물원, 회칠한 무덤, 만학(萬壑)의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하다고 했습니다.

뜨물떡을 아침에 보면 하얀 곰국 같기도 하고 막걸리 같지만 휘휘 저어 보면 밥풀, 콩나물, 명태 뼈다귀 등과 같은 지저분한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에도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휘둘러보면 교만, 시기, 분노, 불효, 작당, 도박 등 지저분한 것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은 버선짝

은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듯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동물원에 가보면 각종 짐승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각종 동물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3 : 27). 즉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을 쪼개서 보면 뼈가 썩어 냄새가 나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마음을 쪼개어 보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 : 9)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탈을 썼지만 깊이 쪼개어 보면 참으로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엄동설한 눈이 수북이 내린 밤에 어떤 시인이 창문을 열고 보니 모든 산천초목이 눈에 덮여 은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안마당에 세 가지 발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 발자국, 닭 발자국,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었는데, 시인은 이 세 발자국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개 발자국을 보고, "곱도다 송이송이 함박꽃처럼 아름답게 피었구나"라고 읊었고, 닭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고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잎사귀처럼 자국을 피었구나"라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좋게 읊으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마지막에 "소도둑놈 발자국이구나"라고 했답니다.

지난해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양심 앞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람되고 향기롭고 값진 발자국이었습니까? 분명 얼룩진 발자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일소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새사람이 되는 방법

제가 오래 전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철야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는 값비싼 은 삼십 냥으로 주님을 단 한 번 팔았는데 나는 단돈 몇푼으로 주님을 몇 번이나 팔았던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후 심히 잘못을 느끼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한탄을 하였고, 아내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생각하기를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 모두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고집을 부리고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방법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약 1 : 18).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 : 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거울입니다(약 1 : 23). 세상 거울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다듬는 것이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구나, 음란이 있구나, 거짓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물입니다(엡 5 : 26). 물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지저분한 것이 다 쓸려 갑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그릇에 묻은 것을 수돗물을 틀어 놓고 세제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 : 12). 우리 몸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수술로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 우리 뼈 속에 쓴 뿌리, 아담의 성질이 있으면 다 해부해서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렘 23 : 29). 방망이가 모든 것을 때려부수는 것과 같이 마음속의 거짓, 교만, 고집, 도박을 말씀으로 때려부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시 19 : 7). 우리의 병들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느 8 : 9).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 앞에 모아 강론을 해서 풀어 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었습니다(느 8 : 8~9).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행 2 : 37). 우리가 새사람이 되려면 능력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좋지 못한 것이 다 씻겨 나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4절을 읽다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새사람이 되었고, 성 프랜시스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읽고, 선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다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낮과 저녁에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새사람이 된 것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새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산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신문과 책은 많이 읽어도, 또한 라스베이거스에 가고, 낚시, 테니스, 골프도 치고, 영화 구경, 텔레비전도 보지만 신령한 말씀은 읽지 않으니 어찌 새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애독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새롭게 되어 새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말씀을 좀처럼 읽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꼭 말씀을 읽고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변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함으로써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함께 간 모든 사람을 먼저 보내고 홀로 얍복 나루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아픈 몸을 하고 천사에게 매달려 축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 듣고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어 이기었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창 32 : 22~28).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강을 건너 형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내와 끈기로 기도함으로써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형을 속이던 야비한 모습이 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딤전 4 : 5).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론과 백성이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출 34 : 30). 기도함으로 모세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루터는 하루에 네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그의 친구가 "네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바운스라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교가 사람들 사이에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선다싱은 "아무리 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금향로에 담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꿇고 기도한다. 나는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머리에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 오는 동안 큰 죄를 짓지 않고 오늘 이 강단에 건강하게 선 것은 링컨처럼 무릎꿇고 기도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히 십자가 앞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무릎꿇고 부지런히 기도하여 새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슥 4 : 6).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새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 : 16).

여러분, 우리는 육을 따라야 합니까, 영을 따라야 합니까? 성령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롬 8 : 6).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 : 1~4).

백이십 문도가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갑자기 바람과 같이 나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새사람이 되고, 새 가치관을 갖고, 새 인격을 가지고, 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기고 선교의 열이 오르고 봉사를 시작하여 기독교의 장을 연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사람들이 다 새로 지음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한 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까닭에 미국에 와서 한 여성을 사랑하다가, 연애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런던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웨슬리는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절망에 빠진 영

국을 건져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는 학습과 세례,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고, 주를 주라 하고, 그리스도인의 특색이 있고, 담대하고, 재림의 예수를 신랑의 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 한 학기를 남겨 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름 방학에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지만, 그때 만큼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 1948년 7월 10일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엿새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을 기다릴 때 한밤중에 방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행 2 : 17~18)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목적을 바로 세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새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사람의 생활

새사람이 되면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이 되었는데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입술도 변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악담과 저주, 욕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찬송하고,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걀이 살았지만 달걀로 있을 땐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달걀을 따뜻하게 품어 껍데기가 깨져 병아리가 나올 때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원죄, 자범죄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그의

가치가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가치, 놀라운 생활이 전개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죄를 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 : 9).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초인이 아닌 다음에는 모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속을 따르면서 또는 미국 사회가 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창 젊은 나이에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정을 두고 여러 번 동침하자고 유혹했지만 냉정하게 물리쳐 죄를 짓지 않았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논에 만들어 세워 놓은 허수아비는 생명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거기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똥을 싸도 허수아비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까마귀가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머리, 즉 마음에 들어가 앉고 지배하고 새끼를 치지만, 믿는 사람은 죄가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오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도 나와 한 번만 휙 털면 물 한방울도 남지 않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

듭난 사람은 아무리 술집 뒷방에 몇 시간 앉아 있고 파티에 갔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툴툴 털면 마음은 깨끗한 줄 믿습니다. 연꽃이 비록 뿌리는 시궁창에 박고 있지만 꽃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소돔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심령 속, 마음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 : 7).

제가 아는 한국의 한 권사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 씻겨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곤 합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는 어려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커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는 생활을 하였습니다(행 2 : 44~45). 그리고 밭이나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놓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행 4 : 34~35). 이 사랑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행 7 : 60) 초월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고꾸라진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간접적인 원인은 스데반의 초인적인 죽음, 원수도 축복하는 그 사랑을 목격한 것입니다.

일제 시대 평양에 3천 명 정도의 장년들을 담임하는 임종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하였습니

다. 전국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대표들이 오고 많은 평신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도중에 그 교회 사모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회자에게 비키라고 하기에, 사회자는 총회를 마치고 식사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전도회 한 집사님과 좋아한답니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 올라가서는 "여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런 줄 알아." 하고 데리고 내려왔답니다. 또 이 사모님이 얼마나 괴팍한지 성도들이 특별한 날에 선물을 가지고 가면 문 앞에서 열어보고 시시하면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중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병원에 갔다가 교회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병 문안을 하고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사모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장로님, 살인죄를 짓고 계십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삽니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민족을 초월하고, 오해와 원수도 초월하는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랑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감정을 쌓아 온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달려가 거듭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요일 5 : 4).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사 지냈다는 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세상적으로만 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창 6 : 5~7).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쓸어내고 다시 좋은 씨를 받아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노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육신의 일, 세상의 일에 몰두했지만 노아는 구별되고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덟 식구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고모라에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뜨려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급류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모두 떠내려가지만 조그만 송사리는 생명이 있어서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유물주의, 향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은 진리의 길, 공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 천성을 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넷째로 마귀를 이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엡 6 : 16). 이 말씀에서 악한 자란 마귀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요일 2 : 13).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저는 마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주교회, 사천, 강원도에서도 미국에서도 마귀병 걸린 자들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거짓 아버지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의 왕, 사탄,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교만하고 간교하고 권세 있고 악하고 헐뜯고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를 많이 유혹합니다. 정욕, 돈, 이간, 싸움으로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예언을 했고(창 3 : 15), 마귀를 이겼고(마 4 : 1~10), 마귀를 이긴 승리를 선포했고(눅 10 : 18), 승리를 완성했습니다(막 3 : 27~28). 예수님은 마귀를 십자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귀병에 걸린 자들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고 말씀 읽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이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 십자가에 걸려 못 삼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사탄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십자가로 새사람이 되어 새해에는 죄짓지 않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새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의 발전적 신앙생활

베드로후서 1장 1~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육신의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음과 동시에 신앙의 연조도 한 해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육적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지니며 지금보다 발전과 향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가 되기 위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발전과 향상, 완전에 이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적 신앙생활이란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득이한 일로 주일을 지키지 못했거나 자신의 게으름과 세상 재미에 빠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금년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전적 신앙생활입니다. 주일은 안식일로서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 거룩하게 지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을 지켰습니다. 다른 동물에게서는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창 1 : 27),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는데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이요, 영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우치고 선행을 하며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심령의 평안과 기쁨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건강과 사업의 번창, 지위 승진, 가정의 평안 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복을 받기 위해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복은 저절로 내려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디를 다녀오다가 저녁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젊은 여인을 데리고 저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권사님이 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인은 어떤 미국 남자와 결혼하여 7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그 남편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아무리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저 참고 이해하면서 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잘해 주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 후에 꼭 주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를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일 당일, 꼭 교회에 나와야 할 그 여인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권사님을 만나 여쭈어 보았더니 그 여자가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더 그 여자분을 위해 기도하고, 더 자세하게 상담하고, 관심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살한 그 여인의 부부가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이러한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시 84 : 10)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더라도 새해에는 52주일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주일만은 우리 교회 혹은 다른 곳으로 출타를 했을 때는 그곳에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바쁘고 피곤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 읽지 못했다면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하루 한 장, 아니면 몇 절이라도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발전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 : 16)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벧후 1 : 21). 그러므로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인간들이 양식과 물이 없어서 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암 8 : 11).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부부, 자녀, 마약, 폭력, 인종간의 갈등, 정치 · 경제 등의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 법을 폐지한 해부터 미국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다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자고 제안했지만 부결되었습니다.

한국 교포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

에 나오지 않고 돈만 아는 물질주의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모습을 닮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와 여러 문제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부모들이 주일에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정에서 성경대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고, 유대인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친다면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모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육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해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딤후 3 : 15~17). 즉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 천국에 가는 안내서입니다.

여러분이 금년에는 혹 밥 한끼를 거르고 신문을 하루 못 본다 하더라도, 또 텔레비전을 몇 시간 못 본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령한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요, 영적 생명을 얻는 최선의 길이며, 신령한 능력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거룩한 분으로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이러한 분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인내와 성실의 사람으로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나 밤중에, 한적한 곳

이나 광야에서, 또 산꼭대기에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생활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제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오셔서 편지 한 장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임 목사, 내가 한국에서 40년 동안 은혜 중에 목회를 마치고 이젠 나이가 많아 은퇴하고 미국에 와서 요세미티 산속에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원장 노릇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기도원을 만들고 원장 노릇 하는 것은 목회 40년 동안 성공한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어 미국에 와서도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기 위해 저도 기도해야 했고 많은 동역자와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얻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것 같아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오십시오."

정말 그 목사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는 그저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삼상 12 : 23)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 : 36),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 : 7)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응답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심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새해의 첫 새벽 기도회라 그런지 작년보다 더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 성도들이 금년부터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향상하는 것, 발전하는 것,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가정에서 혹 골방, 산 어디서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금요일은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불이 붙어 전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시기 원합니다.

넷째,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받은 바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화를 피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빌 4 : 1). 세상에 살면서 전도에 힘쓴 사람은 분명 하늘 나라에 가서 영광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못 했기 때문에, 불

신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에 책임 있는 신자가 되어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 참신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출 것이라 하였습니다(단 12 : 3). 그 예로 바울, 무디, 웨슬리, 한국의 이성봉 목사님 등과 같은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정해 놓고 기도하며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만 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바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친다' 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마 6 : 20).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시간과 재물을 바치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즉, 몸을 드리면 건강의 축복이 있고, 마음을 드리면 평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응답의 축복이 있고, 찬송을 드리면 기쁨의 축복, 재물을 드리면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 충성을 드리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드리면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영

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았다고 합시다. 어느 날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이 미국에 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까요? 아마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하여 차를 태워 주고,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 주고, 잠도 재워 줄 뿐만 아니라 선물과 여비도 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정성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인간이 정성으로 그분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하여 오래 살았고, 부부해로를 하였고, 재물도 풍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자손, 회교도, 천도교, 신교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복받았습니까? 그는 십일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 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저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적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는 십일조를 하는 식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 축복의 비결입니다.

십일조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느 10 : 37).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레위 사람은 장사와 농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즉 열한 지파가 벌어서 십의 일을 그들에게 바쳐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고아와 나그네, 이재민, 과부 등을 도와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십일조도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의 사례, 교육과 선교, 구제 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교회 전반이 십일조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 : 8~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일조 생활을 잘 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발전적 신앙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고전 12 : 20). 각각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한몸입니다. 때문에 '서로' 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라, 서로 고락을 같이 하라, 서로 잘난 체하지 말라, 서로 화목, 서로 권면, 서로 종노릇, 서로 용납, 서로 복종,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한마음과 한뜻을 가지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등 무수히 많습니다.

'서로' 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나', '너' 가 아니라 '공동체'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2 : 42~47)을 보니 초대교회가 부흥된 원인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여 전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전도의 문이 열려 수많은 사람들을 짧은 시간 내에 구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봉사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봉사는 주권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활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 : 35).

즉 교육 · 선교 · 봉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모

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막 10 : 45).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봉사하셨고(막 3 : 20),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입니다. 보상 없는 것, 남에게 주는 것, 남을 부요케 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주일학교 교사 등 여러 위치에서 각 모양으로 소리없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저들이 무슨 돈을 받습니까? 신문에 납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습니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니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공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올해는 한 사람도 나그네와 같은 사람, 셋방 신자와 같은 사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거리를 찾아 봉사하고 이를 통해 기쁨과 신앙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부흥과 아울러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적극 전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여 나 자신, 가정, 교회, 사회에서 보람되게 살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부

고난과 부활주일

예수님의 신성

요한복음 14장 7~11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시간 예수님의 신성과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닌 신으로만 오셨다면 인간과 접촉할 수 없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 인간의 모습으로만 오셨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중점

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초자연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 1 : 22~23).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 : 31).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 : 34~35).

위의 말씀들은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 중 한 분이요,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은 동정녀, 즉 순결하고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깨끗한 여인을 택해서 성령을 통해 낳으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놀라운 지식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정규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놀라운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 : 24~25).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의탁지 않은 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도 자기가 해결을 못할 뿐 아니라 간사하고 마음이 자주 변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요 4 : 17~18).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행적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가 극비리에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넘겼지만 이 사실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요 7 : 46). 오늘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삽나이다"(요 16 : 30).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인간의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에 대해 몇 가지만 알 뿐이지 과거의 발자취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저밖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3)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눅 4 : 39). 한 여인의 열병을 즉시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친다고 기도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금식도 시키고,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고친다기보다 죽이는 일이 더 많은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열병이 즉시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마 8 : 26~27).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가능합니다.

셋째, 귀신을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눅 4 : 36). 이 세상에는 참신이 있고 악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더불어 많이 싸우셨습니다. 저는 귀신을 눈으로 보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인 치료를, 정신적인 것은 정신적인 치료를, 영적인 것은 영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음식을 먹이고, 약을 주는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1949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주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있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쳤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통영이란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눅 7 : 14~16).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어느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메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슬픔과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엾은 어

머니의 눈물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4) 놀라운 권위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눅 2 : 46~47). 예수님께서 열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서기관, 제사장, 학자들과 더불어 성경을 토론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열두 살 난 소년이 학자, 박사들과 더불어 토론하는데 그들이 감탄할 지경이었다는 것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또한 변화산에서의 권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 : 29).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눅 9 : 35).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황홀해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는 목사님이나 권사님, 여러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모세와 엘

리야처럼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권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막 3 : 14~15).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마귀라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젊은 간호사가 마귀가 들려 자신을 칼로 찌르고 2층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교회에 모여 합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깨끗이 나아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실 때 전도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에서 증거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에 도착하여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베드로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행 10 : 25~26). 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느 한 앉은뱅이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신이 사람의 형

상을 하고 내려왔다고 하며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하였습니다(행 14 : 8~15).

그러나 예수님은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마 2 : 11). 박사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연로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마구간에 있는 초라한 예수님께 왜 절을 하였습니까?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었기에 경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한 명에게 경배를 받으셨고(눅 17 : 12~16),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도 경배를 받으셨습니다(요 9 : 38).

그런데 죄 가운데 영광을 도적질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천사가 영광을 도적질하다 버림받았고, 웃시야가 영광을 도적질하다 문둥병에 걸렸고,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여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그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아서도 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산에 백성들이 동상을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살아 있을 때 만든 것은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4 · 19 혁명 때 부서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경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고(요 1 : 29),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요 1 : 49). 베드로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마 16 : 16), 도마 역시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며(요 20 : 28),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백부장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막 15 : 39).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증거야말로 신빙성과 확실성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보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형님이나 형수님, 조카들, 저의 아들과 딸들도 잘 모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 집사람뿐입니다. 임동선 목사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제 아내만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아내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다가 점잖은 신사와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조용히 물어 보았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집에서도 1년 열두 달 그렇게 점잖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교회에서만 점잖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현숙한 여자 한 분이 있기에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그의 아내가 1년 열두 달 현숙한지 물어 보

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목사님, 장가 잘못 들었지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천사와 마귀가 증거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 10~11).

마귀도 증거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중에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눅 4 : 41)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이 마귀입니다.

제가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진북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면장 부인이 그만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기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귀신 들린 부인을 고치기 위해 몇 사람을 동원하여 억지로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과 저와 여러 집사님들이 둘러앉아 마귀를 쫓는 찬송을 부르면서 마귀는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외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앉아 있던 어떤 젊은 부인이 우리가 이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와 말을 하니까 "이 마귀새끼 나가라!"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그 부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번쩍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깔깔거리며,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놀라지만 회개도 안 한 네가 날보고 나가라고 하냐? 너 콩밭에서 누구하고 죄지은 것 회개했니? 시장에서 뭐 가지고 온 것 회개했니? 넌 내 딸이야!"라고 말하였습니다. 창피함을 느낀 부인은 그냥 살그머니 나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 : 17).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세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자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 자신이 신성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면서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 14 : 8~9).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 : 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4복음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는 사랑의 일을 허다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만 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 스스로 신성을 갖고 계심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

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정체를 밝히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할 수 있냐고 하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요 10 : 33).

한편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신 후 공회 앞에서 심문을 당하시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유대 나라의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심문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라면 본인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2 : 66~70). 예수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인격자이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성자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거나 사람을 미혹한 사기꾼, 또 진실한 인격자가 아닌 거짓말쟁이였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신이십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 : 3~4).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박토인 유대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강도들과 같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33년 동안 땅에서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한 신성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수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은 종려주일, 즉 부활주일 전 주일이며 수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록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긴 기도를 드리신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복

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 4 : 1~11).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선택하셨습니다(눅 6 : 12~13).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고(눅 22 : 44),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기도를 드리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눅 23 : 34).

이제 본문의 기도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6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7~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 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은 대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몇몇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멜란히톤은 "이 기도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는 하늘과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칼빈은 "이 기도는 예수님 설교의 인장을 주는 기도"라고 하였으며, 루터는 "그 울리는 소리는 깊이나 넓이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종려주일에 이 본문을 생각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함으로써 지상생활이 앞으로 닷새밖에 없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닷새 후에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야말로 중요한 시간이요, 엄숙한 시간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그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와 제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성경 말씀(빌 1 : 21)과 교리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고,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인생관과 사생관, 속죄관, 내세관 등을 모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나깨나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급급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을 받은 후에는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죽으면 어디에 이르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생의 최고 목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하며, 백성은 한 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압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눈물의 기도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심경의 변화 없이 흘릴 수 없는 것이 눈물이고, 북받치는 감정을 막을 수 없을 때 흐르는 것이 눈물입니

다. 따라서 눈물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눈물은 곧 회개와 간절한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몇 가지 열매를 가져옵니다.

(1) 눈물의 기도는 사죄와 아름다운 선물을 받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들과 더불어 밤을 지새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되어 온갖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할 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 충신의 아내를 겁탈해 임신까지 시키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하였습니다(시 6 : 6).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증거로 그로 하여금 솔로몬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늘에 빌 곳이 없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사 1 : 18). 또한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시고(시 51 : 17),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며(사 57 : 15),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두 용서하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한 뒤 또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눈물로 회개하면 꼭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흘린 회개의 눈물처럼 우리 안에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다면 모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2) 눈물의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악을 행하는 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고, 간음죄를 짓고,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 등 악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를 통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왕하 20 : 5~6).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전보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몇 해 전 뇌가 잘못되어 권위 있는 의사들이 수술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의사와 현대 의학의 지식과 기계, 기술, 약을 모두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목사님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병원 지하실에 있는 시체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사모님은 기도의 사모님이었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온 댈러스 교인들과 주의 종들, 미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한국에 계

신 분들에게 전화와 편지로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체실에 내던져 버린, 음식도 못 먹고 숨도 못 쉬는 시체가 몇 주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병원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눈물의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 3).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닫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존 라이스는 "세계를 지배하는 손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 : 7)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시기에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심한 통곡의 눈물과 간구로 힘을 얻어 대속의 대사업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 어느 교회에 전문직을 가진 한 집사님이 "목사님,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도 가서 보지 말라는 '예수님의 최후 유혹'을 제가 어떤 것인지 보고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신성에 대해서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소화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성을 많이 다루어 인간적인 죄와 의의 갈등, 육과 영의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몸부림치시고 고통을 느끼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그 큰 일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큰 구속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치과의사들의 사무실을 교회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교인은 70세대 150명 정도였고, 직업은 대부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을 기대하기란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회의를 열어 제 집을 팔기로 의견을 모으고, 교회 구입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집이 쉽게 팔리지 않아 마음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밤마다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강대상 가까이서 눈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1971년 11월 16일, 동양선교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들의 사무실을 예배당으로 사려고 할 때 시세가 13만 5천 달러였는데 3만 5천 달러를 내려, 10만 달러를 20년 걸쳐 갚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식구 70세대 150명쯤 모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시작한지 아시지요?" 그저 눈물을 쏟으며 밤새도록 울부짖으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네가 한국에서 공군 하사로 데리고 있던 자가 사업이 잘된다고 하는데 전화 한 번 해봐라." 하셔서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나 예배당 하나 사기로 해서 계약금을

만 5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만 달러 정도 빌려 줄 수 있겠나?" 하니 첫마디가 "어떻게 보내면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고 전화해 줄게." 라고 해서 그분에게서 돈이 만 3천 달러가 와서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타깝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근심만 하지 마시고, 사람만 찾아 다니지 마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땀을 흘리는 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봉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순종의 표시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충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봉사에는 생산적 봉사와 비생산적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돈을 마구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봉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 : 10). 청지기란 그 집의 살림살이를 주인 대신 맡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할 때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보였습니다. 즉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사람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하였고, 말없이 봉사하였으며,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청지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총리대신의 역할을 하면서 가뭄으로부터 애굽과 자기 민족을 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선한 청지기는 맡은 바 사명 완수를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성실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모든 성공은 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느 장로님이 재정부장으로 있을 때 한 번은 제직회를 하게 되어 재정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애리조나의 그랜드캐니언을 누가 다 뒤집었고 깊이 팠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 사람이 한 페니를 찾기 위해 뒤집어 놓은 것이 그랜드캐니언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헌금은 귀한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벧전 5 : 2).

제가 한 번은 동부에 있는 개척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과 좌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장로님은 한 달에 얼마씩 받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장로님들은 시간과 몸, 은사와 물질을 바치는 분으로서 교회 살림을 제일 많이 맡아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대접도 못 받고, 구설수에 올라 "장로가 뭐 그래?" 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들을 보면 '수고하십

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존경해 드립시다. 이러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간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지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즉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원하는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고후 8 : 2~4).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하십니다. 여러 권사님들께서는 교회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두 자기 일처럼 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업에 앞장서 교육관을 짓는 데 많은 시간과 몸을 바쳐 봉사하십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은밀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는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얻었는데, 이때 나귀 주인이야말로 은밀하게 봉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희 교회의 한 집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사업도 크게 하고, 현숙한 부인과 아들도 있는데, 10년 동안 교회 버스를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간식도 준비해 주시는 은밀한 봉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다. 참 봉사자는 숨어 은밀하게 봉사합니다.

셋째, 피 흘리는 순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레 17 : 11). 피는 인간의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가 3분의 1이 빠지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히 9 : 22).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바쳐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을 위해 때로 피를 흘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기의 피를 흘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스데반 집사,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말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행동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기를 원하여 마침 기회가 되어 헤롯의 어처구니없는 명령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바로 보고, 바르게 증거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막 6 : 14~29).

스데반 집사는 율법을 옹호하는 자들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왜 율법의 참되고 옳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

을 대적하고 죽이느냐, 바로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를 듣던 유대인들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죽였습니다(행 7 : 51~60). 그런데 스데반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곳에 있던 사울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울은 기독교의 제2의 창설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건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낡은 도시를 불태워 버리고 아름다운 도시를 세우려고 일부러 불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가 불을 질렀는지 찾고 야단이었을 때, 교활한 네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잡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베드로가 잡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그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 : 18).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아셨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요 21 : 19). 이처럼 베드로의 순교의 피는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순교의 피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뜻깊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모두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눈물로 회개하고, 땀을 흘

리며 봉사하는 생활과 필요할 때 기꺼이 순교하는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누가복음 24장 1~6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뵈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산 소망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 : 20)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 : 25~26).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시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 16 : 10).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나 땅에서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히 11 : 19).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소년으로 자라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만일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3일에 걸쳐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결박하고 제사를 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삭에게 칼을 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창 22 : 1~12).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삭을 다시 품안으로 돌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3일 만에 살게 되는 구속의 모형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도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미리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상징적 교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삼일 삼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욘 1 : 17).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욘 2 : 10).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살리시기로 하고 다시 육지로 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욘 1 : 17~2 : 10). 여기에서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땅속에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 : 40).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 : 19).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 사람들이 땅에 묻겠지만 사흘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듯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

16 : 21)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언 1년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마 17 : 9).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마 17 : 22~23)라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이었습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눅 18 : 33)라는 말씀도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은 물론 들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일은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네 종류의 증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건한 신앙의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가 그 무겁고 큰 무덤 문을 열어 줄까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있고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막 16 : 1~11).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문밖에서 슬피 울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며 바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요 20 : 11~16).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살아 계실 때도 주님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희생하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바르려는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하고 예루살렘을 나가기조차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락방에 앉아 불안과 공

포,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발자국 소리나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이 잠겨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자한 목소리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요 20 : 19~20). 그 순간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던 마음이 평안과 기쁨, 감사로 바뀌고 새 힘과 의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 중 도마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두 얼굴을 그려 놓았는데, 한쪽은 어둡고 침침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얼굴을, 다른 한쪽에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 희망과 용기가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얼굴과 본 얼굴을 대비시켜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 찾아가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주시고, 도마에게 다가가서 직접 손을 보여 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0 : 26~27). 그 후 도마는 큰 힘을 얻어 인도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제가 아내와 인도에 갔다가 도마가 순교한 자리라는 곳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도마의 순교를 기념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마는 아주 회의적이며 비판적이고 과학적 · 논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긍정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 그 누구보다도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여 인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간접 사도인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변화 이전의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추더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행 9 : 1~4). 곧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 : 8)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 문도에게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고전 15 : 6).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꿈에 보았거나 환상으로 잠깐 지나갔다고 합니다. 만약 환상이라면 한두 사람이 아닌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은 환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먼저, 가말리엘의 증거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요,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자 그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핍박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즉 드다가 자기를 자랑하며 나타났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막상 그가 죽임을 당하자 좇던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마찬가지로 유다가 백

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하므로 좇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행 5 : 34~37).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전도를 막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들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자가 불어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시간이 흘러 모두 죽거나 없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행 5 : 38~39). 이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제자들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그들의 모습은 비겁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전도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같이 다녔고, 사십 일 동안 체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교회를 창설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희생 드리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즉 주의 날에 예배하고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행 20 : 7).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직접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신앙이 있고, 기쁨과 평강, 담대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쳐 날 것을 믿습니다. 기쁜 부활절이 백합꽃을 단에 놓는 것

으로만 끝난다면, 또 부활절 찬양이나 칸타타로, 혹은 계란 장식과 카드 보내기로 그친다면 참된 부활절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어제보다 좀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변화되는 부활절이 보다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했다면 이 기쁨과 감사, 평안을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오면 그 음식점을 가보라고 권하며, 좋은 경치를 보고 왔으면 다른 사람도 그곳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얻었다면 말로도 전하고 각각의 변화된 생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

빌립보서 3장 10~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강한 죽음을 이긴 한 분이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신자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와 기독교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고,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증가하며 교회들도 불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부정하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즉 기만설(欺瞞說), 기절설(氣絶說), 농락설(籠絡說), 환상설(幻想說) 등입니다. 기만설이란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고, 단지 제자들이 창피해서 거짓말로 부활 소식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말은 이해 관계가 밀착되었을 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붙잡혀 매맞고 죽기까지 하면서 거짓말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음은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무덤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소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길 두 강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 죽이고(요 19 : 32),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요 19 : 33~34). 즉 온몸의 피가 100% 빠진 것입니다. 현대 의사들은 인체의 피가 3분의 1만 빠져도 죽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죽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검사를 하였겠습니까?

또 다른 주장은 유대 종교인들과 관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는 농락설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까닭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즉 환상으로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랑보다 원망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남은 살려주고 자기는 죽고, 3년 동안 헛수고하며 따라다녔다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설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꿈에 보았다면 꿈이라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능력의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신자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시키기 위해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요 20 : 15~17),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두 여인(마 28 : 8~10),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눅 24 : 17),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요 20 : 19),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도마(요 20 : 25)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고기를 잡는 일곱 제자들과(요 21 : 1), 베드로와 열두 제자, 오백여 명의 형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울에게 보이셨습니다(고전 15 : 5~8).

부활 후 예수님의 출현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과 용기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회심을 하게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부활함을 보장받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요 6 : 4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11 : 25).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 : 13).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 : 20).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묘목을 심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열매가 맺히지 않다가 한 3년쯤 후에야 열매가 한두 개 맺힙니다. 5년쯤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신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썩지 않으면 500년 이상이 되어도 밀알일 뿐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육체가 버려질 때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부활을 못 믿겠거든 봄철에 뒷동산에 가서 산천초목이 죽었다가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실상은 무에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을 두 번째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것은 첫 번째 만드는 것보다 쉽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힘써 지킨 사람들을 모두 악인과 같이 영영 죽어 썩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흉한 죄인은 지은 죄에 따라 처벌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거나 동상, 비석 등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을 부활시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인 테니슨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죽어 썩으라고만 만드신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초 하나가 다 타면 보통 사람들은 초가 다 녹아 없어졌다고 하지만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형체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물은 물로 있을 때 액체요, 얼음으로 있을

때는 고체요, 증발할 때는 기체라고 합니다. 즉 물질은 형체만 바뀔 뿐 불멸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귀한 생명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므로 진실합니다. 권위가 있고, 불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살전 4 : 16). 저는 예루살렘의 빈 무덤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성과 사랑이 없어서 초라하게 문을 열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무덤이 필요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열어 놓은 것입니다.

둘째, 신자의 영적 부활을 보증합니다

부활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적 부활, 현재적 부활, 미래적 부활입니다. 과거적 부활은 예수님께서 1900여 년 전 부활했다는 역사적 부활이고, 미래적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후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살전 4 : 16~17). 현재적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눅 15 : 32)라는 내용의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은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형이 착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준 적이 없으면서 죄를 짓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화가 나 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살았다' 고 표현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죄에 놓여 있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영적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 : 4).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게 하는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복음 안에서 개종되었습니다. 바울은 곧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몬 1 : 11)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영적 부활을 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고, 레위는 로마의 세리로서 '로마의 앞잡이요 개' 라고까지 불렸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마태복음 5~7장을 두고 "기독교는 없어져도 마태복음 5~7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손발의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였고, 사울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부활이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영적 부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거짓말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는 잘하면서 또한 부덕한 자도 있고, 구제를 잘 하는데 자랑을 더 많이 하고, 돈은 잘 버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고, 남편과 자식은 사랑하면서 부모님께 불효하고, 딸은 사랑하는데 며느리는 미워하고, 어머니는 사랑하는데 시어머니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온유하지만 남을 비평하고, 잘 주는데 바라는 마음이 더 많고,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영적 부활을 해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와 신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즉 원수가 핍박하는 곳에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따랐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모여 교회를 세운 것이 교회의 부활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마지막 승리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389장 3절의 일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통치 아래서는 교회가 다 죽었지만 히틀러가 죽고 나서는 독일 교회가 살아났고, 일제 때 한국 교회가 다 죽었지만 일본이 망한 후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죽었다가 이제는 개혁과 자유의 바람으로 인해 소련과 동유럽에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도 김일성 때문에 45년 동안 교회가 모두 없어졌는데 1991년 세계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북녘 땅에 들어가 정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 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지 못 했으면 교회도 무덤에 갇히고 말았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신학자 로빈슨은 "기독교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설교가 마카테니는 "예루살렘의 빈 무덤은 교회의 요람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계 2 : 4),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좇아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였고(계 2 : 14~15),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향락주의로 흘러갔고(계 2 : 20), 사데 교회는 이름만 있을 뿐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 자 같다(계 3 : 1)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볼 때 사데 교회처럼 이름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 교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회개의 열매, 의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착한 열매, 귀한 열매, 성실한 열매가 없습니다. 직분은 가졌어도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모략하고, 혈기를 부리고, 중상하고, 돈을 탐내는 등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

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무사주의와 열심을 내지 않는 안일주의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서른 살에 죽었지만 위대한 것은 바로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로 살고, 바로 죽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므두셀라와 같은 사람은 969살에 죽었는데 그의 행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창 5 : 27). 이처럼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은 삼십대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경에 얼마나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오랫동안 값없이 살다 죽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고 의롭고 값있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역사, 숫자, 장소, 헌금, 경건, 행위, 신학 등에 우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이 있어야 하고, 단일성과 진실성과 교육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 교회는 사교 단체, 도덕적 수양소, 생활 안내소, 도덕적 · 정신적 위안처, 육신의 병을 고치는 특수 병원, 정치적인 도구, 영주권을 사고 파는 곳, 결혼 장소, 어떤 사람의 생활수단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 8대 업무가 있습니다. 즉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상담, 친교, 봉사, 전도입니다. 온 교회가 이 여덟 가지를 충실히 감당해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사명을 다하여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고, 환난의 도피성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 프랭클린 목사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공포를 느낄 어려움이 없게 된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

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 앞에 어떠한 난제도 없고, 또 감당치 못할 문제도 없다."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바울 사도가 어떠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기도한다고 한 말씀과 같이 세 가지 부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부활, 교회의 부활과 더불어 마지막날 육신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육신의 부활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12~1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우리들의 영원한 의와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기에 어려운 조건 네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돌무더기에서 장사지냄, 로마법에 의한 봉인, 로마 군인들의 감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 가운데 어떤 이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불

신자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안 믿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의 확실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죽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반론과 동시에 죽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하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있을 수 없으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진실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모두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에서 '성전'이란 예수님의 몸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죽이면 삼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

입니다(요 2 : 13~20). 그러므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재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요 14 : 9).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과 종말을 똑같이 당하셨거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승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 구주가 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서 썩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공자나 소크라테스, 석가 등을 믿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청년, 썩어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구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셋째, 의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관순 그분도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민족 역사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영원히 그 이름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들었지만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보고서야(요 20 : 27) 산 소망이 확고부동해졌습니다.

다섯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시기 위해, 즉 대변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야만 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음에 대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지한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1~3).

저도 미국에 2년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후에야 식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민 온 분 가운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나 혹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비할 곳을 미리 마련하고 식구를 데려오는 것같이 예수님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지 부활의 확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진리가 허위나 거짓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요 14 : 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2).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악한 습관과 미신, 죄, 마귀 등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악당과 거짓 무리들이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눅 23 : 1~2)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짓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죄로 옭아매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를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거짓이 마치 진실처럼 바뀌어 많은 사람이 거짓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주전 4세기, 소크라테스는 참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류 역사 가운데 소크라테스와 나사렛 청년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밥만 먹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에 가서 진리와 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오래 전부터 믿어 온 아덴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가르친다는 거짓으로 독배를 마시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는 그를 죽였던 사람들, 왕, 재판장 등 모든 악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테네의 많은 변론가, 웅변가들이 모두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소크라테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의 진리와 사상, 인격은 이 태양이 존속하는 이상 영원히 많은 지성인들 마음속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는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 8 : 44)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귀는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히 4 : 15)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무슨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 보아도 예수님의 죄나 허물, 실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흥을 돋우어 준 것이 죄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떼어준 것이 죄입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이 죄입니까? 어부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이 죄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살려준 것이 죄입니까?

무지한 자를 깨우쳐 준 것이 죄입니까? 죄인을 구원시켜 준 것이 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위대한 역사가 J. A. 플라우스는 "역사는 하나의 교훈을 분명하고 명확히 반복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궁극적으로 선은 승리하며 악은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때때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도 보게 됩니다. 또 소외와 멸시도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선에 있다고 역사가는 말합니다.

네로 황제는 변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울기도 잘 하고,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노래도 잘 하고, 현악기도 잘 타고, 시도 즉흥적으로 짓고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한 잔인한 사람인지 기독교인을 잡아서 굶주린 호랑이나 사자 굴 속에 집어 넣어 짐승들로 하여금 잡아 먹게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좋아하고, 뒤뜰에 쇠기둥을 세워 놓고 사람을 잡아 쇠줄로 매어 기름을 부어 불사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떻게 하면 특별한 광경을 보면서 시를 읊고 노래도 하고 즐길지를 생각하다가 로마에 불을 놨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 로마 시가 불에 많이 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가옥이 잿가루가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모든 것이 좀 안정된 후 누가 불을 냈는지 알아보니 네로 왕이 불타는 것을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시를 짓고 부르면서 거문고를 탔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 바울도 네로 왕의 손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천 년이 지난 지금, 로마에 가면, 그의 무덤은 성 바깥 언덕 위에 잡초만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

성당과 바울의 교회는 너무 웅장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일년 열두 달 줄을 이어 드나듭니다. 이것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셋째,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요 근원이 되시고 또 사랑의 화신입니다.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웃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무식한 자나 억눌린 자, 장애자, 아픈 사람, 죽은 자들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52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무리들과 동행할 때,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 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과거 유럽 사람들이 칼과 총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잡아 팔아 넘겨 종살이를 시키고 금은 보화를 가져가 잘살게 되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이 그치고 백인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위의 백인들과는 달리 성경 한 권과 수술 도구인 칼 하나만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환자를 고치고, 문맹을 퇴치하고, 영혼을 건지는 등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은 미움보다 강하여 미움을 능히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증거입니다.

넷째, 부활은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 : 6)입니다. 또한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며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요 1 : 3).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보통 방법이라 할 수 있고, 즉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영국 수도 런던 변두리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전날에 누군가가 감자, 호박 등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농부는 볏단 한 단을 정성스럽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중에 독일 폭격기가 와서 런던 시를 폭격해 그 교회가 잿가루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격을 맞은 교회의 돌틈에서 파란 싹이 아주 많이 나오더니 그곳이 곡식 밭이 되었고 가을이 되어 그곳에서 곡식을 추수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파괴시킨 강한 폭탄이었지만 씨앗 속의 생명은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절대로 생명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삼킨 승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허위와 악을 이기시고, 미움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원수들이 들끓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비겁하던 사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져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해마다 행하는 연중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영적 부활이 되어 심령을 새롭게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를 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주신 선물

요한복음 20장 19~23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 날 저녁 때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높은 수준의 교훈을,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병든 사람에게 치유를, 몸과 피 전체를 바쳐서 죄

사함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예수님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많은 말 중 하필이면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19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 공포, 초조, 절망, 좌절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평강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처자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평안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

위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 제자인 자기들의 순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의 빗장을 잠그고, 심한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6 · 25 한국전쟁 당시 캄캄한 밤중에 피난가면서 자동차소리,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인민군인 줄 알고 신자들과 논둑에 퍽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품에는 백일밖에 안 된 저의 큰 아들이 안겨 있어 자꾸만 울려고 하여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 아이가 제발 울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위급할 때는 숨소리도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전율할 정도로 긴장한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소를 띠면서 손의 못자국도 일부러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평안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 : 1).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 : 33).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기들 차례라고

생각하여 슬픔과 불안,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신자들도 예배드리는 도중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혹 내 차를 긁지는 않았나, 누가 내 차를 훔쳐 가지는 않을까, 무사히 집에 갈 것인가,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TV를 가져가지 않았는가, 지진이 나진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으로 쓸데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불안의식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 경제를 보면 점점 불경기의 적신호가 올라가고, 사상은 점점 혼탁해 가고 윤리 ·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계는 세속화되어 가고, 가정은 흔들리고, 아이들은 십대에 벌써 임신하고, 마약과 술을 먹고, 거리는 혼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의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좋은 차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과 권력에 있습니까? 솔로몬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도 있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전 1 : 2). 즉 세상적인 것에는 참 평강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 : 1)라고 고백하였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었지만 손들고 아버지 품안에 돌아왔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때 행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안에 안길 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은, 의로운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죄인은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하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하게 평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잠 28 : 1).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양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침대를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양심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생선이 뜨거운 물가마에서 끓는 괴로움이고, 뛰는 사슴이 넝쿨에 걸려 불붙는 곳에 있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평안해야 행복한 것이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바른 가치관을 찾은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 : 12).

크고 멋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좋은 차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차를 탔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물건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뜻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안이 있는 곳은 하늘 나라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땅이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소망이 있는 저 하늘 나

라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의 얼굴을 그려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행 6 : 1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 : 55~56).

스데반은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찢어지고 피를 쏟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광채가 났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해 축복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은 건강할 때, 잘 될 때, 성공할 때, 칭찬받을 때 등 무언가 잘 되어갈 때 느낍니다. 그러나 손해볼 때, 병들었을 때, 고독할 때, 죽음 앞에 설 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품에 안겨 있다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찼지만 찬송을 불렀고,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안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 : 21). 사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깊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

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갈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자기 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의 매개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하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또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보고 해결하는 방침을 그에게 가서 얻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러 나라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 대사들은 자기 나라의 수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지시를 받아서 실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필요해서 보낸 것이므로 우리는 나가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전한다면 누가 들으러 오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어른들이 제 말만 한다면 아마 이곳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안 올 것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뭐하러 오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

왔습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 "목사님,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 좀 보내주세요."라는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음활동을 할 때, 영혼을 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절대 순종,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 : 20).

소금은 녹아야 짠 맛을 내고, 초는 닳아야 빛을 발합니다. 포도는 썩어 터져야만 포도주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면, 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완전한 사랑, 즉 초월적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바리새인, 세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

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습니까? 정말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까? 옛 사람, 육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절대 순종합니까? 매일 성경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며 전도를 하였습니까? 십일조를 온전하게 바쳤습니까?

셋째,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 : 22)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려고 할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 : 19)입니다.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 : 13)라는 말씀에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는 구약을 가지고 경영하시고, '성자'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속죄하시고, '성령'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 : 4~5).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신앙고백을 했지만 이들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전도도 하며, 순교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이와 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구원하는 무리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을 받아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서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나 한인 교회, 그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저마다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마다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교회도 배가운동의 1/4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100명 정도가 한 사람씩 인도를 했는데, 나머지 2,000여 신자들은 아직 전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냥, 두 냥, 한 냥을 나눠주셨는데 장사를 잘해서 배를 가져온 사람에겐 "착하고, 진실된 종들아!"라고 칭찬하시고 잔치에 참석하긴 했지만, 녹슨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시며 그 돈을 빼앗아 밖으로 내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칭찬받고 잔치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심혈을 기울여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해서 교인들 숫자만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권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온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귀한 선물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삶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부

가정의 달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라 (잠 22 : 6)

이상적 어머니와 올바른 자녀교육 (삼상 1 : 20~28)

어머님의 은혜와 보은의 길 (잠 23 : 22~25)

아버지의 은공과 보은의 길 (출 20 : 12, 엡 6 : 1~3)

행복한 가정의 요소 (엡 5 : 22~33)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 놓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낳아 바르게 키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의 의미를 보통 부자이거나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을 잡은 사람 등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즉 사람다운 사람이 바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히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훌륭한 인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몇 가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 127 : 3~5). 성경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선물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계획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므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태양과 달, 별, 공기, 비, 땅, 어족, 산나물과 모든 동물 등의 자연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한 행위에서 온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심은 우리에게 의탁을 하셔서 하나님 대신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단지 양육을 하는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혈통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바른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으면 부끄럽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같이 자녀가 많은 것은 복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방어도 하고, 원수도 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를 방어해 주고 원수를 정복하여 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인류 사회학적으로 폐단이라고도 합니다.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양식이 부족하므로 자녀가 많은 것을 사회학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세계 기독교의 4대 위인 중 하나인 웨슬리는 열다섯 번째이고, 저는 큰 인물에 비교할 것이 못 되지만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처럼 자녀를 하나, 둘만 낳았다면 아마 저는 미국 구경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건다고 합니다. 만약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녀는 자기가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과 물질, 과학의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생명만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러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그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키웠다고 합니다. 절대로 머리 위를 넘어가지 않고, 배를 타넘지 않고 꼭 발 밑으로 다니면서 치마를 단정하게 하면서 돌았다고 합니다. 즉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았지만 신이 일본을 위해 주신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이처럼 길렀다고 합니다. 또한 공자의 어머니는 공자를 태중에 갖고 있을 때 몸가짐을 바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앉을 때나 걸을 때 똑바로 하고, 상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통곡을 하며 서원(誓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해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성소에서 맡아 키우도록 하였습니다(삼상 1 : 9~28). 그가 성장하여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내 자식으로만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상급, 선물, 은혜인 줄 알고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 원리입니다.

그런데 혹 자녀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없는 분 중에는 열등 의식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대하신다면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은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오늘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커 가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보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길러 훌륭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가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사랑의 실천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버려진 많은 아이들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참된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부모의 책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사랑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길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물로 양육시키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 16 : 27),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3 : 1)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자녀를 그 사랑으로 길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이 성경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

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 : 7) "늙은 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딛 2 : 4)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시 103 : 13).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태중에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태중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태중 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육체적 · 심리적 · 성격적으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모의 따뜻한 참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힘이 없고, 명랑하지 않고, 자신감과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쉽게 빠지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6 · 25 한국전쟁이 끝나자 공산군과 미군의 포로 교환이 있을 때 많은 공산군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인도나 브라질 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거의 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다만 21명이 동유럽, 공산국가로 갔습니다. 21명의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니 19명이 부모가 이혼했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국에 가지 않고 공산국가로 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참사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비뚤어지고 이유 없는 반항자가 되고 맙니다. 미국 가정이나 이민 온 한국 가정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멋있는 집과 좋은 차, 가구도 수없이 장만해 놓고 삽니다. 돈도 많고, 먹을 음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일하다 보니, 또한 많은 사람들

과의 경쟁으로 피곤하다 보니 자식에 대해 뜨거운 사랑이 결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6년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사랑에는 다섯 가지가 따라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관심과 책임, 존중, 이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관심이 있어 꽃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또한 꽃에 물과 거름을 주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생각하고 조석(朝夕)으로 살피는 관심을 보입니다. 기침을 하는지, 옷이 어떤지, 밥을 잘 먹는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따라갑니다. 선생님은 제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장교는 자기 부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부모는 자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존중해야 합니다. 꽃을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고, 차를 사랑하면 아끼고 귀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사랑하면 개성에 대한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만약 남편이 신경질을 부려도 '오늘 바깥에서 나쁜 일이 있었나보다' 라고 이해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왜 바가지를 긁을까? 내게 못마땅한 게 있는가?' 하고 자신을 살피고 아내를 이해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국 아이들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가면 미국식 교육을 받고, 집에 오면 한국식의 교육을 받으니 힘이 들 것입니다. 두 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 예로, 미국에서 자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국이 식었다고 하지 않고 국이 춥다고 하고, 단추가 떨어지면 단추

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또, 누가 오면 한 놈이 온다, 한 마리가 온다고 하는 등의 언어 혼동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어른들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주고, 애정과 마음을 줍니다. 또한 시간도 바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와 더불어 사랑할 때는 장난감을 사 주고, 생일 때가 되면 좋아하는 물건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 주게 마련입니다. 또한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같이 놀아주는 것도 사랑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하거나 가고 싶어하는 곳을 함께 여행하는 것은 참 좋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어딘가에 함께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골이 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가는 곳이 고작 논이나 밭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은 주중에 한 번 노는 날은 꼭 세 살 된 자녀를 데리고 함께 놀면서 사진도 찍어 주고 비디오도 찍어 주면서 지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어 줍니다." 물론 농담이 들어 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십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이질문화와 이중언어, 가치관, 학업, 성적, 진로, 직업, 친구, 오락, 이성, 신체적 · 생리적

인 변화 등에 당황하며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 남이 아닌 우리 부모님이라면 얼마든지 이들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밖에서 방황하며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먼저 사랑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를 일대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참사랑으로 아름답게 키워야 하겠습니다.

셋째, 자녀들을 주의 선한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의 지표이며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한문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은 좋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배운다는 것은 반석에다 끌로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성경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 : 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육신을 위해 젖

을 먹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트라우스 목사가 공립학교의 성경 과목을 폐지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구절이 없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 : 4~9).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가 침대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 줌으로써 성경을 듣다 잠들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볼 때 교육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68시간인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두세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으로 어떻게 바른 인격과 가치관, 인생관, 사물관, 속죄관, 우주관, 내세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 교회 · 사회에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도 이민 와서 옷과 집, 돈, 차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에 인색한 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교육의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 : 16~17). 성경을 가르침으로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에드먼은 말하기를, "수많은 국가의 수반, 철학자, 정치가, 과학자, 시인, 개척자, 실업가, 예술가, 음악가, 문학자, 사상가 등 각계 각층의 명사들은 성경을 유일무이한 가치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자기 생애 지도서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인들이 성경이 자기 지도서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눈감고 덮어주는 용서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에는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당신의 아들 된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히 12 : 6). 한국 속담에도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여러 곳에서도 징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초달(회초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 13 : 24).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잠 23 : 14).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 22 : 15).

저는 할아버지께 매를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 형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 한 번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천자문을 외우고 여러 번 글씨를 쓰라고 하신 불호령에 따르지 못할 때 항상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할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척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매 덕분에 이 정도라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형님은 인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셨는데, 제가 가끔 과자를 몰래 먹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훔쳐서 극장에 가고, 냉면을 사 먹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시골로 쫓겨가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셔서 다 한 후 걸레 빤 물을 버리러 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 뽕나무에 열린 열매를 보고 따려고 올라가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선생님께 맞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Near to Discipline"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매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란 책인데, 이 책은 과거에 미국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녀를 때리지 말고 자유롭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가 키운다는 주장입니다. 수백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은 "Tough Love"라는 제목으로, 때리되 때리고 나서는 꼭 안아 주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미국의 자녀 교육 방법을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까지는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엄하게 때리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자유교육, 방임교육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약과 섹스, 술, 도둑질, 강도질 등을 하고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는 등의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1980년 이후에는 잘못했을 경우 감정으로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때리라는 교육 방법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때릴 수밖에 없었을 경우 때리고 나서는 꼭 안아 주라는 것입니다.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때린 것임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 지금 미국이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바른 길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요, 선악을 배우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리시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징계를 할 경우에는 사랑으로 침착하고 친절하고, 단호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식의 권위의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타협이 아닌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잠 29 : 17),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히 12 : 1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징계 후에는 올바른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섯째, 부모가 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만 하는 부모라든가 때리기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의 모범을 보여 주는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

다.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 : 7)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인내, 좋은 것들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 모습 그대로 자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영적 법칙으로 공통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요 13 : 15).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어떤 때는 말없이 행동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고전 11 : 1).

자녀들에게 행함을 보이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옳은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가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행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른 교육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권유하기 전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남을 흉보지 말아야 하고,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말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와 봉사로 본을 보여야 하며,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인색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때렸을 경우 좀 과(過)하다고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해야 참 부모요, 바른 교육입니다. 이러한 부모야말로 아름다운 인격자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꼭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일을 위해 보낸 위탁(委託)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사랑의 매를 드십시오. 그러나 후에 꼭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범된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들어가 지금 있는 그 곳에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위에서 열거한 사랑하는 법 다섯 가지를 자녀들에게 실천하며 가르친다면 우리의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가 밝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상적 어머니와 올바른 자녀교육

사무엘상 1장 20~28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화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미국 하원의장 깅그리치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12세인 여자 아이가 아기를 낳고, 15세 된 남자 아이가 총으로 어른을 쏘아 죽이고, 17세 된 남자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고, 18세가 되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 ·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가출하여 학업을 중단

한 숫자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집을 나간 후에 생활을 위해 여자 아이들은 술집에 가서 접대부 노릇을 하며, 심지어 몸까지도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물론 사회적, 시대적 변혁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가치 기준을 개인주의, 배금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등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교회와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고 부모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대로 학생은 많지만 제자가 적고,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고, 아비는 많지만 아비의 책임을 감당하는 아비가 적고, 어미는 많지만 어미다운 어미가 적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바로 되고, 지구촌이 바로 되려면 먼저 사회의 단위가 되는 가정이 건전해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세계화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이며,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어머니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머니가 그러한 어머니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고,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이 풍부한 어머니가 이상적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동안 빗나간 어머니들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자녀를 거리에다 내버리는 어머니, 고아원에 주

는 어머니,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어머니, 심지어 어린아이를 낳아 냉장고에 넣어서 죽인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 번성할 뿐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준수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바로 왕 생각에 만일 전쟁이 일어나 이 족속들이 적군과 손을 잡으면 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해 모든 산파들에게 전하기를,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즉석에서 죽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온 즉시 죽었습니다.

그 때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아이의 준수(俊秀)함을 보고 세 달 동안 숨겨 두었다가 도저히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했고, 그 아이는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생모인 유모를 통해 사랑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초로 이스라엘 해방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다 발견한 것은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사랑하며 아끼게 마련입니다. 꽃 하나만 보더라도, 꽃은 결코 물만 먹고서 자라지 못합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고 양분을 흡수해야만 성장하고 발육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밥이나 물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사랑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열등한 동물보다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코끼리나 개, 사자, 호랑이 등은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이 혓바닥을 사용하여 자주 핥아 주는 것 외에는 아

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미소를 주셨고, 웃음, 말, 손, 입, 가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노래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낳자마자 일어나고 걷기도 하는데, 사람은 1년 정도 대소변을 치워주고, 젖을 먹이는 등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케이시는 "인간이 태양열에 의존하는 것같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의지해서 자라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널리 용서하는 사랑이요(사 55 : 7),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요(요 13 : 1), 채찍질하는 사랑이요(히 12 : 6), 희생적 사랑(갈 2 : 20)입니다. 이런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는 아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하였으며,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돌이 지난 후에 친정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만 길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 눈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걱정이 되어 아내가 돌아올 길을 마중나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니 길 위에 무언가 둥그렇게 눈에 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여

눈을 치워보니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얼어죽어 있었고,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서 어머니가 잠시 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수도 없었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불붙은 집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온통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자기 아기를 치마폭에 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아기 어머니가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 젖을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면도칼로 자기의 가슴을 째서 피를 짜 아기에게 먹여 아기는 살고, 그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여, 부디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는 인식능력이요, 지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지혜의 왕이라 하면 솔로몬을 들 수 있습

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자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아기를 둘로 자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라면 어찌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두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왕상 3 : 26).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어 참을 가려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물론 훌륭하지만 잠깐 이 생모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이 아기가 산 것은 사랑의 지혜가 있었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의 수상 지스베리는 "현명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큰 성을 얻는 것보다 낫고, 더구나 현명한 어머니를 갖는 것은 나라를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어머니는 자녀의 장례를 내다봅니다. 현재의 고통을 희망 중에 참습니다. 사사로운 정을 냉정히 끊고 억제하기도 합니다.

발명의 왕이라고 하는 토머스 에디슨은 1847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에디슨은 저능아이기 때문에 더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너는 결코 저능아가 아니다. 내가 공부를 가르쳐 주마." 하고 자기가 책을 사다가 그 아이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학교

를 석 달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열두 살 때 기찻간에서 신문을 파는 일을 시작했고 고학으로 나중에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84세까지 전기, 전화, 축음기, 타자기, 발동기, 영사기, 전차 등 1,300여 가지를 발명하여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디슨의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석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당이 없어서 먼 곳으로 공부를 보냈는데, 한석봉은 오랫동안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 공부하던 도중에 돌아왔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의 어머니는 밤중에 한석봉의 소리가 들리자 자기가 짜던 베를 죽 찢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한석봉은 놀라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 베를 짜 왔는데 네가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왔으니 이 베를 짜는 것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반성을 하여 곧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대성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욕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지위에 대한 관심보다도 참 인격에 가치를 두고, 사치와 낭비, 허영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살면서도 아주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깊이 인상에 남는 교훈과 모범을 보여 주는 슬기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생모(生母)나 자모(慈母)를 말하기 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치 기준을 바로 세워 주고, 진리를 적기에 포착하게 하고, 생의 우선 순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나 이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정으로 필요한 어머니는 돈을 잘 버는 어머니, 또 집이나 잘 가꾸는 어머니, 자식들에게

옷이나 잘 입히고, 용돈이나 주고 잘 먹여 주는 그런 어머니보다도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가르쳐 주며, 인격을 바로 성장시켜 주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셋째, 덕이 높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8~29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도 칭송과 사랑을 받고 아들, 딸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집에 있는 남녀 종들에게까지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덕이 높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먼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는 쉽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부한 애정, 부드러운 마음, 섬세함과 자상함, 재치와 민활성, 사려 깊음과 인내심, 우아와 정숙, 정결과 지성 등이라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 지스베리가 수상이 되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백서를 읽고는 잘 끝내고 아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붕대로 손가락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를 물어 본즉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하고 내가 국회를 갈 때 여름이기에 창을 열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갔는데 마차가 흔들려서 창이 뚝 떨어져 그만 손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보니 국회에 가서 연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걱정하실까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아

내라고 감격하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부덕(婦德)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여성은 아름답고 인내심과 풍부한 감정과 미소와 높은 수준의 도덕심과 긍휼과 자비, 섬세함과 재치 등이 남성보다도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남성은 호전적이고, 명예욕, 지도욕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화평적이고, 봉사와 희생 정신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량한 어머니와 아내를 가진 사람은 탈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성애(母性愛)와 부덕(婦德)의 결과는 가족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하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겸손과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한국의 전통가정에서는 딸들에게 어려서부터 시를 읊게 하고, 시를 짓게 하며, 서도(書圖)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린 딸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씨를 길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무기는 온유와 겸손, 사랑, 봉사,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약자의 무기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뭇남자를 사로잡고, 민족과 세계까지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삼상 1 : 27~28).

한나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젖을 뗄 정도로 자랐을 때 실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후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치마폭에 싸고 다니면서 자녀의 모험심이나 창조력이나 적극적인 마음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사로운 정을 끊고 어렸을 때 벌써 제사장에게 보내서 훈련시킴으로 위대한 인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한국말에 아버지는 '바깥 사람' 이고, 어머니는 '안 사람'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여 돈을 벌어 오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과 자녀 교육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일반 역사를 보아도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아버지보다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배후에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내 기회를 포착하여 그 방면으로 힘껏 밀어 주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아들의 장래는 어머니가 결정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문도 읽고, 책을 보며 노

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인격적, 종교적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돈을 벌어야 집을 사고 좋은 학교에 보내 주지. 아이들 공부는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그저 학교나 교회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하는 선생들이나 가정 교사가 가르쳐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3%밖에 없으며, 교회에서는 1%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사상적, 인격적, 신앙적인 교육의 95%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 아이들이 탈선하는 비율이 적고, 세계에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의 1/3이나 되는 것은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탈무드」라는 지혜서를 가르쳐 주고,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 주다가 그들이 잠들면 성경을 덮고 어머니가 자러 가는 등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어머니의 뼈를 깎는 노력 덕분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머니들은 농부의 심정으로 자녀의 마음 밭을 잘 갈아서 좋은 씨를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부의 심정으로 그 마음속에 황금과 보석보다 더 귀한 재질을 발견해서 좋은 것으로 심어 주어야 하고, 예술가와 같은 심정으로 좋은 인격을 다듬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피와 영양을 먹고 자라므로, 어머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또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앙이 깊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 : 5).

위의 말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의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희랍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 국제 결혼을 해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깊고 훌륭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을 그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 찔레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학 · 생물학적으로 유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세계에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 : 1)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알게 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고, 인생의 무상을 알고 마음의 공허, 고독, 불만을 느낄 때 인간 이상의 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인간 자신이 불완전하고 죄인인 것을 느낄 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절대자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지혜,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프랑스의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안 후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사

람이 눈에 보이는 것, 현세의 물질, 쾌락, 일시적 안일에만 안주하고 삶의 목적이나 진실,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필요없는 사람입니다. 개, 돼지에게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심리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말하고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인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이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련의 문인 톨스토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다. 신앙은 생의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철인 슐라이에르 마허는 "신앙이 없으면 교양과 조화가 없으며 따라서 인생의 존귀한 의미도 잃게 된다."라고 했고, 괴테는 "인간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모든 큰 계획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신앙은 인간 도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신앙 없는 과학은 불구요, 과학 없는 신앙은 소경"이라고 해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이 불가결한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느끼며 살기 때문에 생활이 올바르고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안정과 행복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를 통해 반성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활이 향상,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1) 사랑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 : 16).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끌어 안으시고 안수, 축복을 해주셨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엄격함이라면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할을 할 사람이 곧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5년 전 저희 집 뜰에 감나무를 두 그루 사서 심었는데 한 나무는 많이 크고 가지도 많이 뻗고 잎사귀도 널찍하고 감이 많이 열렸는데, 다른 한 나무는 가지도 적고 잎사귀도 작고 감도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보니 크게 자란 나무는 양지 쪽에 심어 햇빛을 많이 받았고, 한 나무는 귀퉁이에 심었는데 앞뒤로 나무가 많아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아이들도 잘 자라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경과 일반 역사에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참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격도 뒤틀리고 무기력해지고 사회의 반항아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재판받는 군인들은 거의 다 가정의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문제 가정에서 문제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사랑,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널리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참는, 때로는 매도 들고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키운다면 어찌 그 아이가 바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사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집어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라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뜨겁게 사랑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혹 조금 탈선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2)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 : 2).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모유나 우유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의 정신과 인격, 영혼, 사상이 살찌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 : 4~7),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 : 15)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백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내를 때리면서 아이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 어느 아이가 듣겠습니까? 모범을 보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디트로이트에서 사흘간의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인상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다닌 신학교의 몇 년 후배 되는 목사님의 세 딸들이 다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 하는지 장로님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딸들을 칭찬했습니다. 성가대 지휘,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를 맡아 일하였고 저를 집에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전도사, 군목할 때부터 교회를 넷이나 짓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밥을 같이 먹은 적도 별로 없고 이야기도 많이 못 하고 교회 일로 밤낮 뛰어다니셔서 저희랑 어머니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앞장섰습니다. 기도, 헌금, 봉사에도 앞장서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바느질도 하면서 우리들 먹일 것도 다 대시고 고생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잊을 길이 없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었음을 알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은 안 주었지만 천만금보다 값진 귀한 유산을 물려준 현명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의 오 목사님과 사흘 정도 지냈는데 겸손하고 열심이 있고 장래가 총망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

면서 제게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모교단 장로총회 회장이셨고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저는 첫째로 예수님을, 둘째로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백인, 흑인, 히스페닉, 월남인, 한국인 등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얼마나 탈선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부, 사회, 학교,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가정,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불량한 자녀가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성경 애독, 기도, 설교 실천, 십일조 생활, 자원 봉사, 애교심, 정직하게 세금 바치는 것, 매사에 충성, 이웃 사랑, 손님 대접, 열심 전도, 부부 사랑, 부모 공경, 나라 사랑을 자손들에게 말로 교육하지 말고 행동, 모범으로 교육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3) 지(知) · 정(情) · 의(意) · 신(信) 교육입니다

① 지성교육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세 살부터 배워 다섯 살에 정식 교육이 시작되고 일곱 살에 예언서를 배우고 열세 살에 졸업하고 성인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열아홉 살로 정했지만 유대인은 열세 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학교 교육을 마치면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를 지속합니다. 그들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출세,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바쳐 사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포들은 공부해서 일류 학교 입학하고 출

세하고 돈 벌고 가문을 빛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의 차원이 다릅니다.

② 정서교육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 : 1).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우주의 대신비를 보여 주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조상, 친척을 중시하게 하고 감사, 친절, 사랑을 가르치고 식물계, 동물계, 어족계를 가르치면서 느끼게 하고 또한 사랑하게 만들고 음악, 노래, 예능을 가르쳐 정서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③ 의지교육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마 5 : 37)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어머니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입혔으면 용서를 해주되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새 어머니들은 거꾸로 야단을 칩니다. 가령 신발을 잃어버리면 야단을 치면서 뭐 하나 훔쳐 오면 다른 사람도 그랬으니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잘못을 했으면 준엄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곧 죽게 되었을 때 유언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어머니 목을 비틀어 죽게 했습니다. 깜짝 놀라 이유를 물어보니 어머니가 제가 어디서 물건을 훔쳐 오면 "잘한다, 똑똑하다, 또 가지고 오너라."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자신은 이렇게 무서운 죄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죽는 것이

니 저런 어머니를 살려 두면 사회가 안 될 것이므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를 죽이고 가려고 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초달(회초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 13 : 24),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잠 22 :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 29 : 15)라고 했습니다.

물론 감정, 협박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인 창의력, 근면, 용기, 신념을 가르치는 의지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 울고 있으면 "일어나라, 너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요새 할머니들은 손주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코피가 안 났는지, 먼저 살핍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지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④ 신앙교육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들에게 신의 존재,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회개와 구원, 영생, 지옥과 천국을 알기 쉽게 말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선교사의 95%, 목사의 92%가 주일학교에 나와서 성경을 배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아이들은 큰 죄를 못 짓습니다.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으로는 알게 하고, 정적으로는 느끼게 하고, 의지적으로는 결심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는 따라가는, 실천하는 네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네 가지 교육을 한 여인입니다. 사무

엘을 사랑했고, 말씀으로 가르쳤고, 모범을 보여 주었고, 지 · 정 · 의 · 신의 교육을 고루 시켜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어머니들은 사랑의 어머니, 지혜의 어머니, 덕의 어머니, 엄격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모범으로, 지 · 정 · 의 · 신의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후에 상급을 받는 이상적인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의 은혜와 보은의 길

잠언 23장 22~25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 : 2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등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이며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닫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기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어머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어머님의 은혜

(1)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실 뿐 아니라 얼을 심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행 7 : 2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

중에서 자라 나이 사십이 되매 어려서 어머니가 심어 준 민족정신과 사상과 얼을 다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400여 년이 지나니 너무나도 급속도로 인종이 번성하고 그들이 총명하여 각 직업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경제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가 기우(杞憂)가 생겨 이들이 원수와 손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 나라가 망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경제적, 인종적 핍박을 할 뿐 아니라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 준수해서 죽일 수 없어 석 달을 감추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떠내려 오는 상자를 발견하여 그 안을 보았더니 어린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엾게 여긴 공주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하였는데, 이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유모를 불러다 주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하여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안에서 무사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아마도 친자식인 모세에게 믿음과 히브리의 민족정신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로서 민족의 얼과 주체사상, 뿌리 등을 가르쳐 주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젖을 떼고 궁중에 들어가 애굽의 언어와 문화, 모든 것을 배웠지만 나이 사십이 되어서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려서 히브리 민

족의 얼과 사상, 믿음 등을 심어 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려서 모세의 마음에 새겨 주었기에 그것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 궁중에서 뛰쳐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유일신 종교를 창설하고, 인류의 규범이 되는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세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 배후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민을 와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모세와 같이 한민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창조하시고,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한반도를 주신 것도 의미가 있고, 4천년 동안 왜적의 무수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주권과 강토, 생명이 살아 있는 것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구원시킨 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경륜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널드 토인비는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여 온 민족들은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정직과 근면, 굳센 단결력, 고유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유 문화를 가진 민족만이 외적의 짓밟힘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고 부흥하며 인류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캘렌 교수는 "미국에는 많은 소수 민족이 이민 와서 산다. 그들이 미국에 오면 풍속, 의식주도 바꿀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남편, 아내도 바꾸지만 조상과 피, 이 두 가지는 결단코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미국은 소수 민족이 많이 들어오자 한때 합중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모두 넣어

불을 지펴 단일적이고 균일적인 미국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교육을 바꾸어서 모자이크 문화로 모든 소수 민족의 문화를 견제하면서 그것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합중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문화와 민족사상과 얼, 뿌리 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전통적 교육방법, 동화적 교육방법, 쌍문화적 교육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 교육방법은 한국의 것을 더 중히 여겨 한국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는 장성하여도 좁고 한정된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화적 교육방법을 받은 자녀는 위의 교육과는 달리 완전히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한국 사람과는 거의 만남을 갖지 않고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미국의 것만 아는 변두리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이지, 결코 백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중문화를 가르치는 쌍문화적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두 문화를 모두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나 이곳의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게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높이 인정하고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교육은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습니

다. 그의 부모는 6 · 25 한국전쟁 때 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혼혈아라고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고,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많이 느껴 미국에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인으로부터 구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한때 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 우주관과 속죄관과 사생관 등을 바로 깨달아 모든 문제를 해소한 후 한국 여인과 결혼해서 지금 큰 은행의 부지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인교회에서 대학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잘해서 한국인에게 쌍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노래 선교단을 만들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얼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디가 세계적인 성인이 된 이유는 그의 안에 민족의 얼이 있었기 때문이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독일에서는 6백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유일신의 신앙과 선민사상이 담긴 민족교육과 뿌리교육, 얼교육 등의 두 가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현재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뿌리를 내리고 경제 · 정치 · 과학 · 예술 · 군사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길러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품에 안고 말을 알지 못할 때도 신앙으로 길렀습니다. 그녀는 모세가 알아들을 때까지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태양신으로 알고 섬

겨야 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천황이 살아 있는 신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궁을 보고 절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순교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 결과를 다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히 11 : 24~28).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궁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기쁨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의 궁중에서 태양신을 섬기며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받을 그리스도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뛰쳐나왔다는 것은 어머님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과 신앙교육, 기도훈련의 중요성을 아시고 자

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 : 5).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희랍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언행 심사가 단정해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디모데를 잘 키웠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 중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상교육보다는 돈벌고 좋은 학교를 보내 박사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었는지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를 만나기만 하면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버지,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기에, "목사지." 하였습니다. "목사님이면 예수 잘 믿으라고 해야지, 공부만 잘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박사가 되어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저는 그 이후 막내를 만나면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도 교회에 와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소그룹 활동한 후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예수도 잘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 와서 고생하며 공부만 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고 술과 담배, 댄스 등 세상에서 좋다고 하

는 것은 모두 즐기며 죄를 짓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그것으로 그친다면 괜찮지만 사후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이 있으므로 조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 마지막에 영생하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연세가 70세가 넘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이 완고한 까닭에 남자만 공부시키고 여자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언문을 깨쳤고 완고한 시골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은혜를 받았는데, 시집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 아궁이에 넣고 낫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그분의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들 여섯과 딸 셋도 전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며느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집사가 되고 권사, 목사도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사회적으로는 출세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결과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 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3) 인간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복음을 가르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 예수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하고, 인간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인류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육, 선교, 봉사를 주로 하신 것처럼 인간도 자기 발견과 자기 충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있는 물질이나 은사 또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과 인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성 프랜시스,

웨슬리, 리빙스턴,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테레사 수녀 등 훌륭한 사람들이 이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

봉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린 모세에게 봉사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왕에게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젖을 먹이면서 또 재우면서 이 사명의식을 새겨 주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사명을 가졌습니다. 달, 별, 해, 산, 바다, 강, 나무, 과일 등 모든 것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좁게는, 교회 안을 보더라도 마이크, 강단, 지붕, 시계, 문, 피아노, 컵의 물, 꽃도 사명을 위해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사명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 윌리엄 클라크는 백 년 전에 일본 북해도 농대에 가서 가르치다가 귀국할 때 마지막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이여, 대망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사명의식을 가져라!" 많은 학생이 감동을 받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정치가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함석헌 씨는 일본 사람인 우치무라 간조에게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상가요,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해 태어났고,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멋진 고백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칼 휠트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사명을 발견해야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더 높은 수

준과 더 깊은 차원, 더 심화된 단계로 자아와 인격이 발전하게 됩니다. 사명감이 사람의 의욕을 일으키고, 성실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고, 부지런하고 용감하게 합니다.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비전이 없는 국민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명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허무주의, 냉소주의, 찰나주의에 빠져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 어머니는 철저히 뿌리교육과 믿음교육을 시키고 사명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자라나 사상이 발하고 민족을 해방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역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창 3 : 19).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람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 어머니는 얼, 신앙, 사명의 교육을 시킨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둘째, 어머니 은혜에 대한 보답

(1)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 : 25).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 : 1). 이 말씀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지간과 부부지간에는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부모가 즐거워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천에서 종군 목사로 있

을 때 김용환이란 소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군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1기생이고 지금은 소령이 되어 비행기도 타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왔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별을 달고 장군 되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고 장로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러나 전두환 씨처럼 장군이 되어 못된 짓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머니가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어떤 자녀들은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고, 골프를 치러 가는 여유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내 아들이나 딸들이 와서 함께 앉아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고 섬김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히 11 : 6).

(2) 물질적으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도 깨끗한 옷을 사 드리고, 음식도 맛있는 것을 사 드리고, 외식도 하고, 어머니방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가끔 건강도 점검해 드리고, 용돈도 드려야 좋은 것입니다. 제가 1983년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케냐 호텔에 묵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 내외분이 계시기에 어떻게 그곳에 오셨는지 물으니 그 아들이 동부 큰 회사의 요직에 있는데, 부모님을 더 늙기 전에 세계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 특별 휴가를 내서 동경, 홍콩, 싱가포르, 인도, 아프리카로 해서 유럽, 스칸디나비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

행사에 부모님들을 위해 그랜드캐니언, 하와이, 유럽 등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효도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값이 무척 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한국에 현재 어머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화나 편지를 자주 하시고, 용돈도 보내드리십시오. 만약 어머님이 현재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웃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삼고 존경하고 사랑해 드립시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물질적으로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보답하는 길 중 한 가지입니다.

(3) 훌륭한 사람이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적 · 지성적 · 인격적 ·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웃과 인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을 보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간 한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 학교 백 년 역사에 기록되는 성적을 남겼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교 측에서 한국 부모님을 위해 비행기표를 보내고, 모든 호텔비를 지불해 주고, 아들은 졸업식 날 연설하고, 부모님은 교장 옆에 앉아 있는 흐뭇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편 어떤 학생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나쁜 짓을 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뽑았는데 한국 학생들도 여섯 명이나 포함돼 그 부모님과 함께 부시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백악관에 가서 파티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 온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 어머니가 기뻐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는 취임식 때 어머니가 아주 늙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해서 취임식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어머니를 업다시피해서

옆에 앉히고 취임식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효자인 것을 칭찬하였고, 어머니는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불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골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활짝 피어 향기가 진동하는 꽃과 어린아이가 활짝 웃는 웃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들어 떨어져 있었고, 어린아이는 성장하여 변해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랑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40년 동안 만주 땅에서 계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하루 종일 생각하였고, 그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꿈에서라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얼을 심어 주신 어머니, 신앙을 심어 주신 어머니, 사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신 어머니께 순종함으로 마음과 물질로 살아 생전 기쁘게 해드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볼 때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되도록 성숙한 신앙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버지의 은공과 보은의 길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3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옛날 한 동리 앞에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활을 아주 잘 쏘는 사람이 그 곳을 지나는데 황새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며 나무 위를 맴돌고 있어 자세히 보니 큰 구렁이가 갓 태어난 황새 새끼를 잡아 먹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에 이 활량이 구렁이를 쏘아 황새 새끼를 구해 주었고, 구렁이는 연못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 활량이 그 연못에서 고기를 잡아 먹은 후에 이상하게도 몸이 부어 백약이 무효하여 퉁퉁 부어 죽게 되었을 때에 황새 두 마리가 날아와 활량을 찍어 피고름을 빼내 황새는 죽고 활량은 살아났다는 보은(報恩)의 미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들이 지금까지 길러 주신 부모의 덕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동물보다 못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은공(恩功)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어떤 모습으로 보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은공

(1)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피가 깨끗하여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은 성경의 창조와 결혼의 의미를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반역을 하는 것인지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습니다. 또 낳되 하나만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사회적인 제도와 구조 탓에 아이를 적게 낳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을 건강하게 낳아 주신 아버지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길러 주신 아버지의 은공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 즉 밖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수고(창 3 : 17)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온종일 땀을 흘리시고 활동하여 그 수입으로 의식주를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농부이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새끼를 꼬고, 마당 청소, 쇠죽 쑤기, 농사 등 대식구를 먹이시고, 저의 8남매를 기르시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한 것은 매일 별이 떠야 귀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 가르쳐 주신 은공입니다

요즘이야 교육의 대부분을 학교에 의존하고 있지만, 옛날 시골에서는 아버지들이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 동양 성현의 가르침도 들려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농가의 살림이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신학문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3) 예수님께 인도해 주신 은공입니다

아버지의 은공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의 최대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하면 이발소를 가라. 하루의 행복을 원하면 목욕탕을 가라. 일 주간의 행복을 원하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의 행복을 원하면 새 차를 사라. 일 년의 행복을 원하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의 행복을 원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영원한 행복을 원하다면 주를 구주로 영접하라."

저에게 있어 일생의 최대 사건과 최대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4)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신 아버지의 은공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인상 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나 선생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 가르쳐 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父傳子傳)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버지를 통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배우고, 부부의 화목, 자녀와의 사랑, 근면, 정직, 친절, 자비, 봉사 등 많은 덕목들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위와 같은 모습으로 은공을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둘째, 아버지에 대한 보은의 길

(1)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부부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찾아간 방문객이 어린아기 얼굴을 보고, "어쩌면 이렇게도 아빠를 닮았을까? 아기 아빠 사진판이로군요."라고 말해야 아기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꼭 누구네 앞집 아기 아빠를 닮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얼굴, 손, 발만이 아니라 정신, 사상, 신앙, 마음도 닮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 : 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겸손, 온유, 사랑, 봉사, 희생의 마음입니다. 자녀 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2) 순종으로 아버지께 보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 : 1).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 : 22). 이삭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창 28 : 7)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

니다. 신자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학생은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자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실수가 없고 복을 받습니다.

(3) 형제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형제간의 화목을 기뻐하십니다. 형제간에 명예나 돈이나 감정으로 서로 싸우고, 불목(不睦)하여 서로 왕래도 없이 살면 아버지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야곱의 10형제가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애굽에 노예로 팔고, 들에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거짓으로 요셉의 채색옷에 양의 피를 묻혀 보일 때,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창 37 : 34). 예수님도 화목을 중히 여기셨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갑자기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 : 23~24).

(4)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 이새는 여덟째 아들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위기를 막아 건짐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삼상 18 : 7)고 노래할 때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대장이 되었을 때에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여 가문을 빛내고 나라에 유익을 주는 선하고 정직하고 용기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될 때에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양의 성공을 그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역력히 보았습니다.

(5)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봉양(奉養)해야 합니다

착한 요셉이 못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애굽 노예시장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창 29 : 2). 그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의 처의 부정한 간청을 거절하고도 모함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오해받아 옥중에서 2년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계속되어 아버지와 형, 형수, 조카들을 긍휼히 여겨 애굽으로 모셔다가 제일 좋은 고센 땅을 주어 번성케 하고, 아버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성껏 봉양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늙어 갈수록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용돈으로 봉양하고 관광도 시켜 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아름다운 동양의 풍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부모의 은공은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출생케 하시고, 길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께로 인도하며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입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를 닮고 순종과 형제간의 화목과 물심양면으로 봉양함으로 기쁘시게 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훗날에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아버지 주일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버지 주일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임동선 목사님의 작은아들 임승천 집사가 1998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서툰 한글로 써서 아버지께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원치 않으시겠지만 편집자의 판단에 이 편지의 내용이 본 설교의 내용과 잘 부합이 되고, 한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솔직하고 감동적인 글이므로 이곳에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아버지께.

한국인들의 사고방식 탓인지 한국 문화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어도 결국 한 번도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아버지 날을 생각하면서 제 나이 마흔한 살에서야 용기가 나서 저도 세 자녀의 아빠로서 이 글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철없었을 때는 아버지를 가끔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으로부터 대학원 졸업식까지 한 번도 안(못) 오셨고, 저의 생일도 한 번도 기억 안(못) 하신 게 섭섭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해 용돈 요구도 한 번 못했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원망될 때마다 '나의 아버지는 만민의 영적 아버지니……' 하며 이해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이나마 철이 들면서 원망했었던 마음은 깨끗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지나고 보니 아버지께서 말씀 없이 생활로써 교훈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덕으로 사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물질이 과히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인격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도력도 배웠습니다. 인내심도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이나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영

원한 유산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효도 못한 것 죄송하고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약 7년 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교회 옆 아파트로 이사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말리지 못(안)해 드린 죄가 아직도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생에도 계속 승리하십시오. 비록 저나 형님이 아버지의 길을 걷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후손 가운데 아버지같이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을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셔서 저와 낚시 또는 여행도 하실 수 있도록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1998년 6월 21일
아버지 날에 작은아들 승천 올림

추신 : 동봉한 것으로 어머니, 형님, 형수님, 조카들과 식사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요소

에베소서 5장 22~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집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다 지을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가정은 평생을 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집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가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 헌신하고

뼈를 깎는 부부의 노력에 의해서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부부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 : 25). 이 말씀은 서로 지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또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가정 행복의 첫째 요소는 부부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대화가 단절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학생과 선생님, 노동자와 기업주, 못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 백성과 위정자,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 동양인과 서양인과의 대화가 단절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부모 간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신문을 보니까, 어떤 집 가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어머니에게 통지도 안 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어머니가 상담자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가 상실된 가정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부 사이가 대화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할 때마다 싸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좋게 나가다가도 싸움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에 흥미가 없어서 대화를 안 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말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만 말을 하든지, 아내만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든지, 일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침

에 아내가 남편에게 "식사하세요." 하고, 남편은 "갔다 올게." 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받고 "응." 그러고는 밥 먹고, TV 보고, 자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대화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화하면 자꾸 상대의 아픈 곳을 꼬집고 신경이 예민해져 오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말을 안 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피차 말이 없이 냉전상태에 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무언가 만족하지 않고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부부가 말하려고 하면 제3자가 끼어들어 서로 대화가 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살면 시어머니가 끼어들고, 아니면 친정어머니나 시누이가 끼어들어 대화를 못 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피차 가치관의 차이와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화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것이 올바른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그것만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있거나 침묵을 작정하는 부부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 서로가 존경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분노의 감정만 있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러할 때 서로 감정이 조절이 되고, 용서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화를 하기 위한 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란 환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중 지방에 따른 특색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성격과 습관과 취미, 음식 기호, 가치관 등을 잘 알면 좀더 바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화난 사람이나 마음이 닫힌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슨 말을 해서라도 웃겨 놓고 마음을 열게 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해보니까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을 펴 놓고 "기도합시다."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미국에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왜 대머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는 "아내가 흰머리를 뽑고 밤낮 키스를 해 줘서 벗겨졌어요." 하고 웃으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즉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왜 고요한 장소를 찾습니까? 시장 한복판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 첫말을 잘 꺼내야 하고, 논쟁이나 자기 방어는 금물이며, 단단한 돌과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정적 태도가 아닌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며칠 전 책을 보게 되었는데, 가든 그로브에 살고 있는 쉴러 목사님의 아내가 "나는 평생 남편하고 50년을 살면서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사업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읽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부부지간에 대화를 잘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요셉과 마리아 등입니다.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심장입니다. 머리와 심장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피가 아래 위로 통하고 잘 순환되어야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통해 마음을 교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를 하되 천국방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말, 일본 사람은 일본말,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있듯이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이 사용하는 천국 방언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남편에게 가져다 놓다가 실수하여 국그릇을 엎어 남편의 양복에 묻었다고 합시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화를 내면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이래? 몇 번째지? 또 하는구만, 형편없어, 기가 막혀, 아침부터 왜 이래? 재수 없네. 저런 병신하고 살려니 팔자가 사납구나, 복통이 터진다, 내 자식이 불쌍하다, 밥통아, 닥쳐라, 꺼져라." 등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화를 내지 않고 아내 얼굴을 보면서 남편이 더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며 천국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걱정하지 말아요, 미안할 것 없어요, 그것 가지고 뭘 그래요? 빨면 되지요, 그래야 세탁소도 먹고 살지 않겠소? 당신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같은 값이면

이 천국방언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노여운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한마디의 날카로운 책망이 아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부지중에 나온 실언이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어 찌르는 가시를 일평생 남겼도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슬펐던 마음에 광명을 주고, 동정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기쁜 말 한마디가 캄캄한 앞길을 광명케 하였도다. 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네가 발표한 말뿐 아니라 네가 말하지 않은 태도에도 많은 마음들이 아픈 상처를 입었도다. 네가 또한 말했다면 많은 아픈 가슴을 풀어 주었으리니 과연 말 한마디는 중요하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망의 불을 줍니다. 반면에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 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큰 축복을 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입을 숯불로 지져 달라고 하였습니다. 입에 자갈을 물리고,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 땅에 쏟은 물, 잃어버린 기회,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 15 : 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지간에도 "I am sorry", "Thank you", "I

love you"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은 남의 발을 밟으면 "Excuse me" 하고 상대방에서는 "That's all right" 하는데 한국 사람은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눈이 없어?" 하는 야박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부부간에 대화를 나눌 때 아름다운 천국 방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원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한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애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 : 4)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신, 정신,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육신의 양식, 정신은 정신의 양식,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딤후 3 : 16, 벧후 1 : 21).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언제 썼는지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 : 16~17). 두 가지로 축약하여 말한다면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역대 유명한 위인들이 성경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으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했으며, 나폴레옹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산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테니슨은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라고 했고, 칸트는 "성경은 인류의 최대 유익이다."라고 했으며, 스트와드라는 사람은 "인류의 희망의 진보는 성경의 감화력에서 온 것이다." 루터는 "100만 권의 책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성경 한 권이 없으면 그 책들은 죽은 송장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정의 삶에 직접적으로 무슨 유익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벧전 2 : 2), "신령한 양식"(렘 15 : 16)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어야 울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신령한 젖을 먹어야 그 집에 울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싸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므로 그 양식을 많이 먹으면 싸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신령한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무한한 지혜를 얻는데, 많은 인생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매한 인격을 조성해 줍니다. 마태복음 5~7장을 읽어보십시오. 톨스토이와 성 프랜시스, 인도의 간디는 산상보훈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체력 · 지력 · 덕력뿐만 아니라 영력을 제공하여 줍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고 마음

이 착잡할 때 시편을 1~150편까지 단숨에 몇 번씩 읽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가정생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갖춘다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해도 곧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애정과 사랑이 식었다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몇 번 읽으시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욥기를 읽고, 답답하면 시편을 읽고, 고독하면 복음서를 읽고, 가난하면 전도서를 읽고, 병 들었을 때는 마가복음을 읽고, 이해가 부족하면 잠언을 읽고, 부부 애정이 식었을 때 아가서를 읽으면 사랑의 불길과 애정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 105).

넷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지붕과 같아서 지붕이 없는 집은 비를 막을 길이 없고, 그 집에 비가 내리면 평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단순하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신령한 호흡, 신령한 양식을 얻는 것, 능력을 얻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서약하고 책임을 지는 것,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능력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영

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약해졌을 때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못 하겠으면 주기도문을 자꾸 반복해서 읽거나 사도신경을 읽거나 암송해 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멜란히톤은 루터가 하루에 네 시간씩 기도하고 나오는 얼굴을 보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열심히 기도를 드리신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드리고 한적한 곳이나 광야에서, 높은 산에서도 기도드리셨습니다. 또 이마에 피땀이 나도록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한데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고(약 1 : 5),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하였으며(시 50 : 15), 또 능력을 원하면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막 9 : 29).

제가 어느 시골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그곳에 있던 친구 목사가 귀신들린 사람이 있으니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들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칠 수 없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한 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만약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가서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했다면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혹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들어왔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이 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인생은 대양을 항해하는 하나의 뱃조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마치 이러한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가정은 넓고넓은 바다에서 천성이라는 미항(美港)까지 가는 하나의 조각배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세상의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몇 달 가면 끝이 나지만 인생의 바다, 고해는 30년이 가도 끝이 없고 70년이 가도 끝이 없는 머나먼 바다입니다. 이러한 거칠고 험한 바다를 끝까지 평안하게 가려면 바다를 창조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정이라는 배 안에 함께 계실 때 가능합니다. 선장 되시는 분이 있기에 안전하게 미항까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 : 39)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가정에 풍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부문제, 자녀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께 절대 복종한다면 모든 풍랑이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 : 31).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 : 8). 모든 가정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삼는다면, 또 내 고집과 감정, 혈기, 정욕, 욕심 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 찾아서 산다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이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 퇴락하고, 도덕이 문란해지고, 이혼을 식은 죽 먹듯 하지만 예수를 가정에 모시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이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이 문제가 있지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튼튼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 : 12). 삼 겹 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살면 그 가정은 끊어질 수 없고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강단에 있는 꽃을 보십시오. 이 꽃은 야생화가 아닙니다. 화원지기가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을 받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모든 가정도 우연히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가정이 꽃보다 더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행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란 대화를 계속하되 천국 방언으로 대화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인물도 길러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4부

나라 사랑

3·1운동과 기독교 (행 17 : 26~27, 요 8 : 32)

6·25의 역사적 의미 (대하 20 : 14~19)

해방 50주년과 희년 (시 126 : 1~6, 레 25 : 10~12)

느헤미야의 조국애 (느 1 : 1~7, 6 : 15~17)

노동의 기쁨 (창 1 : 27~28, 3 : 19)

3·1 운동과 기독교

사도행전 17장 26~27절
요한복음 8장 32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1절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므로 한국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3·1절을 맞이한 오늘 그날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3·1 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서 맨주먹으로 자유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1919년을 '아시아의 해' 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유는 1919년에 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 세 나라에서 자유독립을 위한 큰 혁명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에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 같은 해 3월 31일 인도에서 네루의 주도하에 대영시위운동, 동년 5월 4일 중국 북경대학생들이 주동해서 항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 운동이 있은 후 비록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민족은 이 역사적 사건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과거

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를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찾아서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역사를 상고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3 · 1 운동과 기독교를 연결하여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3 · 1 운동의 배경

3 · 1 운동이 일어난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가혹한 무단정치에 대항하기 위해 괴로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905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하여 아시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우선 한국 점령을 목표로 삼고 침략을 하였습니다.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만주땅의 많은 자원을 확보해서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5년 한국의 치욕적 사건인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맺어 공포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이란 "한국은 미개한 나라다, 후진국이다, 자기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이 보호하면서 이 나라를 지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비분을 느끼고 을사조약의 흉악한 원범이었던 이토오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 사내총독(寺內總督)이 강제로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을 맺었는데 이 조약은 허울좋은 내선일체(內鮮一體)였습니다. 그런데 1910년 12월 29일 사내총독이 평안도 선천을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조작해서 유화정

책에서 무단정치로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무단정치란 무기와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헌병과 경관의 무력으로 한국의 많은 사상가와 애국자를 투옥시켜 비인도적인 고문을 하고, 특히 기독교에 일대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세 가지 고유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도 박탈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서 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발표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등국민으로 차별대우를 하자 선조들은 여기에 분개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의 착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한국 침략을 위한 조직적인 단체로 일본 농민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워진 회사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강토를 빼앗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논과 밭을 빼앗고, 광산을 빼앗았습니다. 임업권, 어업권도 빼앗겨 금방석 위에 앉은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승리한 연합군들이 파리에서 세계 평화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14개 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인즉 "모든 강대한 국가 아래 지배받고 있는 약소민족(弱小民族)들은 각기 그들의 민족 자결권(民族自決權)을 가지고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스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자유를 위해, 독립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일본의 독살(毒殺)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퍼지게 되어 온 국민이 분개한 상태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동하는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마침 3월 3일 국장(國葬)을 치르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 때를 같이하여 국장을 이틀 앞둔 3월 1일 오후 2시 탑골 공원에서 33인의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낭독으로 3 · 1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3 · 1 운동과 기독교

물론 3 · 1 운동은 기독교에서 다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인, 불교인을 비롯해 모든 2천만 동포 전체가 가담한 거족(巨族)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기독교가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역사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다른 단체나 종파의 조직이 약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만주와 러시아 근처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가운데 천주교인, 불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16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운동에 협력해서 외국과 연락을 하였고, 외국에 편지를 보낼 때 선교사들이 도와주었고, 전국적으로 3 · 1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전국에 통지한 것도 교회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3 · 1 운동과 기독교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3 · 1 운동의 행동 지침이 되는 공약의 내용도 기독교 정

신과 부합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나타내는 민족자결과 대동단결, 비폭력주의의 세 가지였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할 때 지도자들은 위의 세 가지를 굳게 지키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3대 정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민족자결주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거주(居住)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행 17 : 26). 이 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 나라는 우리 분깃,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다시 되찾자는 주체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약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상은 한국 사람은 삼천리 반도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우리 겨레에게 살라고 정해 주신 땅이고, 일본 사람이 우리 땅을 점령하고 북간도, 시베리아로 내쫓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니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민족자결, 주체사상의 발로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네 가지로 밝혔습니다. 반만년(半萬年)의 역사를 가진 나라, 독립은 2천만 인의 공통 의사, 민족의 영원한 자유발전을 위해, 인류의 양심적 발로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민족자결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사람에게 빼앗긴 네 가지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존권에 대한 박탈, 정신발달의 박탈, 민족번영의 박탈, 인류 공헌 기회의 박탈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외교도 안 되고 외국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이 환송을 받으며 유럽으로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아직 우리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디 감히 한국이 국제 무대에 얼굴을 나타내겠습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모를 당한 민족인데 조상들이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정신의 발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일파 자녀 몇 사람만 좋은 학교를 가고 유학을 갔지, 많은 좋은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직업학교나 노동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창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발전할 텐데 민족 번영을 막았습니다. 세계에 공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로, 손기정 씨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나타낸 것이 아니었고 일본이 우승을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전민족의 단결입니다.

대중일원화(大衆一元化)로서, 이 운동은 사상의 구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상으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종파로 갈라졌지만 그때는 사상의 분열도 없고 남북의 분열도 없고 교파도 남녀 노소, 빈부 귀천도 없이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단결하여 전개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세계에 허위로 한국을 '미개한 나라, 후진국, 분열을 좋아하는 민족, 단결하지 못하는 족속' 이라고 그릇되게 선전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 : 1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약 3장에 제시한 이 단결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가 되라는 단결의 정의를 뜻합니다.

셋째로 비폭력주의입니다.

무저항주의입니다. 그들은 총과 칼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며 사람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만세만 부르는 비폭력주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

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 : 52)라고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공모를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잡으라고 짜고서 가까이 올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잡히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말없이 피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비폭력주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그 당시 외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돌아가서 기사에, "1919년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한국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맨주먹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점이다. 일본 사람은 야만인이고 한국 사람은 문화민족(文化民族)임을 알았다. 일본 사람은 군대, 무기, 총탄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 정신력을 가지고 맨주먹으로 일본에 항거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폭력에 대한 비폭력 운동을 한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폭력 앞에 맨주먹, 지팡이를 가지고 비폭력으로 대항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강포한 빌라도의 폭력 앞에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대항하셨습니다. 기독교 300년 동안 로마 정부가 잔인하게 핍박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비폭력주의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영국에 대항해서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주의로 싸워 마침내 해방을 시켰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백인 우월주의에 맨주먹으로 대항하여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 주는(마 5 : 39~41) 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나약한 비겁자의 말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

킬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비폭력주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세, 예수, 기독교 300년 간의 초대 교인, 간디, 마틴 루터 킹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 5 : 5). 나폴레옹이 "우리는 칼과 창을 가지고 세계를 재패했지만 지금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점령한 곳이 오대양 육대주 없는 곳이 없구나. 이 땅을 뺏을 자가 그 누구랴?"라고 말한 것은 비폭력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2)라는 말씀도 비폭력주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 3 · 1 운동과 그 희생

3 · 1 운동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보면 일본 사람의 총칼에 죽은 사람이 7,645명으로 나타났고, 부상자가 45,562명,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46,800명, 행방불명 된 사람이 15,10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건물 피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51개가 불탔고, 학교 세 곳이 불탔으며, 죄없는 선량한 백성들의 집 715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기독교의 피해는 체포된 목사가 134명, 신자가 6,496명, 감금당한 사람이 2,656명이고, 기관 지도자가 220명이고, 순교한 사람도 많지만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 천안문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등소평의 권위가 그 사건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을 볼 때 역사가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광주사건은 참으로 비참한 사건이다. 하지만 3 · 1 운동은 더

엄청난 비극이었다."고 말입니다.

넷째, 3·1 운동의 결과

맨주먹을 가지고 그 날 이후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싸웠는데, 일본 헌병들이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죽여 삼천리 강토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 12 : 24)고 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 발전에 거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은 주어야 얻고, 영생은 믿어야 얻고, 자유는 투쟁을 해야 얻는다고 말한 것처럼, 맨주먹을 가지고 싸운 비폭력 운동은 헛되지 않고 한국에 네 가지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자각, 단결, 창의력,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에게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정치를 조금 잘못하더라도 주권을 빼앗겨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파 싸움만 하고 개인의 권세욕만 부리고 국력을 기르지 않아 이런 수모를 당한 것을 자각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단결을 못하는 이유는 산악이 많아 교통이 발전하지 못해서 서로 대화나 친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700년 동안 투쟁하고, 조선 500년 동안 무인을 얕잡아보고 문인만 위하다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큰 피해를 입고 나서 무력을 길러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당파 싸움만 계속되었습니다. 뭉쳐야 산다는 것을 이 운동을 통해 깨닫고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의력과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공약 3장 중에 우리 민족의 잠재된 위대한 창의력과 뭉치면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열만 하는 민족, 때리면 맞기만 하는 민족이 아니라 좋은 일에 힘을 합할 수 있고 그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창의력과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섯째, 임시정부의 탄생

그동안 내놓을 만한 민족의 대표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우나마 3 · 1 운동이 전개되고 나서는 상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여 민족 실력(民族實力) 배양(培養)과 자주 외교(自主外交)와 군사력 양성과 독립운동을 계속할 만한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이 3 · 1 운동의 대내적으로 얻어진 귀한 결과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요 자주성을 넉넉히 가진 민족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중국의 국부(國父)라고 하는 손문 씨가 3 · 1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청년들에게 "중국 청년들아, 한국 청년들을 보라."라고 말했다 합니다. 일본에 유학갔던 한국의 지성 청년들이 일본 동경에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 · 1 운동 전개 때 모든 청년들이 가담하였고, 불의를 말살시키고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주동이 되어 싸웠습니다.

인도의 네루는 자기 딸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한국의 젊은이를 보라. 마음에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그가 죽었지만 그 딸이 수상이 되고 그 아들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3 · 1 운동을 통해서 온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세계로부터 일본은 규탄을 받았습니다. 자기 나라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즉, 자

유와 평등을 주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데 총으로 맨주먹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것을 세계가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보니 끝까지 어린아이, 할머니, 여자도 죽으면서까지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니 무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유화정책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투옥(投獄)하고 고문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설득시키고 호소하고 타협하는 유화정책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해 한국 사람을 괴롭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선량한 우리 젊은이들을 지원병으로 끌어다 많이 죽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처녀를 위안부(慰安婦)라는 이름으로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로 데려가 일본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누이가 하루에 20, 30명을 치러냈다는 것은 정말 천인공로할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만주땅에서는 한국 사람을 붙잡아 화학 무기를 만드는 실험 도구로 이용하다 죽여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주의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사할린에서 조국을 그리며 죽은 사람의 피와 울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일본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땅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봅니다. 도둑놈도 나쁘지만 도둑을 맞도록 방치한 사람도 나쁜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면 도둑맞지 않았을 것을, 우리 조상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좀 더 먼 장래, 외국 사정을 생각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당쟁(黨爭)만 하고 권력 싸움, 중상 모략만 일삼다가 큰 망신을 당한 것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국민 전체가 한

것이 아니라 군벌과 몇몇 정치가와 자본가들이 한 짓입니다. 죄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해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실 동양선교교회가 시작될 때 이 의자를 주고 여러 가지 자문해 준 사람은 일본 성결교회 가다끼라는 분이셨습니다. 해외에 나온 일본 사람과 자라나는 2세에게 큰 원수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고 협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3 · 1절 운동 정신, 즉 민족자결 주체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후손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 뿌리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노벨상을 타고 그 사람의 생일을 연방 휴일로 정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뿌리, 즉 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캘렌 교수는 이민 온 사람들의 의식주 등 여러 가지를 바꾸는 가운데 혹 남편도 바꿀 수 있고 아내도 바꿀 수 있지만 조상과 피는 못 바꾼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주체성 · 뿌리의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지상주의, 배타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얼만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매 사상이 발하여 바로의 궁정에서 나와서 민족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 같이 고생하다가 민족을 해방시킨 것과 같이 얼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결입니다. 단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왔어도 단결을 잘 못하는 족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한데 단결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보아도 한국 사람은 태권도, 활쏘기, 수영 등 개인운동은 곧잘 하지만 단체운동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

나 미국 사람들을 보면 농구, 풋볼과 같은 단체운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하는 단결은 한국 사람만 똘똘 뭉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이웃과 미국에 있는 타민족과 뭉쳐야 한다는 것이 3 · 1절 정신입니다.

다음으로, 비폭력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비폭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비폭력주의이고, 백인이 절대다수인데 흑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므로 아예 비폭력주의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열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할 때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남자가 여자에 대한 예절이 부족한 것(미국 왔으면 미국 풍속을 따라 여자에게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내줘야 할 텐데 자기가 먼저 가서 앉고 배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문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화장하지 않는 것),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드는 것(식당 가서 옆의 사람은 안중에 없고 시끄럽게 떠들고 비행기 내에서도 떠듭니다. 떠드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입니다. 그리고 공공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 물론 영어가 좀 달려서 그렇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정치 못한 복장, 미국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보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들 정장을 입고 옵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얇은 옷을 입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거울을 몇 번씩 보고 갈 텐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복장이 단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익 사업에 인색함, 웃지 않는 얼굴 등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항상 웃습니다. 뒤처리도 부족합니다. 공원, 바닷가에 가서는 쓰레

기를 버리고 옵니다. 옛날에는 한국의 어디를 가나 물이 맑아 그냥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산꼭대기를 가도, 어디를 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뒤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뇌물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을 줬지만 그걸 봤는지, 한국 사람들도 뇌물을 잘 줍니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은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 법규 위반을 했는데 흑인 경찰을 보고 "Look at me one time."(한번 봐 주세요)라고 하니까, 흑인 경관이 "No soup."(국물도 없다)이라고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조건없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은 모르지만 미리 뇌물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뒤 수고한 이민관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으나 절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지 못한 것을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끼리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폭동이 났을 때 시가행진을 하면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반씩 섞어서 흔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태극기만 흔들고 있으니 백인들의 눈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간판도 머지않아 당회와 제직회에서 의논해서 교회 이름을 Oriental Mission Church로 바꾸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믿는 성도들로서 교제와 대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백인들이 한국인을 보고 이등국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역사가 길고 문화가 4천년이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경제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이등국민

으로 봅니다. 이것은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은 다 이등국민으로 봅니다. 백인이 먼저 와서 자리 잡았고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유색인종을 이등국민으로 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흑인들에 대해서도 이는 이로 총은 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게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잘못하면 그 총으로 인해 안 죽을 사람도 죽습니다. 인종문제라는 것은 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3 · 1절을 맞이하면서 위에서 말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3 · 1 운동의 민족자결, 주체의식을 다시 기억할 뿐 아니라 모르는 후세에게 그 정신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3 · 1 운동의 주체의식과 단결과 비폭력 정신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 못지않게 수준 높은 깨끗한 생활을 할 때, 바른 생활을 하면서 세금도 잘 내고 좋은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일등국민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3 · 1 정신을 가지고 교회들이 모두 뭉치면 참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뭉쳐 미국을 위해 공을 세워야 합니다. 한걸음 나아가 남북한 문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측면에서 직접 간접으로, 물심양면으로 조국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3 · 1 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한국의 주체의식을 심어 줌으로써 세계에서 일등국민이 되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선량한 한국의 시민으로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의 역사적 의미

역대하 20장 14~19절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6 · 25 사변일은 비극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무심코 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상고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찾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아마 나이 50세 이전의 사람들은 6 · 25 사변이 무엇인지 잘 기

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이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6 · 25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때로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 · 25 사변만큼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엄청난 손해를 본 사건은 없었습니다. 6 · 25의 피해를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으로 죽은 사람이 41만 5천여 명, 부상자가 1백7십4만여 명, 실종자가 46만 9천여 명이 넘습니다. 미국과 우방 유엔국의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죽은 수는 5만 7천이 넘습니다. 부상자는 2백2십7만 명이 넘고, 실종자는 2천 8백여 명입니다. 그리고 남한 땅에 파괴된 집이 60만 가호,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던 피난민이 2백5십만이 넘습니다. 이런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도 패자도 없고 38선만이 지금도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이 비참한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인 두 흐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국제 조류와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고질된 대립 감정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6 · 25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6 · 25는 미국의 미온적 대공정책에서 기인한 것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終戰)된 지 불과 5년밖에 안 되었던 그때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규정되어 나갈 때였습니다. 중공은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중국 전토를 다 장악한 때이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아직 강화조약이 성립되기 이전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마샬 플랜에 의한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6 · 25가 일어나기 직전에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대승하였고, 월남에서는 호치명이 월맹공화국의 독립선언을 하였고, 인도에서는 공산당의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일본은 국제 공산당으로부터 미온적(微溫的) 투쟁방법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武力) 투쟁으로 세계를 향해 전진하던 때입니다. 모스크바, 이탈리아에서 파리로 전지구를 격파시키겠다는 야망에 불타던 때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적극적, 투쟁적, 침략적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아주 소극적이고 특히 극동정책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타협적이고, 평화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백인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므로 미국 정책에서 외국을 생각할 때 유럽은 자기 조상의 나라이기에 우선시하고 아시아는 나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공산당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완전한 자유 활동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의원, 주의원, 국회의원 가운데 공산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한 미군군정 하지 장군은 한국 공산당 활동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하지 장군과 이승만 박사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마샬 장군의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추진해 주던 때입니다. 그 반면, 워드마이어 장군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노선에서 대립을 하던 때였습니다.

장개석 씨는 미 육군 7개 사단을 파견하여 소련과 중공의 적화

를 막자는 안을 마이어 장군에게 주어서 미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든 문제시 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 그것을 의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위대한 전쟁 천재라고 불리는 맥아더 장군이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으나 미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옷을 벗겨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1950년 1월 12일,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전국신문기자협회 연설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어떤 침략을 받아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랫동안 남침을 꿈꾸고, 소련에서 많은 탱크와 비행기, 잠수함까지 받은 김일성이 6월 25일 주일 아침, 이 작은 땅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6 · 25 사변의 요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사에서 본 6 · 25

6 · 25가 미국과 소련 양국의 정치적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주체적 참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 · 25는 한국인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인 동질성의 파열에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분단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말이 나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주후 7세기 중국 당태종이 한국의 분단을 계획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

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강을 분단선으로 제안하였고, 일천 종림 때는 영국의 외상 킴벌리가 동양 평화를 위해 한반도의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일전쟁 때는 일본 수상 야마가타(山縣)가 38도선을 분할할 것을 소련에 제의하였습니다. 이토록 긴 역사 동안 분할문제가 많이 논란되다가 결국 1945년에 현실로 나타나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맹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우선 그 나라가 멸망할 짓을 한 후에 남이 멸망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내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왜적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내부가 썩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 강대국 회의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900년이나 뒤떨어졌다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보다 50년 뒤떨어졌고, 중국이 남한보다 30년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해방 직후 얼마나 혼란했던지 미국보다 900년 떨어진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어느 한 신문 기자가 한국을 돌아보고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6 · 25 직전에 북쪽에서도 세 파로 싸웠습니다. 김일성이 이끄는 소련파, 김두봉이 이끄는 연안파, 박헌영이 이끄는 국내파로 공산당이 세 파로 싸우다가 모두 숙청당하고 김일성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한도 두 파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끄는 남북협상파, 이승만 씨가 이끄는 단독정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 일본, 이스라엘도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국회의원 중에 공산당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에 대해 대립하기도 하지만 의논을

통해 종합적인 타협을 이끌어내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아직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수준의 얕음과 민족의 고질적인 인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정치적인 훈련이 미숙해서 6 · 25가 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6 · 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6 · 25가 우리 민족에게 큰 손실과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 우리에게 크고 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6 · 25는 우리 나라에 영원한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6 · 25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값비싼 교훈을 배우고 얻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민족적 참회의 기회였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죄악이 만연한 니느웨 성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온 백성과 모든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라는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족적으로 멸망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산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탄왕이라는 임금 때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천초목도 다 말라 죽고, 사람들과

가축들도 죽게 되었을 때 왕이 베옷을 입고 뒤뜰에 가서 배지조각을 놓고 그 위에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발톱을 잘라놓고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정치가 절제를 잊었습니까? 백성이 실직을 당했습니까? 궁실이 너무 높았습니까? 여인들이 정치에 농간을 했습니까? 뇌물이 오갔습니까? 모략이 성행했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큰 비가 쏟아져 풍년이 들어 백성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6 · 25는 우리 민족의 참회의 기간이었습니다. 공산군들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내려와서 서울, 대전을 점령하고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포항, 대구, 마산, 부산만이 남아 있다가 끝내 모두 적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믿는 장관, 국회의원,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부산 광복동교회와 초량교회에서 모여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철야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세를 만회해서 공산군을 북한으로 멀리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비록 개인이나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2)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6 · 25 이전까지는 그저 공산주의를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들은 풍월과 책자,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즉 공산주의는 계급이 없고, 일은 적게 해도 배불리 먹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얻는다, 자기 소유 없이 산다, 경찰서와 감옥이 필요 없고 가난한 자의 천국이라고 알았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다 거저라니 얼마나 살기 좋은 이상론입니까? 그런데 공산당이 넘어와 하

는 짓을 보니 사람을 파리 죽이듯 죽이고, 좋은 것일수록 뺏고, 강간도 하고, 계급이 있는 것을 볼 때 공산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구성을 발견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국가가 된 것은 공산당에게 한 번 쓰라린 고통을 당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사회, 경제는 어느 정도 분석했지만 인간의 본질은 분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 혁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자아혁명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 경제 제도를 고치면 지상낙원이 이룩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도 사람이 바로 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며, 사람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거듭나는 변화를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공산주의는 모두 망하였습니다. 소련에 가 보니 소련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북한뿐입니다.

(3) 민족적인 연단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3년 동안 싸웠습니다. 3년 동안 밀고 밀리는 접전이 많았습니다. 특히 1 · 4 후퇴 때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저도 그 때 신자들과 함께 백일 된 첫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피난민 속에 다니면서 어떤 때는 논둑, 헛간에서 밤을 새고 공산당에 쫓겨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민생활은 고생이라 할 수조차 없는 천국생활입니다. 한국 사람이 정신적 · 육체적으로 강한 훈련과 연단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빨리 자리잡고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이 한 번은 밤에 지나가다가 어떤 곳에 불이 켜져 있고 자동차가 바쁘게 왔다갔다하고 작업이 한창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일하고 있나' 하고 궁금하여 물어 보니 바로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한국 사람은 밤잠도 자지 않고 부지런하다고 감탄하여 자꾸 일감을 맡겼다고 합니다.

제가 가나에 가 보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가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3분의 1밖에 못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간 한국 사람은 특별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더 강인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천 년 동안 세계 각처에서 수모, 멸시, 천대를 받았으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게 일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의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과 훈련을 통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 언론인 데이비드 헬버스텐은 한국이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소련이 한국의 기술과 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4) 많은 북쪽의 동포들이 월남을 하였습니다

만약 6 · 25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북쪽에는 공산치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평양에는 북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6 ·

25로 인해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자기는 김일성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문이 생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6 · 25사변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브라질까지 못 올 것을 그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6 · 25 때문에 미국까지 나온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보면 6 · 25 때문에 수십만 명이 남한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에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가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부흥은 북쪽에서 온 분들 가운데 열심이 있는 분들이 부흥의 불길을 붙인 줄 믿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것처럼 북쪽에서 온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한국 문화의 국제적 교류입니다

6 · 25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 지도에 한국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나라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6 · 25가 터져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려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16개국의 유엔군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어디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59년에 미국에 와서 다섯 달 동안 텍사스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 청년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

느 미국 청년이 한국을 알고 있기에 어떤 나라로 알고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구제품의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6 · 25로 인해 문화가 교류되고 많은 한국의 딸이 유엔군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거기에 심고 문화를 가져오는 국제 교류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6) 한민족의 세계 진출입니다

우리 나라는 그 전에 일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계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 · 25가 터짐으로써 반공포로들이 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 캐나다, 남미로 가는 세계 진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가니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인민군 포로로 있다가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 신학교를 나와 브라질 원주민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고아들이 전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6 · 25는 한민족 세계 진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의 자세

(1)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국토와 주권을 지켜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고, 문화를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국제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돕자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만약 소련 대표가 와서 파병 부결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이 한국에 파견될 수 없어 아마도 대구, 부산까지 다 뺏기고 공산화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그 자리

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사는 급히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그의 운전기사가 곧 차를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다 나중에 회의장에 들어오니 회의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6월 25일, 미국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시간이 하루 늦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어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 신자들에게 북한의 공산군이 남침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전쟁이 났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신자들 가운데 한국에 선교사와 물질을 보내고, 남편이 가서 순교한 가족이 울면서 하나님의 자녀들(한국인)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야 하느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구해 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후에 5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희생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켜 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작은 나라에 불과한 한국을 여러 나라에서 와서 도와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 : 15),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 : 6)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 한국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모택동과 스탈린, 김일성이 한국의 적화통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웃으셨을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 군인도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미군도 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1백7십4만1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실종자가 2천 8백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아 계시겠습니까? 6 · 25를 겪은 분들은 다시 한 번 감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군과 국군들의 고귀한 피흘림, 죽음으로 오늘 우리 나라가 존재함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6 · 25때 부상을 당하여 눈먼 사람, 팔 잘린 사람, 두 다리가 잘린 사람, 전신마비가 되어 고령이 된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 개인적, 국가적 실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것은 서독의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을 군국주의, 못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현재 일본이 세계에서 큰소리치고 대접받는 것은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실력을 길러야 하겠지만 영력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 뜻대로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 교육 발전은 차이가 커서 어렵지만 당장 영력을 길러야 합니다. 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기도에 전 교인이 모두 참석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은 어쩔 수 없

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집안일을 하기 전에,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하는 일에 앞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변화 가운데 특히 영력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영력이 강해지면 악한 세상을 선하게 이길 수 있고,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 매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심어 준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도들로 인해 잠자는 교포 교회와 미국 교회의 성도들을 깨울 수 있게 되도록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 조국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서 이 자유의 땅, 풍요한 미국 땅에 보낸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자손들은 영어도 잘하니 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조국통일을 향해 중간 입장이 되어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북한을 드나드는 것은 풀밭을 드나들면 길이 뚫리지 않겠느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마르크스 사상보다 강하기에 언젠가는 마르크스 사상을 삼키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의료선교단에서 북한에 의료 기구를 사서 보낼 뿐만 아니라 의자 200개

를 보내려고 합니다. 큰 일을 못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살아남은 우리들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는 등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야 하겠고, 복음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해 기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50주년과 희년

시편 126편 1~6절
레위기 25장 10~1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은 북방의 강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강국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고레스 왕이 은전(恩典)을 내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바로 70년 종살이 후에 꿈에도 그리던 정든 고향에 돌아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해방의 노래'라고도 일컫습니다. 우리 민족도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아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UN연합군의 승리와 선열들의 국내, 국외 투쟁의 결과로 해방을 맞이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르고, 7년에 한 번씩인 안식년이 일곱 번 더해지는 그 다음 해를 안식년 중의 안식년이라고 해서 그 해는 온 국민이 기뻐하는 귀한 해로 보냈습니다. 따라서 올해 1995년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해방 50주년과 희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문화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상고하는 의미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하는 그 사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해방을 받아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여 약속의 땅에 안착(安着)한 역사적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3,500년 동안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모아 놓고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중에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르치면서 깊은 민족애를 불어넣어 주는 뿌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정신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각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1/3이 유대인이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있어서도 유대 민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시편 126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고, 4절은 북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속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이며, 5~6절은 이제 돌아왔지만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해방의 기쁨

해방을 맞은 기쁜 사실 앞에서 이들의 네 가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있었고, 찬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은 마치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강토를 유린(蹂躪)당하고, 백성들은 우마(牛馬)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신음하던 중 해방을 맞게 된 한민족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의아했을 것이고, 웃음과 노래, 기쁨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해방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할 때에 참 해방이라는 것이 꿈과 같은 황홀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것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으로서 극도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임금을 신이라고 해서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바사에게 갑자기 망하게 되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니 현실로 느껴지기보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해방되었을 때 이것이 꿈인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대 강국으로 문화 · 경제 · 정치 ·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청일, 러일전쟁에서도 이겨 그들이 한국을 점령하였고, 대만, 사할린, 만주도 점령하여 일본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중국을 점령하고,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까지 침략하였습니다. 남쪽으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호주까지 폭격을 하고, 그리고 진주만도 폭격하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들이 원자탄 두 개에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군벌들과 자본가들은 끝까지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강하다. 일본 국민 남녀, 어린이들까지 대창을 가지고 최후까지 싸우면 미국은 손을 들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군벌들과 달리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천황을 설득하여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해방되어 꿈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2)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교만하여 호령을 하더니, 그만 나라가 망하고 우상이 부서지고, 그 백성들이 거꾸로 노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웃음이 생겼습니다. 화무 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권력은 십 년을 못 간다고 하더니 바벨론이 무너지고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왔으니 그들에게 웃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일제의 지배하에서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중국, 만주, 일본,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웃음을 잃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 시대에는 주권을 빼앗

겼고, 강토는 짓밟혔으며, 백성은 이등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농사는 많이 짓지만 군량미로 빼앗겼습니다. 광산, 임야, 어장, 문전옥답도 다 빼앗기고,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붙잡아 가고, 장년들은 탄광의 노동자로 붙잡아 갔으며, 처녀들은 군인들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위안부로 붙잡아 갔습니다. 또 전쟁 무기를 만든다고 놋그릇, 숟가락, 젓가락도 다 가져가고, 교회의 종도 모두 떼어 갔으며, 애국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자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일본은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으니, 즐거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 모두에게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하던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북한에서 만주, 중국을 통해 한국에 온 한 가족을 신문 기자가 찾아가 그 가장에게 "당신 가정이 한국에 와서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면 말해 보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내 아내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당신은 왜 이북에서 안 웃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굶어죽게 되었는데 무슨 웃음이 나옵니까?"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독일의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종교 개혁자 루터가 목회하고 가르치던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동독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그분이 말하기를, 독일이 통일된 후에 두 가지 사실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집집마다 새롭게 단장을 하였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공산국가였던 소련에 갔을 때도 특징적인 것 하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노래와 웃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웃음이 없었으나 이제는 돌아와 자유를 얻었고, 정든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입에 웃음이 가득함은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3) 혀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포로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기쁠 때 부르게 마련입니다. 해방의 감격을 노래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제 시대에 노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봉선화"였습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무궁화 삼천리 강산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보따리와 바가지를 차고 신의주를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는 처량한 강제 이민들의 서러움은 당해 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때 한국이나 여기저기 흩어졌던 한국 사람들에게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없는 나그네……" 같은 슬픔의 노래나 불렀습니다.

해방이 되니 가난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길거리 옆 초가집에 모두 태극기를 걸어 놓았고,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대한 독립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불신자도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공산당도 "……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당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4)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생활을 끝내도록 행하신 일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일본군에게 강제 징집되었던 청년들도 돌아왔고, 탄광에 갔던 사람들도 돌아왔으며, 남양군도와 아시아에 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위안부로 갔던 여자들 가운데서도 1/3은 돌아왔는데,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해외로 피했던 사람들, 그리고 옥중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둘째, 중보 기도

본문 4절의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는 말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는 300년 전에 집 한 채 없던 사막이었습니다. 개척자들이 와서 물을 끌어들이고 나무를 심어서 오늘날과 같은 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인 이곳에서는 현재 콜로라도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먹고, 나무와 화초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공장 기계를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1, 2월에는 비가 쏟아져 물난리를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대 나라도 아주 건조한 사막국가입니다. 캘리포니아처럼 강우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는데, 마른 땅이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시내가 넘칩니다. 바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 말입니다. 즉 우기에 물이 시내에 넘쳐 흐르듯이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속히 보내 달라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 : 19)라고 하신 말씀을 익히 듣고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북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자유롭고, 배불리 먹으며 편안하게 살지만,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 : 3)는 말씀과 같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을 때도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유대 백성이 하만에게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36년 동안 고생을 하였을 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6 · 25 한국전쟁 때 공산당이 침략했을 때 공산당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건의 자세

이제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 노래는 불렀으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속으로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그냥 바벨론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낙심을 하고 뒤돌아보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농부의 실례를 들며 "농부와 같이 희망을 가져라!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인내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너희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몇 해 지나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고, 기뻐할 테니 농부의 심정을 가져라!"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이 돌아오기를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새벽부터 별 뜰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합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는 여름에 배는 고프지만 자연 법칙을 따라 결실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씨를 뿌렸으니 자라날 것이고, 결실을 맺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농부의 모습처럼 살아야 합니다. 한국도 이제 세계화를 말하지만, 진정 세계화를 이루려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한국도 앞으로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희년의 뜻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레 25 : 8). 7년이면 안식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은 일하고, 1년은 쉬는 것입

니다. 농사 짓는 것도 6년 동안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밭을 갈지 않습니다. 밭도 쉬게 합니다. 그러면 희년이 무엇입니까? 7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그 다음 해 50년째로서 민족적 대 경사의 날입니다. 다음 세 가지로 희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희년은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본문 10절 상반부에 "제 오십 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부잣집이나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세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습 노예와 전쟁에 패해서 붙잡혀 온 노예,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서 부자에게 모든 밭과 가축을 빼앗기고 스스로 얼마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입니다. 희년은 노예의 자식이건, 전쟁에 의해 잡혀 왔든, 모두 돌려 보내 해방을 주는 자유의 날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2) 희년은 화해의 날입니다

본문 10절 하반부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자기 나라,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화해의 날입니다. 여기서 화해는 용서와 자유와 탕감과 해방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 희년은 온 국민적인 축제입니다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레 25 : 9), "그 오십 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

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레 25 : 11~12).

희년에는 농사를 짓지도 말고, 밭에 스스로 난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그냥 쉬게 하면 하나님께서 희년에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먹은 쌀을 한 번 담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공중을 날아가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것도 기적인데, 마치 광야에서 5,000명이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생선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화해를 하고, 일하지도 않고 기뻐하는 온 국민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찰스 에비오도라는 대 역사학자가 자기가 일생 동안 역사를 연구한 결과로 역사 안에서 다섯 가지를 발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간 까닭에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부드럽게 갈리더라,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둑질해 갔지만 실상은 꽃씨를 퍼뜨려 주더라.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려면 권세욕이 날뛰더라.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긴 개인과 나라는 없더라. 구름 낀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사방을 보면 별 하나는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간 까닭이지만 그러나 부드럽게 갈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역사의 맷돌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벌이 꽃의 꿀을 빼앗아 갔지만 실상 꽃씨를 퍼뜨린 것처럼 결국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을 폭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개인이나 나라가 망하려면 권세욕이 높아진다는 말처럼, 박정희 씨가 권세욕에 날뛰지 않았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권세욕이 지나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긴 나라와 개인은 정말로 보지 못하였고, 흐리고 캄캄한 밤에도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해방 50년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휴전선이 그대로 있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일본 사람에게 해방을 받았지만, 해방받아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경제적, 영적인 해방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모두가 정신적으로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허무주의, 찰나주의 등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일본 사람들의 고등 기술, 즉 비행기, 카메라, 시계, 첨단 기술 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신세를 지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영적인 해방을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부패와 부정, 뇌물, 사치, 거짓, 음란 등 마귀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남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통일도, 또 진정한 해방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해방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 통일을 이룩하는 데 세 가지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는 구체제를 인정하고 연립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어느 때 가서는

통일 국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는 서독 교회와 동독 교회 목사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돕는 것으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도 교회들이 이 일에 한몫을 담당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한국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6 · 25로부터 참으로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 정치가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소련과 동유럽 공산당을 갑자기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 1,200만 성도들과 이민 교회 3,000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바른 자세로 나아갈 때 희년된 금년부터 시작하여 멀지 않은 날에 통일과 전국민이 기뻐하며 부르는 희년의 노래가 한국 강산에 메아리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애

느헤미야 1장 1~7절
느헤미야 6장 15~17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 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 역사가 오십이 일만에 엘룰 월 이십오 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그 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광복절을 맞이하면 고향을 두고 미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더욱 조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더욱 조국의 애틋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여기에 나라와 민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

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인데, 그는 유대 사람이었지만 바사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전 446년에 느헤미야가 궁전 안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친척 몇 사람이 올라왔기에 고국의 소식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하기는 포로로 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사국 왕의 허락을 받아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붙이고, 유대 나라가 다시 평안과 부흥을 되찾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운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두고 온 조국 땅이 폐허가 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국을 위해 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 나라의 중심지이며 요새로,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한탄하시며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

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 : 37).

그들은 현실에 도취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뒹굴며 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入城) 하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눅 19 : 41). 그 이유는 앞으로 주후 70년에 있을 로마 황제 디도(Titus)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잿가루가 될 것(눅 19 : 44)을 미리 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34년이 지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조국을 위해서 매일 울지는 못했지만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막내는 저보다 나중에 왔는데 그들이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흙을 가져왔습니다. 왜 흙을 가져왔느냐고 물으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멀리 와서 살지만 우리 나라의 흙 냄새를 맡아 보기 위해서 흙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 식탁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딸이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신문에 한국의 여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굴러 떨어져 많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운다고 했습니다. 비록 타국에 살지만 조국을 잊지 않고 동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던 제 딸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아파하는 눈물은 가장해서 흘릴 수 없고, 북받치는 심정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수분과 염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

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둘째, 금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에 따라 금식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삼상 7 : 6), 국가가 재난을 만났을 때(삼상 31 : 13), 민족적 위기에 놓였을 때(에 4 : 16), 큰 걱정이 생겼을 때(단 6 : 18~20),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할 때(출 34 : 28), 선교사를 파송할 때(행 13 : 3), 슬픔에 잠겼을 때(느 1 : 4)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는데, 금식이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 만큼 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금식을 하여 위기에 처했던 민족을 구한 에스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대신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여 다 잡아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왕후인 에스더는 그의 삼촌 모르드개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 4 : 16)라고 말하였습니다.

금식을 실시한 후 믿음으로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 때는 왕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에는 온통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므로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최후에는 승리하는, 즉 유대 민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조국과 자기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였습니다(느 1 : 4). 그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상태였습니다.

셋째,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이 주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느 1 : 6). 즉 심한 악행과 모세에게 명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집요한 중보기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느 1 : 5)에게 간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상황에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단 6 : 10). 이처럼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캘렌 교수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집과 음식과 의복, 심지어 배우자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바

로 조상(祖上)과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지만 진정한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 요셉이라는 목사가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체 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을 이국(異國)을 떠돌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 등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 문화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물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미국 문화만 가르치면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을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인 1.5세나 2세들이 미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은 여기저기서 쓸모가 많아서 부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르고 한국말만 알면 활동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또한 영어만 하면 그들 자신의 뿌리와 조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힘이 듭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 나라의 문화를 우리 자손들이 조화롭게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매일 요구됩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은 멸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탈피하여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는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위한 중보기도

도 열심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넷째, 조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조국를 사랑하는 마음은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국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아주 수척하여 근심에 싸여 있었습니다. 병이 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왕이 물으니 느헤미야는 나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성읍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는데 어찌 내 마음에 근심이 없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의 소원을 물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린 후에 자기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그 성을 중건(重建)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느 2 : 1~5). 그의 요구에 왕은 기꺼이 승낙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대부강국(大富强國)인 바사국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지위가 높은 신하로 의식주에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느헤미야는 편한 자리를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과 더불어 지내며 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중에 여러 원수의 나라를 통과해야 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먼 사막 길을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이 왕궁에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참 지도자는 백성들과 동고동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

고 천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하늘에서만 말하셨다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운동할 때는 중국과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해방이 되자 한국에 돌아와서 혼란스런 상황을 잘 처리하고 미국과 협상하여 독립을 찾았기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 그가 하와이에 계속 앉아서 말만 앞세웠다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본회퍼는 1906년에 태어나서 일찍이 목사가 되려고 결심하여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여 뛰어난 재능과 독창성으로 21세에 신학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중에 독일의 정치 상황은 급변하여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 유대인과 교회를 핍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국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는 히틀러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말과 글과 방송을 통해 정면으로 대항하던 중 마침내 히틀러 암살계획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전 1945년 4월 9일에 테겔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회퍼는 생전에 독일 교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가 값싼 은혜만 믿지 말고 값비싼 은총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라." 값싼 은혜는 바로 회개 없는 사죄, 교회 훈련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복종 없는 십자가, 그리스도 없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따라가지 않고 편하게만 믿으려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가르침, 자기의 말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본회퍼의 신학사상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국과 백성과 교회가 고난을 당하므로 히틀러와 더불어 정면으로 투쟁하겠다고 가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족속들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야만 싸움이 그칠 것 같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 사이에 6일 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스라엘의 청년 대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조국에 전쟁이 나자 싸우러 가려고 비자 받으러 온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싸우지, 왜 너희들이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누가 묻기를 '그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싸워서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본회퍼도 조국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자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미국에 있던 유대 청년들도 조국이 전쟁을 하니까 갔습니다. 만약 한국에 또다시 전쟁이 난다면 (나지 않아야겠지만) 저도 갈 마음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받아 주지 않으면 종군 목사로, 그것도 안 받아 주면 어떤 봉사라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건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비밀리에 예루살렘 성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성문은 몇 개가 불탔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 후 반을 조직해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항상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수축한다고 하자 이웃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여 조롱하고 연합하여 음모와 책략과 교활한 술수를 꾸미고 왕에게 참소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성 중건을 방해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에는 100% 찬성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하였습니다(느 5 : 1~7). 과중한 노력과 흉년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바사국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 자녀를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귀인들과 부자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으로 돈을 착취했습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문제가 더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느 4 : 14)라고 말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하여 원수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은 한 손으로는 일하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더니 드디어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 6 : 16)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달도 안 되어 완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 달도 안 되어 이렇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완공된 것은 첫째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내외적인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시킨 것을 통하여 몇 가지 배울 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즉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해도 쓰러지지 말자, 주위의 비난과 조소 속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사태가 불리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슬픔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나라와 사회가 불완전해도 참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경기를 만났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 역사해서 완공을 본 것같이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손 놓지 마시고, 계속 일어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을 구축한 것은 국방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느

헤미야가 성을 쌓은 것처럼, 한 손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한 것처럼 우리도 국방력을 튼튼히 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육과 경제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배가 더 많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의 생활은 형편없습니다. 북한에는 노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다 굶어 죽어서 노인이 없답니다. 남한보다 군함도 많습니다. 탱크와 비행기와 미사일도 많습니다. 구 소련의 좋은 비행기까지 사들였습니다. 아마 다시 전쟁이 나면 일 주일 만에 부산까지 싹 쓸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한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나라가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하지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청렴결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생활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 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느 5 : 14).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느 5 : 18). 그는 총독으로 왔지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주는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봉급을 받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지금 성을 쌓느라고 어려운데 그들에게 중한 짐을 지우지 아니하려고 녹을 안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연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

다. "세상의 부가 가장 경건한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해도 인류를 한 발짝도 전진시킬 수가 없다. 위대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보여 준 모범이 우리를 고상한 사상과 행동으로 인도한다. 돈이란 다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악용하게 마련이다. 모세, 예수, 간디가 카네기의 돈주머니로 무장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물질에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해도 동시에 나쁜 본을 그들에게 보여 주면 한 손으로는 음식을 주고 한 손으로는 독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 34)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들도 느헤미야처럼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봅니다. 박정희 씨는 물질에는 깨끗했지만 여자문제가 있었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씨는 자기는 한푼도 안 먹었다 하지만 그 아들이 물질에 대해 깨끗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부터 깨끗해야 하며 그 국민들은 깨끗한 대통령을 존경하며 좇아갈 때 희망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가 어떻게 하든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 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생활,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이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가치 있는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한 일이 모두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마지막에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해결하여 기뻐했으나 백성들의 영적인 갈망도 해결해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였고, 따라서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것을 다시 읽어 백성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깨닫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느 8 : 8~9). 즉 회개와 자복하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는 인간 개조(내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구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면 지상낙원이 된다고 주장하더니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독재 국가가 되고 국민들은 굶주리는 큰 감옥이 된 이유는 결국 내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와 레닌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제도를 고치면 좋아진다고 말했지만 내적 변화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령들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말씀의 부흥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 백성들이 울며 회개할 때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전이 청결해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십일조를 바치고, 가정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정치, 교육, 경제 등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용서받고 거듭나고 성령받아 새사람이 될 때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만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한국은 해방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토가 아직도 반으로 나뉘어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기계 속의 중요한 부속들은 다 일본에서 가져오고 미국에서 가져와야만 만들어낼 수 있으니 아직 경제적 해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해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의 올무에 걸려서 끌려 다니느라 참된 해방을 못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느헤미야가 울고 몸으로 가서 성을 다시 쌓고 깨끗하게 살며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같이—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기 때문에—우리도 여러 면에서 영적 각성과 아울러 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랑합시다. 우리가 비록 느헤미야같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본회퍼와 같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청년들같이 전쟁에 뛰어들어가지 못하지만 조국애와 동포애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합시다.

노동의 기쁨

창세기 1장 27~28, 3장 19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웃을 수 없는 희귀한 두 가지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8월 31일 지난 월요일에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나서 레이크 타워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가 지진으로 멸망한다는 장문의 경고 편지를 받은 일입니다. 그러자 소수의 백인들과 한국 교포들의 가정이 다른 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진이 나려면 그 징조가 있는데 개미떼들이 전부 땅으로 올라오고, 뱀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짐승들이 지진이 날 지방에서 전부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 전멸한다는 경고의 편지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부 지역 정도이지,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을 합친 크기의 두 배가 된다는 캘리포니아 주가 전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잔인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편지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교 오대양의 교주 박순자 여인 사건입니다. 이 일은 마치 1978년 인민사원의 광신자들이 교주 짐 존슨의 인도를 따라 남미 가이아나에 가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부 독약을 먹여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여서 교주와 함께 914명이 전부 죽은 사건과 비슷합니다. 박순자라고 불리는 이 여자는 권신찬 씨의 구원파에 관계되었다가 1984년도에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하나의 사교를 창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세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며 돈이 필요없으니 돈을 자기네 교회에 바치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교 단체임이 드러나게 되자 빚도 많은 상태였고, 32명이 자살하기도 하였고, 죽이기도 하는 마치 한국의 인민사원의 재판과도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신적 신자요, 광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중용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신 28 : 14). 극단적인 모습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

라"(요일 2 : 18).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사람의 영을 흐리게 하여 사탄의 뒤를 따르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만 보아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구속했고 육적으로는 구원을 시키지 못하였기에 본인이 육적 구원을 주러 온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간음죄를 지어 몇 번씩 감옥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어떻게 구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단이라 불리는 것 중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구원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사교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신앙의 뿌리를 성경 66권에 깊이 박아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곧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교파가 있어서 누가 가자고 하면 주변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문의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을 때와 같은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습니다. 보고, 냄새를 맡고, 이것이 몸에 무해한가를 생각한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 먹습니다. 연필도, 가위도, 똥도 입으로 가져갑니다. 분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무분별한 눈이 아닌 신령한 눈과 올바른 육신의 눈과 지성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9월 7일은 노동절입니다. 매년 9월 첫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키고 있는데, 잠깐 이 노동절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절은 1884년 뉴욕에서 '노동의 기사' 라는 노동 단체가 시가 행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1884년 그 기사들 중 한 사람이었

던 조지 로히드라는 사람이 그날을 노동의 날로 만들자고 건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성의 기록에 의하면 오리건 주가 처음으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였는데, 1887년 2월 21일에 발표된 이 법은 노동절을 6월 첫째 주 토요일로 지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후 1893년에 노동절을 9월 첫째 월요일로 변경하고, 1894년 미국 국회에서 매년 9월 첫째 월요일을 미연방정부 국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절을 정하고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의 고귀성을 재인식시키고 둘째, 노동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과 셋째,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많은 식구들이 가까운 곳, 먼 곳으로 나간 줄 압니다. 오늘 여기저기 빈 자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멀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 교회를 한 주일 빠져도 거기 가까운 교회나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없거든 산이나 바닷가에서 집안 식구끼리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가면 교회 연보가 적게 들어옵니다마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또 추억의 박물관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때문에 교회 살림을 맡은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목사님이 저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예배당을 나가진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엔 부담이 없어졌다며

저보고 멋쟁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보는 그 다음 주일에 꼭 두 몫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노동은 천한 것이고, 정신노동은 우월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조선 500년 동안 우리 나라에 유교 사상이 지배하여 문인은 양반이고, 농 · 상 · 공은 상놈이란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즉 글을 읽고 선비노릇 하며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문인이라 하여 양반에 속하였고, 농사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 · 상 · 공이라 하여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세도 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 천하다는 인식을 유교사상뿐만 아니라 유명한 희랍의 철학자인 플라톤과 로마의 대학자 시세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노동은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문화인인 자유인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대로마를 건설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전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노동의 신성은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이 모두 같고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성서적인 교훈과 노동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노동에 대한 성서적인 교훈

(1)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

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 : 28)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말과 '다스리라'는 말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하라'는 말로서 땀을 흘리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산을 정복하고자 원한다면 그는 부단한 노력과 땀을 흘려야만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끼니를 제때 주어야 하고, 씻어 주고, 소독도 하고, 짚도 갈아주는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원의 꽃 한 포기를 가꾸는 것에도 정성과 사랑을 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창조와 동시에 모든 인간들은 노동을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다음으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 : 19)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노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 4 : 11). 우리 모두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손의 역할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창조, 공헌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가진 손을 오늘날 잘못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 : 1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어느 서울 총각이 제주도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하여 선을 보게 되었는데, 제주도 아가씨도 서울 총각이 좋다고 하여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울 청년은 제주도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제주도 여자들은 대부분 해녀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해삼을 따서 남편과 식구들을 벌어다 먹인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여자도 같은 생각으로, 서울 남자와 결혼을 하면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에 만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게으른 이 부부는 일하기가 싫어서 마지막에는 굶어 죽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위도식하는 자요, 기생충에 비유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땅히 일을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장막을 치고 벌어먹으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노동을 생활로 실천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2)노동은 신성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실 때에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진리를 쉽고도 아주 뜻이 깊게 말씀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막 6 : 3) 하며 놀

라워하며 의아해하였습니다. 즉 목수의 아들로서 노동자인 그가 어떻게 놀라운 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상히 여긴 것입니다. 석가는 왕자이며,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요, 공자는 양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노동자로서 30년 동안 끌과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짓고, 가구를 짜고, 쟁기를 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 : 17)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시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은 젊은 부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황혼이 되어 가까운 교회에서 들려 오는 저녁 종소리에 모든 연장을 놓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세 가지의 신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종교 신성과 두 내외가 함께 일하고 지내는 부부 신성과 땀을 흘리고 하루종일 밭에서 일을 하는 노동 신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볼 때, 노동자가 노동한 대가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지 말고(말 3 : 5),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다음까지 끌지

말며(신 24 : 15),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눅 10 : 7)고 하였습니다.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주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날 벌어 그 날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고향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 25 : 4, 딤전 5 : 18)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곡식을 짓밟는 일을 소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큰 나무 같은 절구를 굴리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 그 곡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니까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을 했으면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 : 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은 주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어 일꾼들은 주인에게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동자가 영주권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아주 싼 임금으로 고용한다든지 심지어 돈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영주권이 없이 페인트 칠을 하러 다니는데 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싸게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소한다고까지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동을 착취하는 경영주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행 20 : 35),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남이 나에게도 대접을 하는 것이고(마

7 : 12),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갈 6 : 7).

미국은 대 자본주의 나라로서 노사간에 부분적인 충돌 외에는 큰 다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봉급에서 일정액을 떼서 노동자 앞으로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국가가 주인이요, 노동자는 하나의 기계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로서 잘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일본의 경영주들은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윤을 충분히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이 점점 성장하여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스칸디나비아와 노르웨이, 스웨덴을 갔을 때도 많은 일본 젊은 남녀들이 여행 온 것을 보았고,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은 다운타운의 혼다 자동차회사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봉급을 잘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잘 주기 때문에 아주 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문제는 어떻습니까? 기계를 부수고, 회사 사무실을 점령하고, 도로를 막고, 경찰을 붙잡고, 서로 치고박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주인들은 너무 자기들만 챙기고 정당한 대우를 노동자들에게 해 주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절제와 자제 속에서 협상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에 자유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끌고 가는 유명한 바웬사의 파업 10개 조항이 생각납니다. 즉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중 직장을 떠나지 말아라, 직장 내의 질서를 끝까지 보장하라, 파업 중에는 일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작업 중단으로 기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공장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때도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려야 한다." 등이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조를 끌고 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둘째, 노동의 유익

(1) 노동은 건강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노동은 선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사무만 보는 사람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에게 씨름을 시켜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시골 농부가 이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두세 시간만 잠을 자도 몸이 괜찮고 건강합니다. 그 비결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일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대부도라는 공기 좋은 섬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그러한 일들을 해서 육체가 튼튼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10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그 사람들의 비결을 조사해 보니 한결같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종교든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늙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몸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일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몸이 썩게 마련입니다. 마치 값비싼 기계를 사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

이 되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움직여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을 하면 정신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일을 가진 사람과 일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얼굴입니다. 어느 집사라는 분이 아이 한 명과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한 달을 다니면서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겨우 일을 찾은 후에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버스를 타고 동서 사방으로 일을 찾아다니는데 힘은 들지만 나중에 직장을 구하니 기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집에 누워있을 때에는 누군가 자신을 번쩍 안아다가 서울의 살던 집 아랫목에 내려놔 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없고 놀고 먹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며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남과 나를 비교하여 열등의식을 갖거나 비굴한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으면 때로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 잠도 잘 오고 원기도 곧 회복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일을 해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3) 노동은 경제적으로 유익합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빵, 자유, 사랑,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자유를 얻으려면 투쟁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하고, 빵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성경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현숙한 여인이란 신앙 있는 자로

서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일감을 나누어 주는 부지런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잠 31 : 10~31).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구제헌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흑인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좀더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않고, 덜 자면서 번 돈이지만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대부는 재천이요, 소부는 재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것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해결하고, 자녀교육에도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4) 노동은 도덕적으로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른과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선생과 학생에게 요구하는 윤리의 기준, 장교와 사병에게 요구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도 다릅니다. 또한 목사와 평신도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다르고, 신자와 불신자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고, 평안하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모든 죄는 평안할 때 짓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 즉 일을 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권력을 잡고 시간과 돈이 있게 되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고 일하는 것을 볼 때 안심이 되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젊은 나이로 있었을 때는 많은 청년들이 시간은 많고 일은 없어서 괜히 다방에서 시간이나 보내고 남산에 올라가 바람이나 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으니 나라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5) 노동은 영적 생활에도 유익합니다

신 ·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졸고 있거나 자는 사람, 또 죄 짓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충성한 사람을 때맞추어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소명을 받았고, 엘리사는 밭에서 밭을 갈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일할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일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축복받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역사나 일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마에 땀을 흘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체부로서, 스티븐슨은 기차의 화부로 땀을 흘린 사람입니다. 에디슨은 신문팔이를 하면서 땀을 흘렸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인쇄소에서 기름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일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였기에 미국 역사가 빛나고 인류역사에 서광이 비친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목사와 순교자와 선교사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낮에 일을 해야 합니다. 밤에는 일을 못합니다. 환난의 밤과 죽음의 밤, 고통의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마친 후에는 쉴 때가 있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명령과 천직으로 알고 신성히 여겨 열심히 일을 한다면 위에서 나열한 노동의 유익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자가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책임을 완수할 때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많을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제5부

종교개혁과 성서주일

종교개혁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갈 2 : 16)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롬 1 : 17)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딤후 3 : 16, 벧후 1 : 21)

종교개혁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 박해를 받아 오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던 기독교 초기의 역사는 313년에 와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던 신도들로 인해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급기야 380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리아 사상을 비롯한 많은 유물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

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 내지는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배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와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예배의 신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갔고, 서방교회는 로마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과 함께 지금의 천주교 형태로 길을 걸어왔습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방교회는 예배의식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화체설을 주장하고,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회중들은 마치 구경꾼처럼 방관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생명력을 잃어 단순히 기록을 읽는 데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세교회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계속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간섭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 루터가 개혁의 깃발을 치켜 들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츠빙글리, 칼빈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더 급진적으로는 예배의 형식을 무시한 재세례파와 같은 자유교회 형태를 취한 그룹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와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서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중세시대 회중들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제가 하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격이 되

었습니다. 이에 예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리자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고 그는 이를 위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예배 예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신칭의(以信稱義)' 의 교리를 제창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마음속에 항상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가 보기도 하고 고행을 해 보기도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갈망하던 해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한 내적 확신과 기쁨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교양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여도 그 내면에는 죄성(罪性)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자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며 겸손한 공동체였습니다.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며 신앙을 만방에 전파하였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재림의 주를 대망하며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듣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예배의 감격이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종교개혁은 순수한 기독교적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더욱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정과 결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보다 수도원의 수도사나 수녀들의 삶이 더욱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강제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개혁

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하여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회복시켜 모든 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회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이 교회와 국가의 기초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때때로 가정의 축복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헤어지거나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종교개혁은 예배 갱신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세교회가 온전한 예배, 살아 있는 예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갱신운동으로 개혁가들이 분연히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를 비롯한 몇 사람만이 예배를 집행하고 회중들은 그저 사제가 행하는 종교의식을 구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신학자는 "천주교는 회중들이 신부의 뒷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개신교는 회중들이 목사의 얼굴을 보고 예배드린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루터, 츠빙글리, 칼빈, 낙스 등 종교개혁가들이 각각의 독특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견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치하였습니다. "첫째, 로마교회가 성찬성례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성찬의 화체설 (the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은 문제가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아니다. 넷째, 모든 예배는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드려야 한다. 다섯째, 사제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중간 존재로 군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개혁가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의 형태가 루터교와 성공회의 작은 개혁, 즉 기존의 예전을 고수하면서 예배를 모국어로 드리는 부분적 개혁,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칼빈, 낙스 등의 온건한 개혁, 스위스의 취리히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츠빙글리의 강렬하고 직선적인 개혁, 그리고 재세례파와 같이 예전이 없이 말씀만을 추구했던 가장 급진적인 개혁 형태 등 다양한 개혁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 개혁의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 9)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살아 있고 능동적인 예배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교개혁 시대의 어두운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껏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갱신을 이루기까지 종교개

혁자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 있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새기면서 경건하고도 생기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배시 대표기도도 정성을 다해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아 철저히 준비된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와 곡조에 들어 있는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도 자신의 재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오르간 반주자의 손과 발이 회중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종교개혁은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잃어버렸던 성서를 다시 찾게 해 주었고 닫혀 있던 성서의 세계를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성서를 찾으니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성서를 보는 눈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특수계급만이 볼 수 있었던 성서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되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언어가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 이성을 통해서 추리해서 성서를 해석하던 것에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성도들과 그들 삶의 유일한 척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통, 교황의 가르침 등이 성서를 대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서 외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선행의 교리, 연옥의 교리, 교황과 교회 전통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오직 은총의 신학'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가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선명하고도 원색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은총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

원을 얻었으므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불쌍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살피고 교회에 와서 성가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갖가지 봉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학이 바로 정립이 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4 절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의 아름다움을 잘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연단을 갖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얼마가 고생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의 인격이 바르고 또 이들이 마음이 넓고 잘 인내하고 소망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신학으로 돌아가게 했고, 말씀의 신학의 가장 핵심인 은총의 신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깨달음이고 놀라운 발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음과 발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결단하고 행동한 개혁가들의 공헌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귀하게 이루어진 신학적인 유산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신학적인 유산을 잘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키고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기에 견고한 성(城)과도 같았던 로마교회의 종교적 타락을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 교회엔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파 분립, 교인들의 부도덕하고 사치스런 생활, 화려한 교회 건축, 이웃 교회들과의 경쟁관계, 불건전한 신학, 기복(祈福)신앙과 이단의 급증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의 신학을 생각하며 그리고 초대교회의 열정과 순수함으로 돌아가며,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무명의 청년 수도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선언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에서부터 오늘까지 469주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종교개혁'을 'Re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개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잘못된 것을 개조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권력을 오래도록 잡으면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천주교가 1,200년 역사를 이끌 때에 많은 잘못을 행하였기 때문에 종교를 개조하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루터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뜻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운동에 헌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즉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는 사상적인 개혁을 하였고,

사보나롤라는 도덕적인 개혁을 하였으며, 보나드, 타울러, 데카르타 같은 사람들은 신비적 개혁에 착수해서 활동하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이런 운동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활동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전의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혁을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요인과 마틴 루터의 95개조항의 종교개혁 내용과 그 공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의 요인

(1) 도덕적인 요인입니다

종교개혁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부의 독신 생활이 자연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성직자로서 인간 육체의 본능과 싸워 이겨서 깨끗이 지낸 분들도 있지만 당시의 많은 신부들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하였습니다. 즉 처녀나 미망인, 유부녀, 심지어는 수녀들과 더불어 불륜관계를 맺어 사생아를 낳아 고아원에 보내고 무섭게는 살생을 감행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황 이노센트 8세는 많은 유부녀를 건드려서 16명의 아들을 낳았고, 피우스 3세는 누이동생을 정부로 삼아 파렴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교황의 직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가 종교개혁을 낳게 한 첫째 요인이 된 것입니다.

(2) 지적인 요인입니다

1350년부터 1500년을 문예부흥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문예부흥은 당시의 지적 부흥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대 문학

에로의 복귀, 개인주의의 각성, 동서 문화의 교류, 봉건제도의 붕괴, 상업주의의 격증, 스콜라 철학의 퇴조, 유명론의 득세 등이 중세의 사상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예부흥에 뒤따르는 학구열은 교부신학과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에 몰두하게 하여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천주교가 오랫동안 철학 등의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맞지 않다고 이단자로 몰아 투옥한 것도 이 문예부흥 시대의 한 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지적인 충동을 가져오고, 모순된 교부들의 학문적인 기초를 흔들고 깨우쳤는데 결국은 인문주의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3) 사회적 요인입니다

십자군 전쟁 후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상업의 발달로 농업 경제가 상업 경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는데 문예부흥과 동시에 민족 정신을 살려서 독립 국가로 떨어져 나가므로 로마 교황청의 권위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이나 각 나라의 사원에서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극도의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과 시간이 있어 극에 달하는 부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될까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물질에 치중하여 남을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타락도 교만과 태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가 먹을 것을 보고 다 먹지도 못할 것을 욕심부리며 많이 달라고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에 교직자들의 사치는 역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했습니다.

당시 땅의 5분의 3이 가톨릭에 속한 땅이었는데, 영국은 3분의 2가 가톨릭에 종속되어 있었고, 영국의 모든 도로는 사원에 드나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은 외적으로는 왕성하고 부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리막길에 서있었습니다. 이럴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인데 이는 신앙의 부분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부분까지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많은 농사짓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였고, 개혁은 불일 듯 일어나 확대되었습니다.

(4)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100년이 되어도 완공되지 못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때문에 교황청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성당을 짓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였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모색한 것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면죄의 티켓을 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묘안이었습니다. 큰 돈궤를 들고 다니면서 죽은 부모님들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자에 돈을 넣는 그 즉시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론 돈이 큰 힘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못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에

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요, 특별히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골자

루터는 면죄부로는 죄를 속죄받을 수 없고, 연옥의 영혼을 구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개한 사람은 이미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신부가 되기 이전에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즉사하는 것을 보고 인생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던 중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에 전공을 바꾸어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된 후 성경을 공부하고, 철야 기도와 금식기도를 드리고, 교회의 계단을 무릎꿇고 올라가는 고행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구원과 평안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교회의 계단을 무릎꿇고 올라가다 중간쯤에서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롬 1 : 17, 합 2 : 4)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교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올라간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곧 일어나서 독일로 건너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신앙을 되찾아서 만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종교개혁의 골자요, 중심 사상이요, 그의 공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서 천국에 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갔고,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눅 16 : 19~31).

부자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요, 유물론자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였고(마 19 : 24, 막 10 : 25),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행 8 : 14~24).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 : 8~9).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도 아니고, 십일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의 공로가 가리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눅 23 : 42~43). 예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함도 없이 조건 없이 빈 손 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공기와 물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구원과 영생도 우리의 믿음으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그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조건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선물입니다.

셋째, 종교개혁의 공헌

(1)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육적 ·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측면에 공헌을 가져왔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바뀌어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개혁 전에는 교황 앞에서 여러 나라 임금들도 엎드려야 하였습니다. 즉 교황은 절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교황도 사람의 아들이요, 그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권위는 오직 절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당시 성경은 신부들만 읽었고 일반 신자들은 손에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어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는데, 지금도 가장 정확한 문법으로 번역한 성경이 루터가 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계에 큰 발전과 함께 정치제도의 변화로 농민들에게 자유를 주어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문화에 있어서도 큰 광명의 횃불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의식을 많이 강조하지만 개신교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힘씁니다.

95개 조항을 보고 교황이 루터에게 파문장을 보냈을 때 루터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파문장을 찢었습니다. 감히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용감하고 과감하게 행하였습니다. 나중에 프레드릭 공회의 옹호를 받아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 성당에 갇혀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증을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적당히 성경을 가르쳤지만 루터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찾아 은혜의 확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이것은 이차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성경이 번역되었지만 값이 비싸서 못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소련에서도 성경이 가장 비싼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루터의 공로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계 1 : 3).

(2)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식이나 미사나 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 하였고,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에서의 믿음은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말라는 소극적 신앙이었지만, 야곱은 매달려서 얻는 적극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얍복강가에서도 축복하지 않으면 천사를 놓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고침 받고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매달리고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피를 생각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을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3)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신부나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이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 : 9)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황권만이 우월할 수가 없으며, 성경 해석권도 신자들이 가질 수 있고, 교황만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지막이시며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 자리에 엎드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권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크리스천들에게 자유의 정신을 고취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 성경해석의 자유, 교회 설립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희생을 각오하면서 신앙과 진리와 더불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회에서 개혁해야 할 것을 찾아서 고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기복신앙이나 세속주의, 천박한 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많은 비크리스천들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즉 사회 구원의 책임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469주년을 기념하는 이날에 개혁자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 신앙과 가정과 교계의 문제들을 보면서 안일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성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주제이지만,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첫째로 신관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보편 타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종, 시대, 지역, 남녀,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중심사상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들도 다양해서 구약은 약 26명, 신약은 약 8명 총 34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쓰여진 연대도 다양해서 구약은 약 1500년 동안에, 그리고 신약은 약 100년 동안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경험, 환경 등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의 중심사상인 '메시아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개인, 가정, 지방, 국가, 민족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예수님의 수난, 부활 등의 예언이 다 맞았습니다. 이제 재림만이 남았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존속과 발전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는 곳마다 핍박과 몰수와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되고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쪽복음을 포함하여 현재 약 1,234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존속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세계와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는 발전성이 있습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위대한 감화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무한한 감화를 받아 회개와 중생과 성결

과 능력을 얻어 새 생활과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

저는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을 말할 때 1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영향력(마 4 : 4), 부흥력(시 19 : 7), 해부력(히 4 : 12), 폭발력(렘 20 : 9), 중생력(벧전 1 : 23), 성결력(요 17 : 17), 인도력(시 119 : 105), 현정력(대하 1 : 12), 상상력(사 40 : 28), 교육력(딤후 3 : 16), 융화력(갈 3 : 28), 의료력(말 4 : 2), 구제력(잠 11 : 25), 구원력(딤후 3 : 15) 등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흥력이 있으며, 우리의 죄와 영적으로 병든 부분을 해부할 수 있는 해부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해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선포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폭발력이 있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중생력(重生力)이 있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결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력이 있고,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현정력(顯正力)이 있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상상력이 있으며,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며 인도하는 교육력이 있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융화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력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하며 도움을 주게 하는 구제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기독교 2천년 역사 동안 우리 인류에게 대단한 공헌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상을 앙양하였고, 미신과 문맹을 퇴치했고, 노예를 해방시켰으며, 아동을 보호하고, 여권을 존중했으며, 죄수들에 대하여 관대한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계급 타파, 금주 · 금연 운동, 사유 재산권 보호, 교육사업, 의료사업, 적십자 활동, 평화운동, 구제사업, 구령사업 등으로 찬란한 업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서양의 발달된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았고 나름대로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이 세상을 올바로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는 성서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래 인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성서는 인류의 영혼으로부터 밝혀진 언어 중 가장 진실한 발언이다."라고 했으며, 존 러스킨은 "내가 저작한 것에 어떠한 공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암송케 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헨리는 "성서는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서적 전체와 대등하다."라고 했으며, 칸트는 "성서의 사람에 대한 서적으로서의 존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이 없는 최대의 이익이다."라고 말했으며, 괴테는 "인류의 지적 문화와 자연과학이 진보되어 그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인류의 마음이 그 원하는 대로 넓어질지라도 복음서로부터 비쳐나오는 기독교의 숭고성과 도덕 수련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파라 펜튼(Fara Fenton)은 "성경 안에 우리 인

류가 우주를 열고, 또 인류에게 그 자신의 비밀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가 있다."라고 했고, 존 드와이트는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말하였으며, 다니엘 윌슨은 "한 나라의 흥망은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명사들이 성경에 대하여 극구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셋째, 성경이 주는 유익과 읽는 방법

성경은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귀중품입니다. 성경은 내가 피곤할 때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흑암 속에 있을 때 나의 빛이 됩니다. 성경은 내가 굶주릴 때에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의 양약이 됩니다. 성경은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놀 때에 즐거운 풍류가 됩니다. 성경은 내가 무식할 때에 나의 스승이 되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나의 굳은 땅이 됩니다. 성경은 내가 추울 때에 나의 옷이 되고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면 나의 수면제가 됩니다. 성경은 내가 날고 싶을 때 나의 날개가 됩니다. 과연 성경은 나의 지도자,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 보화 중의 보화가 되는 나의 유일한 귀중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도 "나에겐 단 한 분의 선생님(서모 낸시)과 단 한 권의 책(성경)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곱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사 6 : 5).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에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창 39 : 9).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가 범죄에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있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요 15 : 11).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넷째로 삶의 우선 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마 6 : 33, 요 4 : 28).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시 42 : 11). 말씀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게 됩니다.

여섯째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갈 5 : 22~23). 풍성한 삶을 통해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일곱째로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사 40 : 31). 말씀의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유익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것

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정독하면서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읽고 실행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대단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으면 3년 만에 신 ·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고, 하루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신 · 구약성경을 다 읽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열심, 기쁨이 식어가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이단사설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역사, 시문, 예언, 철학, 신학, 웅변, 기도, 풍자, 음악, 군사, 애국애족, 연극, 비극, 용병술, 율법, 법률, 노래, 가정생활, 남녀 사랑, 설교, 봉사, 경고, 영원한 나라 등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 (과거), 생활의 구원 (현재), 육신의 구원 (미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6부

감사절

청교도의 신앙

시편 100편 1~5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본문의 말씀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동부 미국 땅에 내리자마자 큰 바위에다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두 일어나 봉독한 말씀입니다. 청교도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분리주의자, 독립파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들은 영국교회가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예배의 순결과 교회의 순수성을 영국교회에 호소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교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망명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10년 간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순결을 가지고 독립적인 교회를 운영하다가 마땅치

않아서 비밀리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1620년에 102명(남자 78명, 여자 24명)이 '메이플라워(Mayflower)' 라는 조그만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왔습니다. 그것이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추위와 영양실조, 오랜 항해의 피로와 굶주림으로 인한 폐렴과 괴혈병,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 등으로 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굳은 의지와 뜻을 지켰습니다. 즉 대륙을 개간해서 신천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상과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왔다는 굳은 신앙과 새나라 건설, 새역사 창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뚜렷한 목적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후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간단히 말하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은총으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사는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신앙

역사적으로 주후 1000년으로부터 1492년 사이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로마 천주교가 신부들에게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리를 주고, 일반 신자에게는 성경을 주지도 않고 가르칠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세기 문예부

흥으로 다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16세기 초 칼빈과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은 유럽을 전부 석권했을 뿐 아니라 영국에까지 개혁운동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영국에서의 개혁운동은 구교와 투쟁을 하다가 300명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정신과 신앙은 영원한 불길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해했던 메리 여왕이 죽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거쳐 제임스 6세가 다소 시정하고 완화정책을 썼지만 영국교회는 여전히 왕 중심, 교권 중심, 의식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수도 적고 힘도 없어진 청교도들은 차라리 새 땅에 가서 새 교회를 세워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고, 권위 있고, 유익하고, 축복으로 생각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믿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올 때 배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웠고, 미국 땅에 와서도 오자마자 시편 100편을 읽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도 성경을 사랑하였습니다. 즉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지녔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전능자라는 신앙이어서 하나님 이외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신으로 대신해서 예배할 수 없다는 철저한

유일신 중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권력과 땅위의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 아래 있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 배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11월 11일 거의 미국 땅에 가까이 와서 그 계약서를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증진과 조국의 명예를 위해 항해를 계속하노라."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며,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추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각자 자기 집들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1648년에 또 새 교회를 짓고 1683년에 더 큰 규모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생명의 양식을 얻는 곳, 양심을 깨우쳐 주는 곳,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곳이었고 때때로 위로를 주고 마음의 고향, 침묵의 장소, 큰 영혼의 안식처로 인식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 : 10)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그들은 철저히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진정 청교도들은 망망한 대륙에 와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아 좌절할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버텨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대륙을 개간하고 오늘의 번영

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엄격과 자유의 신앙

엄격과 자유, 우리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한 다리로는 '깨금발'이라고 합니다. 두 다리가 있어야 똑바로 걸어갑니다. 하나님도 두 가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기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야단치고 더 잘못하면 때리지만 다른 한 마음으로는 사랑이 있으므로 때리고 나서는 감싸 주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진리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은혜, 사랑, 용서뿐만 아니라 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벌은 '근신'을 가리킵니다. 제직에 정죄도 합니다.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진리도 있어야 하고 법도 있어야 하듯 우리가 계시와 이성, 문화와 문명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엄격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저들은 엄격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고 시간을 엄수하고 십일조를 엄격히 드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중에 잡담을 하거나 한눈을 판다든지 웃으면서 장난을 치면 감방에 가두고 벌을 주었습니다. 감방에 가두는 것은 그 사람을 고역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하고 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감옥이라고 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하는 것에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신앙을 볼 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까? 한

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루는 용단을 내려 예배당 빗장을 걸고 "천국 급행 열차 출발"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인들이 시간을 잘 지켰답니다.

강원룡 목사님께서 주례를 갔는데 신부가 화장을 하느라고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례를 안 하니까 그 소문이 서울에 쫙 퍼져서 그분이 주례를 설 때는 모두가 시간을 잘 지켰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절대 개인의 신앙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저들이 배에서 작성한 계약서 가운데 "하나님과 각 개인 앞에서 계약에 의한 정치 단체를 만들어 이것으로 공동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복종을 이행하노라."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에 의한 정치는 곧 민주주의와 자유정신입니다. 이것은 청교도의 개인 양심에서 온 정신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의 선택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미에 가면 가톨릭은 아주 전제적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자유롭습니다. 개신교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 교회 설립의 자유,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을 정치에까지 넓혀서 정치단체의 조직도 개인의 자유계약에 의한다는 사상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사상과 제도가 후년에 매사추세츠에 건설된 대규모의 청교도 식민지에도 적용되고 마침내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독립선언서에도 삽입되었습니다. 제퍼슨 독립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조물주로부터 일정한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받아 그 속에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저속한 의복을 입은 자도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 주일에 금식을 세 번씩 하였고,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십일조를 실천하고, 절제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생활의 철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즐기라, 서로 구원의 협력자가 되라, 서로 다투지 말라, 서로 순결을 지키라, 서로 도우라 등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교포들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타락하고, 부부가 타락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가정생활이 건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하였는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엄격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천국 문을 막고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협동적 신앙

청교도들의 구성원은 농사꾼들이 아니라 외교관, 학자, 교수, 사학자, 군인, 의사, 평의원 등이었습니다. 연령이나 학벌, 성격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세계 선교와 자손들을 위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로 협동적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저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협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혹 인디언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인디언들과 더불어 협동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협동 시대입니다. 한국의 김경수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사

람을 잡고, 왼손으로는 왼쪽 사람을 잡고 협력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럽은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NAFTA을 결성해서 경제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후손들이 잘 되려면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여러 인종들과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신앙

청교도들의 기록을 보면 1620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대륙을 개간하여 또 씨를 뿌렸는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심한 가뭄이 들어 곡식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옥수수 한 알도 없어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낙심할 때 지도자 몇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배가 와서 거기에서 곡식을 얻어 그들이 살게 되고 또 비가 쏟아져 곡식도 자라 추수를 하게 되어 더욱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오메가 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만 자동차 안에다 풀어 놓았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한참을 찾다가 차 안의 오른쪽 자리에 앉는 깔개 바로 옆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뭄이 들고 양식이 떨어져 죽게 되었다가 양식이 오고 비가 왔을 때 청교도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사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대양을 무사히 건너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대해서, 인디언을 통해 씨앗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옥수수씨는 인디언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옥수수를 '인디언옥수수'라고 합니다. 또 농사의 경험도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 심한 한재에서 모면케 하시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추수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웨슬리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특별히 여자들은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게 되면 정말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이라야 감사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주지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 2년 후에 감사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해도 인디언옥수수, 밀, 완두콩 등 정원의 채소들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셨고, 사냥감으로 가득한 수육과 물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고, 우리를 흑사병과 질병에서 보호해 주셨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필그림 바위에 발을 디딘 3년이 되는 해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12시 사이에 언덕위 교회에 모든 순례자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모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받음을 감사하십시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추수감사절에 신자들은 다섯 가지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적 축복 주심을 감사, 사랑하는 식

구와 친구 주심을 감사, 온갖 재난에서 보호하심을 감사,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미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금을 캐려고 곡괭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도 못 캐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남미가 빈곤과 무지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청교도들은 예배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300년 후의 미국은 이만큼 번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물질주의, 주지주의, 향락주의로 청교도의 신앙이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성적 문란과 가정 파괴, 에이즈 등 도덕적으로 하행선을 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한국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경제적인 기적과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식당으로 자랑합니다. 일본 사람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2의 청교도로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경륜 가운데 미국 땅에 보낸 주님의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쓰러져 가는 미국의 영적, 도덕적인 재건과 부흥에 공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24~26절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고백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4년에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 중 일부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대륙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해 이 날을 국가의 축제일로 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축제일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축하를 드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에 함께 즐거워하며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수 감사절의 유래

감사절 유래의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4~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년에 세 번 큰 국경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한국의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40년 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문자 그대로 거두어들이는 절기인데 가을에 모든 과일과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또 가까운 역사적 근거로는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1620년 9월 16일에 '예배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 세계 선교, 조국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메이플라워 호라는 90톤밖에 안 되는 조그만 목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 그 해 11월 21일 두 달 5일 만에 미국 동쪽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혹한과 질병과 기근과 인디언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50여명이 죽는 참변을 경험하였으나 빛나는 희망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봄이 되자 남은 소수의 무리가 괭이와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신분은 농사꾼이 아닌 전문 직업을 가진 중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이유

감사는 하등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이나 감사할 줄 알지, 동물적인 인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착하지만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상태라서 감사를 잘 모릅니다. 감사는 인간 윤리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신앙 성장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축복의 비결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1)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 : 1).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 : 8).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또 어떠한 공로나 행함이 없이 빈손 들고 나아가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귀한 태양, 빛, 바람, 공기, 물 등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만약에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을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육신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과거사이고, 생활의 구원은 현재사이며, 육신의 구원은 미래에 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눅 15 : 3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탕자가 죄악 도성에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뒹굴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회개하여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은 '영혼이 산 사람' 이라 할 수 있지만 본능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 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 : 2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주여!" 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로서 'Good News', 'Gospel', '기쁜 소식' 입니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 예수 내 구주!" 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 : 16)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활의 구원도 받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 : 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

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 : 14).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몬 1 : 11). 이 말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해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 거듭나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물어주마. 이 사람을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사람 되어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만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UCLA 대학 2학년에 다니다가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군에 갔다 온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월남에 가니까 미국 군인들이 월남 아가씨들에게 단돈 5~10달러를 주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청년이 너무 양심적이니까 멀리 휴가를 다녀오라고 보내곤 한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마약과 약물에 중독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 대하여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육신의 구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

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전 15 : 51~52).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구원은 받았지만, 즉 위에서 설명한 영혼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생활의 구원은 계속 받아 가는 중에 있지만 육신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겨울에 벗고 밖에 나다니면 감기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산 사람은 변화되고 그 때에야 육신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미래에 속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변화할 수 있기에 이 세 가지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 : 24)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주모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므로,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 구속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고후 9 : 15).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 보아도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그의 고백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고, 전쟁의 사람이요, 노예와 고통의 사람이며 죽음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의 사람이 의인이 되고, 화평과 자유의 사람으로서 기쁨과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나깨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급급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2)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창 12 : 5)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민의 선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로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곳은 우상의 도시로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도중에 하란에서 몇 해를 쉬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또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민 14 : 7~8)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 중동 사막과 같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비하면 가나안은 그래도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좌우에 수목이 우거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 본 사람은 모두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강원도 만한 나라에 나무도 그리 많이 있지 않고 그저 돌과 자갈과 모래, 요단강 줄기만 좀 푸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캐나다로 가라."라는 것을 모세가 귀가 어두워서 가나안으로 갔다고들 합니다. 젖과 꿀은 캐나다에 흐릅니다. 캐나다도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켓에 가면 젖과 꿀이 꽉꽉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의 유머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날의 가나안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성도들의 배려로, 제가 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고 여러 나라를 가 보았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좋은 나라를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가 보아도 미국과 비교할 나라가 못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만큼 넉넉하지 못하고, 문화와 교육도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50년이 지나야 미국을 따라 올 것이고, 러시아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거대한 나라로서 옥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막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한 나라로서 언론과 신앙, 결사와 거주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자녀교육에 유익한 나라로서 중산층이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고, 어린이와 장애자, 노인들의 복지제도가 잘 세워져 있는 복지국가이며, 주택의 구조와 의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자동차가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아프리카의 가봉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동쪽의 케냐에 가려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디에 가려다 비행기를 한 번 놓쳐도 그 다음 시간에 비행 편이 또 있기도 하고 다른 비행사의 비행기도 있고,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의 음식을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법도 살아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뇌물을 주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을 보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완전히 구별되고 독립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강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일등 국가는 교육력과 군사력과 경제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소련은 경제력이 없고, 일본은 군사력이 없으나 미국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에 가 보면 많은 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30,000~50,000명이 모이며 대형 버스 150대를 가지고 먼 곳에서부터 실어 오면서 주일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의식주의 부족함이 없이 자녀들을 국제적 인물로 교육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복지에 와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처해 있는 삶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 태풍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동성연애자가 2,000만이고, 에이즈 감염자가 100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이 100만, 매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50만, 또 매년 어머니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700명이라는 통계에서 나타난 미국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신문에 의하면 작년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암, 심장질환,

교통사고, 당뇨병, 폐질환, 뇌질환, 타살, 에이즈 등으로 573명이 죽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을 지켜 주시고, 재산을 지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불의하고 패역한 음란한 세대에서 신앙을 지켜 주신 것을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 금년에도 오곡 백과를 풍성히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각양각색의 과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채소가 가지각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농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고는 4% 밖에 없고, 96%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비를 주시지 않았거나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많은 벌레들을 막아 주지 않으셨다면, 신선한 바람이 때때로 불어오지 않았다면, 우박이 쏟아지고 태풍이 다 쓸어 갔더라면 헛수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금년에도 내년 가을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가끔 프리웨이를 지날 때 당근이나 호박, 야채 또 일용품 등을 가득 싣고 가는 큰 트럭을 보게 됩니다. 각 주에서 생산한 먹거리들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셋째, 감사의 방법

(1)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 : 23).

자식들에게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지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간의 참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든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의 표현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 8 : 10~1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빈 들판에서 남자와 더불어 좋지 못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 예수님 발 앞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셨습니다. 만약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라고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 : 7)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 돌을 놓고 뒤돌아 갔습니다. 이 여자야말로 상한 갈대요, 꺼져 가는 등불이었습

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그녀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가면서 주님을 계속 돌아보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장사 밑천도 대주고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로 가서 음료수나 꺼내 먹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와서 "아버지 건강은 어떠십니까? 혈압은 어떠십니까? 당뇨는 없으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아버지, 뵈니까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등의 안부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가 고생하고 기르고 가르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나 제사장에게 보인 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눅 17 : 15~16).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혼열 족속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사는 개라고까지 불리는 상놈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침을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지 않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가다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큰소리로 감사하고,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신앙을 '이중적 감사' 라고 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감사입니

다. 여기에서 이 문둥병자는 입으로 감사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둥병은 아주 좋지 않은 병입니다. 자기도 모른 채 3년, 자기가 알면서 3년, 남들이 알 때까지 3년, 9년이 걸려야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집에서, 동네에서 쫓아냅니다. 공민권을 빼앗깁니다.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되돌아 와서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둥병 같은 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입으로 찬양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감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미리암은 춤을 추며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출 15 : 21), 한나는 나이가 많게 되도록 어린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을 낳고는 입으로 감사하였고(삼상 2 : 1),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눅 1 : 40, 48). 성경은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히 13 : 15).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왜 부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찬 204장 1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찬 23장 1절).

(3)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요 12 : 3).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이라는 이 향유의 값은 300냥이라고 합니다. 그 때 300냥이라면 지금의 미국 화폐로는 30,000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는 법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갔습니다(눅 24 : 1).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 쫓아냄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여성입니다. 버림받았던 여성이 다시 살아나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고 향유를 가지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 100근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다고 하였습니다(요 19 : 39~40).

마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서로에게 시계나 목걸이, 귀걸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또 부모님의 노고를 자식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라고 합니다. 아들들

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 봐야 아버지가 자기를 야단친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부모님들께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식적이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은 있다고 하면서 주머니를 닫아 놓는다거나 또 인색한 행동을 하고 억지로 드리는 일, 생색만 내려고 행하는 우리의 행동은 결코 감사가 될 수 없고 도리어 받는 분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혹 어떤 분은 1달러를 바치는 분도 있겠지만 1달러를 바치는 것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끼만 금식해도 하루면 몇 달러가 됩니다.

제가 전에는 헌금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못 되어서 바치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 내외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마음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에 하루를 금식하든지 한 끼를 금식해서라도 일 달러도 못 바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 삼만 달러의 향유를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가 441장 4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러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집회를 가서 설교가 끝난 후에 헌금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헌금할 돈이 없어 기도하다가 자기 몸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헌금함에 자기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훗날에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보살피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을 바친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간 리빙스톤,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윌리엄 케리,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미얀마에 간 저스틴, 한국 대동강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신부만을 하나님 앞에 몸 바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홍선우 선교사 두 내외가 직장에서 한 달에 만 달러씩 받으며 살다가 그 모든 이익을 버리고 미개한 나라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며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있으며, 조은하 선교사는 사업을 하며 미국에서도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지금 중국 심양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하며 선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하늘나라 확장과 영혼을 위해서 몸과 시간과 은사, 물질을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서, 주일 학교 교사로서,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등의 여러 모습으로 몸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

쓰는 자들이 되라"(고전 15 : 58)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몸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영적 법칙,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도 잃게 될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 문을 열게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하늘 문을 닫게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 금년도 추수를 풍성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감사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 속에서의 감사

레위기 23장 39~43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칠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절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42~43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식구가 집에서 나와 들판에 초막을 짓고(이것은 옛날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짓던 것을 상징) 그 속에서 8일 동안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수천 년 동안 추수감사절 행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막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음을 감사하였습니다

본문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43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고생할 때와는 달리 평안함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잊을까봐, 즉 민족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 초막 속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감람나무 같은 것으로 엮어 초막을 짓고,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추수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성경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 : 10~12)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물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며 무수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세 가지 큰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은 인종적 · 경제적 ·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서(출 1 : 16)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명석하고 총명해서 전쟁이 날 때 외적과 결탁하면 내환이 생겨 주객이 바뀔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바

로는 인종적인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고된 일을 시키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출 1 : 14)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채찍을 가지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가운데 조금만 잘못하여도 피가 나오도록 때릴 뿐만 아니라 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었는데 이제는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고 하였습니다(출 5 : 7).

또,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출 5 : 8~9)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일신의 종교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일을 많이 시켜 완전히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정책은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에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애국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만주에서는 산 사람을 의학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생체 실험을 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착취하였습니까? 동양척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좋은 쌀을 군량미로 다 빼앗아 가고, 광산에서 나오는 철과 은, 금을 모두 실어가고, 한국 사람을 이등국민이라고 해서 배급도 일본 사람보다 몇 배 적게 주었습니다. 또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감옥에 넣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애굽에서의 고된 생활을 430년 동안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자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환난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살아 있겠습니까? 만약 죽었다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일본이 한국을 지금까지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둘째, 광야생활을 회상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 : 13~16). 홍해는 참으로 크나큰 장애였습니다. 그렇지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육지같이 건넜고, 광야생활 40년 동안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초막 속에서 광야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광야생활에서 어떠한 감사

가 있었겠습니까?

(1) 만나를 내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출 16 : 14~15).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내면서 점점 양식이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모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식물의 일종인 깟씨와 같은 것인데 모양은 진주같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는 쌀가루 같은 것입니다(민 11 : 7~9). 40년 동안을 이것을 먹고 살았는데 여기에는 단 몇 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두어 들일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1호멜씩이고 안식일 전날에만 2호멜씩을 거두도록 하였고, 만나가 존재하는 시간은 그날 하루이고, 제한된 장소와 일정한 시간에 거두어들여야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초자연적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2) 메추라기를 주신 데 대한 감사입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출 16 : 12~13).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시 78 : 27).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라는 꿩과 비슷한 고기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탐욕을 품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민 11 : 4).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에서부터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의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습니다(민 11 : 31). 그러면 사람들은 메추라기를 하루종일 모아 여러 곳에 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제공되었지만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내려졌습니다(민 11 : 21).

(3) 생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 주신 것과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출 17 : 2~3).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열 번 잘해 주고도 한 번 잘못

하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고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섭섭한 것은 반석에다 끌로 판다."라는 격언은 인간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출 17 : 6).

제가 요단에 간 적이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시 78 : 15~16)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흡족히 마셨습니다. 즉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 것입니다(신 32 : 14).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꿀과 기름 같았겠습니까? 사실 목마를 때 물 한 방울로도 생기를 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들어가서 조상이 목말라 애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사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 : 21~22).

하나님께서는 황막한 광야에 길이 없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정지할 때 모두 정지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모두 움직였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환하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있으면 어지럽게 하시기도 하였고(출 14 : 24), 애굽 병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오면 그때 불기둥이 그 가운데 나타나니 애굽 병정들이 다 정지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5)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출 17 : 13).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민 21 : 24~26).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거대한 장군이었지만 작은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돌팔매로 이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현재(1991년) 미국 교회에서 걸프 전쟁에 나갔다 온 가족들은 "하나님, 걸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내 남편,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걸프 전쟁이 월남 전쟁에서처럼 수렁에 빠지고 패했다면

불경기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사회가 도둑질과 폭력으로 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6)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출 20 : 3~17). 십계명은 사람들의 윤리 도덕의 표준이요, 생활규범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1) 가나안 정복을 감사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수 11 : 23).

가나안은 일곱 족속이 이미 점령하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사람들을 통해 6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 족속들을 모두 항복시키고 그 땅 전부를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여기에 근거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수 24 : 11).

이스라엘 사람에게 붙여 그 땅에서 46년의 보따리를 풀고 안주

할 수 있도록 가나안을 정복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일찍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창 12 : 7). 가나안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의미는 '자줏빛과 같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고 광야에서도 역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곱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2) 가나안 정착을 감사하였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 24 : 13).

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그들이 지은 집도 아닌데 그 속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과일밭을 만든 것도 아닌데 과일을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신 8 : 17).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든지 혹은 집을 빌려 살든지 간에 냉장고만 열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차도 있는 괜찮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집을 새로 구입하여 이사한 집사님 댁에 심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너무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보니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친 후 집사님께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여기 오셔서 살고 자녀교육하라고 집을 준비해 주셨군요. 집사님, 이 집 지을 때 보탠 것 없지요?" 하였더니 집사님은 "예,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미국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안 사실은 미국에 산 지 10년 이상 된 한국 가정은 거의 다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와 가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 공부도 잘 시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3) 풍성한 추수를 감사하였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레 23 : 39).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출 23 : 16).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시 136 : 25).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 6년 전쟁을 치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탐스러운 열매를 아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배한 것이 추수감사절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겨울에 와서 해동한 후 인디언들에게 얻은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를 통해서 열매를 수확한 것이 무한한 감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일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예

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인디언들에게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신 8 : 1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겠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사무엘 존스는 "감사는 교양의 열매다. 천한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고, 영국의 작가 아이젠웬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천국과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하였고, 한국의 김경선 장로님은 "감사한다는 것은 또 다시 받을 것을 위해 문을 열어 놓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촛불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감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 100 : 4)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와 위의 시편 100편을 읽으며 노래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도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까지 굶어 죽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시다. 또 6 · 25의 전쟁 속에서도 한국을 지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성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독생자까지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제가 보기엔 현재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 속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년 미국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셔서 농장에 가면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시 116 : 1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옮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감사

다니엘 6장 5~10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특권이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더욱 많은 것이 생활의 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감사를 많이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자는 뜻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감사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 : 21)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은 허망과 미련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열 사람을 고쳐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 온 그에게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눅 17 : 17). 문둥병은 난치병으로 이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 공민권을 빼앗겼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문둥병자 중 한 사람만 감사했을 뿐 아홉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 : 26~3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홍수 전에 모든 사람들은 타락해서 다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일삼는, 즉 육신의 향락과 쾌락, 현실에만 집착

하고 신령한 일은 외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저들로 인간의 좋은 씨를 받을 수 없노라 생각하신 끝에 다 물로 쓸어내고 그중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노아의 여덟 식구만 선택하여 다시 인종을 연결시킨 제2의 창조를 하셨습니다(창 6 : 5~8). 그리고 롯이 지정하여 갔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던 이들이 다 유황불에 멸망받아 사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올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위에 해당하는 말씀을 좀 보태어 쓴다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딸 낳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심고 골프치고 낚시다니고 노름하고 댄스하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고 그리고 멸망을 받았노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1~5)라고 바울이 말세의 인간상을 예언하였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인간상과 꼭 이대로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하고 놀랄 일입니다. 이 말을 함축해서 현대어로 말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배금주의, 부도덕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로 흘러갈 테니 믿는 너희는 그것들에서 돌아서라, 섞이지 말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일 2 : 16)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여 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는데 인간과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동물들도 끼리끼리 모여 살고, 짝을 이뤄 새끼를 낳고 기르며, 먹고 즐거워하고, 자기네끼리 대화하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동물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못하고,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 중에는 동물과 같은 사람과 인격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키에르케고르는 "먹고 마시고 뒹구는 심리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이 있고 종교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했으며, 기독교에서는 "본능적인 인간이 있고 거듭난 은혜의 인간이 있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헌금하여 교육과 봉사, 선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애국가 1절에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일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즉 반사작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조건부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였습니다. 아마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 얼른 자기들의 몸을 보여주고 자식이나 부모, 친구 등을 만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갔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동네에서 쫓겨나 제한된 구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검사를 받고 완치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다시 공민권을 가지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반사적, 상대적, 조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아홉 명보다는 낫지만 이 한 사람의 감사도 고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가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더 주면 감사하고 끊어지면 끝날 수 있는 불완전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창과 검을 휘두르는 애굽 병정들이 뒤쫓아 오자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사히 바다를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시 바다가 합쳐짐으로 인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 구원의 기쁨에 넘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출 15 : 1).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물을 얻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노래를 부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때는 감사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과 배고픔이 닥쳐오면 금방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앞만 보고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고등학교 나온 친구는 그 아버지가 새 자동차를 사 주었는데 나도 자동차가 필요하니 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자동차를 사 주겠지만 지금은 못 사 준단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가 비싸고,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여자 친구를 태워 매일 놀러만 다니면 네 장래가 염려스럽지 않겠니?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 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 생각이 제 생각보다 나으시겠지요. 알았습니다." 하고 끝내야 하는데 계속 친구 아버지는 사 주었는데 왜 아버지는 사 주지 않느냐고, 자기는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기

가 벌어서 살 테니 두고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열아홉 살이 되기까지 낳아 기르고 먹이고 가르친 것은 어디 갔습니까? 자동차 하나 지금 당장 안 사 준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이라면 이 사람은 감사에 대해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직장이 생기면 감사하고, 해고를 당하면 낙심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감사하고, 다른 아이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가면 원망과 낙심을 합니다. 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감사하고, 사고 나면 낙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얕은 물에서 헤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깊은 신앙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떠 주는 물만 마시는 사람이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돈, 건강, 지식,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고, 건강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는 말보다 건강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배운 것이 잘못되어 부정에 가담해서 국회 증언대에 나아가 망신당하는 분을 봅니다.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 권력, 지식, 건강 등이 인간의 삶에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빛나는 산 소망,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예비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참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셋째,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감사란 초월적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유와 인권이 없는 노예생활을 하며 멸시와 천대, 핍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항상 지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과 학문을 구비한 소년을 데려다 바벨론을 위해 집중 교육을 시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발탁되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름과 음식까지도 바꾸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만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원들에 의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Commandments)이었습니다. 날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꾸며 놓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의 처지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으나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요, 참 신앙인입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고통을 영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죄와 타협해서 더러운 자리에 앉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편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하기 때문에 소유보다 명예를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더러운 이득보다 깨끗한 양심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출세는 못 했지만 바르게 산 사람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양심을 바르게 하며 산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꿈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살고 하늘나라에 더 좋은 집을 마련한 사람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영광을 소유보다 더 큰 복으로 알았고, 성결을 건강보다 더 큰 복으로 알았으며, 의롭게 사는 것을 더 가치있게 여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릎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장사가 잘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을 무차별 폭격해서 도시와 시골을 다 쑥밭으로 만들었을 때 시골의 한 집도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의 남편이 아내를 안고는 "다 잃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당신이 있고 내가 있지 않소? 건강이 있고 땅이 있지 않소? 이 세상에서 영원히 갖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하나 얻었고, 이 땅에 다시 새집을 지을 수 있으니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시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에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이를 공산당의 총에 잃는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조객으로 와서 격려와 위로를 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답사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순간 열 가지를 감사합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열 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나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자를 나게 하심을 감사, 많은 성도 중 이런 보배를 아들로 맡겨 주심을 감사,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됨을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두 아들의 순교자를 주심을 감사, 예수를 믿다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 순교한 것을 감사, 내 아들을 총살시킨 자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들로 삼을 마음 주심을 감사,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천국으로 직행한 것을 감사,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주심을 감사, 나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 주심을 감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 전까지 공산당, 김일성이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여 분을 참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형님이 강릉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형수님은 청상과부로 근 40년 가깝게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순교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시 남방 무명 군인의 성숙한 신앙의 시를 소개해 드리

고자 합니다.

무한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 건강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되어 지혜를 얻었노라
권세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노라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것을 다 바랐으나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내가 온갖 것을 다 즐기게 하셨노라
내가 원하고 바란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 같았으나
은연중에 희망한 것을 얻었노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도다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성경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 : 17~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가 오지 않아 농사에 실패하여 곡식의 소출이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한 하박국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금년에 한재가 들었다고 하지만 농사가 꽤 잘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을 염려하는 신자는 오늘 기쁨과 감사

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 : 33~34).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질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조건적인 감사에 그쳐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계속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월적, 절대적, 무조건적인 성숙한 감사를 하심으로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약속된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삶

빌립보서 4장 4~1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예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철학의 시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땅도 다른 나라보다 비옥하고 광활하고 자유롭고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한 땅에 와서 풍요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 : 2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것은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성, 즉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달음 속에서 세상을 살아 나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게 사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고상하게 사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높은 지위와 권세가 없어도 고결하게 사는 비결을 깨달아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물질문명과 기계문명, 도시화 등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활 구조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짐으로 생활이 바쁘고 피곤해져 마음이 각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깨닫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추억은 아름답고 현재는 항상 쓰리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동감이 되지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모든 나무가 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것들은 어떤 계절이 와도 한결같이 청청(青青)합니다. 출렁대는 바다 속에 진주가 있고, 황토 속에서도 황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비록 살벌하고 힘이 들지만 풍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족하며 사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가장 자족(自足)하며 산 사람이 있다면 곧 바울을 꼽을 수 있습

니다.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11~12절).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풍부하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때 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가 돌과 철창으로 만든 캄캄한 지하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낮에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받아가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자족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의 한 황제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감독 하나를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자유도 주고 대접도 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는 "나는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황제가 그 감독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말에 "나같이 부족한 것도 옛 선지자같이 옥에 갇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화가 난 황제는 그를 무인도에 유형(流刑)을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또 말하기를, "복잡한 세상 소리를 다 끊고 나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지라고 특별한 장소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였습니다. 더 화가 치밀어오른 황제는 그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분이야말로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에 자족과 여유를 가진 풍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재산 분배에 대해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속을 보시고 모든 탐심(貪心)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사람의 생명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2 : 15).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집이나 좋은 가구, 비싸고 멋있는 차, 돈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결코 거기에 삶의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제일 잘났다면 감옥에 사는 사람은 제일이 될 수 있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제일이라면 아마 배우들이 제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는 것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누가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하지 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큰 집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전 6 : 6~8)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욕(欲)과 욕심을 내고자 하는 욕(慾)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고,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한 마음을 가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집이 몇 채 되면서 더 욕심을 내어 열 채 그 이상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동차도 식구마다 한 대씩 있는 가정이 있고, 돈과 먹을 것, 그 외 자녀 교육이나 사업 등에 분에 넘치게 욕심을 내는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끊임없는 욕심이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약 1 : 15).

성령의 열매(갈 5 : 22~23) 가운데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만큼 먹어야 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생활도 절제 있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돈도 가질 만큼 가져야지 더 가지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은 물질을 탐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수 7 : 25).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민 31 : 8),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에 가책이 되어 자살하여 죽었습니다(마 27 : 5). 사람이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리한 욕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적으로 부해 보이나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있어도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풍부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히 13 : 5).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딤전 6 : 10). 돈을 사랑하다 보면 아내, 남편을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이웃은 물론 하나님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만약 내게 돈이 많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 : 2)라는 바울의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기억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생활을 살펴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 : 20)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새나 여우 등의 동물들은 다니다가 밤이 되면 각기 자기의 처소로 가서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와 같은 처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생활을 할 때 삶의 풍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광락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영삼 권사님이 9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 설교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복받치는 심정에서 막을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권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숭실대학을 나온 장로님과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으셨는데 그 남편 장로님은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당시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고, 임시정부에서 나온 사람을 안내하고, 문서를 뿌리고 다니시다가 경찰에 쫓겨 만주땅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고 소련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경찰은 권사님을 붙들어 놓고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심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끝내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결국 집으로 돌려보내어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그곳에서 나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일곱 살과 다섯 살 난 두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서 평양에서 원산, 청진으로 갔습니다. 청진에서 비린내 나는 조그만 어선을 타고 소련으로 건너가서 남편을 만나 망명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초라한 모습으로 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밤마다 공산당의 눈을 피하여 온 식구가 숲에서 자곤 하

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 있으면 옆에 구렁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한 고생을 하다가 권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소련 국경을 넘어 훈춘으로 갔다가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용정에 있다가 해방되어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라를 위하고 신앙을 지키시고 겸손하셨던 권사님이 한없이 존경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 권사님과 견주어볼 때 우리의 생활에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내 집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좋지 않습니까? 은행에 잔고가 적습니까? 권사님께서 어린 것을 데리고 신앙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위해 원산, 청진으로 걸어갈 때 아마 낮보다 밤에 더 많이 걸었을 것입니다. 걷는 과정에서 발이 부었을 것이고, 손바닥만한 조각배를 타고 이억만리 소련 땅을 갈 때, 공산당이 있는 곳에서 살아 보려고 어린이를 데리고 숲에서 잠을 잘 때 등 불안과 초조의 경험을 수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생한 분들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가져왔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생활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 혹은 못 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믿

는 사람 중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더 좋은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 : 16~18).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 : 6).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시 95 : 2).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 : 7).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색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는 어느 교회로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토요일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공항에 나가려는데 그 교회 한 젊은 집사가 벤을 몰고 와서는 담임 목사님은 따로 뒤에 오실 것이라 하면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꽤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분이 커피와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와서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강원도 산골인데 자랄 때 강냉이와 감자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먹던 강냉이와 감자를 생각하면 지금의 하와이 생활은 천국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제시대, 해방직후, 6 · 25 한국전쟁을 경험한 이들의 고생담을 듣거나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생활은 감사, 감사, 감사뿐입니다. 어떤 분이 프리웨이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위로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 교회에 가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집의 부인이 하는 말이, 도둑이 밤에 왔더라면 우리 집 아빠나 아이들이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가져간 것이 감사하고 안 가져간 것이 더 많으니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분에게 업체에 불이 났다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분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그곳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불자동차는 많이 왔는데 연기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분 생각에 '이미 모두 다 타버렸구나' 하며 가게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한 군데만 조금 타고 나머지는 온전하였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그분 댁에 심방을 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서로 말을 건네는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화재로 말미암아 큰 것 네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다 타지 않고 조금 탔으니 감사하고, 옆집에 옮겨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김영삼 권사님 장례를 치른 후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 내외분을 조용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아흔세 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동안만 편찮으시고 돌아가셨으니 감사하고, 장례식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쏟아져 걱정을 하였는데 그날만 날이 맑아 감사하고, 어머니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 주고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만 달러를 교회에 드리기 원하고, 한국에서 누이동생이 오천 달러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의 한 청년이 졸업 후 취직하여 첫 월급을 타서 모두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월급을 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업해서 첫날 번 돈을 다 첫 열매로 바쳤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은 저를 만나더니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결혼 5주년이어서 일 년에 100달러씩 500달러를 바쳤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혼 20주년이 되면 그때 2,000달러를 바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꼭 40년이 되는데 한 번도 4,000달러를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또,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심방 오기를 원하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여기 금일봉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필요한 데 써주세요.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돈의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집의 형편이 그다지 부유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에 나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조그만 마음과 생각을 전부 아십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

는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풍부한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 : 18).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넘치도록 하여 기쁨과 행복, 윤택과 풍요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는 생활이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 19 : 21)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게 되고 하늘에서 보화가 여러분을 위해 쌓여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 : 20). 했는데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로 보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마 7 : 12).

제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느 전도사님이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와서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

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보내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돈이 부족해서 굶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에 계신 장로님 내외분이 이곳에 성지 순례를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며칠 동안 차를 몰고 여러 곳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더니 나중에 돌아가실 즈음에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 여쭈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돈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글쎄, 제가 공부를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매달 천 달러씩 보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 전도사님 내외분이 저에게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갔습니다. 집도 너무나 작았고,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이었지만 미국만큼 음식의 풍성함이 없는 환경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남아 있던 여비를 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갔을 때, 이곳의 영사로 계시던 양 영사님이 그곳에 대사로 계셨습니다. 대사님 내외분과 딸이 초청하여 저와 함께 간 두 목사님이 함께 가서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올 때, 제 생각에 '이분들이 먼 나라에 와서 대사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뭐 그리 많은 돈이 오겠나' 하는 생각에 주머니에 여비가 좀 있기에 드렸더니 사모님이 극구 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고 와야 성이 풀리기에 드리고 왔습니다.

또, 제가 몇 해 전에 유타 로잔에 갔다가 솔트 레이크(Salt Lake)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유타 대학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한국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학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여름이면 다른 주로 가서 돈을 벌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미국교회에 출석하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끔 학비와 용돈을 대주고, 그 학생 방문 앞에다가 빵과 캔도 갖다 놓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졸업하여 전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녔던 미국교회를 위해 50만 달러를 헌금하였고,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위해 50만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황귀빈 씨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 파도가 산과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 하나가 조난을 당해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안에 있는 젊은 청년이 배를 몰고 들어가서는 생존자 몇 사람을 태우고 더는 못 태울 정도로 배가 무거워져 뱃머리를 돌리는데, 저 끝에서 한 사람이 태워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고 점점 캄캄해져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머리 속에 자꾸만 살려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가려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몇 해 전에 너의 아버지가 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나간 네 형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너마저 나가 죽으면 난 어찌하겠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 그 사람을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출받은 사람은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형님이었습니다.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삶의 풍요를 얻습니다.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 전도를 하기 위해 어느 한 사람과 동행하여 겨울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하고 기운이 빠져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

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이 동행자에게 업고 가자고 제의를 하자 그 사람은 갈 길이 멀고 날은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혼자서 업고 한참을 갔는데 업힌 사람이 온기가 살아나 걸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 얼어서 죽은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선다싱의 동행자였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주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축복받는 비결 중 하나는 여러 나라를 돕고 16개의 지교회를 세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행 20 : 35).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 : 13)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 능력을 받으면 자족한 생활과 감사한 생활, 남에게 줄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어도 마음과 말, 그리고 표정으로라도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인 가을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에서 영적 가을을 맞아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주는 생활로써 풍요한 삶을 지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

사도행전 27장 27~44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 저리 쫓겨 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이십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 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인이러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죄 없는 죄인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애굽 알렉산드리아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지중해 밀레도라는 섬의 조그마한 항구에 10월 초에 도착했지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엔 항구가 너무 작아 좀더 큰 항구인 뵈닉스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9월 이후에는 항해가 아주 곤란하였고 특히 11월을 지나 봄이 될 때까지는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뵈닉스로 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맞아 기분이 좋게 갔으나, 아니나다를까 정기적으로 지중해에 일어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태산 같은 파도가 사흘 동안 몰아쳤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 그 노를 잡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는 형편에서 밤에는 하늘의 별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데 별을 볼 수가 없었고, 낮에는 해의 위치로 방향을 알 수 있었는데 해를 볼 수가 없어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으니 배의 모든 사람들은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4일 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일었기 때문에 276명이 탄 큰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나뭇잎과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기울 때마다 사람과 짐이 함께 구르고, 14일 동안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다 토해서 이제는 토할 것도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아주 침착하고 확신이 있는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동차가 길을 가다 휘발유가 떨어졌을 때는 물이나 먹을 것보다도 휘발유가 있다는 것이 희소식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준다는 말이 희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에서 14일 간 풍랑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을 때 물건은 잃어버리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선장이나 백부장, 배에 탄 학자, 부자, 장사꾼, 여행가가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찬 죄 없는 죄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렇게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큰 풍랑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기의 풍랑, 질병의 풍랑, 고독의 풍랑, 전쟁과 혁명의 풍랑, 큰 환난의 풍랑 등을 만나 사람들이 뒤흔들려 이제는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한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과 용기의 메시지를 과연 누가 전해 줄 수 있습니까? 정치가, 군인, 과학자, 사상가보다도 구원을 받은 내세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부터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 땀의 황화수, 피로 물들인 땅,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였고, 나폴레옹은 "육대주에 부는 바람은 오가는 사람의 긴 한숨소리 같고 오대양에 넘실대는 이 물결은 오고가는 사람의 눈물의 고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대양을 항해하는 항해자"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인생의 항해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것 같은 위기의식에 싸여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경제적인 공황, 테러의 난무, 국가의 분단, 혁명과 전쟁, 질병과 인구 팽창, 자원의 고갈, 모든 핵무기 속에서 불안의식을 느끼는 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살 여망이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거기에서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감사할 수 없는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세 가지 종류의 신자에 대해 살펴봄으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사 1 : 3)라고 하며 탄식하셨습니다. 즉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아는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백산에서 목재를 구하기 위해 나무를 베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끌고 갔던 소가 주인을 다리 속에 넣고 호랑이와 싸워 주인을 살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동물이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좌를 뺏으려고 당을 조직하고 군사를 모집, 훈련해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궁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 패해 죽고 말았습니다(삼하 18장). 소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이나 중부의 작은 주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날씨도 춥지 않아 좋고 바닷고기, 농산물, 과일도 풍부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살아 봤으면, 아니면 못 살아 보더라도 한 번 방문이라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부하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시 남의 집을 빌려 살더라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고, 수세식 화장실, 냉장고, 좋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이 나라의 개척자들과 흑인과 멕시코인 등 먼저 온 소수 민족들이 이 땅을 개간해 이룬 모든 것에는 많은 노동자의 땀이 스며 있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깨닫는 존재이기에 욕심부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 스승, 나라, 세계 사람들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만도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 : 20)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감사치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 : 21~23)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죄입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을 하기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여러 행사들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술을 먹으며 돼지 머리를 놓고 절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에 부담감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문화 수준도 높아졌는데 아직도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모습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라고 합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는 조그만 동네마다 교회가 두 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구교, 하나는 신교입니다. 교회는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나님이 계셨으면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 때 왜 독일이 패했느냐고 하면서 안 믿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아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미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부산 동래교회 정 집사 아내입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정 집사라는 남자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려서 미군부대

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돈을 좀더 벌고 싶어 극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동네 온천에 갔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 집사님, 돈 좀 더 받는다고 기독교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리고 극장에서 그림 그리지 말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림 잘 그려서 극장에 많이 오게 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그만두세요." 저는 정 집사님으로부터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더니 극장에 전기가 나가 그분이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빨리 집을 사고 안정을 해야겠지만 신앙인의 양심과 성경에 비추어서 그 직업이 마음에 꺼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못 되면 기도를 하고 즉시 다른 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민사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자를 받기 위해 영사관에 들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영사를 만나서 도장만 꽉 찍어 주면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는 얼마 동안 잘 다니다가 나중에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잘 나오다가 좋아지면 안 나오고, 급한 일이 있거나 가난하면 나오다가 돈 좀 벌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잘 나와도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예로, 새벽기도에 안 나오던 사람이 큰 문제가 발생하여 언제부턴가 출석하여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 : 9)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선 사람은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 흰 옷을 입은 자로 성결하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말은 불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 앞에 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 나라의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남쪽 사막에 많이 있는 나무로 비가 오나 안 오나 늘 푸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또한 잘 풀려나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즉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이 와도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신세가 된 상황에서도, 많은 지식을 가진 자였어도 많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불변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매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중해의 항해 14일 동안 시달림을 당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본문에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였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35절). 이 말씀은 감사를 하였다는 것인데, 즉 14일간 풍랑 속에서 지켜 주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불안과 절망, 좌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울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확신을 가졌습니다. 배의 선

장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였습니다. 군인도 세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세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지식이나 부자들의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며 안 계신 곳이 없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34절).

제가 1946년 북한 공산당 감옥에서 내일 아침에 사형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나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위기 중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손해를 보았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욥, 엘리사, 다윗,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성 프랜시스가 지은 "태양의 노래"를 보면 감사로 일관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햇빛, 달빛, 별빛, 산천초목, 오곡백과를 감사했고, 형제와 자매를 감사했고, 죽음까지도 감사하였습니다. 죽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까지라도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무디가 성령 충만하여 영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비명을 지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러나 무디 혼자만이 집회를 하고 난 뒤의 피곤함 때문인지 다리를 쭉 뻗고 쿨쿨거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가 와서 흔들어 깨우며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기도 좀 하시지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일어나 기지개를 쭉 펴면서 그게 무슨 걱정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살면 미국에 가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자들에게 "천국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 보자 저마다 "아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천국이 여기보다 몇 백 배 좋습니까?" 역시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또 물었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 : 16~18).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참 신자입니다. 잘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이 나도 감사, 칭찬해도 감사, 욕해도 감사,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잘 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이웃과 교회와 사회에도 봉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내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도 중지되는 조그만 시내로 수원지가 없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멈춤이 없이 계속 흐르는 시내입니다. 알프스 산에 가보면 넓고 쭉 뻗

은 그 곳에 눈이 수백 년, 수천 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흘러내리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으로 흘러 물이 마르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기쁨의 근원을 돈이나 지식, 명예, 권력, 향락에 두지 않고 생수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마음에 막힘이 없이 일치되어 깨끗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언제나 공급받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나 역경에서라도 찬송과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폭풍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인류적인 문제입니까? 이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눈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계 2 : 7)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시 2 : 4).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하나님은 웃으시고 36년 후에 쫓아내셨습니다. 6 · 25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군이 부산까지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웃으시고 맥아더를 쓰셔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 : 15).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신 20 : 1).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 되어 함께하셔서 싸워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며,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온누리에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요한복음 15장 1~1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금년에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 보았습니다. 중국의 넓은 뜰을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니 가면 갈수록 무르익은 곡식이 황금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옛날 만주라고 말하는 동북산성에 가서 해가 뜨고 지는 넓

은 대륙에 옥수수와 수수가 무르익어 탐스럽게 열매맺은 것을 보며 이 곡식이 12억을 먹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 가 보니 산이 많지만 좁은 골짜기에도 누런 밭이 강토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를 먹어 보니 한국 배는 세계 제일인 것 같았습니다. 가을은 이처럼 모든 밭이나 논의 곡식, 농장과 산 위에 있는 과일나무도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 : 8)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유대 나라에 가장 많은 과일 나무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물론 석류나무와 사과나무, 오렌지나무도 많이 있지만 유대 땅 어디를 가나 눈에 띄고 가장 많은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나무는 유대 나라의 도회지와 농촌에 모두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 음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흔한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구약 성경(렘 24 : 1~4)에 나오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대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눅 13 : 6~9). 무화과는 식용이 되고 오늘에 와서는 곶감을 말려 나무에 끼우는 것처럼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 흔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열매는 식료품과 연료, 의약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감람나무 기름은 왕과 제사장의 임직식 때 그들의 머리에 부어졌고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민 4 : 16, 왕하 9 : 6). 사사기 9장 8~13

절에 보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뜻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곧 오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둘째,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요, 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하였습니다(마 3 : 10).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일반 종교인들은 형식뿐이고 교권에 사로잡히고 의식과 돈, 향락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는 말씀을 하며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눅 13 : 6~9)를 통해서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왜 열매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심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무화과나무는 산기슭이나 길가, 또는 박토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나무인데 여기 심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포도밭은 돌을 골라낸 비교적 토질이 좋은 땅입니다. 거름과 물을 주고 정성들인 땅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서 3년이 되었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둘째, 무화과나무는 3년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즉 무용지물의 나무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뒤뜰에 조그만 감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실토실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조금 큰 나무를 올해 사서 심었더니 첫해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감나무였습니다. 이처럼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태양, 빛, 이른 비, 늦은 비, 거름, 주인의 수고를 받았는데도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나무이기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넓고도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심어진 나무이며 3년이 지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공부도 하고, 특별집회도 참석했지만 진정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각자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에게 열매가 있으면 그냥 두지만 열매가 없으면 찍어 아궁이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되신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에게서 무시로 새 생명을 받아서 가지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돈, 세상, 사업, 처자가 가득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배나무와 돌배나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립니다. 돌배에서 참배나무 열매를 얻으려면 돌배나무 가지를 찍어 참배나무에 접을 붙이면 돌배나무 가지이지만 참배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배나무입니다. 우리는 돌배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즉 참배나무에 접붙이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였을 때 큰 짐은 모두 부치고,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나오는데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조그만 짐 둘과 큰 짐 하나를 질질 끌고서 "빨리 와, 빨리 와!" 하면서 아이들을 재촉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다가가서 "짐 좀 들어드릴까요?" 하고 물으니 그 부인이 저를 얼굴로부터 해서 아래위로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해도 되니까 짐을 맡기세요." 하였더니 그제서야 짐을 제게 맡겨 저는 그 짐을 짐 찾는 곳까지 들어다 주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것은 나이도 많은 제가 피곤한 여행길에서 남의 생각 하지 않고 편안히 다니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옳

은 일을 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령한 열매 여섯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마 3 : 8)

이것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찾아볼 수 있고,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로마로 도망왔을 때 바울 사도가 그를 전도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자는 믿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도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2)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빌 1 : 11).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였고, 바로 증거하고, 바로 살다 죽은 의의 사람입니다. 비록 짧게 살았지만 굵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7 : 28).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새 신문을 보면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공정하게 써야 하는데 한 쪽 말만 듣고, 어떤 때는 감정으로, 어떤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기사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신문이든 설교든 바로 보고 바른 말을 하고 증거하고 바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중공에서 선교할 당시 하얼빈에서만 하고 다른 곳에서 선교 못한 이유가 그 백성들이 듣기 싫다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표를 다 살 정도로 듣고 싶어했지만 방해공작으로 인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는 우리 문화가 그들에게 거절당해 돌아왔다는 형편없는 기사를 썼습니다. 표를 사서 얼굴이라도 보겠다는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세 가지 화가 있다고 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해서 생기는 화, 여자를 잘못 사귀면 화가 되는 색화(色禍), 글을 잘못 써서 생기는 필화(筆禍)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성도로서 내가 인기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또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3)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아 4 : 16).

성경의 인물 가운데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과실을 맺은 여자입니까?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로서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인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이방 나라지만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장가간 두 아들이 죽어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하나만을 위하지 않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측은하게 여겨 빨리 돌아가 개가하라며 보냈습니다. 이때 큰며느리는 인사하고 제 나라에 머물렀지만 둘째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룻은 남들처럼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살폈습니다. 룻은 나중에 베들레헴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자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더 나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 선한 열매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약 3 : 17).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눅 10 : 36~37).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유대 사람은 지금도 선민,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 나라 이외의 사람은 이방인, 개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물도 떠주지 않고 여관에서 재우지도 않고 멸시와 천시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

을 보고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의 피를 닦고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밤새 자지 않고 간호해 주고는 다음날 떠날 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모자라면 와서 더 줄 테니 잘 부탁한다고 하고 그를 살려놓습니다. 이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선생은 근대 7대 죄악을 지적하면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살인,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니다. 원칙 없는 종약(種藥)이 죄다. 일 없는 건강이 죄다. 양심 없는 쾌락, 도덕 없는 상업, 인격 없는 지식, 인도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가 죄다."

종교생활을 하려면 선한 마음을 품고, 봉사를 하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서 TV나 보고, 놀러 다니고, 먹을 것을 사서 자기 식구만 먹고 하는 것은 선한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5) 귀한 열매입니다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아 7 : 13).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갖은 귀한 열매를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요 12 : 3). 그 당시 유대인 장정 노동자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하면 한 냥을 법니다. 즉 300냥은 장정이 1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장정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면 만 달러는 벌 것입니다. 만 달러어치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올 때 십일조도 바치고 감사헌금도 바치고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등 여러 가지를 진심으로 바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없이 부은 귀한 열매입니다.

(6)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 : 22~23).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신령한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북경에 가서 삼류 스포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북한에서 온 많은 선수들도 있었는데 강영구 장로님 딸 혜영이가 피아노 치러 갔다가 내려오더니 "목사님,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해요. 물렸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한테도 물려 봐야지. 고생을 해 봐야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고, 인격과 신앙은 고생을 통해서 얻습니다. 영국의 귀한 집 자식은 대학을 마치면 누구든지 식민지로 보내서 적어도 3년 이상 고생을 시키고 본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처럼 선교하라고 준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삼류 호텔로 갔는데 그곳 앞에 중국의 천자가 하나님께 복을 빌던 천단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구경하다가 넓은 뜰에 있는 과일밭에서 복숭아나무와 사과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맺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 소유였다면 잘 가꾸었을 텐데 형편없었습니다. 또 다른 나무는 조그맣고 시퍼런 열매가 조금 열려 있었고, 또 다른 나무는 종자가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선교교회라는 사과밭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너무 막연하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열매가 있는지,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 중에 주일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가대원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새벽부터 나와 예배드리고 성가대에 참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중직을 맡은 자가 저녁예배에 안 오는지 물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주일입니다.

또 성경 애독의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세 끼 밥은 먹으면서도 일주일간 성경 한 장씩, 몇 절씩 규칙적으로 읽는 것은 잊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찬송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새벽기도를 나오면 음치지만 꼭 찬송가를 1장씩 부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새벽기도를 나오고 싶어도 너무 멀어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새벽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를 참석하십니까?

봉사의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성가대원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들도 다 공부하고 가정을 가지고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일조의 열매가 있습니까? 지난 번 이만신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만, 십일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새롭게 십일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영적 사업에 축복을 하시고, 그 십일조로 선교, 봉사, 교육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도 십일조의 열매가 없다면

십일조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몇 원의 수입이라도 정확하게 십일조를 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야 하지만, 더 많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전화를 함부로 걸지 마시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동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득이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는데 1년이 되어도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목사가 없이 교회가 운영되었는데 한 사람도 신자수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제직이 되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제직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서 100점을 맞기 원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원하고, 낚시꾼은 낚시를 하여 큰 고기를 많이 낚기 원합니다. 농사꾼은 논, 밭에서 추수를 많이 하기 원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참석한 선수들은 동메달이라도 따기 원합니다. 과수원지기는 가을철에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과일나무인데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과수원지기가 내게 와서 과일을 따려고 할 때 얼마나 과일이 맺혀 있습니까? 나무는 과일을 맺어야 합니다. 가을에는 과일을 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일을 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농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영적 가을, 추수기를 맞아서 성령 앞에서 내 마음을 비춰 보고 내게 얼마나 신령한 열매가 맺

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력해서 가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인정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부

성탄절

예수님 탄생의 예고

이사야 9장 6~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자유 의지를 악용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계획을 오래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즉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탄생의 예고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 탄생의 예고

(1)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창 3 : 15)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고와 비판, 분석, 선택, 결정 등을 하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 후손들에게 원죄를 전가시키게 되었고,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 : 15).

이 말씀에서 '너'란 뱀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탄을 말하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팔 하나가 잘라지거나 아니면 둘 다 잘라져도 살지만 머리가 잘려지고 부서지면 죽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십자가에서 발에 못을 박아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완전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아벨의 제물과 같은 피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창 4 : 4~7)

형인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祭物)을 열납하셨습니다(창 4 : 4). 즉 피를 보시고 제사를 받으신 것인데, 여기에서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

합니다. '피'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머니와 군인들의 피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45년 만주에서 해방을 맞고 저희 식구가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출가한 여동생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시댁이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집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편지가 왔습니다. 늘 죽은 줄로만 생각하면서, 한편으론 '혹시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0년도에 중국에 가서 누이와 매부, 그 아들과 딸을 만나보고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민법 변호사인 제 작은 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수속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그 가족의 절반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피'였습니다. 제 피와 누이동생의 피가 같기 때문에, 동질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피가 없었거나 누이동생이 죽고 없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은,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 유월절 양으로 예고하였습니다(출 12 : 21)

애굽의 바로 왕이 오래 전에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청년이 와서 자기 나라를 살린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고 머리가 좋으니 기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 주객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핍박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바로가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를 전부 죽이시고, 육축까지도 첫 태생은 모두 죽이시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제외시키셨습니다. 그 표시로 문설주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애굽 천지에 통곡소리가 났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의 집의 모든 장자와 먼저 난 육축이 모두 죽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이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장차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 3 : 16)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 어떤 소년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1992년 2월 20일에 오시는 것이 연기되었다고도 하고,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택한 백성은 이마에 점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고 그 아이만 분별하니 와서 분별을 받으라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4) 아사셀로 예고하였습니다(레 16 : 10)

구약시대에는 다섯 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때에 살아 있는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이 제단에 불을 피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하나는 산 채로 거기에다 그 사람의 죄를 자백하고는 얹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한 것, 마음으로 살인한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 등 여러 가지 죄목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광야로 쫓겨난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영문 바깥으로 쫓겨나 갈보리 언덕에서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인 것입니다.

(5) 놋뱀으로 예고하였습니다(민 21 : 8~9)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배는 고프고, 어떤 때는 덥고, 어떤 때는 춥고, 병이 나서 죽고, 여러 힘든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은 새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빌어 자기들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

들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도록 하였습니다. 즉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교만하여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얻고(요 3 : 15),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과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 중에 까치독사가 있는데, 이 뱀은 오색이 영롱하고 아침에 이슬을 맞고 햇빛에 비추면 반짝반짝 예쁘지만 만져 보면 꺼끌꺼끌합니다. 인간도 멀리서 보면 착하고 모두 좋은 것 같지만 속은 추악한 독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뱀은 육지에서도 물에서도 잘 사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어떤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술집에 가서는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중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뱀은 크게 입을 벌리면 한없이 벌어져 큰 먹이도 통째로 삼킵니다. 쥐나 다람쥐는 갉아먹지만 뱀은 송아지도 통째로 삼킵니다. 이는 인간의 잔인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한국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을 보십시오. 저들도 지난날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성을 해야 할 텐데, 물론 한국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뱀은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과 입발린 소리를 하다가 돌아서서는 욕과 거짓,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브라질에 독사를 연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수십만 마리

의 독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독사에게서 뺀 피로 만든 주사를 맞으면 산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사를 만들어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환원시킵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눅 23 : 43), 남편이 여섯이나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요 4 : 17~29). 도둑질한 세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눅 5 : 28). 이들은 한결같이 놋뱀을 보았기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6) 위대한 선지자로 예고하였습니다(신 18 :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신 18 : 15).

이 말은 모세가 한 말로, '나와 같은 선지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른 기사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죄를 만회케 하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케 하는 복음을 주셨고, 인류 전체를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몇천 년 동안의 두터운 죄악을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나폴레옹은 "나는 아무 인간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한 바 있고,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사람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으며, 간디는 "나는 힌두교인이고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예수는 존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줄리앙 황제도 마지막 순간 "나사렛 청년이여, 그대가 이기었구나."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였습니다.

(7) 예수님을 구속자로 예고하였습니다(욥 19 :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 19 : 25).

욥이 열 명의 자녀가 죽고 파산당하고 몸에는 욕창이 나고 아내는 도망가는, 즉 인생의 밤, 겨울, 역경에 처했을 때 그는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과 지성과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물질 세계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꽃이 있다면 꽃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꽃 속에 흐르는 움직이는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지성의 눈은 직관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영의 눈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실인 하갈은 바로 앞의 샘물을 못 보았습니다(창 21 : 19). 발람 선지자는 뇌물이 눈을 가려서 앞에 있는 천사를 보지 못하였고(민 22 : 32),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았지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왕하 6 : 15).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미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눅 24 : 16).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과 지성의 눈도 밝아야 하겠지만 모든 죄

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이 죄악의 보자기를 다 벗겨 버리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8)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하였습니다(사 7 : 14)

결혼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뜻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났는데, 이는 예언 성취를 위해서 순결한 여인의 몸을 빌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덮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가계에서 난다고 했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므로 예언대로 탄생하였습니다. 사람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할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 : 27).

(9)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였습니다(미 5 : 2)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촌동네인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미가는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 5 : 2)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400년 뒤의 일을 땅이 넓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큰 땅이 아니라 로마 식민지의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말구유 안에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0)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시 41 : 9)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 41 : 9).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환영하던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배신을 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신을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여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눌 수 없을 때, 예수님도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11) 은 삼십에 팔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슥 11 :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슥 11 : 12).

그 당시 은 삼십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즉 예수님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렸다는 사실입니다.

(12)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고하였습니다(슥 9 : 9)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주님이십니까? 나귀는 전쟁 일선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의미합니다. 나귀새끼는 안장도 없고 장식도 없습니다. 제가 소련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과거 왕족, 귀족들이 타던 말에는 전부 금을 붙였다고 합니다. 말굽도 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한 주님이시기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13) 고난의 메시아로 예고하였습니다(사 53 :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 : 5).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로 와서 마지막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죄를 지은 까닭입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손, 발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에 찔린 것은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예고한 그대로 때가 되매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막연한 암시를 가지고 시작하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더 자세하고 명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정리해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명확한 예언이 증가함에 따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양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에 왔을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되고 그 표현에 쓴 언어와 묘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상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상으로 미리 계획하고,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둘째, 오실 예수님의 정체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그의 성품과 신분,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1) 예수님은 정사자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나 지구의 물리적인 영토, 세속 정부를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정신계, 영계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잡아도 10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나라를 독립, 해방시켜 주셔서 다윗의 황금시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속죄하신 뒤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정신계, 영계로 전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정사자로 오셨습니다.

(2) 기묘자라고 하였습니다

기묘는 '신기하다', '훌륭하다', '놀랄 만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훌륭하신, 놀랄 만한 분입니다. 처녀에게서 났다는 것이 신비하고 마구간에서 났다는 것은 더욱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열두 살에 성전에 가서 성경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한 일, 광야에서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교훈, 비유, 종교계의 공박, 권력의 공격, 기사, 이적, 비폭력주의, 초월적인 사랑, 신적인 죽음, 부활, 승천 등 정말 기묘자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훌륭하고 놀랄 만한 분입니다.

(3) 모사라고 하였습니다

모사라는 말의 뜻은 선비, 고문,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비입니다. 많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고문,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

저 있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모세의 영도력이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도력에 댈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지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모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고 상담자이기에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희랍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상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해결책을 말해 주는 사람들도 모두 유한하고 그들 역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솔직하고 간절히 그분께 털어 놓으면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 : 1).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 : 6~7).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신학생들이 한강에 가서 물을 밟았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들어갑

니다. 다시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온갖 난치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인간과 대화를 하며 그 사정을 알 수 있고, 신성을 가지고 오셔야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지만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는 참 마음 아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 전적인 양육의 책임, 교육의 책임, 치료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시 27 : 10).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 : 5).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6).

(6)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4).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면 십 리를 가고, 꾸러 오면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글이 기억납니다. "세상 임금님이나 대통령 치고 뼈로 성을 쌓지 않고 사람의 가

죽으로 장막을 치지 않고 피로 술잔을 삼지 않은 왕과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세계 대통령, 왕, 독재자를 보면 뼈로 성을 쌓습니다. 김일성도 많은 사람을 죽여 성을 쌓고 사람가죽으로 장막을 치고 피로 술잔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원수의 종의 귀를 붙여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 공평과 정의의 통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정치를 못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람도 죽여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구 선생을 누가 죽였습니까? 장덕수 씨를 누가 죽였습니까? 한때는 친구였고 전부 정치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공평합니다. 예수님만이 정의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망했지만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점점 더 햇빛과 같이 드러나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편견과 감정으로 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이 들어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본받아 실천할 일

예수님은 이런 예언과 약속 속에서 오셨고, 그분은 정사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 공평과 정의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처럼 낮아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도 그 거룩한 분이 인간들을 위해 낮고 비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태중에 들어가 계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나 애굽으로 쫓겨가기도 하셨습니다. 성장해서는 목수 생활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무덤,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니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탄에 낮아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치료받는 성탄이 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앉은뱅이, 눈먼 자, 문둥병자, 죽은 자를 모두 완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쁜 성탄에 치료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소경, 절름발이, 벙어리, 귀머거리 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영적인 치료를 받아 향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서로 화해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잡아 하나로 악수시켜 주시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이번 성탄에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교육관보다 전 성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강자가 약자에게 먼저 가서 손을 잡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금이 갔습니까? 교인간에 금이 갔습니까? 바깥에서 금이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4) 나누어 줍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몸을 찢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차에 선물을 가득 싣고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의사 여섯 분과 간호원 세 분이 함께 가셔서 비록 힘은 들었지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갔다온 사람은 안 간 사람보다 몇 배 더 기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는 역사를 만듭시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랑에 굶주린 자들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사랑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 가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한몫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성탄은 정말로 아름답고 진정으로 기쁜 날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5~20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절은 무한이 유한 속에, 영원이 시간 속에, 초우주가 공간 속에, 빛이 어두움 속에, 거룩이 세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신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발생한 날이며 최대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전인류가 이날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

리를 죄에서(엡 2 : 1), 율법에서(갈 4 : 5), 악한 세상에서(갈 1 : 4), 악마의 세력에서(히 2 : 14) 구원하시며 결국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알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의인 요셉

아기 예수를 최초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한 것을 알고 그는 그것을 문제삼아 마리아를 곤경에 빠뜨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와 같은 경우 동네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니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

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25절까지 성경은 요셉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살리려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고, 남의 죄를 들춰내어 광고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고 관대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이 경건하였기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동침치 아니한 것은 그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19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관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경건의 사람이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최초로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충성된 목자들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牧者)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라면 훌륭하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길러 옷 만드는 재료를 생산 공급해 주고 또 양고기를 제공해 주는 천민들이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보면 랍비들은 목자들을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재판장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도둑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저들은 도시의 소음을 떠나서 조용하고 차분한 자연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해는 지고 대지는 어둠으로 덮이고 고요했으나 청청한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고요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들려준 복음의 내용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 : 11)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과거에는 없는 제일 큰 기쁜 소식입니다. 국적과 민족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눅 2 : 16)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이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지체없이 갔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은 지체없이 빨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령에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천국생활에 관계된 명령이나 직무는 지체없이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해준 단순한 표적, 즉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했을 때 이 단순한 표적을 가지고 즉시 가서 그들의 믿음대로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의 단순한 믿음은 지체없이 그들을 행동하게 하였고 아기 예수를 만나보는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목자들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는 없지만 강보에 싸여 있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표적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표적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사변적이거나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따져 가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처럼 목자들처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이 단순한 마음을 소유하고 자신들이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목자들처럼 한적하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는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게 따라가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갈대아 혹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철학, 의학, 자연과학, 천문학, 특히 점성술에 능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들에게 학문에 대한 조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평화나 기쁨이나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참 만족을 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궁극적인 것을 찾았습니다. 항상 고개를 들고 하늘을 살피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나 서쪽을 향해 움직여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과 계곡을 지나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

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고난과 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먼 길을 왔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길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별이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귀중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먼 곳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극복하고 우리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별과 같은 사람이요, 신약의 바울도 별과 같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아주 값진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며, 유향은 좋은 향기를 가진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겠습니다.

넷째, 경건한 사람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눅 2 : 25).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항상 함께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에게 전례를 행하고자 데리고 들어오자 어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하고 저희를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안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독실하고 공평무사하고 청렴강직하며 절제하며 온건하며 영적 분별력이 있고 언행심(言行心)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건한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고 조화된 생활을 하고 통일된 생활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도의 여인 안나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따져 보면 100살이 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함께 있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전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이 먹은 노인 안나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오심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점점 더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건할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현재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헤롯 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와 이방인과 조용하고 묵묵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 요셉과 같이, 충성된 목자들과 같이, 위를 쳐다보는 동방 박사들과 같이, 경건한 시므온과 같이, 그리고 기도의 사람 안나와 같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더욱 가까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1장 18~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군가가 프랑스의 군대가 전쟁 목적을 알 때에는 가장 강한 군대가 되어 승리를 하였지만, 그 목적을 모를 때에는 가장 약한 군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는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잘 하여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도중에 바르지 못한 생활로 빠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 세리(稅吏) 마태를 구원하셨습니다(마 9 : 9~13)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라고까지 생각하였고, 개처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러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가득 찬 눈으로 예수님을 응시하며 수상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요,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산상수훈(마 5~7장)을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구약 성경이 다 없어져도 마태복음 5, 6, 7장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 시몬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눅 5 : 4~11)

예수님은 또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시몬이란 사람에게 접근하셨는데, 그 방법은 그의 배에 올라 그의 관심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헛

수고로 낙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몸과 마음이 피곤에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곧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 : 8)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시몬을 구원시켜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3)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요 4 : 5~29)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에서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곳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행길에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시며 말을 건네는 방법으로 여인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 다섯 명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도덕하여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를 모두 씻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한편 그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듯 끝이 없습니다.

(4)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요 8 : 1~11)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의 율법(신 22 : 22~24)을 거론하며 여인을 향해 돌로 쳐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대들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범죄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도록 하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이 던진 물음 속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만약 여인을 살려주자고 말하면 예수님을 조상들의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자로 몰아낼 것이고, 만약 죽이자고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 : 7)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있던 돌을 버리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딤전 1 : 15)

바울은 전에 스데반을 죽인 공모자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를 향한 구원하심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였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

상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인의 친구이십니다(마 11 : 19).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히 4 : 15)으로서,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분(고후 5 : 21)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좋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들어 큰 인물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시며, 마지막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찬송가 487장 1절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이지만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친구이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확실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형제간에도 시기, 질투, 살인까지 하고, 또 자식과 아비 사이에도 서로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며, 같은 동족끼리도 싸우는 불신과 시기, 질투, 원망, 살인, 전쟁 등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자로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3~14).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하늘에서 주는 이 평화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도하다 옥에 갇혀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렇지만 옥중에서도 다리를 쭉 펴고 잤습니다(행 12 : 6).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늘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 매를 많이 맞고 옷이 찢기고 옥중에서 양손에 쇠고랑을 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행 16 : 22~26).

저도 감옥 생활을 북한에서 한 번, 남한에서 두 번 해보았지만, 그곳에서는 밤이 되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들에 대해 두려움과 겁이 없고, 예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안, 샘솟는 평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평안, 순교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나타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수평

은 인간과 인간, 동과 서, 흑과 백, 남과 여, 부귀와 빈천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급을 타파하고, 인종, 성별, 유식과 무식, 부귀와 가난함을 타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 자매이며 하나이고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화평이 있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 적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469장 3~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찬송은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

려는 것이라"(요 10 : 10)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부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한국의 감옥에 가보면 서울의 명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권력 가진 대통령들도 감옥에 가고, 권력 가진 박정희 씨도 죽고, 클린턴 대통령도 주지사만 했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망신은 안 당했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행복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목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마 5 : 3~9).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심오하고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생명의 귀함입니다. 사람이 참새 한 마리보다도 못한 값으로 사고 팔리던 그 당시에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나치게 신성시해서 잘못된 제도와 형식에 얽매여 사는 그들에게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넘어져서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났다면, 예배드리겠다고 그냥 오는 것보다는 예배 시간에 빠지더라도 내려서 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 이것

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만민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만, 우리 교파만 잘 믿는다는 그런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종교는 허다한 율법과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적 세계란 정치와 율법이 뒤범벅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지가 실천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대접을 받고 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진리는 총칼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인간 마음속에 간직한 진리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하나의 목표를 견지하고 꾸준히 끝까지 전진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궁극적 목적은 대립이나 경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화해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의식주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고전 10 : 31). 즉 인간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아도 값진 삶을 사는 것이 의미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준수함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강도라도 즉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는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본향인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서는 하늘나라를 보여 주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그곳으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약한 것을 잡아먹는 생활을 하는 곤충으로서, 이런 사람은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벌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즉 심미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심미적인 사람은 바람 피우고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아는, 다시 말해서 내 남편과 내 식구만 아는 사람을 말하며, 종교적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즉 이웃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감옥에 들어간 부모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50가정을 책임지고 돕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감사하게도 80가정을 돕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미의 어려운 세 나라에 각각 5,000달러씩 보내는 예산도 세우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루하루를 살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대로 산다면 분명히 생의 풍요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 : 2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 : 8).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이와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잠깐 머무는 곳일 뿐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먼 나라이고 가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 딸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확신이 서고 그곳이 가까이 보이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형님이 나이 삼십에 강릉에서 전도사로 순교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나이가 먹어 가고 이제는 갈 날이 가까워지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여러 가지 증거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성적 증거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은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성은 의식을 지배하고,

의식은 곧 영혼인 것입니다. 저는 24시간을 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 사는 한 세계,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또 한 세계입니다. 저는 가끔 어디에 가서 설교하고, 부흥회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꿉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몸이 물질만이 아니라 의식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과학적 증거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브라운 박사는 "과학은 무엇이나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했고, MIT 교수는 "초 한 가락이 다 닳아 없어지면 형체가 바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물질도 불멸인데 영혼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본능적인 증거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오래 살고,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떠나면 달세계로 가는 줄로만 알고 있고, 희랍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 세계로 가는 줄 알고, 불교에서는 극락 세계로 가고, 기독교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프레드릭은 말하기를, "모든 자연은 그의 자연적 만족을 갈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들이 남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서로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새들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모든 새들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하니 오래 사는 세계가 있다."라고 프레드릭 박사는 말한 것입니다.

넷째로 양심적인 증거입니다.

칸트는 말하였습니다. "밤 하늘을 쳐다보면 반짝이는 별이 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 마음속에 반짝이는 도덕률,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불의한 짓을 하면 누가 보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내면에서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알곡,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아궁이에 넣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성서적 증거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 : 35, 눅 21 : 33).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 : 24~25).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사람이 자서전을 쓸 때 나쁜 것은 쓰지 않고 좋은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쓰게 마련입니다. 즉 과장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사실대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영생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 : 46).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 6 : 47).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 : 54).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일 2 : 25).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 : 18).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 : 20).

여섯째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1~3).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곱째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눅 24 : 5~6).

예수님은 잠자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 : 20). 즉 이 말씀은 성도들의 부활의 증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인 네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빵, 사랑, 자유, 영생에 대한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못할 때 나머지 욕구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미국의 애국자 프레드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굶어도 좋으니까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38선을 넘어 올 때, 넘어오자마자 안내서를 찢어 버리고 '이젠 살았구나!' 하며 얼마나 자유의 귀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것, 둘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는 것, 셋째는 노인들의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충동을 반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욕구 중에서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한 욕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내가 먼저 남에게 사랑을 주면 그것이 배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싸워야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입, 물질 등으로 감사, 찬양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적 성탄 축하

누가복음 2장 8~20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게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날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거리와 상점 등 어디서나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네 종류로 분주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때에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친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년에 한 번 외국

을 나가거나 즐기는 사람들로서 그 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흥청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술과 춤, 때로는 죄도 짓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단지 성탄절을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경건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집에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고, 카드도 보내고, 가족과 자기 이웃을 돌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탄절을 예배와 기쁨으로 보냅니다.

올바른 성탄 축하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찬양하는 것입니다

(1) 천군과 천사의 찬양입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 : 13~14).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훌륭한 사람이나 귀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다는 말은 못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못 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못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2) 선지자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主宰)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 : 28~32).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식 결례를 받을 때에 성전에 나와 있던 예루살렘 사람 경건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기록입니다.

생일날은 축하의 노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날이 되면 케이크를 놓고 나이에 따라서 촛불을 밝히고, 그러고는 "Happy birthday to you"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의 생일도 이렇게 축하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하물며 성탄절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 : 21).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 : 15).

찬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 모세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혹독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출 15 : 1~19).

악독한 바로가 열 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마침내 애굽의 사람과 가축의 장자가 다 멸망을 받을 때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홍해의 언덕에 왔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를 보니 애굽 병정이 쫓아옵니다. 잡아다가 다시 노역을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왔고 애굽 병정들은 물이 흘러 덮쳐서 다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찬양한 것이 바로 위의 노래입니다.

(4) 한나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 되어도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수치감, 의무감으로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그 시부모를 볼 때에 얼굴을 못 들게 됩니다. 혹 아기를 못 낳으신 분이 있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실로의 성막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며 철야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기를 낳게 되어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키우기로 하여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

리고 난 후 한나가 다음과 같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쁨이니이다……"(삼상 2 : 1~10).

(5)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대상 15 : 16).

다윗은 일개 촌의 목동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하여지고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은 비파와 수금과 제금의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288명의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대상 25 : 6~7).

위에 나열한 사람들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성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이번 계절에는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까운 식구들이 모여서, 또 직장에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되 성탄에 관한 찬송(108장~126장),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와 이 성탄의 계절을 바르고 아름답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배를 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마 2 : 11).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 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왕이라고도 하고, 제사장,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메대, 바사, 아라비아, 바벨론, 발타, 동방 지방 전체, 희랍, 인도, 애굽 등의 견해가 있지만 그것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설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전해 내려오며, 이들의 직업은 점성학자였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자로서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번쩍이는 이상한 큰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지구상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자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별이 이곳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 아기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엎드려 각자가 가지고 온 것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나이로 본다면 상당히 연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박사요 부자이며 명예가 있는 귀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까? 왜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4).

그들은 그 위엄과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드린 경배는 어떤 경배였겠습니까?

(1) 이방인이 드린 경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땅을 위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할례도 받지 않은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이방에 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절한 것은 '당신은 유대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방인으로서 만민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2) 먼 곳으로부터 와서 드린 경배입니다

이들은 인도나 바사 땅이란 곳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 강을 건너 몇 날 며칠 뜨거운 햇빛과 찬바람 또 강도의 위험과 맹수의 위험을 다 물리치고 멀리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멀리 코스타메사에서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다우전 옥스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샌버낸도 근처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오는 시간이 아마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드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구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만리 길을 왔다가 만리 길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3) 고전적 경배입니다

어떤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동방 박사들이 바사의 성직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 직위, 학식, 명예를 버리고 아기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지향한 것입니다. 과거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는 회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참 기쁨, 평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들이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돈과 지위와 명예도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악령이 나가자 점쳐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남자가 바울과 실라가 다른 종교를 퍼뜨려 나라를 소란케 한다고 해서 쇠사슬로 묶고 많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

했습니다.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놀라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 : 31). 이 사람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참 평화, 평강, 기쁨, 영생을 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4) 과학자로서의 경배입니다

이들은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과학이란 정확하고 정리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도 진리이기 때문에 과학자들과 기독교가 모순이 없다는 것이 많은 배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천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리는 교화되어야 하나 과학이나 학문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없는 신앙은 미신이다. 맹목적 신앙이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과학자치고 신앙 없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77살로 두 번째 우주 여행을 하고 온 크린이란 사람은 “내가 이번에 가서 이 장엄한 우주 질서를 정연하게 움직이는 분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질서의 배후에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도 보면 빨강, 파랑, 노랑 불의 교통 법규를 만들었지만,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차가 부서지고, 죽기도 합니다. 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에 절대자의 움직이심이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를 하지만 생명의 떡을 그들이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과학으로 창조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본을 가지고 연장시키고 바꿀 수는 있지만 창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돈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생명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군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튼튼한 남자만 만들어 군대로 이 세계를 지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지금도 하나님만 주장하십니다.

(5) 온전한 경배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 모두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부자의 신분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예수님이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 줍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보다 서민층이 많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을 와서는 교회에 나와 도움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처음보다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벌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적어지며 나중에는 교회를 등한히 하여 출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관심을 다른 곳에 두어 주일이 되면 골프를 치러 가거나 낚시질, 도박 등으로 보냅니다. 부자가 되어 교회에 나올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것인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출세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젠 교회에 안 가도 먹고 산다.' 고 생각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삭개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마 2 : 11). 첫번째 박사 이름은 메키올인데, 나이가 제일 많고 얼굴 색이 희고 긴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사람은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스팔이라는 사람인데 젊고 수염이 없고 얼굴이 붉은 사람으로,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발다살이라는 이름의 박사인데 새로 기른 수염이 있고 얼굴이 검은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예수님의 특성과 업적을 잘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세네카에 의하면, 동양 고대 사회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왕에게 갈 때에는 꼭 황금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을 때 황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왕상 10 : 2).

그러므로 황금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이여, 당신은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십시

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09장을 부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바쳤습니다. 유향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유향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유향을 뿌려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합니다. 따라서 유향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제사장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직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잡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 14 : 6). 내가 행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옆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Good News)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저나 성도님들은 강도보다는 나은 사람이니 분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바친 것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기름인데, 이는 약품입니다. 이것을 시체에 바르면 썩지 않습니다. 미라를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제가 애굽의 박물관에 가 보니까 4,000년 된 왕과 왕후들의 시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몰약을 발랐기 때문에 얼굴만 꺼멓지 다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물을 드린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 죄를 위해 죽지만 썩어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막 10 : 45).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만민이 살았습니다. 찬송가 189장 2절에 보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오광찬 장로님과 함께 중국에 가서 제 어머니 시체를 모셔 왔는데, 다른 것은 모두 없어지고 해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지지 말라고 튼튼하게 하신 모양입니다. 저도 머리를 여러 번 '탕!' 부딪쳤지만 아프기만 했지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리 조각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아주 튼튼합니다. 그런데 고향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 보니까 뼈도 없고 해골도 아무것도 없이 흙과 물뿐이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오신 박형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세인트루이스 한인 교회에 가서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흘 밤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자 사십 중반쯤 되신 분이 오시더니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 좀 해도 괜찮겠느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러시아 선교에 써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제가 들어 보니 그분은 조그만 세탁소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 불쌍한 자가 발견되면 마음과 물질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예수님의 나심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재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평화의 왕이 나셨으니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눅 2 : 16~18).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였습니다(눅 2 : 38).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합니다. 제가 1945년 8월 15일 저 만주 목단강 밑의 영안에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라디오에서 온 세계에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곧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함이 마땅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흥청거리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어떤 재미와 신명이 난다고 해도 그것은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은 성탄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먼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이제, 금년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도록 합시다. 분명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8부

송구영신

마지막 주일의 교훈

베드로전서 4장 7~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옛말에, 시간은 강물과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르고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1년의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벧전 4 : 7). 여기서 한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벧후 3 : 8) 또,

사도 바울도 때가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고전 7 : 29). 이 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내 나이가 한 살씩 더함에 따라서 우리 생의 종말, 즉 죽음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는 시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정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달라 어렸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고 늙어서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빨리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모임에 가면 어리다고 큰 사람들이 내쫓고, 구경하려 하면 큰 사람이 둘러서서 보니까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빨리 커서 자동차 몰고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빨리 죽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간다는 것은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며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엡 5 : 16)라고 했습니다. 남은 때가 단축되었다면 남은 때를 값있게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이교도들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 좋은 사람이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들이라."라고 했고,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악자의 세력으로부터 시간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라고 했으며, 박윤선 목사는 "내게 희생이 있더라도 시간을 사라."라고 했습니

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어 줌으로 시간을 사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강도에게 목숨을 건져 시간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속량, 귀한 것이기에 아끼라고 한 것입니다.

(2)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면 기회라는 표지에 두 가지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자 머리를 두고 기회가 올 때는 이러하고, 또 하나는 새 꽁지를 두고 기회가 갈 때 이렇다고 표식을 했습니다. 기회가 올 때는 잡기 쉽지만 가고 나면 잡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사업자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시간을 사서 사업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사서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권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속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를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용할지를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4) 시간을 벌어 놓으라는 말입니다

다운타운 여러 곳곳에서 추운 겨울날 집이 없어서 신문지 조각을 펴놓고 누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젊었을 때 시간을 벌어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술 먹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 말년에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차를 타고 뒤엔 작은 차를 달고서 미국 여기저기를 다니며 여생을 즐기는

것을 볼 때 시간을 벌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5) 시간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기회나 시간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프레이버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은 금도 되고 납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이 금이 되지만, 술마시고 노름하고 춤추면 시간이 납밖에 되지 않습니다.

(6) 시간을 충분히 살리라는 말입니다

라이트는 "너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시간을 낭비치 마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이다."라고 했고, 영국의 체스터 필드 경은 "사람은 시간이 넘칠 때는 낭비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활용하려고 애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가 가면 "목사님,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주면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나으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나중에 봐야 알지 모릅니다. 미국의 시퀸은 "잃은 재산은 부지런하면 찾을 수 있고, 잃은 건강은 좋은 약을 먹으면 찾을 수 있고, 잃은 지식은 공부하면 찾을 수 있고, 멀어진 우정도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빼앗긴 명성은 미덕을 가지면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어떻게 찾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 보아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 내년의 시간을 우리는 이 시간, 이때, 이 기회, 이 세월, 이 광음을 마귀와 세상, 육신, 돈, 향락 등에게 뺏기지 말고, 시간을 잘 속량하고 포착하여 뜻있고 보

람있게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 때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 신앙의 세 가지 자세를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원의 그늘 아래 사는 인간에게 주는 권면이요, 마지막에 주시는 권면입니다.

(1)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7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신령한 호흡이요, 생명의 창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더러움과 교만, 미움을 닦아내는 것이며,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마 5 : 44). 또한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약 5 : 15),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롬 8 : 1),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며(출 17 : 11),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게도 합니다(민 11 : 2). 구약 인물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여 15년이란 시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사 38 : 5).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고(행 2 : 1~4), 교회의 부흥(행 2 : 42~47)과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주님을 신랑 예수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 25 : 1~13).

여러분, 지난 한 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못 나왔지만 집에서 무릎꿇고 기도했습니까? 금요 기

도회를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총동원 새벽 기도회를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고요한 산을 찾아가서 바위나 나무를 붙잡고, 혹은 기도원에 가서 몇 번이나 기도하고 왔는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 : 17)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 : 4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세기의 성자 토마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와 같이 남겨 놓고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형제의 고난과 재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근대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와 자비의 기도"에서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당신께 고합니다.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재능의 낭비, 당신에 대한 불순종, 무관심, 굶주림과 아우성에 귀를 막는 것, 고통당하는 인간의 고뇌에 굳어진 마음, 무자비한 경쟁, 동료들을 물질의 노예자가 되게 하는 것, 형제의 영혼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과 영광이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죄에 대한 삶이 당신의 은총을 실어 나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안에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게으름을 피웠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과 높은 산에서 기

도하시고, 이마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2)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부부지간을 보면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 : 8)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들려주는 경종과도 같고, 심판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교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종이고, 유교에서는 인(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진리는 대학에 있고, 정의는 법정에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에 가야만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과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가정과 교회 식구, 사회의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1~3절은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순교보다 더 우월하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7절은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부족해졌다고 느낄 때 항상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 읽습니다. 그러면 식었던 사랑이 뜨거워지고 잃었던 사랑을 되찾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권태기가 왔

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7절을 백 번 정도만 읽으시면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8~13절은 사랑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방언, 지식도 폐하지만 사랑만이 영원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도 '사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과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슬퍼지지만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보다 더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라고 말한다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두고 목숨을 거둬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교회를 나가기 전에 만나기 싫었던 사람, 혹 밉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화해하고, 서로가 손잡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서로 봉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위 본문 말씀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10절)라고 했습니다. 예

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많은 일을 표현한 성경 한 구절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 : 35). 즉 교육, 선교, 봉사가 예수님의 3대 중요 업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지 잡수실 시간도 없이 일생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했고, 테레사 수녀가 일생을 처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였기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 : 15)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에게도 남의 발을 씻겨 주는 사람이 되라고 손수 봉사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가치관이 달라져 재물을 사도에게 다 내어 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 주고 봉사함으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라는 말인데, 종이 식탁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는 끝없이 실천해야 할 기독교의 의무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이나 선교 단체들이 여러 곳에서 교육, 선교, 의료, 구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예수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계를 돕는 등 많은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돈을 벌어 집과 은행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봉사를 위해 쓴다면 빼앗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동안의 동양선교교회의 성장을 볼 때 많은 봉사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봉사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자신의 은사와 능력대로 봉사하시면 신앙도 성장하고 축복도 많이 받을 것입니다.

한편, 봉사를 할 때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해야 하며(10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11절).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οἰκονόμος*)'라는 말인데, 경륜, 관할, 시간,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신뢰받는 관리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받는 관리인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지구촌 어디에서든 이런 청지기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산다면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포드는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봉사정신으로 사업을 한다면 흥하지만 돈을 벌어 잘 살고 잘 먹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면 망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최태준 씨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은 하늘에서 상이 없고, 숨은 봉사만이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 : 1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 : 35)라고 했습니다.

제가 삼사십 년 전쯤 전라도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어느 정거장에서 "엿 사시오, 엿 사시오." 하는 엿장수의 소리가 들리기에 엿 열 개를 사서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앞에 앉은 사람이 계란 열 개 사서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엿 하나보다 계란

이 더 비쌌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먼저 엿을 안 주었다면 계란을 어떻게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일이 기억납니다. 15년 전 제가 신학 석사 과정 졸업반에 있을 때 선생님과 학생들이 성지를 연구하러 갔습니다. 유럽에서 해산하고, 독일에서 며칠, 몇 시에 모이자는 약속 아래 저는 혼자 노르웨이로 갔다가 독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과가 먹고 싶어 미국 달러를 주며 사려고 했더니 외국 돈은 안 받는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먹고 싶은 사과를 못 사고 서있었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종이 봉지를 들고 와서 제게 말하였습니다. "먹고 싶어서 사려고 했던 사과를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독일 사람을 좋아합니다.

셋째, 형제 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 : 1)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저희 교회 모 집사 삼형제는 결혼하여 그들이 모두 자녀를 낳고서도 한 집에서 다함께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나'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형제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유기적,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옷을 입은 것도, 식탁을 대할 때도 여러 사람의 땀이 밴 것을 보면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마 10 : 1), 70명의 공동체(눅 10 : 1)를 형성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행 1 : 15). 우리도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고전 1 : 12~13)라고 했습니다. 파가 나뉨을 책망하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11절)라는 기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한 각 제자들의 성격이 모두 달랐지만(마태는 사대주의자, 시몬은 국수주의자, 요한은 온유한 자, 베드로는 과격한 자, 안드레는 단순한 자, 도마는 회의주의자) 그들은 그리스도 무릎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었으며, 성령을 받고 나서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체를 가리키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

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 : 20~27).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다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 다양성, 중요성, 긴밀성,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 누군가의 마음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등의 생각을 하면 이 구절을 자꾸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회를 보고 하나가 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과 흑인의 갈등 해결, 남북통일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2,800~3,00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여러 교회나 선교 단체 등 큰 행사시에 장소를 빌려주고자 합니다. 교육과 선교 사업을 착수하고, 주차장도 700~800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 안에서 우리가 다함께 마음을 합해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을 맞는 이 주간에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합시다. 또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고와 전망

시편 90편 9~12절
전도서 12장 13~14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금년 일년을 사는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눈앞에 놓여 있고 지금까지의 삶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시간에 한 해를 회고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시편 90편을 읽어 보면 세월의 신속함에 대해 노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9~10절).

옛날 숙종대왕 때 김삼연은 "녹양(綠楊) 춘 삼월을 잡아매어 둘 양이면 센 머리 뽑아내어 찬찬 동여매련만 해마다 매지는 못하고 늙기 싫어하노라."라는 시조를 읊었습니다. 고려 충숙왕 때 우탁은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지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렷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중국의 장자는 "먹는 나이는 거절할 수 없고 흐르는 시간은 멈출 길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시인 소동파는 적벽강에 발을 담그면서 말하기를, "똑같은 강물에 두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이 시간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R. 번즈는 "시간이나 강물을 붙들어 맬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탄식하였고, 오비디우스는 "시간의 흐름은 매끄럽고 미끄러워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철인 키에르케고르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간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나열한 사람들의 말의 공통점은 시간이란 정지하지 않고 에누리도 없고 빨리 흘러가고 또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무상입니다

인생은 잠깐이고 누구에게나 유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생, 실존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열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창 47 : 9). 나그네는 고향과 집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곳에서 머물러 있다 하여도 행복할 수도 없고, 그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인생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고(욥 7 : 6), 꽃의 인생(욥 14 : 2)처럼 곧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열흘도 가지 못해 시듭니다.

매주일마다 고등부에서 제 방으로 예배실에 있던 꽃을 날라다 주는데, 집에 가지고 가서 일주일이 지나면 다 시들어 모양이 흉하므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꽃과 같이 어렸을 때는 어여쁘고 생기가 돌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힘없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전 6 : 5).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만 빛이 없으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개의 인생(약 4 : 14)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끔 새벽에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안개는 물러가고 맙니다. 높은 산에도 밤에 안개가 끼었다가 아침이면 금방 없어집니다. 이처럼 인생은 잠깐 안개와 같이 있다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벧전 1 : 24), 장막(고후 5 : 1)과 같습니다. 풀은 처음에 싹이 나지만 결국은 말라 죽고, 세월이 갈수록 장막은 낡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석사 공부를 할 때는 여행을 하지 못할 형편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오랜만에 텐트를 사서 작은딸과 아들, 아내와 함께 101노선을 타고 자동차로 여행을 갈 때, 도중에 텐트 안에서 자기도 했는데, 몇 해를 지나니 그 텐트가 낡고 삭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도 살다 보면

찢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한 인생에 대한 비유는 고정되고 항구적인 인간이 아니라 잠깐 있다 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식구만 예를 들어도 열한 분이 영혼의 고향을 찾아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제 눈앞에 아른거리며 웃는 얼굴로 옆에 존재해 있는 것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셋째, 금년 한 해를 회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하며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마 25 : 14~30)를 말씀하신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결산은 투자와 활동의 결과 그리고 상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결산은 저녁에 하고, 한 달의 결산은 월말에, 1년의 결산은 12월에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전 12 : 14, 고후 5 : 10). 요한계시록 20장 12~13절에 이 일에 대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

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은 책 한 권을 출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령의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으앙" 하고 우는 것을 시작으로 세상 떠날 그때까지 발자취, 생각, 말, 모든 것이 쓰여져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것을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었는가?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를 드렸는가?
설교를 듣고 실천에 옮겼는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는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켰는가?
말에 실수가 없었는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끝까지 견뎌 참아냈는가?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까지 남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가?

위의 물음에 3분의 1 정도 잘못하고 나머지가 합격선에 들었다

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3분의 2가 잘못되고 나머지가 합격선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마 3 : 10).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 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 버리라고 과수원지기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수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 달라고 하면서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 내년에는 꼭 과실을 맺게 할 것인데 만약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 버리라고 하였습니다(눅 13 : 6~9).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1년 더 연장받아 내년에는 기필코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 : 13~1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게 다섯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

니다.

너희들의 남은 때가 얼마인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즉 구원의 방주를 완전히 지어 놓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고,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돈, 지식, 권력, 좋은 집, 멋진 차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위의 질문의 해답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와 소원 성취의 좋은 결과를 맛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망각과 희망

빌립보서 3장 10~1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월의 신속함이 날아감과 같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년 동안의 삶을 회상하면서 잊을 것은 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경주장에서 달음질하는 사람이 영예의 승리를 하려면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것을 향해 좇아가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경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달음질해야만 영적 생활에 향상과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동차의 안을 보면 모든 자동차마다 좌석 바로 위에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거울은 뒤를 돌아보라는 뜻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잠깐잠깐 쳐다보고 안전 운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뒤를 잠깐 돌아보는 것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한없이 뒤만 보고 있는 것은 전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싣고 다가오는 새해를 목전에 두고 신앙의 걸음을 옮겨야 할 이 때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빌 3 : 13),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 : 62)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만을 회상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전진을 못하고 때로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너무 고생이 심하자 앞에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보다 고개를 돌려 과거의 애굽 생활에 집착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 애굽에 있었던 고기가마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

가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까마귀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교회는 광야를 뜻하고,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선미의 세계, 이상, 영혼의 고향을 또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신령한 나그네요, 순례자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에 지쳐 있을 때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애굽을 생각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물질과 현실 세계인 애굽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며, 순례자의 길을 올바로 가려고 할 때 잊어버려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성도들 가운데 운전하다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을 잘못하여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도덕적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였습니까? 실패한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을 자꾸 생각하여 자기 부족을 반복하여 느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 아이젠하워, 맥아더 장군 같은 정치가들의 전기를 볼 때 많은 실수를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것을 자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위축시키지 말며, 자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까닭에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동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로 왕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창 20 : 1~11). 또, 결혼생활에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계집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나중에 본처에게서 낳은 이삭과 원수가 되는 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창 16 : 1~16). 오늘날 이삭의 자손은 유대 사람들이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싸움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싸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도 실수를 거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비석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 깨뜨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출 32 : 19).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에서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혈기와 불신앙의 자세를 취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민 20 : 1~13).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하였지만 중보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고 비신앙의 모습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모세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를 거듭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은 모두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자기만은 주님을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마 26 : 33)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는데도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실수를 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들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구약의 일인자 모세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했거늘 하물며 우리가 실수했다는 것은, 자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간 일 년간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모든 잘못을 묵은 해와 함께 영원한 과거로 다 쓸어내 버리고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마음 아팠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위에서 잊어야 할 것들은 내가 저지른 나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잊어버려야 할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이나 바깥에서 오는 모든 오해, 모략, 핍박, 동정, 저주, 악담 등으로 인해 괴로웠던 마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갖은 모략과 중상, 악담과 저주, 배신을 당하고 잡혀가 매맞고 가시관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돌아가시기까지 인간으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참으시고 악인에 대한 것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히 12 : 3)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저울을 달아 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과 고통을 저울로 달아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사랑으로 참고 견뎌 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고 묻어 두고 잊어버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가 당한 괴로움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비교해 볼 때 감히 우리의 입술로 힘들다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 : 22~27).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오해를 받고 중상모략과 핍박을 당하고, 옥중생활 중에서 매를 맞고 고생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매를 맞아 보았습니까? 옥중에 얼마나 들어가

보았습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픔을 느껴 보았습니까? 바울만큼 곤란하고 심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편을 펼쳐 놓고 읽어 보십시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읊은 시입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을 펴 놓고 1~150편을 읽어 나가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이 있고 자랑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성공했던 것, 잘했던 것, 칭찬받은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고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 때, 그는 목동 생활과 군인 생활, 정치 혁명 생활을 할 때는 신앙이 좋아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크게 성공했을 때 교만이 목까지 차서 기도하지 않고 율법책을 들춰보지도 않고 찬양하지 않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 지붕으로 올라가 유대 땅 동서사방을 보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보름달보다 초승달이 좋다"는 뜻 있는 말이 있고, 학교에서 1등을 하는 사람보다 2등을 하는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는 더 성공한다는 말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성전을 지으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자기의 사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축복을 자신 스스로가 누렸습니다. 화려한 궁을 짓고, 수천의 후궁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까지 데려와 왕후로 삼고, 사치와 향락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최후의 모습이 비참하지 않았습

니까? 결국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은혜의 생활을 했지만 성공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웃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능력이 있고 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는데 그는 스스로가 왕으로서 자신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대하 26 : 4~20).

사람은 성공하였을 때, 즉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럴수록 성공한 것이나 칭찬받았던 것을 잊고 항상 처음의 모습 그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앞의 것을 잡으려고 좇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13~14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좇아간다' 는 말의 의미는 '힘을 다하여 추격한다', '달려간다' 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지막 영예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끝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1) 푯대를 정하십시오

달려가는 사람이 아무리 잘 달린다 하더라도 푯대, 즉 골인 장소로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달려가는 푯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 : 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푯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요 14 : 6)이고, 진리와 모든 것의 참 가치가 되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푯대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하고, 가정을 건설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고 있는 새해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목표를 정할 뿐 아니라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의 목표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과 성결한 생활을 하자! 가정에 대해서는 온 식구가 건강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자! 교회에 대해서는 배가운동을 일으키고 교육관을 세워서 선교, 교육, 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사회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서 봉사 생활을 하자!"

저하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공부에 집중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정하거나 결혼, 자녀 갖기, 효도, 사업의 발전 등등 각기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뜬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또는 물결치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것이나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각자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내게 필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든지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계획과 목표를 모두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후에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제2의 영도자가 되어서 대권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쳐들어가려고 할 때, 즉 목적지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수 1 : 9).

결국 여호수아는 6년 동안의 악전고투 끝에 꿈에도 소원이던 가나안을 정복하여 45년 동안의 광야생활의 보따리를 풀고 새 나라 건설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필요로 합니다. 공자는 무슨 일을 맡겼으면 3년을 기다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민오신 분이 6개월 만에 성공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6년은 겪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는 소수 민족 가운데 제일 성공한 민족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300년에 걸쳐 성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단결력을 발휘하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며 상부상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공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좋은 결과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면, 그가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 수영을 해서 가까이 있는 섬으로 가서 다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수영을 잘해서였지만, 몇 가지 물건들을 건지는 중에 비상시에 사용하는 약상자 속에 들어 있는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고 읽은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 그는 이 말씀에서 큰 용기를 얻어 무인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오랜 시간 견뎌내는 인내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구조선이 멀고 긴 시간에 걸쳐 도착하여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아내와 작은딸과 함께 대륙을 횡단한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텍사스쪽으로 가서 워싱턴,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시카고로 다녀왔는데, 그 소감은 한마디로 다시는 이러한 여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가족 모두가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넓은 미국 땅을 달리며 다시는 이런 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행진' 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출발해서 워싱턴까지 먼 길을 몇 달 며칠 걸려 가고야 말았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내어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참가자 중에는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개척정신이 발휘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용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끈기가 없다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열들 가운데 각자 신앙의 타입이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이삭은 순종의 믿음을, 야곱은 봉사의 믿음, 모세는 애국의 믿음, 여호수아는 정열의 믿음, 예레미야는 눈물의 믿음, 아모스는 의의 믿음, 호세아는 사랑의 믿음을 그리고 욥은 인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약 5 : 10~11)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친구가 떠나가고 심지어 아내마저 남편인 욥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나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욥 42 : 10).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년 동안 손해를 본 것이 있었습니까? 욥과 같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다가오고 있는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아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남녀가 무착륙, 무급유의 상태로 세계일주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보이저 호를 타고 여행을 하였는데 비행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 한 사람은 반쯤 선 자세로 조종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작은 공간에서 배를 아래로 깔고 누워서 있었습니다. 서로 교대를 하며 9일 간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향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남들처럼 놀고 싶은 것을 참고 공부에 전념을 다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참아 주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 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과 인내로 행하며, 사회 생활에서 나와 다른 인종의 주인이 뭐라고 야단쳐도 웃으면서 참아내도록 합시다. 지금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어도 기도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합시다. 어떠한 위치와 형편과 환경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4)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졌다면 확신이 있어야 완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고, 100% 못하면 반이라도 하겠다는 각오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 사람은 3층집을 지을 때 3대에 걸쳐 짓는다고 합니다. 지하실은 할아버지가 짓고, 1층은 아들이 짓고, 2층은 손

자가 짓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겠습니까? 즉 먼 장래를 내다보고 대전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 : 13)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교육관을 짓는데, 어떤 분이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과연 교육관을 끝까지 지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단지 2천 명 넘는 장병들이 힘을 합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가능합니다. 민수기 13~14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차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북전쟁 때 남군이 유리할 때였습니다. 북군이 자꾸 밀려 워싱턴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와서 국회의사당 짓는 것을 잠시 중단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승리의 축하파티를 그곳에서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 건물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곳에서 승리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금년은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과거와 함께 우리의 실패, 아팠던 마음, 성공했던 것을 다 떠내려 보내고 꿈을 싣고 오는 새해는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용기와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성취적인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의 결산

마태복음 25장 14~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은 하루 일을 저녁에 결산하고, 한 달의 일은 월말에 결산하고, 또 1년의 일은 1년의 마지막 달에 가서 결산합니다. 드디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산하시려고 합니까? 사람이 진실로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이 결산이야말로 어느 결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 손해를 본들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마지막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인생을 참 지혜롭고 복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 생활의 결산을 해야 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다른 나라로 출타를 할 때 종들을 불러 각기 다른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대의 화폐 단위 중 달란트와 세겔이 있는데 달란트는 중량이 큰 것으로 가장 큰 단위를 말하고, 세겔은 좀 가벼운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각 종들에게 다르게 달란트를 준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그릇을 모두 알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다르게 주셨습니

다. 즉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쓰임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재능을 받았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의 재능을 받았고, 또한 경제인, 군인, 과학자, 의사, 스포츠, 예술, 농업, 성직 등 각각의 모습과 능력 속에서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전문 분야별로 나뉘고, 운동도 종류별로 있고, 신학도 많은 분야로 나뉘어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내게 있는 재능과 분량은 내가 원하고 갖고 싶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의 은사와 능력,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언어에 재능과 소질이 없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남보다 나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둘째, 종들의 활동 능력이 각각 달랐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 체력, 재능, 시간 등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장사하여 두 배의 이익을 남겨 열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게을러서 장사할 생각도 없었고, 돈 벌 의욕도 없어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는 도둑을 맞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므로 돈을 땅에 파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들의 재능과 활동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셋째, 돌아온 주인은 종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맡겨 두었던 달란트에 대해 결산을 원하였습니다. 이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 그 달란트의 배로 남기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충성된 종' 이란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충성' 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낱말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진실하다', '주인이 맡긴 대로 일을 본다',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 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태만에 빠져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일하지 않고 대신 인간의 수고한 대가를 착취하는 수전노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주인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고, 자신의 생활 철학도 오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24~25절). 이 말은 주인을 대적한 말이며 주인을 불로소득자로 간주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배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 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얼마를 맡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재능 이외의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재능과 분량을 얼마나 선용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

마다 나누어 받은 달란트가 같을 수 없지만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은 갖가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력하는 성실함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남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보기에 사람되고 모든 일에 분명하고 장래성 있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많이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잘 활용해서 선한 일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사실이었는데, 이병철 씨의 후계자도 맏아들이 아니라 재산 관리를 잘 할 만한 능력 있는 아들을 택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받은 은사와 재능이 작든 크든 활용해야지, 땅에 파묻어 두면 그것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도 재능이나 기술이나 훈련을 하면 할수록 발전하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치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점점 피아노 실력이 줄게 되는 것이며, 노래부르는 사람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해야 아름다운 음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또한 미술 분야의 사람,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계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만 더 가지

고 왔어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가져온 사람에게 칭찬하듯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였기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경과 사랑, 감사와 찬양,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운 대상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대상으로 알아야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정이 통하겠습니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운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부자간에 사랑과 행복과 희망은 사라지고, 공포만이 존재하여 불안한 관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기도 싫고 은행에 넣어 변리를 받는 것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그 돈을 활용하여 결산할 때는 이자를 붙여 가져오라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게으른 탓에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만 했더라면 얼마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사 노력을 했으나 이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주인은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이해하며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 사명 등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명한 초대 감독 크리소스톰은 "흐르는 시냇물은 맑고, 연못은 썩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자꾸 사용하는 것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맑습니다. 또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연못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없어서 썩는다

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계속 쓰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종자를 심는 자에게 또 종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재능이나 물질, 능력, 재량 등을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파묻어 두고 가만히 있다면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얼마나 받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쓰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을 모두 쓰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교회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조금이라도 규칙적으로 읽었습니까? 기도를 매일 드렸습니까? 십일조를 하였습니까?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매주 봉사를 하였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였습니까? 충성이란 맡은 일이 적든지 많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보지 않고 말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하였습니까?

금년이 가는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결산해 드리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분명히 최소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한 가지 이상씩은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안 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능을 쓰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잃고 맙니다. 쇠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못 쓰게 됩니다. 받은 바 재능을 가지고 사명

에 충실한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쓰지 않고 땅에 묻은 사람은 책망받고 재능을 빼앗겨 슬피 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해를 회고해 보고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여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새로운 계획과 결단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이 여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의 결의

빌립보서 3장 12~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일년 동안 지내 온 삶을 점검하여 볼 때,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잘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다음에는 분명 내일의 시작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아 마음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 속에서 힘을 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온 뒤의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회고주의의 사람과 항상 앞만 내다보며 사는 미래지향주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대개 노인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쌀가마를 어깨에 들어올리곤 했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고……." 즉 과거 속의 모

습을 끄집어내어 아쉬움과 회고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항상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발전과 성공이 가능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13~14절).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희망,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며 이런 사람은 발전하고 성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장모와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큰사위는 세탁하는 일(세탁기계가 없던 시대에는 햇빛에 세탁물을 말림)에 종사하고, 작은사위는 우산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위의 장모는 매일 걱정 속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늘을 보며, 날이 좋을 것 같으면 '오늘은 우산 장사하는 둘째사위가 장사를 못 하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것 같으면 '오늘은 맏사위가 재미를 못 보겠네!' 라고 혼자서 걱정스러워합니다. 따라서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날이 맑으면 큰사위가 돈을 벌어 좋을 것이고, 비가 오면 작은사위가 돈을 벌 텐데 하고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 늙은 두 내외가 독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조그마한 망아지가 있었는데 식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망아지가 집을 나가서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안됐군요. 자식과 같이 여기던 식구 하나가 없어졌다니……." 그랬더니 "두고 봐야 알지요." 하며 노인이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얼마 있다가 조그만 망아지가 큰 야생마 한 마리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 와서는 "아이구, 얼마나 좋습니까? 큰 말 한 마리를 더 끌고 왔으니……." 그랬더니 또 그 노인은 "두고 봐야 알지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큰말이 뒷발질을 해서 독자 아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 와서 "안됐군요." 하니까 "두고 봐야 알지요."라고 거듭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는데 모든 젊은 사람을 징용으로 잡아갔습니다. 그곳에 끌려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징병을 당하지 않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애매하게 옥중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알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결국 감옥에 들어가 애굽의 장관 둘의 꿈을 해석해 준 덕택으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일곱 해 풍년 때에 곳간에 양식을 쌓아 두었다가 칠년 흉년 때에 풀어서 애굽과 이웃 나라를 살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의 식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금년 일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해를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내년에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두 사람씩 여섯 조를 만들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땅과 거민이 어떠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과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40일 동안 돌아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 : 7~9).

나중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긍정적 보고자들은 모두 그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되는 경우라도 될 수 있다는 용기와 소망의 긍정적인 말과 행실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그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24년 전에는 저희 교회 장년의 수가 300여 명도 못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을 625,000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125,000 달러는 전 건물을 팔아서 지불하였고 500,000 달러는 15년 동안 매달 5,400 달러씩 갚아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헌금

이 3,000 달러밖에 안 되어 제가 밤마다 돈을 꾸러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임 목사는 지금 무모한 짓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이민 사회에서 이만한 건물이 있어야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는 의지와 신념 속에서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대금을 다 치르고 교회 본건물과 제1교육관, 제2교육관, 아파트, 또 주위에 주차장 여덟 채의 집을 사는 역사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 : 13),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 : 28)라는 힘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새해에도 불경기가 계속되면 어떡하나?'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푯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가 달려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딤후 2 : 5). 경기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처음부터 아무리 잘 뛰고 선두로 달려가는 선수라도 마지막에 들어오는 테이프를 끊지 않으면 금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만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 인생의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어디를 가기 위해 길을 나서면 수많은 차들이 도로에 가득 차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두 직장인으로서 직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 이 직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싶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살기 위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무직자들은 목표를 잃었거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아침부터 차를 가지고 길가로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간가는 대로 지내다가 잠자리에 들고 또 그렇게 하루를 의미 없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가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없다면 지금 정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향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1809년 2월 10일, 미국의 어느 가난한 가정에 남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겨우 2학년 정도 다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낸시라는 서모가 아주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의 나이가 여섯 살 정도 되었을 때 한번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어느 도시에 갔다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경매에 붙여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네 식구가 팔려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다 각각 팔려 가므로 서로 울면서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악법을 폐지시키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

래서 그는 집에서 법학을 독학하고 변호사가 되어 훗날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 23세에 주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9세에 주의원 의장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했고, 31세에 대통령 선거위원에 낙선, 34세에 국회 하원의원에 낙선, 37세에 또 낙선, 39세에 하원의원에 낙선, 46세에 연방 상원의원에 낙선, 47세에 부통령 출마했다가 낙선, 49세에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낙망치 않았고, 결국 51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목표로 삼았던 노예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하였습니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하고, 백인으로서 처음으로 노예에게 45도 각도로 절을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굳은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로스엔젤레스 시의원 중에 맥사 파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아들보다도 늦은 35세에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를 하였는데, 25년 동안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4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48번째 합격이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성공으로 이끈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1,300가지의 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한 가지 연구를 해도 항상 실패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것 하나 가지고 몇 해가 걸리고 만 번을 실험해도 안 되었다는데 무슨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그걸 붙잡

고 계십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심각한 얼굴로 기자를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미 여기에서 위대한 것 하나 발견했네. 만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네." 그 후로 그는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주일 학교를 가르치던 오리건의 임용근 주 상원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떨어졌지?" "네, 떨어졌습니다." "링컨을 생각해라." "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변경하지 말고, 도중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에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주 교육 감사관이 우리 신학교를 이틀 동안 감사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모든 장부 살피기,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인터뷰 등 여러 가지를 마친 후 끝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학교 책임자이니까 내가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뜻으로 이 신학교를 세웠으며 이 학교의 장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것은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함이요, 열성적인 선교사를 기르기 위함이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래 꿈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계 하버드 대학, 한국계 예일 대학, 한국계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이 "꿈이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언젠가는 좀 더 나은 학교가 되겠네요."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학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인즉 미국 신학교가 많은데 굳이 한국 신학교를 세워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신학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거나 대학을 나와서 미국 신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업을 한 뒤 당장 교회 개척이나 외국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전도사나 부목사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가 나이가 든 집사나 장로들입니다. 물론 그중에 전도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로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안에서도 목회하고, 남미나 중미, 러시아, 중국까지 가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신학교를 졸업한 조원하 선교사는 러시아에서 6년 동안 수고하여 신학교 1회 졸업생 28명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많은 러시아 신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공부하여 러시아를 구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 우리 신학교도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셋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가 화려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기억에는 남을 수는 있지만 다시 오지 못하는 영원한 과거입니다. 또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잠 27 : 1)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전 앵커리지에서 300여 명의 승객들을 태운 KAL 여객기가 소련의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본 고베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이러

한 일이 생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괌에 놀러가다가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또한 누가 짐작이라도 하였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한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챌린저 13호가 공중에서 가루가 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없애고 신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가.' 하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한 마귀가 "의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시다." 하고 말하자, 의장은 "그러면 순교자가 많이 날 뿐이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마귀가 "모두 감옥에 집어넣읍시다."라고 말하자 의장은 "그럼 기도들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마귀가 "교회 나가라고 하십시오. 성경 보라고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전도하라고 하십시오. 십일조 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일 하라'고 가르치십시다."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내일! 내일! 내일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마귀 중에서 제일 못된 것이 '차차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차차 해야지, 차차 끝내야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차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두지 말고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 교회에 다니면서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해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성령님께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내일 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필요하다면 바로 오늘 하십시오.

제가 6 · 25 한국전쟁 당시 여주읍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부산에 와서 안수받고 동래 온천에서 피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날은 토요일로 적산 가옥을 사서 다 뜯어 개조하는 날이었습니다. 설

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때 소식이 오기를,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여주읍의 황명준 집사님의 막내아들이 군인으로 나와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고 일선으로 배치되기에 앞서 지금 동래 고등학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 보아야 했지만 다음 날이 주일이라 여러 준비가 필요해서 그만두고 월요일 아침에 집사람과 과일을 장만하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가 보았습니다. 영문에 가서 그의 이름을 대고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군인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선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를 기다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여주에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내외는 그 일선 쪽을 향해서 눈물지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선은 지체하지 말고 생각났을 때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나 알게 되면 즉시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 더한 악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매오라는 맹인 거지가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고쳐 달라고 애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말하며 바디매오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매오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막 10 : 46~52). 만약 바디매오가

그때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면 영영 이 세상에서 저 달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흘러가는 흰구름도 못 보았을 뿐 아니라 귀한 것들을 평생 못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잘 포착해서 예수님을 잡고 매달려서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넷째, 작은 일부터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 : 10).

충성은 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충성을 이야기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풀어 나가야 큰 것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국 어떤 공장 지대에서 큰 굴뚝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을 다 끝내고 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아시바라는 나무로 만든 다리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려온 줄로 알았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고 있던 중에 제일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양말 있지? 양말 실을 네가 풀어서 내려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혼자 있던 그 사람이 양말 실을 풀어 내리니까 노끈 작은 것을 묶어 올려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노끈에 새끼줄을 올려 보내고, 거기에다 밧줄을 올려 보내서 그 밧줄을 타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

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이 엉켰을 때 하나씩 풀어 나가야 잘 풀리듯이 차근차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카알라일은 몇 년에 걸쳐 「프랑스 혁명사」를 탈고하였습니다. 그 원고를 존경하는 친한 친구에게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원고를 받아 본 그 친구는 밤이 깊도록 카알라일이 쓴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여 다 읽지 못하고 내일 일어나서 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불 꺼진 난로 위에다가 그 원고를 놔두고 들어가 자다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그 원고를 다시 보기 위해 난로 위를 보았더니 원고가 없었습니다. 가정부에게 물어 보았더니 아무 쓸모 없는 종이인 줄 알고 아침에 불쏘시개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졸이고 있다가 카알라일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기로 하고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카알라일은 크게 낙심되었습니다. 몇 해 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쓴 것인데 순식간에 잿가루가 되었으니 큰 낙망뿐이었습니다. 매일을 기진맥진한 가운데 보내다가 하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다가 자기 집 앞에 벽돌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을 놓고 그 다음 두 장, 석 장……. 그 이튿날에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더니 얼마 안 되어서 큰 벽돌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순간 카알라일은 '옳지! 나도 하루 한 장씩만 더 쓰자.' 하고 마음먹고 다시 시작해서 썼더니 처음에 쓴 것보다 더 나은 「프랑스 혁명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날 저녁에 설교할 원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카알라일의 의지를 생각하면서 한 장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

은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벽돌 한 장씩 쌓아 가는 심정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결과가 전보다 훨씬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에서만 찾아보아도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는 부도로 쫓겨 다니고 실패와 낙심을 맛본 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어려움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시작하여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헌신을 한 후 성령을 받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에 삼천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행 2 : 41). 후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대구시에 배기복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화

회사의 상당한 위치의 간부이신데,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보고, '야! 창피하다. 장로 자식이 떨어졌으니, 내가 기도한 것을 모두가 비웃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번에 떨어짐으로써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는 재수생하고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해 보니까 그들의 아픔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의과 대학의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서울대학에서는 일년에 십여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일등만 하던 아이가 서울대학에 오니까 성적이 떨어져 괴로워하다가 포기한 나마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야! 아버지 체면도 있지, 목사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색시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 공부 좀 해라." 하고 말하였다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그러지 마! 정주영 씨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갔지만 박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어. 우리가 닭을 수만 마리 먹이는데 대학 안 나와도 이다음에 닭을 치면 수만 마리의 사단장이 될 텐데 뭘 그래?" 라고 했답니다.

저는 실패한 가운데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1972년 허경삼 목사님께서 켄터키의 애즈베리 신학을 나오고 한국의 교수로 갈

때 저에게 중고차 한 대를 그냥 주셨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5월 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때 교회 권사님들과 제 아내와 함께 빅 베어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차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여기서 죽나 보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내려오긴 하였습니다. 뒤에 앉으신 권사님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서 '깔깔깔' 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밑의 주유소까지 무사히 도착했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운전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운전을 못 배우고 적당히 배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2단에 놓거나 3단에다 놓아야 하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게 터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때로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허술히 여기지 마시고, 작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루하루 진실되고 의롭게 사시면 여러분의 장래는 밝을 것이고, 반드시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는 며칠이 지나면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의 설계와 생활의 설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삽시다.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나갑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 하시고, 작은 일부터 풀어 나갑시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좀더 발전적이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절기설교 모음집 –

회고와 전망

•

2000년 6월 30일 1판 1쇄 발행
2000년 12월 15일 1판 2쇄 발행
지은이/임동선
발행인/이형규
발행처/쿰란출판사
서울 · 종로구 연지동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대표전화), 745－1301~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www.qumran.co.kr
E-mail ; qumran@shinbiro.com
qumran@hitel.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2,000원

책임교열 : 송은주 · 김영미

ISBN : 89－7434－527－7 93230